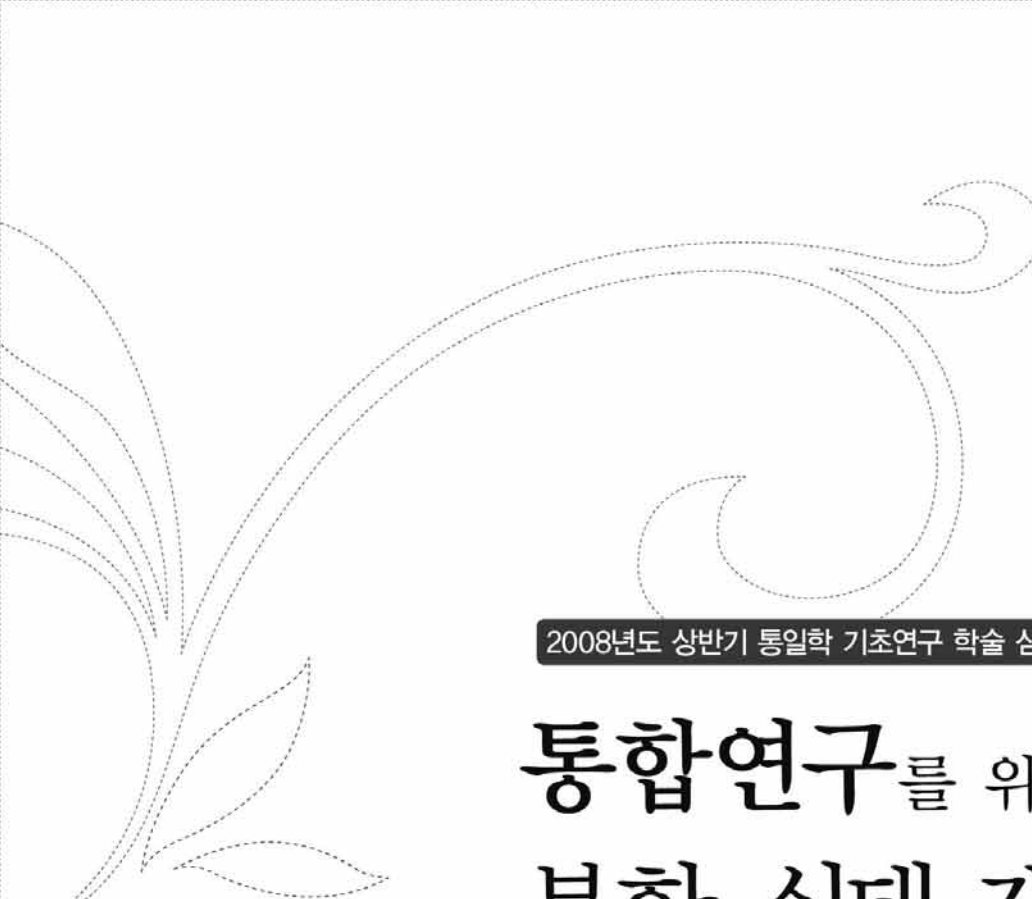




2008년도 상반기 통일학 기초연구 학술 심포지움-제2차

통합연구를 위한 북한 실태 재조명(Ⅱ)

법 / 인구 / 생태

일시: 2008년 2월 27일(수) 10:00-17:50

장소: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문화관 2층) 세미나실

통합연구를 위한 북한실태 재조명: 보건 / 복지

일시: 2008년 2월 19일(화) 14:00-17:50
장소: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문화관 2층) 세미나실

제 1 회의 보건 / 복지 I _ 14:00-15:50

사회 : 이 순 형 (서울대 소비자아동학부 교수)

제1발표 1960 · 70년대 체제 안정기의 북한보건의료

발표 황 상 익 (서울대 의학과 교수)

토론 황 나 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공보건의료팀장)

제2발표 남북한의 장애정책 및 장애인에 대한 태도 비교

발표 김 금 순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

토론 이 금 순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제 2 회의 보건 / 복지 II _ 16:00-17:50

사회 : 박 재 형 (서울대 의학과 교수)

제3발표 통일과정에서의 북한 어린이 건강향상 방안에 대한 연구

발표 정 광 호 (서울대 행정학과 교수)

토론 백 재 중 (녹색병원 내과 과장)

제4발표 탈북청소년의 건강위험 실태조사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발표 정 효 지 (서울대 보건학과 교수)

토론 박 윤 숙 (세계사이버대학 사회복지과 교수)

통합연구를 위한 북한실태 재조명: 법 / 인구 / 생태

일시: 2008년 2월 27일(수) 10:00-17:50
장소: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문화관 2층) 세미나실

제 1 회의 법 · 인구 _ 10:00-11:50

사회 : 전 인 영 (서울대 명예교수)

제1발표 북한의 국제법에 대한 태도분석: 북한 국제법사전을 중심으로

발표 이 근 관 (서울대 법학과 교수)

토론 유 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제2발표 북한의 인구: 1990년대 경제난/기근과 인구변동의 관계

발표 박 경 숙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토론 노 용 환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

제 2 회의 사회단체 · 여성 · 노동 13:30-15:50

사회 : 박 명 규 (서울대 통일연구소장)

제3발표 북한 사회의 체제유지 기제에 관한 연구:

외곽단체(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조선민주여성동맹)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발표 이 온 죽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

토론 서 재 진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

제4발표 '남북여성교류'와 남북여성의 통합화에 관한 연구

발표 배 은 경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토론 김 귀 옥 (한성대 교양학부 교수)

제5발표 **통일 후 남한 기반 산업체 취업을 위한 북한 이탈주민의 기초직업능력
분석요구**
발표 이 용 환 (서울대 농산업교육과 교수)
토론 신 한 승 (한국노동교육원장)

제 3 회의 **환경 · 생태 _ 16:00-17:50**

사회 : 홍 성 욱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제6발표 **북한 가뭄 특성 분석 및 가뭄 우심지도 작성**
발표 최 진 용 (서울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토론 권 태 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7발표 **DMZ 지역내 생태환경 보전방안 및 관리지침서 개발**
발표 신 남 식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주 승 진 (서울대 수의학과 연구원)
토론 손 기 웅 (통일연구원 평화기획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목 차

제 1 회의 법·인구

- 제1발표 **북한의 국제법에 대한 태도분석: 북한 국제법사전을 중심으로** 3
이근관 (서울대 법학과 교수)
- 제2발표 **북한의 인구: 1990년대 경제난/기근과 인구변동의 관계** 17
박경숙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권태환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제 2 회의 사회단체·여성·노동

- 제3발표 **북한 사회의 체제유지 기제의 성격과 변화에 관한 연구: 외곽단체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조선민주여성동맹)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69
이온죽 (서울대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교수)
이인정 (서울대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박사)
- 제4발표 **‘남북여성교류’와 남북여성의 통합화에 관한 연구** 131
배은경 (서울대 사회학과/여성학협동과정 조교수)
문소정 (서울대 여성연구소 책임연구원)
- 제5발표 **남한 기반 산업체 취업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기초직업능력 요구 분석** 155
이용환 (서울대 농산업교육과 교수)

제 3 회의 환경·생태

- 제6발표 **북한 가뭄 특성 분석 및 가뭄 우심 지도 작성** 189
최진용 (서울대 농협생명과학대학 교수)
- 제7발표 **DMZ 지역내 생태환경 보전방안 및 관리지침서 개발** 211
신남식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주승진 (서울대 수의학과 연구원)

제1회의 법·인구

제1발표 : 북한의 국제법에 대한 태도분석: 북한 국제법사전을 중심으로
이근관 (서울대 법학과 교수)

제2발표 : 북한의 인구: 1990년대 경제난/기근과 인구변동의 관계
박경숙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권태환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제1발표

북한의 국제법에 대한 태도분석: 북한 국제법사전을 중심으로

이근관 (서울대 법학과 교수)

북한의 국제법에 대한 태도분석 - 북한 국제법사전을 중심으로

2008년 2월 27일
이근관(서울대 법대 부교수)

I. 연구의 목적 및 의의

- ◆ 북한이라는 정치체에 대하여 국제법은 어떻게 정의되며 또한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
- 북한이라는 정치체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
- 북한에 대한 각종 정책(eg, 비핵화, 인권 등)의 실효성 보장 확보
- 통일 후 국제관계의 원활한 정비(eg, 조약 승계)

3

II. 연구방법론

1. 사회주의 국제법 개념과의 연동 관계에 초점을 맞춰 북한 국제법관을 분석
- (1) 소련 국제법 변천의 시대구분 (Grzybowski의 소론을 응용)
 - 제1기: 1917-1930
 - 제2기: 1930-1938

4

-
- 제3기: 1938-1953
 - 제4기: 1953-1985
 - 제5기: 1985-1991
 - 제6기: 1991-현재

(2) 중국 국제법의 변천

5

2. 북한의 국제법 자료에 대한 비교 분석

(1) 분석대상자료

- 1) 사전류: 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국제법사전(사회과학출판사, 2002)

6

.....

2) 국제법교과서: 현대국제법연구(과학백
과사전종합출판사, 1988), 국제법학(법학
부용)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2)

3) 각종 논문

4) 신문기사 등 언론자료

7

.....

(2) 분석의 방법

1) 통시적(diachronic) 분석

eg) 1971년 법학사전과 2002년 국제법사전
내용의 비교

8

2) 공시적(synchronic) 분석

eg)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에 관한 2002년 국제법사전 내용과 같은 시기에 발표된 논문 및 언론자료에 대한 비교

3. 북한 국제법과 여타 사회주의국가(eg, 중국, 베트남) 국제법의 비교

9

III. 북한 국제법에 대한 통시적 분석 - 『국제법사전』을 중심으로

1. 국제법의 정의

(1) 1971년 법학사전

“국가들간의 투쟁과 협조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를 규제하며 개별적 국가 혹은 여러 국가들의 강제에 의하여 그 준수가 보장되는 행위준칙”

10

“오늘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그 침략과 약탈적 본성으로부터 현대국제법의 공인된 원칙과 규범들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일방적인 예측과 복종관계를 강요하고 있으며 수다한 비법적인 《국제법적규범》을 조작하여 사회주의 나라들과 신생독립국가들을 반대하는 침략책동을 감행하고 있다.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이 현대국제법의 공인된 원칙을 짓밟고 조작한 일체의 《국제법적규범》들은 현대국제법과 랑립될 수 없으며 국제법규범으로 인정될 수 없다.”

11

(2) 1988년 현대국제법연구

“현대국제법은 자주성을 옹호하는 국가들 사이의 국제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행위 규범이며 자주성을 반대하는 반동세력과 의 투쟁의 무기이며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 수행의 법적 담보”

12

(3) 1992년 국제법학

“국제법은 국가들의 의사의 반영으로서 국가들간의 합의의 방법으로 제정되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분야에서 국가들간의 협조와 투쟁 관계를 규제하며 국가의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적용하는 강제조치에 의하여 그 준수가 보장되는 국가들의 행위 준칙의 총체”

13

(4) 2002년 국제법사전

“국제관계에서 국가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규범들의 총체. 국제법은 합의하는 형식으로 제정된다.”

14

“국제법은 국제관계의 규범으로서 국제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데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국제법은 국가사회제도에 비하여 조직화, 체계화되지 못한 국제사회를 그 기반으로 하여 형성, 전개, 적용되는 규범인 만큼 모든 면에서 국내법에 비하여 불충분한 점들이 많다. 이것은 앞으로 국제사회계가 완성시켜야 할 문제이다.”

15

2. 동서진영 간 적대적 인식의 완화

(1) 범죄인인도제도(extradition)

– 범인인도제도(1971)

“사회주의 국가들간에 있어서 이 제도는 계급적 원수들의 반항을 진압하는 법률상 방조의 한 수단으로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협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국제법상 범인인도제도를 란폭하게 유린하고 범죄자들을 사회주의나라를 비롯한 다른 나라를 반대하는 침략의 도구로 리용하고 있다.”

16

– 범죄자인도제도(2002)

“우리 공화국은 로씨야를 비롯한 일부 나라들과 법률상 방조조약을 체결하고 범죄자인도사업에서 서로 협조하고 있다.”

17

(2) 북대서양조약기구

– 《북대서양조약동맹》(나토) (1971)

“《북대서양조약동맹》은 세계제패를 실현해보려는 미제의 침략책동의 직접적 산물이다.”

– 북대서양조약 (2002)

“미국과 유럽나라들 사이에 체결된 군사동맹조약.”

18

3. 미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

(1) 표기순서의 변화

《일미안전보장조약》(1971)
→ 미일안전보장조약(2002)

19

(2) 내용적 변화

- 미주국가기구(1971): “미제가 라틴아메리카 나라 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탄압하며 이 지역 나라들에 대한 정치, 경제, 군사적 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꾸며낸 침략기구”
- 아메리카주국가기구(2002): “미국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에 대한 정치, 경제, 군사적 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해 만들어낸 지역기구”

20

4. 외교관계 변화의 반영

- 《북대서양조약동맹》(나토) (1971)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급속히 재생된 서부독일군국주의자들은 대대적으로 침략 무력을 증강하는 한편 구라파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는 각종 도발과 간첩, 파괴, 암해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면서 침략전쟁준비에 미쳐날뛰고 있다.”

21

IV. 결론에 대신하여

- 《국제법사전》을 내면서

“날을 따라 확대강화되고 있는 나라의 대외적 관계는 국제법분야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지식을 요구하고 있다. 편찬집단은 절실한 사회적 요구에 적으나마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부터 지난 시기 국제법 분야에서 이룩된 학술적 성과들에 토대하여 《국제법사전》을 세상에 내놓는다.”

22

-
- 위에서 언급한 변화들은 좀더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전환(eg, 도구주의적 국제법관의 변화)을 의미하는가? 이러한 전환을 폭넓게 이끌어냄으로써 북한과 외부세계 간의 상호접촉면(interface)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접근방법이 필요할 것인가?



제2발표

북한의 인구: 1990년대 경제난/기근과 인구변동의 관계

박경숙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권태환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I. 연구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북한 인구의 동태는 오랜 동안 베일에 쌓여있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북한의 인구동태에 관한 정보는 외부에 거의 전해지지 않았다. 북한 인구에 대한 정보가 외부세계에 부분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이다. 그런데 최근에 이르기까지 북한 인구의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Eberstadt와 Banister(1990)가 북한이 1989년 발표한 자료에 기초하여 인구의 변화를 분석한 것이 아마도 유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1993년 북한은 처음으로 인구센서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외부에 발표하였는데 이 자료를 활용하여 북한 인구의 구조를 추계한 연구들이 여러 편 있다(김두섭, 2001; 노용환, 연하청, 1997; 이삼식 외, 1999; 정기원, 이상헌, 1992). 그러나 이들 연구들에서도 북한의 인구 동태의 심층적인 특성들이 직접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1980년대 이후부터 경제난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 식량생산의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자연재해, 집단적 농장체제의 비효율성,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와 대외적 고립의 부정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식량생산이 크게 감소하였고, 식량 배급의 양과 빈도도 제한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이금순, 2005; 이석, 2004). 그리고 1996-1998년 기간 절대적 생존에 필요한 식량 획득이 충족되지 못하여 대규모의 기아사태의 위험이 컸다고 한다. 기근은 절대적 빈곤의 극단적인 예가 된다. 기근은 생존과 정상적인 생활을 불가능하게 하여, 생산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불안과 공포를 일으키고, 가족의 해체와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질 수 있다.

기근의 충격이 인구 동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사망률의 증가이다. 1990년대 초반까지 감소하였던 사망률은 1994년-1996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다. 2000년 이후 사망률이 개선되는 경향이 보이지만, 1990년대 초반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기근의 영향은 장기적으로 북한 주민 전체의 건강 결핍으로 확대되어, 신체발달장애나 높은 이환율로 표출될 수 있다.

기근/경제난은 출산행위에도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사회주의

사회안에서도 문화적 가치나 지배체제의 성격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탁아, 교육 등 재생산을 지원하는 제도가 발달된 공통점을 가졌다. 이런 제도적 지원의 덕택으로 출산율이 안정화되었다고 이해된다.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보편적 교육, 복지체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였고, 경제위기에 대응하면서 육아나 교육 부분에서도 개별 가족의 사적인 지원의 부담이 커졌을 수 있다. 이런 부담이 출산지연 행위로 이행하였을 수 있다.

기근/경제난과 인구 구조의 또 다른 연관은 이동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북한은 인구이동이 엄격히 계획되고 통제되었다. 그런데 경제난 이후 북한지역 주민의 삶에 유동성이 커진 징후가 여러 부분에서 관찰된다. 경제난이 심각한 시기에는 국경을 넘는 주민들이 많았으며, 장사나 경제적 활동을 위해 이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국경 통제가 강화되면서 탈북자의 규모는 제한되었지만 이전의 정주방식에서 상당한 벗어난 삶의 방식이 확산되었을 수 있다.

이 연구를 기획하였을 때 만해도, 연구의 관심은 1990년대 후반의 기근상황과 경제난에 따른 인구변동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제난 이후 1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북한주민들의 생활과 태도를 가로지르는 그리고 그 결과로 빚어지는 인구구조의 변화는 단순히 경제난의 재앙으로만 해석될 수 없는, 새로운 조건들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삶의 방식들이 구조화된 과정이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변화는 진행 중에 있지만 그 의미가 훨씬 적극적일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 인구의 퍼즐들을 풀어나가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북한 사회의 특성과 변화 모습을 읽어내는 것을 기대한다.

인구학자들은 북한연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본격적인 연구를 수행하는데 상당히 주저하였다. 인구학은 정확하고 엄밀한 자료에 바탕을 두는데 북한의 인구 변천을 읽어낼 수 있는 자료가 제한되고 그 자료의 정확성도 매우 의심스럽다는 것이 인구학자들의 공통된 입장인 듯하다. 또한 학술적으로 자유롭게 북한 연구를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오랫동안 금기시되었던 것도 원인이 된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닫혀졌던 인식의 경계를 뛰어넘어 통일된 한반도 시대를 준비하는 중요한 기초자료와 지식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2. 연구 내용

1) 본 연구는 2차 년도에 걸쳐 북한 인구의 특성을 분석할 것임.

- (1) 1차 년도에는 인구추정을 위한 기초 자료의 수집과 보정작업 및 추정방법을 개발할 것임.
- (2) 2차 년도는 1차 년도에 개발한 자료와 방법에 기초하여 북한의 인구 구조 및 동태를 추정할 것임.

2) 1차년도의 주요 과제는 기존에 발표된 북한 자료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검정, 보정하고, 추정방법을 개발하는 것임.

- (1) 다른 통계치에 비해 인구통계는 쉽게 접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인구 비율 사이의 내적일관성이나 정확성에 논란의 여지가 큼.
- (2) 여러 곳에 산만하게 발표되고 추정된 인구 비율들의 정확성을 체계적으로 검정하고자 함.
- (3) 경제난 전후 인구동태는 크게 변화된 것으로 예상됨. 경제난 전후 인구비율들의 변화들을 체계적으로 평가함.
- (4) 자료를 보정하고, 경제난 전후의 인구동태의 변화를 추정하기 위하여, 탈북자 심층면접을 통해 출산, 사망, 이동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할 것임.
- (5) 보정된 자료에 기초하여 인구동태 및 구조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함.

3) 2차 년도의 주요 과제는 1950년에서 현재까지 북한 인구 구조의 변화를 추정하고, 경제난과 인구변천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임.

- (1) 1차 년도에 재구성한 인구 자료와 추정방법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추정방법을 결정함.
 - 전문가 검정을 통해 보정자료와 추정방법의 타당성을 평가받음.
 - 탈북자 개별 면접 및 집단면접을 보완하여 보정 및 추정방법의 완전성을 기함.
- (2) 1950년대-1993년(센서스 조사 시기)까지의 인구구조, 출생, 사망, 이동의 동향을 추정함.
- (3) 1993년-2004 시기의 인구구조, 출생, 사망, 이동의 동향을 추정함.
- (4) 2004년-2050년 시기의 장래인구를 추계함. 출생, 사망, 이동의 상이한 동태를 가정하여 장래인구를 추정함.
- (5) 경제난 이후 인구동태 사이의 관계를 분석함.

Ⅱ. 1차년도 연구 결과 요약

이 연구는 북한 인구의 구조와 변천과정을 분단이후 2007년 시점까지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 내부의 사회, 경제적 변화나 인구구조의 변동은 외부인의 신분에서 분석하기가 매우 힘든 주제이다. 접근할 수 있는 자료가 제한되고, 또 접근할 수 있는 자료의 신뢰도를 확인할 수 없기에 북한을 이해하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놓여 있다. 북한의 인구에 대한 연구도 이와 같은 자료 장벽에 부딪치게 된다. 국제기구나 국내 통계청에서 생산하는 자료에는 북한의 인구 정보가 포함된다. 문제는 대부분의 정보들이 인구 변동에 대한 특정한 가정에 근거한 ‘추정치’들이라는 점이다. 아무리 관찰에 정확성을 기하더라도 실체에 대한 접근은 추정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 추정의 근거가 얼마나 설득력을 가지는가이다. 그러나 이곳 저곳에서 인구통계치들이 유통되고 있지만 그 구체적 통계치들이 어떤 근거에서 생산되었는가에 주의하는 시선은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인구자료가 대부분 추정치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게 다반사다. 이런 중에 인위적으로 구성된 수치들이 현실로 전환되고 사실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북한의 인구는 얼마이고, 평양의 인구는 얼마이고 하는 용감한 주장들이 곳곳에서 들린다. 또한 인구학자도 이미 만들어진 인구 통계치들을 무비판적으로 이용하는 소비자이기도 하였다.

이 연구는 이미 생산되고 순환되고 있는 북한 인구 자료들의 신뢰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 연구는 북한 인구 변화의 내적 동학 및 그 사회적 연관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토대로 북한 인구를 추정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2차년에 걸쳐 수행하는 주제로 기획되었다. 인구구조에는 과거의 동학의 흔적이 남겨져 있다. 만일 근거 있는 기준 인구구조를 구성할 수 있다면 이 구조를 기준으로 과거와 짧은 미래의 인구 구조를 조심스럽게 추정할 수 있다. 맥락 타당한 기준 인구의 구성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자료의 수집과 면밀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 출산, 사망, 이동과 관련된 자료 뿐 아니라, 분산된 자료들을 연결하고, 비어진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적절하게 자리매김하는 작업이 요청된다. 이런 맥락에서 1차년도의 연구주제는 자료의 수집과 인구 분석 방법의 개발에, 2차 년도는 인구구조의 추정과 분석으로 계획하였다.

1차년도 기간 동안 진행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발표된 북한 인구 자료들의 수집

국내, 국제기관에서 발표된 북한 인구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자료를 인구크기, 연령구조, 지역, 출산, 사망, 경제, 건강, 가족, 이동, 체제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공개된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였다.

나. 인구자료의 정확성과 완전성 평가

발표된 자료의 내용은 매우 기본적인 수치에 제한되며 발표기관에 따라 차이가 큰 것을 확인하였다. 최근 추정치들의 근거가 되는 인구 자료는 북한이 1993년 최초의 센서스라 보고한 자료이다. 그런데 이 자료의 신뢰성이 확실히 보증되지 않으며, 많은 추정치들이 1990년대 경제난의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다. 북한에서는 센서스라고 발표하였지만, 자료의 결측구조나 전반 특성이 신고 자료와 매우 유사하다. 또한, 1990년대 이후 출생, 사망 추정치들이 이전의 패턴을 가정하고, 1990년대 경제난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아, 실제의 인구동학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의심이 남는다.

이 연구에서 다루어야 하는 과제는 1993년 인구자료를 기준인구로 완전하게 구성하는 방법을 찾는 것과, 1990년대 진행된 인구진동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이후의 인구구조를 추정하는 것이다.

1990년 이후의 경제난과 사회, 인구학적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 북한 관련 여러 연구들을 참조하는 동시에, 탈북자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다. 심층자료의 수집과 분석

1990년대 이후의 북한 사회의 변화, 특히 인구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하여 2007년 2월, 3월 동안 국내 새터민, NGO 대표와 인터뷰를 하였고, 오는 6월 23-7월 3일 동안 연변지역 북경지역을 방문하여 북한전문연구자 및 탈북자와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새터민 인터뷰 참여자는 북한에서의 거주지, 성, 연령등을 고려하여 19명을 선정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탈북과정, 북한에서의 가족관계, 지역경제, 학교생활, 노동/직업/군대 생활, 결혼/출산력, 남한에서의 사회관계, 건강, 사회 적응 등을 포함하였다. 탈북자를 지원하는 NGO 단체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원하는 자유시민대학, 조계종이 후원하는 좋은 벗들을 방문하여 실질 대표자에게 단체의 활동과

북한상황, 그리고 탈북자의 생활과 적응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 밖에 북한 사회의 변화에 대한 지식을 생산하는 다양한 기관과 정보를 수집하였다. 연변 지역 답사는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탈북의 경로, 이동의 규모에 대한 정보 및 기왕의 수집한 자료들을 보다 공간에 밀착시킬 수 있는 감각을 얻기 위해 기획하였다.

라. 새터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북한 주민의 인구동태(출산, 사망, 이동)와 가족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2007년 10월 새터민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마. 인구 추계 방법의 검토와 개발

기존의 인구 자료와 연구에 활용된 인구 추계방법을 검토하고, 적절한 인구 개발 방법을 모색하였다. 대내외적으로 인정되는 연구로서, 권태환(1988), Eberstadt & Banister (1992), 그리고 UN의 추정결과, 그리고, 1993년의 북한 발표 인구구조에 대한 연구들을 꼽을 수 있다. 이들 자료의 추계방법을 검토하고, 잠정적으로 이 연구의 추계방법의 몇 가지를 선택하였다. 1) 1993, 1986년 자료 비교를 통하여 사망력 추정, 2) 1993년 사망구조로부터 추정, 3) 1993년도 사망통계와 1993년 연령구조로부터 평균수명 추정, 4) 1993년 연령별 인구로부터 1988년도 인구의 사망수준 검토, 5) 안정인구 이용, 6) 서베이를 통한 출산, 영아사망을 계측 등.

1) 사망력 추정

자료:

북한은 1980년대부터 주민등록자료를 UNFPA에 제출하였고, 1993년 실시한 센서스 자료를 UN에 제출하였고, 2002년에는 1990-2000년 사망률 자료를 발표하였다. 발표한 자료는 조사망률, 영아사망률, 유아사망률, 1993년 연령별 사망률 정보 등 이다. 그리고 영아의 발달정도에 관한 통계자료가 2000년 이후 발표되고 있다. <표 1>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발표기관에 따라 통계치들에 차이가 있다.

<표 1> 북한의 사망률

	영아사망률		조사망율		기대여명	
	북한발표	외부추계	북한발표	외부추계	북한발표	외부추계
1955	56.4	-	20.9	-	-	
1960	37	95	10.5	16.78, 11.5	58.3	49.97, 56.7
1970	22.7	57.3	7	9.71, 9, 8.1	65.2	59.14, 63.0
1980	14.2	39.5	4.5	5.9, 5.8, 7.0		65.96, 61, 66.4
1986	9.8	34.6	5	5.67	74.3	67.74
1990	-	31.3, 42	5.9	5.56, 8, 6.1, 8.9		68.98, 65, 64.6
1993	14	28.6	5.5	5.52		69.76
1998	-	24.1	9.3	5.41		71.13
2000	-	22.2, 42	8.8	5.37, 5.4, 10.7	67.1	71.69, 63.0
2004	-	20.1, 42		5.5, 11		72.49, 63

주: 북한발표는 Eberstadts & Banister (1992) 와 통일연구원의 통계 DB에서 인용함. 외부추계는 Eberstadts & Banister (1992)와 UN 의 추계치를 인용함.

보정/보완:

다양한 기준 생명표를 활용한다. 생명표는 각 연령에서의 생존율을 정리한 모형인데, 연령별 생존율을 다양하게 전제할 때 다양한 생명표가 구성된다. 기준생명표는 여러 국가들의 인구동태 변화에 기초하여 구성된 모형들로서 동태자료가 가용하지 않거나 자료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사회의 사망률 추정에 많이 활용된다. 한국도 1980년 이후가 돼서야 사망동태 자료가 정확하다고 평가할 수 있어 이전 사망률은 기준생명표에 기초하여 추정되었다(권태환, 김태현, 1990). 어떤 기준 생명표를 선택하는가는 면밀한 분석과정에서 선택되겠지만, 잠정적으로 한국의 생명표와 서구 모형을 이용할 것이다. 권태환(1975)은 1925-1970년 사망률 자료와 모형들의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이를 보완하여 사망률을 새로이 추정하고 생명표를 작성하였다. 또한 권태환과 김태현(1990)은 1970년에서 1985년 사이의 생명표를 구성하였고, 통계청도 1971년 이후 주기적으로 한국인의 생명표를 발표하고 있다. 이 밖에 콜과 드메니 등(Coale, 1966)과 국제연합(United Nations, 1982)이 만든 기준생명표도 북한의 사망률 추정에 활용한다.

2) 출산력 추정

자료:

조출생률은 198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 발표되고 있다(<표 2>). 그리고 연령별 출산률, 총출산율, 피임율, 유산율 등의 정보가 부분적으로 1994년 이후 발표되고 있다. 결혼과 관련하여 혼인수, 남녀 연령별 결혼수가 1999년 이후 발표되고 있고, 지역별 이혼율이 1999년 발표되었다. 또한 2002년 국제연합의 지원을 받아 재생산 건강조사를 실시하였는데, 6822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결혼과 출산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그런데 출산률도 사망률과 마찬가지로 발표기관에 따라 수치의 차이가 크다. 또한 출산률이 1990년 이후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이런 통계치가 기록의 부정확이나 왜곡에 따른 것인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지 세밀하게 검정할 필요가 크다.

<표 2> 북한의 출생율

	조출생율		총출산율	
	북한발표	외부추계	북한발표	외부추계
1955	40.5	-	-	-
1960	38.5	39.14, 32.3	10.5	5.4, 4.2
1970	44.7	45.23, 33, 29.4	7	6.93, 3.9, 3.87
1980	21.8	23.98, 20.6, 20.9	4.5	3.03, 2.83
1986	22.9	22.96, 20.7	5	2.5
1990	22	24.11, 21, 21.6	-	2.5, 2.31
1993	20	24.09	-	2.4
1998	18.2	21.55	-	2.3
2000	17.5	19.87, 18.9, 16.4	-	2.2, 2.0
2004	-	16.88	-	2.1, 2

주: 북한발표는 Eberstadts & Banister(1992)와 통일연구원의 통계 DB에서 인용함. 외부추계는 Eberstadts & Banister(1992)와 UN의 추계치를 인용함.

추정방법:

출산률을 제대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출산의 노출/장애 요인들(결혼, 성교, 피임, 유산, 수유 등)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얼마나 이들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가용한 자료들의 검토와 보정 뒤, 출산 노출/장애 요인들의 영향을 분석하고, 출산률을 추정한다. 또한 심층면접을 통해 결혼과 가족에 관한 심층면접의 분석결과를 출산률 추정에 연계한다.

3) 이동 추정

자료와 추계:

1990년대 탈북자 실태를 조사한 연구들이 민간단체, 중국 정부, 미국, 국제기구의 단체에 의해 시행되었다. 그런데 발표하는 탈북자 규모에 상당한 편차가 있다. 예를 들어 이금순은 1999년 사단법인 ‘좋은벗들’은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자 규모가 30 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였고, ‘탈북난민보호유엔청원운동본부’는 1999년 중국내 탈북자 규모를 10-20 만 명으로, 미국의 인권단체인 난민위원회는 중국에 체류하는 탈북자가 5 만명과 북한출신유랑민이 10만명 정도로 추산하였으며, 2003년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은 중국지역 북한이탈주민의 규모를 10만 여명으로 추정하였다고 말하고 있다(이금순, 2005). 이들 자료들의 체계적인 검토를 통하여 적절한 이동 규모를 추정하고자 한다.

이동의 영향에 주목하는 것은 그 인구크기나 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그치지 않는다. 흥미로운 것은 북한의 정주체제가 어떻게 작동하였고 변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제도적으로 인구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개인의 삶에서 정착, 이동이 어떻게 경험되는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Ⅲ. 2차년도 북한 인구 분석

1. 북한 인구의 추이

분단이후 북한의 인구에 대한 정보가 공개된 것은 1980년대 후반 부터이다. 조선중앙연감에 북한의 전체 인구가 처음 기록된 시점은 1989년인데, 이 때 1987년 집계된 인구를 발표하고 있다. 김일성 선집에서 인구통계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필요를 언급한 내용이 여러 번 제시되는 것으로 보아, 자료의 정확성을 논외로 하더라도 인구통계를 지속해서 수집하고 정리하여왔던 것으로 이해된다.

북한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946년 북한인구는 9,257천명이었다(<표 3>). 그리고 전쟁기간동안 손실된 인구크기가 남한의 인구손실을 크게 넘어선다고 평가되고 있다. 남녀별 인구 크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남성인구가 크게 감소하였다. 전쟁이 종료된 이후 1970년까지 북한 인구는 연평균 3%의 높은 성장률로 증가하다가, 이후 1-2% 이내로 완만하게 증가하였고, 1993년 이후에는 연평균 1% 아래의 낮

은 성장율을 보이고 있다.

<표 3> 북한이 발표한 전체 인구의 변화

연도	인구	성장율
2004	23612	0.66
2001	23149	0.81
2000	22963	0.91
1999	22754	0.88
1998	22554	0.896
1997	22355	1.08
1996	22114	1.38
1994	21514	1.41
1993	21213	

자료: 조선중앙연감 각연도, DPRK, 1993.

주: 인구 단위는 천명. 성장률은 백분율로 표시됨. 성비는 여성100에 대한 남성 수입.

연도	인구	성장율	남	성장율	여	성장율	성비
1987	19346		8841		10505		84.2
1986	19060	1.49	8710	1.49	10350	1.49	84.2
1985	18792	1.42	8607	1.19	10185	1.61	84.5
1982	17774	1.86	8194	1.64	9580	2.04	85.5
1980	17298	1.36	8009	1.14	9289	1.54	86.2
1975	15986	1.58	7433	1.49	8553	1.65	86.9
1970	14619	1.79	7127	0.84	7492	2.65	95.1
1965	12408	3.28	6067	3.22	6341	3.34	95.7
1960	10789	2.80	5222	3	5567	2.6	93.8
1956	9359	3.55	4474	3.86	4885	3.27	91.6
1953	8491	3.24	3982	3.88	4509	2.67	88.3
1949	9622	-3.13	4782	-4.58	4840	-1.77	98.8
1946	9257	1.29	4629	1.08	4628	1.49	100

자료: Eberstadt & Banister, 1990.

주: 인구 단위는 천명. 성장률은 백분율로 표시됨. 성비는 여성100에 대한 남성 수입.

북한이 발표한 자료를 통해 전체 인구크기의 변화 추이를 가늠해볼 수 있지만 보고된 전체인구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보고된 인구집계를 보면, 남녀의 인구 성장율이 차이가 큰 시점이 여러 기간에서 보이고 차이의 모습도 불규칙하다. 전쟁이 끝난 시기부터 1965년까지는 남성인구의 성장률이 여성인구의 성장률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권태환은(권태환, 1988) 이 시기 남성인구가 매우 급속히 성장한 것은 베이비붐의 영향이 크다고 설명한다. 이에 더하여 성장률에 성 차이를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은 북송인구의 규모일 수 있다. 정확한 수치는 파악하지 못하였지만,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195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일본, 만주에 체류하는 동포들에 대한 북송정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고, 북송자들의 대부분이 남성들이었다고 증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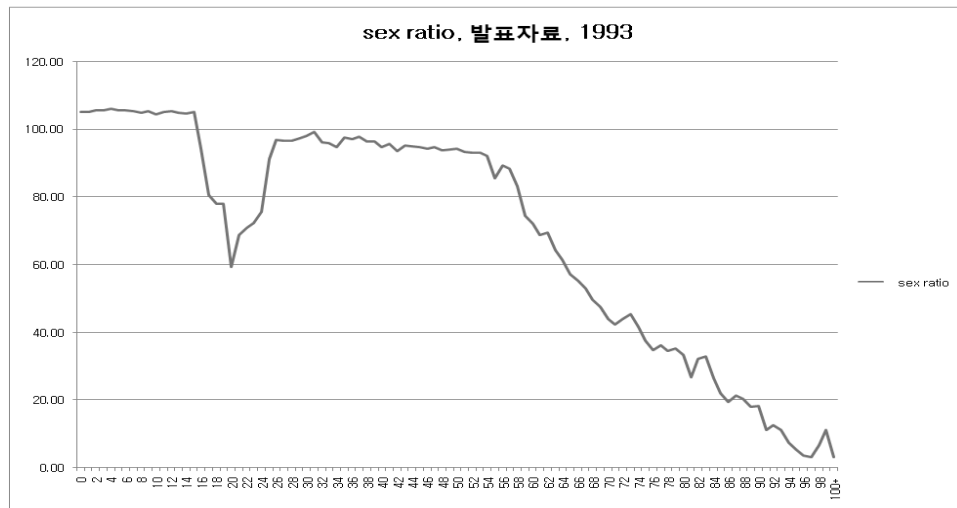
한편 1970년 이후 인구 성장률을 보면, 남성의 인구성장율이 여성 인구에 비하여 크게 낮다. 1970-1975년 사이 연평균 성장률이 남성은 0.84%, 여성은 2.65%로 차이가 크고, 1982년과 1985년, 1986년 집계에서도 남성의 인구성장률이 여성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쟁이나 국제이동과 같은 특수한 상황을 예외로 하면 일국내의 남녀의 인구성장율은 비슷한 규모로 변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 점에서 1975년 전과 1975년 이후 성차이가 발생한 메카니즘이 다를 개연성이 크다. 여기서는 다소 모험스런 가정을 내리려고 하는데, 1975년 전의 인구 성장의 성 차이는 전후 급속한 인구성장에 따른 성비변화, 베이비붐, 북송인구 등의 이주 효과와 같이 실질적인 인구변동 요인에 기인하였다면, 1975년 이후의 인구성장률의 성 차이는 주로 자료의 왜곡 요인(누락)이 크다고 추정된다.

1975년 이후 인구성장의 성차가 인구집계의 오류나 남성 선택적 누락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을 북한이 발표한 인구자료의 특성에서 여러 가지로 유추할 수 있다. 우선 인구집계의 누락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한 Eberstadt와 Banister(Eberstadt와 Banister, 1990)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Eberstadt와 Banister는 북한이 1989년 대외에 발표한 자료들을 세밀히 대조하면서 청년층남성 인구가 집계에서 대량 누락되었을 가능성을 처음으로 주장하였다. 북한이 연령별로 집계한 인구는 0세, 1-3세, 4-5세(학령전인구), 6-15세(학령인구), 16세(경제활동시작연령), 17-54세(경활연령, 여성), 55-59세(후반경활연령, 남성), 60-89, 90-99, 100+의 인구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는 주민들의 생활조직에 따라 인구가 집계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Eberstadt와 Banister는 1986년 16세 인구와 1970년 출생자수를 비교한 결과 남성

의 생존비가 크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Eberstadt와 Banister는 16세 이상부터 남성들은 대부분 군대에 가는 것을 고려하여, 누락된 인구 대부분이 군대에 있는 청년층 남성으로 판단하였다.

체계적인 누락, 특히 청년 남성 인구가 집계에서 누락되었다는 증거는 1993년의 연령별 인구집계의 성비 분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 1993년 자료는 북한에서 최초로 센서스 방식으로 조사하여 집계한 자료라고 발표하고 있다. 조사시점은 1994년 1월 15일 부터였다고 하는데, 지역에 따라 조사시점에 차이가 있고,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 등의 커다란 사건으로 인해 자료가 완전하게 조사되지 않았거나, 충분한 사후 정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자료에서 연령별 집계된 인구의 성비 분포를 보면 20-24세 연령층에서 성비가 69.75로 매우 낮은 분포를 보인다. 또한 이 자료에서 흥미로운 것은, 지역별 인구집계(10,329,699)와 연령별 인구집계(21,213,378)가 차이가 크고(691027), 그 차이의 대부분이 또한 남성 인구라는 점이다(652036).

<그림 1> 북한이 발표한 1993년 연령별 성비구조



Eberstadt와 Banister는 1986년 자료에서 청년층, 특히 남성청년의 누락(120만 정도) ‘의도적인 누락’으로 해석하였다. 16세에서 20대에 이르는 남성인구 대부분 군대에 가고 또한 북한이 군인 규모를 외부에 공개하기 꺼릴 의도를 가질 수 있다는

논리이다. 남북한 대립적 관계가 지배적이었던 상황에서, 의도적 누락의 가설은 여러 남한 연구자들 사이에도 공유되었다(김두섭, 200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노용환, 연하청, 1997; 한국은행 ; 통계청 추계 등).

그런데 자국의 영토 안에 있는 국민을 총인구 집계에서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군대규모를 외부에서 추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대외 전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가? 남북 긴장관계에 따라 안보적 발상이 지배하였기 때문에 의혹의 해석도 상당한 설득력을 가졌던 것 같다. 그런데 오히려 '의도적 누락' 가정이 잘못되었다는 의심이 이 가정을 처음 제시하였던 Eberstadt와 Banister가 북한당국 고위관리로부터 체계적인 누락의 원인에 대하여 들은 이야기를 확인하면서 더욱 강해졌다. Eberstadt와 Banister는 이 진술을 대부분 거짓으로 판단하였지만, 그 관료의 진술은 체계적인 누락의 원인을 추적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를 제공한다. 그 관료의 진술을 다시 여기에 인용한다.

"Your estimates of our military population show increases that are too great.... Up to 1970, the population registers included everyone within the boundaries of the nation, as well as everyone in diplomatic offices and our citizens abroad in the USSR. From 1975, those mobilized for construction of the state and people overseas were omitted. Prisoners and the long term hospitalized population are also omitted from the statistics. Those omitted are for the most part young people, men, but also a few women. During the 1970s, many volunteered for socialist construction. They were omitted from the registers because they were removed from the place of registration and assigned to mobile units. Because our registration system is stationary, it was impossible to count them. As you know, we have been doing tremendous construction lately. In Pyongyang, you have seen the Kim Il Sung Stadium, the Grand People's Study House, the hospitals, zoo, ice rink, May 1 Sports Complex, and the districts undergoing renovation; outside of Pyongyang there has been the 300,000 Chongbo[hectare] land reclamation effort, the Nampo Barrage project, northern rail construction, the building of all sorts of bridges and gates, the construction of our Vinalon plants, and more. These projects took enormous mobilization of young manpower. If we had taken time to count all these people, we could have had complete statistics, but it is impossible at this time. I do not know the percent of women excluded from the registration system, but basically there are very few. Overseas, only a few wives, internally, 8-10 percent women. Many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have been mobilized. The work

on the Kwangbok Street project in Pyongyang took 250,000 people alone. If our level of machine use were higher, we would not have to mobilize so many people. (Eb,: 90).”

관료의 이야기는 북한의 인구등록체계가 1975년 이후부터 바뀌었다는 점, 그 전에는 모든 인구가 등록되었지만, 이후에는 외국에 나가 있는 인구, 국내에 있는 인구 중 일부, 특히 유동 인구가 빠졌다는 것, 1975년 이후 북한에는 사회주의 건설이 집중적으로 진행되었고 여기에 청년들 특히 남성들이 동원되었다는 것, 그리고 수용소, 병원 등 장기적인 집합주거에 있는 인구도 (부분적으로, 필자 해석) 빠졌다는 것, 유동인구를 파악하기 힘든 것은, 정주민구 체계로 인구가 집계되기 때문이라는 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설명에 대해 Eberstadt와 Banister는 장기 수용소, 병원과 같이 집합주거에 있는 사람들도 의료, 수용소 관리체계에 기록되므로, 주거등록에서 연령, 성, 직업구조에 대한 집계가 가능한 것처럼 집합주거에 있는 인구의 집계도 가능하다고 반박한다. 또한 유동인구가 임시적으로 주거등록에서 빠지더라도 왜 시민의 일부로 보고되지 않는가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고 반문하면서, 군대인구를 외부에 숨길 이유는 있지만, 유동인구를 외부에 숨길 이유는 없다는 논리를 편다(91쪽).

이러한 Eberstadt와 Banister의 논리는 비약이 심하다고 생각한다. 인구통계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체계의 엄밀함은 자료수집의 목적이나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북한의 인구통계가 정주민구를 중심으로 집계될 수 있는 것은 인구가동이 계획되고 엄격하게 통제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북한의 인구 통계는 크게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등록, 군대규모를 관리하는 체계, 수용소나 장기 시설에 입소한 사람들을 관리하는 체계에서 관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 관리체계에서 집계된 인구자료의 정확성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북한주민은 대개 결혼과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서 한 지역에 정주하게 된다. 주민등록체계는 일반주민들의 경제생활과 사회생활을 조직, 관리하는 목적에서 최소 행정단위 동이나 리 밑에 일반 기업소, 작업반, 인민반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조사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심충인터뷰). 수용소 인구도 엄중한 관리가 이루어지겠지만, 주민등록보다 덜 체계적이고 부분적인 누락이나 오류의 가능성이 클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누락된 인구 대부분 인구집계 시스템(정주민구중심)의 한계에 따른 '의도되지 않은' 결측일 수 있다는 것이다. 1975년 이후 사회주의 국가 건설이 강력

하게 추진되면서 200일, 300일 전투, 각종 돌격대 운동이 있었고, 특히 대규모 건설에서는 수년에 걸쳐 건설, 농촌지원, 탄광, 광산에 인력이 동원되었다. 이들 동원된 인구는 완전하게 지역에 정주하기 이전의 미혼의 청년층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물론 군대인구가 여기에 가장 큰 비중을 가진다. 건설동원, 농촌지원 활동에 동원되는 인구는 대부분 미혼이다. 청년기 남녀는 대부분 군대를 가거나 학교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건설, 농촌 지원, 생산 활동에 동원된다. 이런 청년기의 노동활동을 거치고 나면 결혼과 함께 직장과 주거지가 배정되면서 정치적 추방과 같은 경우를 제외한다면 한 곳에 평생 정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인구이동이 계획되고 엄격하게 통제되었기 때문에 정주민구 등록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는 것이다. 미혼 청년기의 남성과 여성들은 대체로 부모의 거주지에 속하게 되고 건설동원이나, 군대생활시 거주지에서 제외되어 집합단위가 위치한 지역에서 관리된다. 이렇게 지역내 집합단위에서 체류 인구가 관리되었지만, 정주민구에서처럼 연령, 지역별 세세한 집계는 이루어지기는 힘든 것이다.

여성들도 건설 동원에 많이 참여하지만 군대노동력의 상당수가 동원의 주력 부대라는 점에서, 남성인구의 누락이 대부분이라는 것도 설명이 된다. 결국 누락인구에는 군인 남성이 상당수 빠졌지만, 그 누락은 의도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 인구가 정주민구가 아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판단된다. 이런 판단이 근거가 있다면 군대 인구 모두가 빠진 것이 아닐 것이며 나아가 누락규모를 통해 군대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오류가 클 수 있다. 또한 누락규모가 군대규모에 상응한다면 누락규모가 크게 변화된 이유도 쉽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1986년에는 120만으로 추정함. 이 수치는 성비구조에서 추정된 크기임, 1993년은 69만 인구의 집계차이가 발생함). 군대인구에 해당되는 16세-20대의 인구규모는 1986년과 1993년 기간 동안 증가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1993년 발표자료에서 나타나는 연령별 집계와 지역 집계의 차이는 연령별 집계가 어려운 인구가 지역에 분포한 때문이고, 누락된 인구는 정주등록 체계 밖에 놓인 인구라고 판단할 수 있다.

2. 1993년 연앙인구의 연령구조와 성비의 보정

인구성장률에서 보이는 성 차이, 연령구조에서 보이는 성비 왜곡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로 청년층 남성의 누락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누락된 인구를 채워 넣으면서 연령구조와 성비를 보정하였다. 누락의 규모는 지역별 집계와 연령별 집계의 차이

와 같다고 가정하였다. 물론 지역별 집계에도 누락이 발생하였을 수 있지만 그 수치는 미미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전체 보정의 원리는 여성의 연령구조는 정확하게 집계되었으며, 연령별 성비변화는 연령에 대한 선형 함수관계로 추정할 수 있다는 가정에 기초하였다. 여성인구의 크기도 지역별 집계와 연령별 집계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젊은 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누락될 가능성이 의심되지만, 전체 누락 사례가 적고 어느 정도 젊은 층에 가중치를 부여할지도 판단이 서지 않아 모든 연령층의 인구크기에 비례하여 누락 부분을 채웠다. 이렇게 여성인구를 보정한 뒤, 연령별 성비를 추정하여 여성인구에 곱하여 남성인구를 추정하였다. 연령별 성비 변화를 보면, 초기연령집단에서는 성비가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고령(55세 이후부터)에 이르면 급하게 감소하는 패턴을 보인다. 그래서 55세 전후로 각각 사례를 구분하여 연령에 따른 성비 회귀식을 추정하였다. 몇 가지 상이한 방식으로 보정계수를 적용하였는데, 첫 번째는 여러 사회의 관측치로부터 추정된 함수(문호일, 1999)를 적용하여 추정해 보았는데, 고령층에서 관측치와 추정된 성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성비조정함수1). 두 번째는 북한자료를 이용하여 성비조정계수를 구하였는데, 성비가 심하게 왜곡된 연령집단을 뺀 사례로 회귀식을 추정하였다(성비조정함수2). 그런데 추정결과로 보완된 인구크기가 첫 번째 경우보다 적어서, 대안으로 55세 이전에는 첫 번째 함수를 55세 이후는 두 번째 함수를 적용하였다(성비조정함수3). 조정된 인구크기와 지역별 집계크기의 차이는 2153사례였는데 이 차이도 다시 연령별 분포에 적용하여 지역별 집계와 동일하게 조정하였다(<그림 2> <그림3>).

성비조정함수1: $1.089146 - 0.00296 * \text{age}$ (55세 미만)

$1.895307 - 0.01855 * \text{age}$ (55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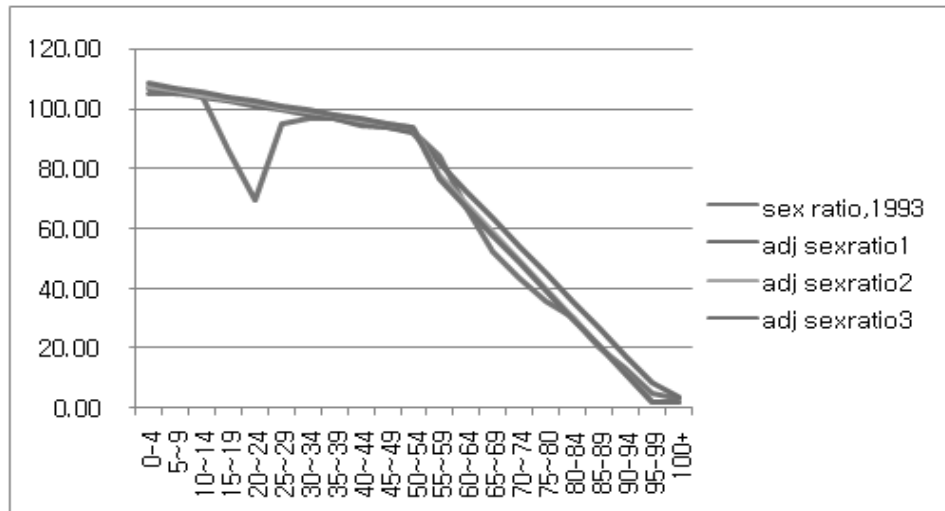
성비조정함수2: $1.061305 - 0.0026973 * \text{age}$ (55세 미만)

$1.826495 - 0.0185123 * \text{age}$ (55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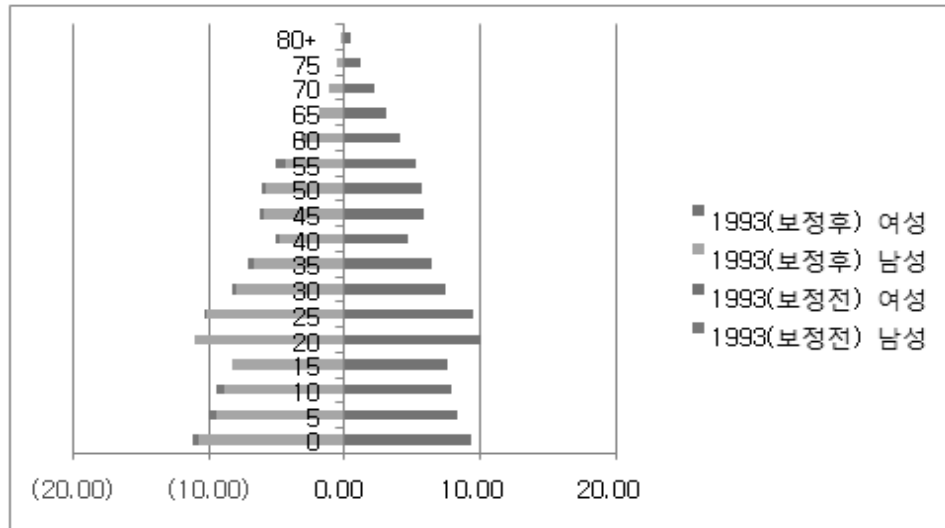
성비조정함수3: $1.089146 - 0.00296 * \text{age}$ (55세 미만)

$1.826495 - 0.0185123 * \text{age}$ (55세 이상)

<그림 2> 1993년 연령별 성비



<그림 3> 인구 보정 전후 연령구조



성비를 보정한 뒤 연앙인구를 구하였다. 1993년 발표한 자료는 연말 인구이다. 연앙인구는 연말인구에 그해 사망자의 1/2을 더한 값으로 추정하였다. 사망자 수(D_x)는 보정전의 총인구(nN_x , 연말)와 사망자수 분포에서 구한 사망률(m_x)에 기초하여

추정하였다(<표 4>).

$${}_nN_{x, \text{연앙}} = {}_nN_{x, \text{연말}} + 1/2 D_x$$

$${}_nD_x = \frac{m_x \times {}_nN_{x, \text{연말}}}{1 - \frac{m_x}{2}}$$

<표 4> 보정된 연말인구와 연앙인구, 1993

	연말인구			연앙인구		
	남	여	계	남	여	계
0	219,175	203,608	422,783	220,852	204,943	425,792
1-4	884,672	816,610	1,701,282	886,071	817,896	1,703,967
5-9	973,543	912,267	1,885,810	973,866	912,483	1,886,348
10-14	910,767	865,448	1,776,215	910,929	865,553	1,776,482
15-19	853,347	822,454	1,675,801	853,587	822,620	1,676,201
20-24	1,126,523	1,101,455	2,227,978	1,126,962	1,101,781	2,228,723
25-29	1,044,385	1,036,141	2,080,526	1,044,958	1,036,488	2,081,440
30-34	814,135	819,748	1,633,883	814,674	820,038	1,634,709
35-39	690,708	705,993	1,396,700	691,242	706,247	1,397,488
40-44	491,703	510,306	1,002,009	492,374	510,582	1,002,953
45-49	609,233	642,147	1,251,380	610,459	642,661	1,253,117
50-54	586,572	628,061	1,214,634	588,566	628,870	1,217,435
55-59	440,895	578,453	1,019,348	444,074	579,837	1,024,036
60-64	300,280	448,436	748,716	304,941	450,710	755,667
65-69	191,764	332,326	524,090	196,449	335,327	531,612
70-74	115,013	237,408	352,422	119,456	241,520	360,803
75-79	54,248	138,432	192,680	57,420	143,052	200,385
80-84	18,721	62,551	81,272	20,394	66,096	86,499
85-89	3,583	17,332	20,915	4,049	18,802	22,851
90-94	414	3,628	4,042	501	4,038	4,546
95-99	17	781	798	21	888	911
100+	2	94	96	3	125	129
계	10,329,699	10,883,679	21,213,378	10,361,849	10,910,556	21,272,0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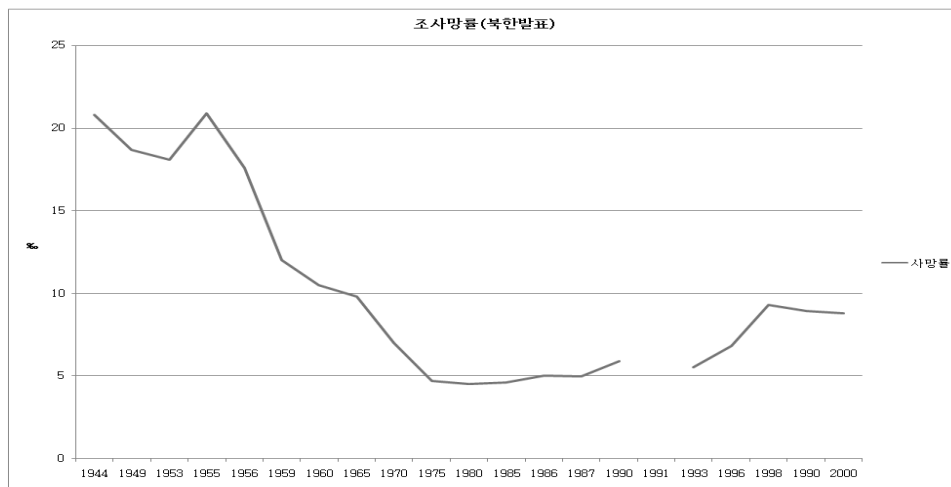
3. 사망률 분석

1) 사망률 자료의 정확성

북한이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사망률은 1960년대부터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4>). 1993년 발표한 연령별 사망자 분포에 기초하여 생명표를 작성해보면 기대수명이 남성은 68.45세, 여성은 76.10세, 전체 72.69세로 추정된다. 북한은 이미 1960년대부터 공식적인 발표에서 북한은 사망률이 가장 낮은 나라 군에 속한다고 발표하였다(). 북한주민의 건강이 크게 개선된 데에는 배급제, 무상의료체계, 교육의무제, 체육을 강조하는 단체생활, 자연 생태의 계획적인 관리 등의 사회주의 제도 및 생활 요인을 강조하고 있다. 부분적으로 이들 영양, 의료 체계의 요인들이 건강수준의 계층별 차이를 줄이고 평균적인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였을 수 있다.

그렇지만 개선정도가 과장되었다는 진단이 일반적이다. 사망 신고 자료의 정확성은 남한사회를 포함하여 여러 사회에서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의도적인 허위보고의 개연성도 있다고 해도 전적으로 보고된 자료가 허구라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부분적으로 허위보고도 있을 수 있고 수치들이 완전하지 않지만, 사망률의 추이를 보여주는 수치들 사이에는 전체적으로 내적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Eberstadt & Banister, 1990). 중요한 것은 어떻게 불완전한 자료에서 오류의 원인을 발견하여 사망률 분포의 실질적 특성을 규명하는가 하는 점이다.

<그림 4> 북한이 발표한 조사사망률



사망률 개선이 1980년대 중후반부터 정체되었을 개연성을 인터뷰 참여자들의 신장변화에 대한 진술에서 고려하게 된다. 심층 인터뷰에 참가하였던 40대 분들 거의 모두가 신장이 적었다. 또한 자신들이 학교에 다닐 때 같은 동료들의 신장이 선배들에 비해 훨씬 작았다고 구술하기도 하였다(심층인터뷰). 신장이 전반적 영양상태와 밀접히 연관되고 건강상태나 사망 위험과 연관된다는 주장들을 고려한다면, 1980년대 이후부터 건강의 개선 정도가 정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연령구조를 통해서도 사망률 수준을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폐쇄인구를 가정하였을 때 두 인접기간에 상응하는 연령집단에 속한 인구 크기 비는 생존율 ${}_nS_{x+1/2n}$ 로 추정할 수 있다. 연령기록이 정확하다고 한다면, 두 기간 생존비에 기초하여 생명표를 직접 구성할 수 있다. 생존율 ${}_nS_{x+1/2n}$ 은 실제 인구분포에서 t 시점에 관측된 ${}_nM_x^{(t)}$ 인구가 n 년 뒤 변화된 크기 ${}_nM_{x+n}^{(t+n)}$ 를 추정하는데 활용된다. 또한 정지 인구 생명표에서 x 에서 $x+n$ 에 연령에 있는 인구가 x_n 에서 $x+2n$ 연령구간에 생존할 확률을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그런데 <표 5>에서 보듯이 북한이 발표한 1986년과 1993년 인구자료에서 구한 생존비는 연령집계나 동태집계에 오류가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테면 생신활동인구의 생존율은 매우 낮고 노년층의 생존율은 1이 넘는 오류가 보인다. 이런 결과는 두 기간, 혹은 어느 한 기간의 인구기록에 오류가 큰 결과에 기인할 수 있다. 젊은 층의 낮은 생존율은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체계적인 집계 누락에 따른 것일 수 있다. 그 보다 규모가 작지만 인구기록의 체계적인 오류가 노년인구와 사망률 동태에서도 가능할 수 있다. 노년층에서 인구가 과대집계된 것은 정년지위와 연관되어 나타난 신고 오류일 가능성이 있다. 북한에서는 남성은 60세, 여성은 55세 이후 직장에서 은퇴하여 정년배급량을 받을 수 있다. 가구의 배급량이 부양가구원의 지위에 맞추어 정해진다는 점에서 비경활인구의 사망률이 낮게 보고될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청년층과 노년층에서 인구의 체계적인 누락이나 과장 보고가 의심되지만, 0-7세의 연령층이 인구구성비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뚜렷한 왜곡 원인이 제기되지 않는다. 여기서는 이 비가 다소 정확하게 해당 코호트의 생존율을 반영한다고 가정한다. 한 국가 혹은 사회의 사망률 수준을 결정하는데 유아사망률의 특성은 결정적인 판단 기준이 된다. 북한의 영유아 생존율에 해당되는 사망률 분포가 어느 수준에 자리하는가는 다른 사회의 사망률 패턴과 비교하여 가늠해볼 수 있는데, 남한의 사

망률 분포의 변화도 유용한 비교 수단이 된다. 여기서는 권태환과 김태현(1990)이 사망신고자료를 보정하여 추정한 남한의 생명표와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북한의 0세에서 7세의 여아 생존율은 남한의 1975년과 1980년 생존율에 다소 근접한 수준을 보인다. 두 기간 사망률 분포에서 추정된 여아의 기대수명은 각각 65세, 70, 세이다. 또한 남한 75-85년 사망률 수준에 해당되는 지역별 기준 생명표를 살펴보면, west, north 지역에서 사망률 19-21 수준이 근접한다 각 수준에서의 여아의 기대수명은 65세, 67.5세, 70세로 추정된다.

<표 5> 북한과 남한 여성 생존비 비교

${}_7S_{x+3.5}$	북한	남한(e0)							
		1965 (50.69)	1971 (60.67)	1975 (64.93)	1980 (69.79)	1985 (72.68)	1990 (74.83)	1995 (73.52)	2000 (76.18)
N_7^{1993}/N_0^{1986}	0.968	0.8791	0.9561	0.9674	0.9797	0.9880	0.9940	0.9956	0.9971
${}_3N_8^{1993}/{}_3N_1^{1876}$	0.9016	0.9419	0.9806	0.9858	0.9913	0.9950	0.9977	0.9971	0.9981
${}_2N_{11}^{1993}/{}_2N_4^{1986}$	0.7689	0.9394	0.9699	0.9776	0.9860	0.9917	0.9959	0.9942	0.9966
${}_{10}N_{13}^{1993}/{}_{10}N_6^{198}$	0.8342	0.9726	0.9830	0.9872	0.9919	0.9951	0.9974	0.996	0.9976
$N_{23}^{1993}/N_{16}^{1986}$	0.8109	0.9749	0.9846	0.9884	0.9924	0.9953	0.9973	0.9957	0.9972
${}_{38}N_{24}^{1993}/{}_{38}N_{17}^{198}$	0.9644	0.9393	0.9481	0.9589	0.9699	0.9763	0.9809	0.9750	0.9803
${}_5N_{62}^{1993}/{}_5N_{55}^{1986}$	1.0964	0.8194	0.8558	0.8810	0.9037	0.9109	0.9161	0.9051	0.9216

연령별로 집계된 사망률이 과소보고되었을 가능성은 북한이 1993년 발표한 0-4세 연령에서의 사망자 패턴에서도 의심된다(<표 6>). 보통 사망률이 개선되면서, 1-4세 사망률이 크게 줄어들어 0세 사망자의 비가 상대적으로 커지는 경향이 있다. 북한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4세 사망자에 대한 0세의 사망자비는 남자는 1.2, 여자는 1.0, 전체 1.1로 이런 사망률 분포는 오히려 사망률이 매우 높은 수준에서 발견된다. 0세에서 7세의 생존비에 기초해 선택된 기준생명표에서 영아, 1-4세 사망자의 비는 남자는 3.17, 여자는 2.6-2.74 수준으로 나타난다.

<표 6> 기대수명과 0세 1-4세 사망자 비 (west 생명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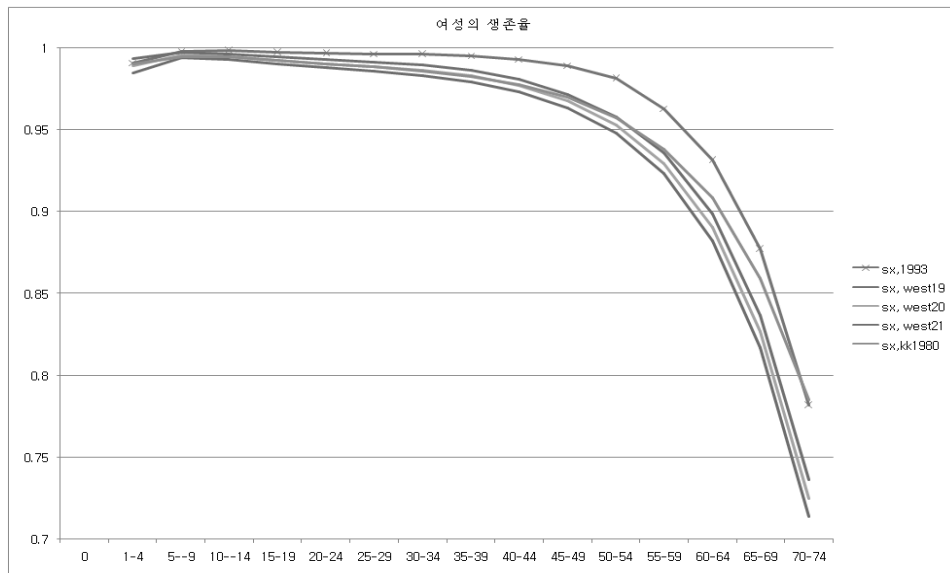
사망수준 (west)	여		남	
	영아사망자/ 1-4세 사망자	기대수명 e0	영아사망자/ 1-4세 사망자수	기대수명 e0
1	2.2	20	2.8	18
2	2.1	22.5	2.6	20.4
3	2	25	2.5	22.9
4	1.98	27.5	2.4	25.26
5	1.9	30	2.4	27.67
6	1.9	32.5	2.3	30.07
7	1.9	35	2.27	32.48
8	1.84	37.5	2.24	34.89
9	1.83	40	2.22	37.29
10	1.83	42.5	2.2	39.69
11	1.83	45	2.2	42.1
12	1.83	47.5	2.2	44.5
13	1.86	50	2.28	47.08
14	1.97	52.5	2.36	49.55
15	2.05	55	2.45	51.82
16	2.16	57.5	2.55	54.12
17	2.29	60	2.69	56.46
18	2.47	62.5	2.88	58.83
19	2.74	65	3.17	61.22
20	3.28	67.5	3.7	63.64
21	4.1	70	4.4	66.03
22	4.98	72.5	5.17	68.57
23	6.38	75	6.38	71.2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북한이 발표한 사망률 수준은 과소 추정된 개연성이 크다. 특히 영아사망율은 매우 적게 집계된 개연성이 크다. 따라서 보고된 사망률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지 않고 생존비의 정보를 참조하여 이에 근접한 기준 생명표의 사망률 수준(west 19-21)을 선택하고 이 패턴에 기초하여 북한의 사망률 패턴을 보정, 추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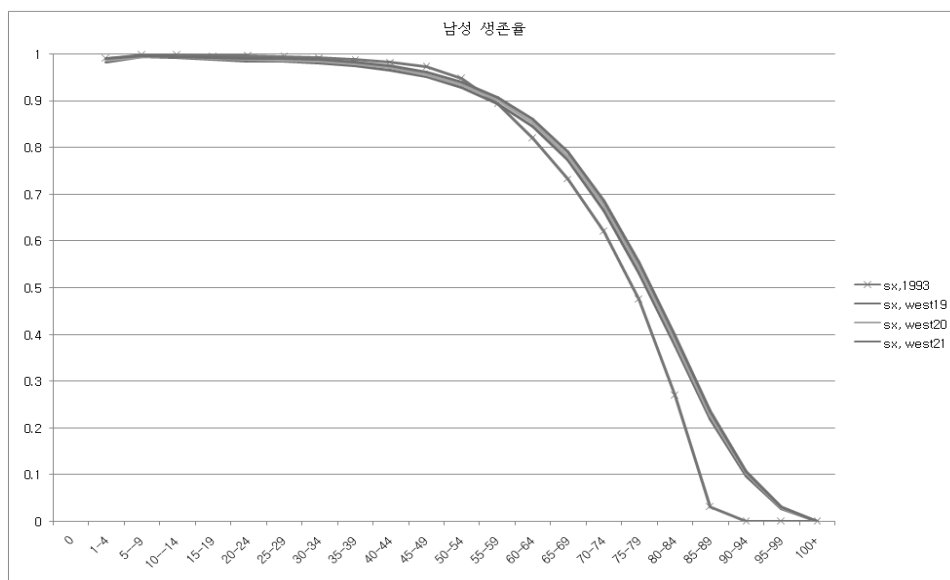
2) 생명표의 보정

기준 생명표로 서구모형(west model life table) 19, 20, 21 수준을 선택한 뒤, 이를 1993년 북한의 연령별 성비 구조에 준하여 다시 보정하였다. 세 수준의 기준 생명표에서 구한 연령별 생존율과 1993년 생명표(영아사망율을 보정한 뒤)에서 구한 생존율의 분포를 비교해보면 여성과 남성 모두에서, 그 차이가 연령에 따라 점차 커지고 있는데 그 양상이 남녀 상반된다. 1993년 북한 고령 여성의 생존율은 모델생명표에 비해 크며 나이가 들수록 그 차이가 커지고 있다. 이와 반대로 1993년 북한 고령 남성의 생존율은 모델생명표에 비해 적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차이가 커지고 있다(<그림 5> <그림 6>). 이런 패턴은 남녀 사망률의 차이가 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다. 김태현과 권태환 등의 국내인구학자나 외부에서 동아시아 사망률을 분석한 연구들에 따르면, 극동아시아 지역은 남성의 사망률이 여성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서도 남성 사망률이 여성사망률에 비해 크게 높다고 추정된다. 같은 민족으로 생활양식이나 문화에서 공유되는 부분이 여전히 많으며, 긴 군대생활이나 힘든 노동 동원 등으로 북한 남성의 사망률이 높을 수 있다. 여러 사회의 직업별 사망률 차이를 분석한 연구들에 따르면 생산직이 사망률이 높다고도 한다(). 북한 남성의 상당수가 생산, 건설 노동에 참여하는 것도 높은 사망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북한 남성의 높은 사망률은 심층인터뷰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된 부분이다(심층인터뷰). 그런데 서구 모형에서는 남녀의 생존율 차이가 나이가 들수록 좁혀지는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모델생명표가 전제한 중장년 이후 연령에서의 남녀 사망률의 차이를 더 크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기준모형에서 55세 이상의 생존율 수준을 1993년 생명표 수치로 대체하였다. 결과적으로 조정된 기준생명표에 기초하였을 때 사망률 수준은 <표 7>에 제시된 것과 같다.

<그림 5> 여성 생존율



<그림 6> 남성 생존율



<표 7> 북한의 잠정적 사망률 수준, L_x

age	사망률수준					
	$L_{x,m19}$	$L_{x,f19}$	$L_{x,m20}$	$L_{x,f20}$	$L_{x,m21}$	$L_{x,f21}$
0	95059.48	96072.7	96074.26	96826.18	96775.48	97569.52
1-4	369599.24	375209.3	375768.4	380579.5	381104.3	385613.2
5-9	456495	464052.5	465275	472262.5	473542.5	479812.5
10-14	453217.5	461182.5	462632.5	470125	471490	478332.5
15-19	449492.5	458025	459512.5	467705	468962.5	476617.5
20-24	443950	453565	454797.5	464182.5	465095	474055
25-29	437375	448045	449237.5	459742.5	460565	470732.5
30-34	430300	441670	443290	454542.5	455727.5	466762.5
35-39	422032.5	434227.5	436285	448347.5	449957.5	461895
40-44	411537.5	425265	427187.5	440642.5	442225	455532.5
45-49	397395	413937.5	414465	430495	430925	446675
50-54	377737.5	398742.5	396142.5	416460	414005	433950
55-59	350347.5	377907.5	369792.5	396785	388867.5	415645
60-64	312849.5	348615	330213	368595	347247	388845
65-69	256526.2	307190	270764	327785	284731	349020
70-74	188114.8	269500	198556	287569	208798	306198
75-79	116613.9	210631	123086	224753	129435	239313
80-84	55313.24	136643	58383.2	145804	61394.8	155250
85-89	16096.15	68220.1	16989.5	72793.8	17865.9	77509.6
90-94	305.8269	22925.7	322.801	24462.8	339.452	26047.5
95+	0	3667.54	0	3913.43	0	4166.95
e_0	60.40	66.15	62.49	68.54	64.49	70.90

3) 경제난의 영향

1990년대 중후반의 경제난이 사망률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북한이 발표한 사망률 통계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사망건수가 과소평가된 개연성을 고려하더라도, 1993년까지 감소하던 조사망률은 1998년에 크게 증가하였다(<그

림 4> 참조). 0세의 영아사망률도 1998년에 가장 높게 나타난다. 대외기관이나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망위험이 가장 심각했던 시기는 1996년에서 1998년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WHO는 1997년부터 북한이 어머니와 아동의 건강상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모성과 아동의 영양결핍이 1997년, 1998년에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전하고 있다. 인터뷰에 참여한 새터민들도 대부분 1996년-1998년 사이 본인들이 살던 거주 지역에 기아와 급성 전염병, 설사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였다고 증언한다(심충인터뷰). 식량배급이 거의 중단되는 위기 상황에서 속수무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아위험에 노출되었다고 한다(심충인터뷰).

기아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의 주된 사망 원인은 기근 이외에도 급성전염병이나 설사와 같이 급성소화기 장애였다. 북한은 형식적으로 무상의료체계, 보건체계의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 있다. 중앙병원과 지방에 동단위 진료소가 배치되어 있고 의료 인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시설체계의 지체, 기반시설의 손상과 퇴화, 약품의 부재, 전반적인 나라 살림의 어려움에 따른 건강재정투자의 제약 등으로 건강/영양 위기 상황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 개입이 여의치 못하였던 것도 급성 사망률 상승을 초래한 원인으로 이해된다.

한편 이후 북한 안에서도 기업이나 가구의 자체적 식량조달 행위를 허용하는 경제 조치들이 이루어졌고, 외부로부터의 식량과 의료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대규모의 기근상황을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98년 CDR은 9.3에서 이후 약간씩 개선되었고 영아사망률도 1998년 23.5의 최고수치에서 이후 약간씩 감소하였다. 유엔의 지원으로 북한에서 실시된 모성, 아동 건강조사에서도 발육부진, 저체중, 영양실조 수준이 1998년 매우 심각하였지만 2004년 조사에서는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표 8>). 심충인터뷰 내용에서도 2000년 이후부터 주변에서 사망사례가 뜸해졌다고 전하고 있다(심충인터뷰).

<표 8> 북한 유아 건강상태, 1998-2004

	발육부진(신장/연령<-2z)		저체중(체중/연령<-2z)		영양실조(체중/신장<-2z)	
	1998년	2004년	1998년	2004년	1998년	2004년
<12개월	14.5		32.2	14.1	17.6	6.0
12-<24개월	48.5	27.1	56.1	20.5	30.9	8.7
24-<36개월	62.2	34.7	67.3	27.3	20.5	7.3
36-<48개월	75.1	46.7	69.7	26.3	13.4	7.5
48-<60개월	77.5	50.8	61.9	26.6	8.9	6.2
60개월+	74.8	46.8	64.7	22.5	7.8	5.3

DPRK. 1998. '1998 Nutrition Survey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2005. '2004 Nutrition Assessment of Report of Survey of Results.

급성 사망발생률의 위험을 진정시킬 수 있었지만, 여전히 일반 주민의 건강,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모성영양상태는 아이의 영양과 직결되는데 모성의 32%가 영양 부족을 보이며 저체중아 출산율이 14%라고 한다(DPRK, UN). 1998에 비해 개선되었지만, 유아 사망률이 높고 발육저하, 저체중, 소모성 영양실조율이 높고, 여전히 모성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발표되고 있다.

또한 기근당시의 영양 결핍에 대한 장기적인 효과를 우려하는 논의들도 있다. 박순영 외(2007)는 탈북 청소년의 신장이 남한 청소년에 비해 10여 센티 미터나 작다고 밝히고 있다(박순영 외, 2007). 경제난 당시 아동들의 영양결핍이 성장저해와 장년기의 건강수준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논의된다. 기근상황은 단기적이었지만, 그 영향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쳐 사망률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좋은 벗들의 북한지역 실태보고는 경제조치 이후, 건강이나 영양상태의 개선정도가 지역, 계층 간에 차이가 커지고 있는 우려를 갖게 한다(좋은벗들 뉴스레터).

이들 자료와 논의들에 기초해 보면, 1993년에서 1998년까지는 기근, 급성 사망질환으로 사망률이 크게 높아졌고, 1998년 이후에는 경제난 시기보다는 개선되었지만 기근의 간접적, 장기적인 영향이 지속되었거나, 이행기적 경제상황에서 사망률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세 수준의 사망률 패턴에서 추정된 1998년 이후의 사망률 수준은 이런 사망률 패턴의 변화의 결과를 유추하는데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좀 더 정교한 모델링이 필요하지만, 잠정적으로 1998년 사망률은 모형 20에, 1998년 이후 사망률은 모형 21에 근접한 것으로 기대된다. 추정된 결과

를 북한이 발표한 자료와 비교해보면 영아사망률은 차이가 크지만, CDR 추정 결과는 차이가 크지 않다.

<표 9> 1998년, 2003, 2008년 사망률 수준

	1993	1996	1998	1999	2000	2003	2008
cdr 19	9.20		10.03			10.70	11.54
20	8.30		9.13			9.85	10.69
21	7.50		8.29			9.04	9.89
발표수치	5.50	6.80	9.30	8.90	8.80		
영아사망율 19	59.79		56.03			59.00	59.79
20	47.40		44.54			47.64	47.73
21	37.53		35.36			37.90	38.04
발표수치	14.10	18.60	23.50	22.50	21.80		
유아사망율 19	80.38		73.03			80.40	78.99
20	62.58		57.31			63.21	62.22
21	46.37		42.92			47.14	46.66
발표수치	27.00	40.00	50.00	48.00			

주: 영아사망율은 0세 인구 천명당 0세 사망자의 비를 가리킴. 유아사망율은 0세 인구 천명당 1-4세 사망자비를 가리킴.

4. 출산률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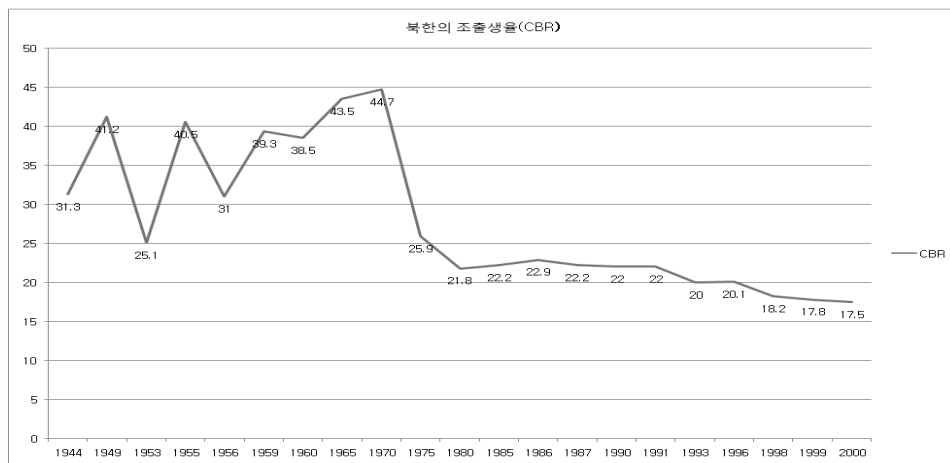
1) 출생율의 추이

북한이 발표한 출산율, 출생율 통계는 정확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사망은 일반 가구, 직장, 군대, 집단시설 등 여러 곳에서 일어날 수 있지만, 출산은 가구 안에서 배타적으로 이루어지고, 가구의 동태에 대한 조사는 상시적이라 정확성이 높을 수 있다. 북한발표 자료에 따르면, 조출생율은 1970년까지 증가하고 1975년부터 크게 감소하여 이후 다소 안정된 추세를 보이다가, 1993년 이후 다시 감소경향을 보인다(<그림 7>).

1970년 이전까지 출생율이 높게 유지된 것은 전쟁기간동안의 커다란 인구유실 이후 이어진 인구복원 결과로 이해된다. 이 시기 베이비 붐 효과, 연령구조의 영향, 인구성장을 장려하는 정책 등의 복합적인 결과로 북한에서 출산율이 높았다고 사려

된다. 권태환(1988)은 북한의 종전 아기붐이 남한에 비해 길고 컸다고 진단한다. 1953년-1963년 기간 동안 남한에서는 일정한 성비가 지속된 반면, 북한에서는 성비가 매우 빠른 속도로 상승하였다고 논한다. 북한에서는 아기붐이 1970년까지 지속되었는데, 이는 1950-1953년 동안 인구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남한이 상대적으로 아기붐이 길지 않았던 것은 1945-1950년까지 엄청난 인구증가로 인한 인구압력이 있었고, 전쟁 기간 동안 피난민 이입이 계속되었기 때문으로 진단하였다.

<그림 7> 북한이 발표한 조출생율(CBR)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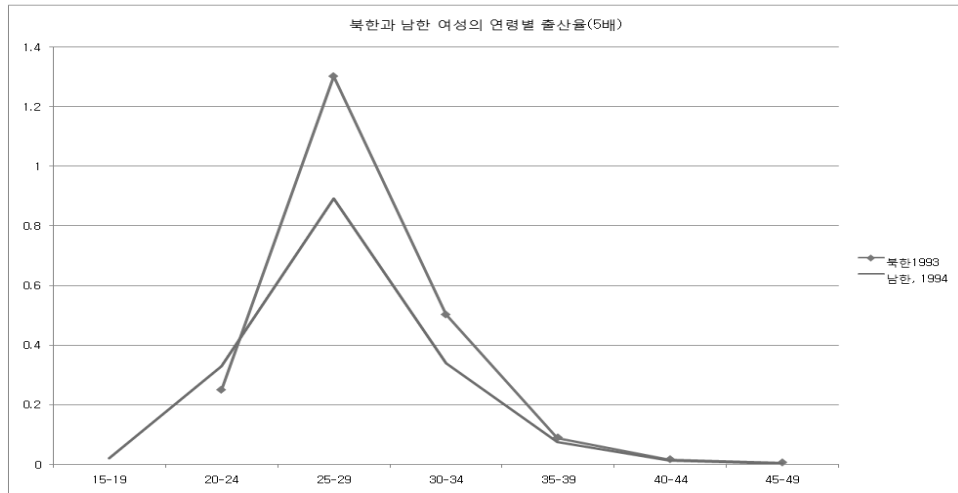
<그림 8> 북한이 발표한 혼인건수 추이



북한이 발표한 혼인건수의 변화도 이 시기 출산율의 증가한 배경을 보여준다(<그림 8>). 1956년과 1965년에 혼인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동란을 겪으면서 유소년, 노년의 사망률이 증가한 결과 가임인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커진 것도 조출산율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 국가에서도 손실된 노동력 인구를 복원하기 위해 출산을 장려하였던 것도 이 시기 높은 성장률의 배경이 된다(북한, 인구학 개론).

한편 1975년 조출생율은 크게 감소한 이후 1990년 초까지 안정화되었다. 그런데 조출생율은 가임인구의 구성비와 유배우 출산율의 변화에 영향을 받으므로, 두 요인의 영향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혼인건수 자료를 보면, 1970년, 1975년, 1980년에는 혼인건수가 1965년에 비해 적은 규모에 있다가 1982년 이후 크게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8> 참조). 만일 유배우 출산율이 동일하게 유지되었다면 이렇게 새로 진입한 가임인구가 증가에 따라 조출생율은 보고된 수치보다 크게 증가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혼인건수가 증가하였는데도 조출생율이 안정세에 있었던 것은 가임인구의 증가를 상쇄하는 만큼 유배우 출산율이 감소한 때문으로 해석된다. 여러 추계에 따르면 북한 가임여성의 출산율 수준은 1980년대 이후 2.5명 수준을 유지하였다고 추정된다. Eberstadt와 Banister(1990)는 가임여성의 합계출산율(TFR)은 1970년 초반에 3.8명으로 급격히 떨어졌고, 1987년에는 2.5명으로 추정하였다. 북한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87년 가구원수는 평균 4.7명인데, 이도 가족크기가 적었음을 시사한다. 1993년 모의 연령별 출생아수의 분포에 따르면 1993년 가임여성의 합계출산율은 2.165로 추정된다. 또한 1993년 연령별 출산율에서 흥미로운 특징에 주목할 수 있는데, 출산율이 20대 후반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같은 시기 남한의 가임여성의 합계출산율은 북한에 비해 적지만, 20대 전반의 출산율이 북한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그림 9>). 북한 여성에서 보여지는 20대 초반의 낮은 출산율은 북한 청년들의 장기간 조직, 단체생활과 연관되어 결혼연령이 다소 늦은 영향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림 9> 북한과 남한의 연령별 출산율, 1993, 1994



2) 새터민의 가족 분석

앞에서는 북한에서 발표한 조출생률, 혼인건수, 연령별 출산율 등에 대한 정보를 중심으로 북한사회의 출산율 변화를 총량적으로 살펴보았다. 70년대 중반부터 조출생율이 크게 낮아졌고, 1993년 연령별 출산율에 기초한 가임여성의 합계 출산율은 2.15명이며 20대 전반의 출산율도 상당히 낮은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는 북한에서의 결혼과 출산의 변화 추이에 대하여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려고 한다. 특히 경제난 이후 결혼과 출산행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2007년에 실시한 새터민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조사 응답자는 총 350(남성 127명, 여성이 230명)로 크지 않지만, 본인과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의 출생, 사망, 출산력을 조사하여, 각각의 사례들을 모두 취합하여 인구동태를 분석하였다(<표 10>). 분석한 자료가 새터민을 중심으로 직계, 형제 관계에 있는 가족들이고, 새터민의 북한 당시 거주지가 주로 함경북도지역이라는 점에서 분석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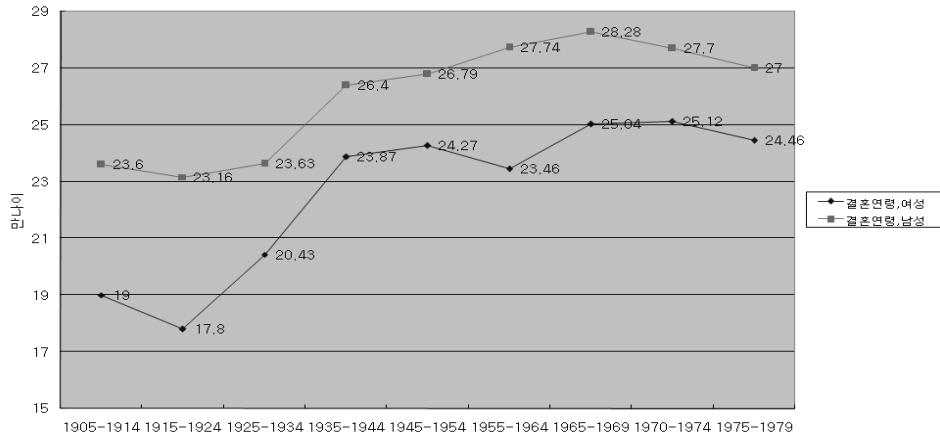
<표 10> 새터민 가족의 표본 사례 수

	남	여	계
본인	127	223	350
배우자	132	58	190
부	336	0	336
모	0	334	334
형제자매	313	334	647
형제자매배우자	210	228	438
계	1159	1136	2295

먼저 출생연도별 결혼연령의 변화를 살펴보았다(<그림 10>). 1925-1934년 출생 코호트의 결혼연령은 남성은 평균 23.63세, 여성은 20.43세이다. 기간의 중간 값에 평균결혼연령을 더하여 요약해보면, 1950년대 결혼한 사람은 남성은 23세, 여성은 20세에 일반적으로 결혼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1935-1944년 출생 코호트의 결혼 연령은 남녀 각각 26.4, 23.87세로 크게 상승하였다. 다르게 표현하면 1960년대 평균 결혼 연령은 남성은 26.4세, 여성은 23.87세로 증가하였다. 1945-1954년, 그리고 1955-1964년에는 여성 그래프에서 약간의 불규칙 패턴을 볼 수 있지만, 남성에서는 약간 결혼연령이 상승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출생연도와 평균결혼연령을 합해 결혼시기로 표현하면, 1970년대, 1980년대 결혼연령은 남성 26.8-27.7세로 약간 상승하였다. 1990년대에 남성, 여성의 결혼연령은 약간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1940년에서 1960년 출생코호트의 결혼연령이 오직 약간만 상승하였다는 것, 다시 말하여, 1960대에서 1980년대에 걸쳐 결혼연령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북한의 사회주의체제가 정착되면서 청년층의 집단생활이 제도화되어 혼인연령이 시기별로 그리고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지 않았음을 가리킬 수 있다. 이 시기 대체로 남성은 26-27세, 여성은 23-24세에 결혼하는 게 일반적이었던 것 같다. 한편 1965-1969년, 1970-1974년 출생연도의 결혼연령은 다소 상승하였는데 90년대 초 중반부터 1990년대 말까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혼인연령이 다소 지연되었을 개연성을 시사한다.

<그림 10> 출생연도별 결혼연령



앞에서 살펴본 결혼연령은 결혼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결혼연령의 평균치를 살펴본 것이다. 다시 말해 조사시점에 미혼에 있는 사례의 확률을 고려하지 않는 수치이다. 따라서 결혼연령이 좀 더 이르게 추정되었을 수 있다. 특히 결혼적령기 부근에 있는 최근 코호트에서는 미혼율이 높아 결혼연령이 실제보다 낮게 측정된 개연성이 크다. 이에 2007년 시점에서 가임기간에 있는 여성과 동일연령에 있는 남성의 혼인상태에 기초하여 결혼하기까지 미혼으로 남아 있는 연령(초혼연령, singulate mean age at marriage)을 계산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초혼연령은 24.79세로 앞의 수치보다 약간 상승하였지만, 남성의 초혼연령은 29.1세로 다소 크게 상승하였다(<표 11>).

<표 11> 연령별 미혼율과 SM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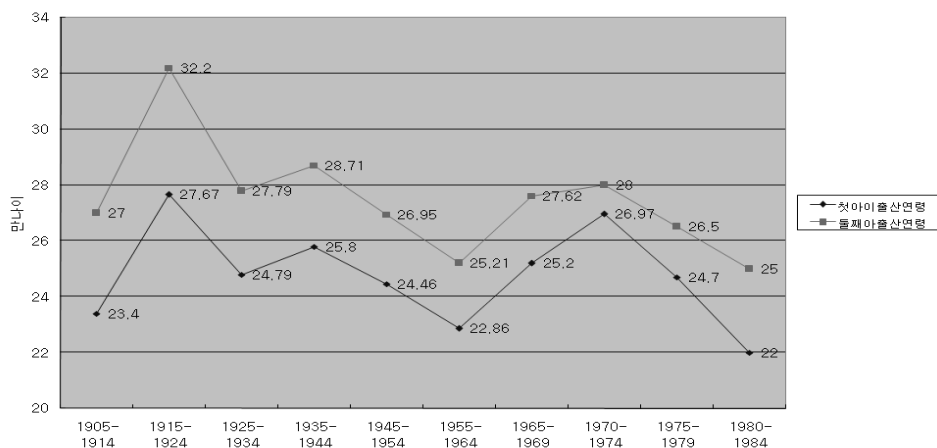
연령	출생연도	미혼율,여	미혼율,남
15-19	1988-1992	0.8667	1
20-24	1983-1987	0.913	0.9744
25-29	1978-1982	0.525	0.806
30-34	1973-1977	0.2995	0.3786
35-39	1968-1972	0.1584	0.1343
40-44	1963-1967	0.0891	0.1111
45-49	1958-1962	0.0714	0.0476
50-54	1953-1957	0.026	0.0656
55+	-1952	0.047	0.0342
SMAM		24.79	29.09

다음으로 모의 출생연도별 그리고 자녀 출산순위별 출산연령의 변화를 살펴보았다(<그림 11>). 1915-24년 코호트의 수치는 사례의 오류에 기인하였다고 전제하면, 1910년대에서 1940년대 전반의 코호트 까지 첫아이, 둘째 아이의 출산연령이 2세 정도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출산시기로 전환해보면, 1930년대에서 1960년대 중반까지 첫아이, 둘째 아이 출산연령이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아이 출산연령은 23.4세에서 25.8세로, 둘째아이 출산연령은 27세에서 28.7세로 늦어졌다.

한편 이후 20년 코호트의 출산연령은 오히려 빨라지는 경향을 보인다. 출산시기로 보면, 1960년대 중반에서 1980년대 중반에 걸치는데, 이 시기 첫아이, 둘째아이 출산연령이 오히려 빨라진 것으로 나타난다. 첫째아이 출산연령은 25.8세에서 22.9세로, 둘째아이 출산연령은 28.7세에서 25.2세로 빨라졌다. 자료의 정확성이나 대표성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이런 경향이 출산동향의 실질적 변화를 반영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1960년에서 1970년 기간 북한의 인구성장률이 매우 높았다는 점에서 이 시기 첫아이나 둘째 아이를 출산한 여성의 출산연령도 빨랐을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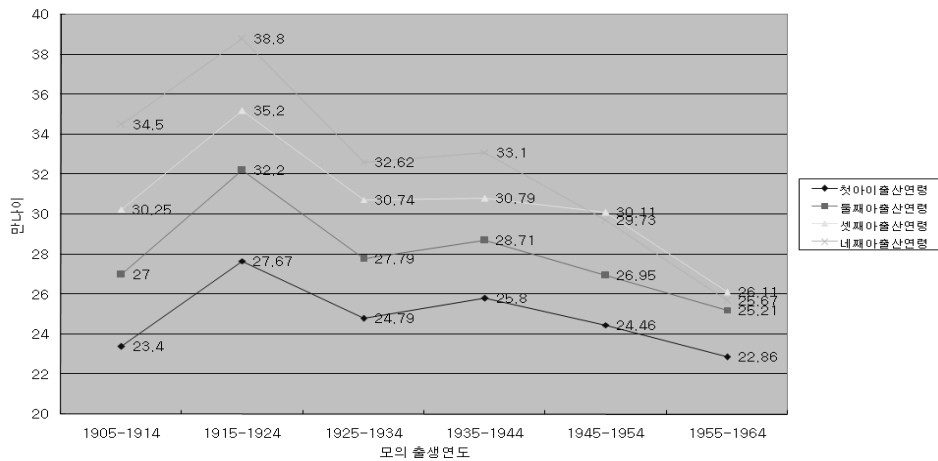
한편 1960년 이후 1970년대 전반 코호트에서는 다시 출산연령이 증가하는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결혼시기로 표현하면, 1980년대 중반이후 1990년대 후반까지 출산연령이 높아진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넓게 보면 이 시기 전체가 북한 경제가 침체되었던 시기로 여겨지고, 경제생활의 어려움이 출산연령 상승에 부분적으로 기여하였을 것으로 추측해본다. 1975년 이후 코호트는 미혼의 분포가 크므로 출산연령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1> 모의 출생연도 출산순위별 출산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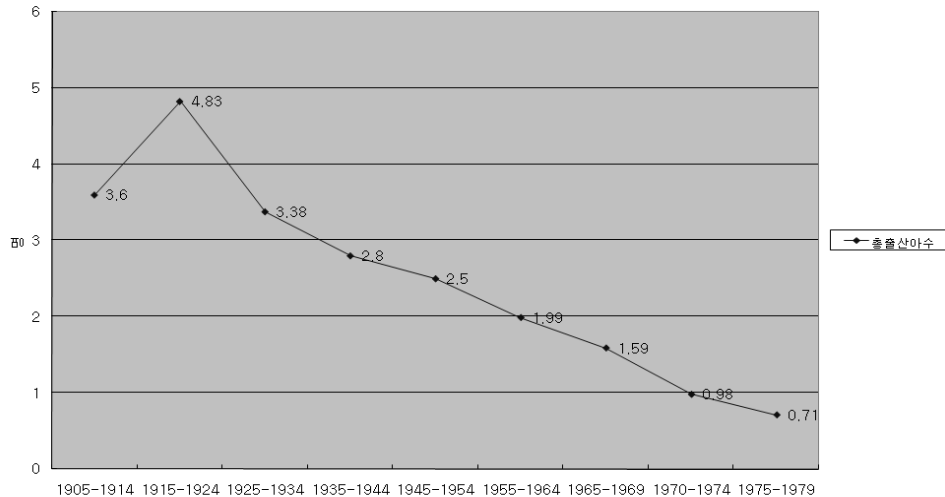
또한 재생산행위가 완료된 코호트(2007년 50세 이상 여성)를 중심으로 출산간격을 살펴본 결과 출산간격이 점차적으로 압축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12>). 1930년대, 1940년대 코호트(50년대, 60년대 첫아이를 출산한 코호트)에서는 출산간격이 다소 넓게 유지되다가, 1950년대 이후 코호트(70년대 중반 이후 출산한 여성들)에서 출산간격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1970년대부터 가임여성들의 단산 경향이 강화되었음을 반영한다.

<그림 12> 50세 이상 모의 출산순의별 출산연령



<그림 13>은 모의 출생연령별 총출산아수의 변화를 보여준다. 1940년대 전반 이후 출생한 코호트에서 1960년대 전반 출생한 코호트에 이르기까지, 총출산아수는 2.8명, 2.5명, 1.99명으로 다소 완만하게 줄었다. 여성의 출생연도와 평균결혼연도를 종합해보면, 1960년대 중반-1970년대 초반 결혼한 여성의 총출산아수는 2.8명, 70년대 중반-1980년대 초반 결혼한 여성의 총 출생아수는 2.5명, 80년대 중반-1990년대 초반 결혼한 여성의 총출산아수는 1.9명으로 감소하였다. 1990년 중반 이후 결혼한 여성은 아직 재생산행위가 지속되는 중이므로, 현재의 수치가 최종 출산아와 차이가 클 수 있다.

<그림 13> 출생연도별 총출산아수



3) 출산율의 변화의 요인

출생연도, 결혼연령, 첫아이, 둘째아이 출산연령, 총출생아 수를 종합해 보면 결혼, 출산연령 및 간격, 총출생아수의 변화의 큰 윤곽을 그려볼 수 있다. 기간들 사이의 연관을 이해하기 쉽도록, 결혼과 출산이 이루어진 시기를 구분하여 결혼과 출생시의 평균연령을 측정하였다(<표 12>). 결혼/출산 시기는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이후로 구분하였다.

여성의 결혼연령은 1950년대와 1960년대 초반까지 다소 크게 증가하였지만, 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 안정 상태에 있다가, 1990년대 중반 이후 다소 상승한 경향이 보인다. 1990년대 남성의 결혼연령의 변화도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첫아이 출산연령은 1960년대 초반에서 1980년대 초중반까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보이다가, 1980년대 중후반 이후 1990년대 후반까지는 증가하는 패턴이 보인다. 또한 1970년대 중반이후부터 출산간격이 압축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1950년대 이후 결혼이나 출산 코호트의 출산 패턴의 특성을 종합해보면, 출산율 감소가 급격하지 않지만 완만하게 지속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결혼연령은 오랜 기간 안정화되었고, 1960년대에서 1980년대 초반에 걸쳐 첫아이 출산연령이 다소 빨랐던 시기도 있지만, 1970년대 중반이후부터 단산의 경향은 강화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표 12> 새터민 가족의 결혼, 출산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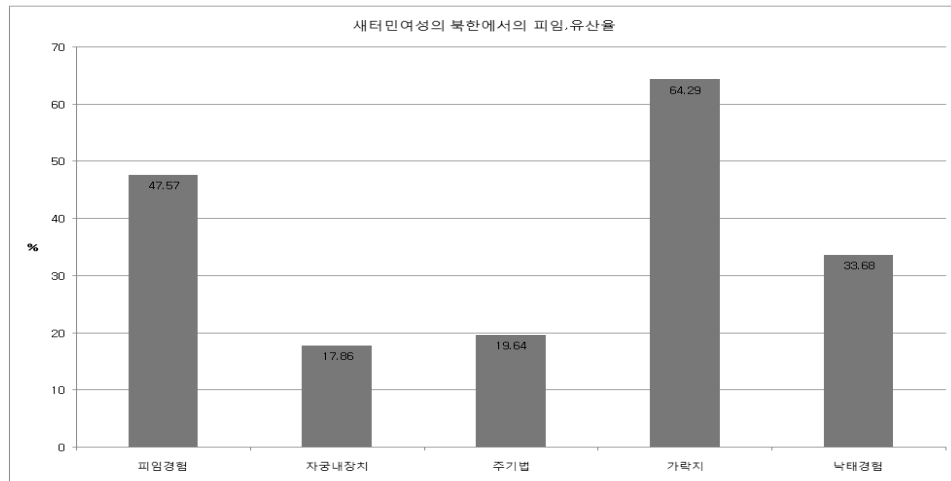
결혼/출산 시기	결혼연령, 여	결혼연령, 남	첫아이출 산연령	둘째아이 출산연령	출산간격	총출산아
1950년대	20.4	23.6	24.8	27.8	3.0	3.4
1960년대	23.9	26.4	25.8	28.7	2.9	2.8
1970년대	24.3	26.8	24.6	27.0	2.4	2.5
1980년대	23.5	27.7	22.9	25.2	2.3	2.0
1990년대	25.1	28.0	26.1	27.8	1.7	1.6+
2000년대	24.4(24.8)	27.1(29.0)	-	-		

이와 같은 출산률의 변화는 청년과 여성들의 삶이 제도화된 특성을 반영한다. 결혼연령이 다소 늦은 것은 여러 차례 지적하였듯이, 청년층의 조직생활과 사회노동동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결혼연령이 20대 중반 이후로 오래 동안 안정화되었던 것은 20대의 출산율을 낮추는데 기여하였을 수 있다. 또한 결혼 이후에도 단산의 경향이 강화된 데에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장려된 이유도 존재할 수 있다. 그런데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강조도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전쟁 기간 동안 감소된 인구를 회복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동력 동원이 강조된 1950-1960년대 시기에는 여성들의 경제활동과 재생산활동이 동시에 강조되었을 수 있다. 또한 1960년대에서 1980년대 초기까지 첫아이 출산연령이 실질적으로 감소되었다면, 이런 경향도 인구재생산과 함께 노동력 참여에 여성들의 기여가 컸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다. 그런데 심층인터뷰에 참여한 여성의 진술에 따르면, 1980년대 이후에는 일부 전문적인 직업을 제외하면 도시 지역 여성들 대부분은 결혼과 함께 일자리를 갖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심층인터뷰).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장사나 비공식적으로 경제활동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지만, 제도차원에서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는 부차적으로 간주되었을 수 있다. 특히 1980년대 후반 이래 경기가 침체되어 있던 시기 여성들의 경제활동은 주변화되었을 수 있다. 따라서 경제활동 참여만으로 북한여성의 낮은 출산율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1980년대 이후에도 출산의 규모가 작게 유지된 데에는 가계의 경제 영향이 더 중요하지 않았나 추정된다. 1980년대 후반부터 배급의 양이 줄고 품목도 제한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심층인터뷰). 별도의 가계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생활의 긴축은 출산의 동기를 낮추는데 기여하였을 수 있다. 또한 1990년대 후반이후에는 점차적으로

개별 가구의 부양 책임이 강조되면서 양육의 부담인식이 강화되었을 수 있다.

비록 표본이 한정되고 편의성이 있지만 여성 응답자의 47.57%가 피임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피임방법으로 가락지(62.29%)나 자궁내 장치(17.86) 등 반영구적인 피임법을 사용하였다고 응답한다. 낙태경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표본 여성의 33.68%가 낙태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렇게 볼 때 낮은 출산율은 20대 후반-30대 초반에서의 압축적인 출산이후 영구적인 피임이나 유산으로 유지되었던 것 같다(<그림 14>).

<그림 14> 피임, 유산 경험



4) 경제난 이후 출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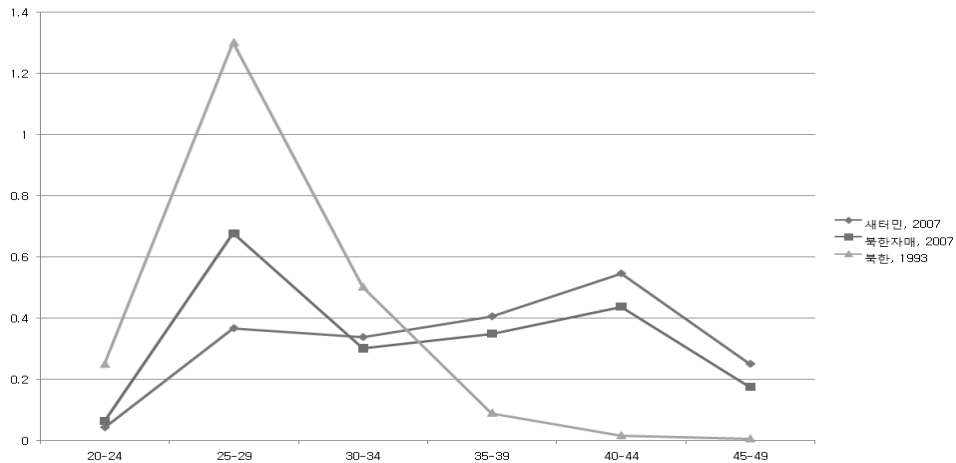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1990년대 이후 출산율이 어떻게 변하였을까. 설문에서 여성들의 총출생아수를 물어보았는데, 이 자료를 기초로 모의 연령별 출산진도비(parity progression ratio)를 구하였다(<표 13>). 각 연령구간에서 출산진도비를 살펴보면, 20-24세는 물론이고, 25-29세의 출산율도 매우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45-49세 여성의 누적출산율은 2.01명이다. 이와 같이 연령별 진도비의 추이를 보면 출산연령이 지연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그림 15>는 각 연령의 평균출생아수의 차이를 기간 출산율로 파악하여 1993년 발표한 연령별 출산율과 비교한 것이다. 두 그래프에서 가임여성의 총출산율 수준은 2.15, 2.01로 차이가 크지 않은 것과는 달리 출산패

턴은 차이가 매우 크다. 1993년 집계된 여성의 출산패턴은 주로 20대 후반에 집중한 뒤 단산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2007년 새터민 가족의 여성 출산 패턴은 20대 출산율이 매우 낮아지고, 30대, 40대의 출산율이 향상된 패턴을 보인다. 이는 경제난 시기 탈북하게된 여성들의 출산지연 효과를 반영할 수 있다. 따라서 2007년 새터민 여성의 출산율 패턴을 북한여성 일반의 출산율 패턴으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크다. 조금 더 북한 여성에 근접한 패턴을 찾아보기 위해, 현재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응답자의 자매와 형제의 배우자 사례만을 뽑아 출산율 패턴을 비교해 본 것이 ‘북한자매, 2007’의 그래프이다. 새터민 가족 전체 여성에 비하여 20대의 출산율이 높아졌지만, 30대와 40대에서의 출산율이 향상된 패턴은 계속 관찰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1990년대 중후반의 경제난 이후, 소규모 가족은 여전히 선호되지만 출산기간은 지연되지 않았을까?

<표 13> 모의 연령별 출산 진도비 (progression ratio)

pr	출생연도	0-1	1-2	2-3	3-4	4-5	5-6	6-7	누적출산율
15-19	1988-1992	0.0667	0	0	0	0	0	0	0.0667
20-24	1983-1987	0.0870	0.25	0	0	0	0	0	0.1087
25-29	1978-1982	0.3667	0.2955	0	0	0	0	0	0.475
30-34	1973-1977	0.6294	0.2823	0.0286	0	0	0	0	0.812
35-39	1968-1972	0.7738	0.5146	0.1136	0	0	0	0	1.217
40-44	1963-1967	0.9406	0.6737	0.2813	0.0556	0	0	0	1.762
45-49	1958-1962	0.9405	0.8608	0.2941	0.1	0	0	0	2.012
50+	1953-1957	0.9707	0.9011	0.5945	0.3744	0.3423	0.44	0.5455	2.672

<그림 15> 연령별 출산율



5. 이동 분석-추후 보완

- 1) 정주인구와 인구이동- 생애사를 통해 정착, 이동의 패턴을 고찰, 북한의 인구배치 정책 검토
- 2) 국제이동의 추이; 해방 이후 재외동포의 이주, 1950년대 이후 재외동포의 북송이 주규모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 있음.
- 3) 국내 이동의 유형:
 - (1) 제도적/합법적 이동- 정치적 소개/추방, 군대배치, 소조활동 등 임시적 집단 배치, 결혼이주, 제대배치, 여행/친척방문
 - (2) 비공식적 이동-
- 4) 경제난 이후의 이동
 - (1) 국제이동
 - (2) 국내이동
 - 여성이동이 재생산에 미친 영향은?

6. 인구추정

1) 1993년 이후 인구 추정

가. 1993-2008년

인구구조의 변화는 기준 시점의 인구크기와 연령구성, 그리고 출산, 사망, 이동의 동태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1993년의 인구구조와 1993년 이후 진행된 인구동태 요인들의 특성에 기초하여 1993년 이후 인구구조의 변화를 추정해 보았다. 아직 이동에 대한 분석이 완료되지 않았고, 출산, 사망 동태의 변화에 대한 진단에서도 보완하거나 수정될 부분이 있는 잠정적인 추정 결과이다. 추정 시기는 2008년까지로 제한하였다.

추정에 전제된 동태 요인들의 변화는 아래와 같이 가정하였다. 우선 이동의 영향을 배제하였다. 대량의 아사위험이 외부에 알려지던 시점 탈북자의 규모도 매우 크게 추정되었지만, 이후 여러 발표들에 의하면 1990년대 후반 이후 탈북한 주민의 누적규모가 10만 내외라고 한다. 또한 점차적으로 국경이동의 통제가 엄중해지고 북한내부의 경제상황도 개선되면서 탈북 사례가 드물어졌다는 진단도 있다. 규모가 적어졌다고는 하지만, 전체 인구크기와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의 이동이라 생각되며 추후 분석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사망률 패턴의 변화는 west 20, 21 사이의 변화 폭에서 이루어졌다고 가정하였다. 1993-1998년 사이는 모형20에 보다 근접하고, 1998년 이후는 모형 21에 근접한다고 가정하였다. 그리고 2008년까지 사망률패턴은 1993년 수준을 넘어 개선되지 않았다고 가정한 결과이다.

새터민 가족의 출산율 패턴에서 유추해보면, 총 출산력보다는 출산연령의 패턴에 변화가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간제약으로 출산연령 패턴의 변화를 적용하지 못하고 1993년 연령별 출산율 패턴을 그대로 적용한 결과임을 밝혀둔다.

<표 14> 1993-2008년 인구

년도	연앙인구			발표수치
1993	21272406			21213000
1994				21514000
1996				22114000
1997				22355000
1998	22393899	22490269	22582017	22554000
1999				22754000
2000				22963000
2001				23149000
2003	23276701	23471884	23658578	
2004				23612000
2008	23837774	24130134	24410762	

<표 15> 조사망률과 조사망률, 1993-2008

CBR				발표수치	CDR				발표수치
1993	20.00			20.00	9.20	8.30	7.50		5.50
1996				20.10					6.80
1998	19.99	19.96	19.93	18.20	10.03	9.13	8.29		9.30
1999				17.80					8.90
2000				17.50					8.80
2003	16.51	16.46	16.41		10.70	9.85	9.04		
2008	15.49	15.41	15.33		11.54	10.69	9.89		

<표 16> 1998년 인구

1998	모형19			모형20			모형21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0	232180	215455	447636	232808	216037	448845	233424	216609	n450033
1-4	811708	766705	1578413	828688	780262	1608950	843114	793116	1636230
5-9	1087475	1007149	2094624	1091515	1011820	2103335	1096876	1015705	2112581
10-14	966874	906839	1873713	968335	908353	1876688	969645	909668	1879313
15-19	903442	859627	1763069	904786	861098	1765883	906046	862450	1768496
20-24	843062	814610	1657671	844829	816424	1661253	846548	818197	1664745
25-29	1110271	1088372	2198643	1113184	1091242	2204426	1115985	1094059	2210044
30-34	1028055	1021741	2049795	1031124	1024765	2055889	1033982	1027747	2061729
35-39	799022	806220	1605242	801801	808862	1610662	804360	811487	1615846
40-44	674053	691670	1365723	676828	694110	1370938	679363	696519	1375882
45-49	475454	496982	972435	477710	498824	976534	479793	500654	980447
50-54	580262	619070	1199332	583472	621709	1205181	586490	624352	1210842
55-59	545888	596011	1141899	549416	599160	1148577	552829	602343	1155173
60-64	396544	534892	931436	396544	538642	935186	396544	542450	938994
65-69	250042	397153	647195	250042	400808	650850	250042	404549	654591
70-74	144059	294185	438244	144059	294185	438244	144059	294185	438244
75-79	74052	188763	262815	74052	188763	262815	74052	188763	262815
80-84	27236	92803	120039	27236	92803	120039	27236	92803	120039
85-89	5935	32999	38933	5935	32999	38933	5935	32999	38933
90-94	77	6319	6396	77	6319	6396	77	6319	6396
95+	0	646	646	0	646	646	0	646	646
sum	10955691	11438208	22393899	11002441	11487828	22490269	11046399	11535617	22582017

<표 17> 2003년 인구

2003	모형19			모형20			모형21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0	199327	184969	384297	200336	185905	386240	201325	186823	388148
1-4	794964	750527	1545491	813155	765338	1578493	828938	779500	1608438
5-9	1025548	967094	1992642	1046720	985566	2032286	1066767	1002682	2069449
10-14	1079667	1000920	2080587	1085316	1007240	2092557	1092122	1012572	2104694
15-19	958927	900631	1859558	961805	903677	1865482	964447	906407	1870854
20-24	892302	851256	1743559	895502	854612	1750114	898574	857813	1756387
25-29	830576	804696	1635271	834500	808615	1643115	838302	812463	1650765
30-34	1092311	1072886	2165197	1098447	1078899	2177346	1104263	1084832	2189095
35-39	1008302	1004523	2012826	1014830	1010798	2025628	1020891	1017029	2037920
40-44	779152	789579	1568731	785081	794961	1580042	790537	800308	1590845
45-49	650889	673246	1324135	656671	678125	1334796	662004	682975	1344979
50-54	451935	478738	930673	456592	482561	939153	460954	486391	947345
55-59	538187	586722	1124909	544662	592337	1136999	550879	598016	1148895
60-64	487461	549813	1037274	490612	556592	1047204	493659	563505	1057165
65-69	325153	471332	796486	325153	479004	804158	325153	486893	812046
70-74	183360	348426	531786	183360	351632	534992	183360	354914	538274
75-79	89303	229924	319227	89303	229924	319227	89303	229924	319227
80-84	35125	122457	157581	35125	122457	157581	35125	122457	157581
85-89	7926	46332	54258	7926	46332	54258	7926	46332	54258
90-94	113	11089	11202	113	11089	11202	113	11089	11202
95+	0	1011	1011	0	1011	1011	0	1011	1011
sum	11430530	11846171	23276701	11525207	11946677	23471884	11614643	12043935	23658578

<표 18> 2008년 인구

2008	모형19			모형20			모형21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0	191492	177698	369189	192813	178924	371738	194097	180115	374212
1-4	709044	669586	1378630	727097	684486	1411582	742970	698795	1441764
5-9	976823	921145	1897968	999383	940995	1940378	1020913	959583	1980495
10-14	1018185	961113	1979298	1040775	981105	2021881	1062143	999589	2061732
15-19	1070794	994067	2064861	1077997	1002055	2080052	1086268	1008941	2095209
20-24	947103	891861	1838964	951936	896871	1848807	956493	901533	1858027
25-29	879087	840896	1719984	884554	846438	1730992	889822	851801	1741623
30-34	817140	793246	1610386	823452	799469	1622921	829497	805611	1635108
35-39	1071324	1054807	2126131	1081089	1064195	2145284	1090282	1073519	2163801
40-44	983228	983790	1967018	993668	993427	1987096	1003347	1003020	2006367
45-49	752376	768548	1520924	761700	776654	1538354	770337	784747	1555084
50-54	618692	648533	1267225	627641	656017	1283658	636011	663519	1299529
55-59	419165	453723	872888	426221	459763	885984	432966	465874	898840
60-64	480584	541244	1021828	486366	550254	1036620	491918	559457	1051375
65-69	399702	484480	884182	402286	494968	897253	404784	505792	910576
70-74	238440	413504	651944	238440	420235	658675	238440	427155	665595
75-79	113666	272317	385983	113666	274823	388489	113666	277388	391054
80-84	42359	149159	191518	42359	149159	191518	42359	149159	191518
85-89	10221	61137	71359	10221	61137	71359	10221	61137	71359
90-94	151	15570	15721	151	15570	15721	151	15570	15721
95+	0	1774	1774	0	1774	1774	0	1774	1774
sum	11739577	12098197	23837774	11881816	12248318	24130134	12016684	12394078	24410762

나. 2008년 이후 인구 추정 -추후 보완

2) 1945년-1980년대의 인구 추정 -추후보완

3) 남한과 북한의 인구를 통합해서 볼 때 시사하는 점 -추후 보완

참고문헌

- 권태환, 김태현. 1990. 『한국인의 생명표: 1970-1985년의 사망유형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출판부.
- 권태환. 1988. “북한인구추계의 기초마련을 위한 연구.” 『남북한 분단상황 극복방향 연구』. 국토통일원.
- 김두섭. 2001. “북한인구의 성 및 연령구조에 대한 재검토: 1994년 인구센서스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4/2.
- 노용환, 연하청. 1997. 『북한인구센서스의 정책적 함의: 인구구조와 특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현선. 2003. 『현대 북한사회와 가족』. 한울아카데미.
- 이금순. 2005.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통일연구원.
- 이삼식, 조남훈, 백화중, 유수정. 1999. 『남북한 인구변동과 통일시 사회, 인구학적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 2000. “북한기아사 수준과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4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석. 2004. 『1994-2000년 북한기근』. 통일연구원.
- 임순희. 2004.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통일연구원.
- 정기원, 이상현. 1992. 『북한인구의 현황과 전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기원. 1993. “북한의 인구현황과 전망.” 『한국인구학』 16/1.
- 최수영. 2005. 『북한의 산업구조 연구』. 통일연구원.
- 한국통계청. 1999. 『북한인구추계결과』. 통계청.
- Coale, Ansley and Paul Demeny. 1966. *Regional Model Life Tables and Stable Populations*.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Eberstadt, N. and Banister, J. 1992. *The Population of North Korea*.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Berkeley,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Kwon, Tai-Hwan. 1977. *Demography of Korea: Population Change and Its Components 1925-66*.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Sen, Amartya. 1981. *Poverty and Famines*. Oxford: Clarendon Press.
- UN. 1982. *Model Life Tables for Developing Countries*. United Nations.
- 통일연구원. 통계DB.(<http://www.kinu.or.kr/kinu>)
- 통계청. 통계DB (KOSIS) (<http://www.nso.gr.kr>)
- UN (<http://esa.un.org/unpp>)
- (<http://unstats.un.org/unsd/demographic>)
- UNDP (<Http://hdr.undp.org/statistics/>)
- UNICEF (<http://www.unicef.org/inforcountry/>)

제2회의 사회단체·여성·노동

제3발표 : 북한 사회의 체제유지 기제의 성격과 변화에 관한 연구:
외곽단체(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조선민주여성동맹)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이온죽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교수)

이인정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박사)

제4발표 : '남북여성교류'와 남북여성의 통합화에 관한 연구

배은경 (서울대 사회학과/여성학협동과정 조교수)

문소정 (서울대 여성연구소 책임연구원)

제5발표 : 남한 기반 산업체 취업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기초직업능력 요구 분석

이용환 (서울대 농산업교육과 교수)

제3발표

**북한 사회의 체제유지 기제의 성격과 변화에
관한 연구: 외곽단체(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조선민주여성동맹)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이온죽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교수)

이인정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박사)

1.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중요성

가. 연구의 필요성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은 홍수 등 자연재해가 겹쳐 식량난을 겪으면서 심각한 위기적 상황을 맞이하였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붕괴가 머지않았다고 서둘러 진단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악조건 속에서 현재 북한은 인민들의 배고프고 고달픈 삶을 선군정치로 다스리며 미사일과 핵실험을 대외관계의 핵으로 삼고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있다. 전 국민의 10%가 아사했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는 ‘고난의 행군’ 시기를 지나면서도 북한의 인민들은 김정일을 위해 기꺼이 ‘총폭탄’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생존과 체제 유지의 기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북한의 체제가 대내외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유지되고 있는 요인은 무엇일까? 앞으로 북한의 체제가 변화할 가능성과 전망은 어떠한가? 북한을 연구하는 학자나 북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접근이 가능하지만 북한사회의 폐쇄성과 일차자료의 천편일률적이고 무비판적인 자료의 성격 등으로 명료한 대답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 북한은 체제유지에 필요한 사회 통제·유지 기제에 있어서나 사회화 방법과 과정에서나 그 어떤 사회주의 국가보다도 철저하고 조직적인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 체제에 관한 연구는 주로 노동당의 기능과 역할, 수령과 사상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하다. 물론 북한의 대표적인 단체와 조직은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군이다. 하지만 일반 대중과 당 사이에는 실질적으로 주민을 통제하고, 지속적인 사상교양의 역할까지 하고 있는 여러 외곽단체들이 있으며 이들 단체가 실제로 당과 대중을 연결하는 기제로서 막대한 영향력을 갖도록 체제가 작동한다. 일반주민의 생활세계에서는 이 같은 외곽단체들이 더 실제적인 통제와 사회화의 기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당과 인민 사이에서 소위 ‘인전대’(引傳帶: transmission-belt) 역할을 하는 당의 외곽단체가 존재하고 사회통제 및 체제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해 왔다. 북한에서는 조선로동당과 광범한 대중을 이어주는 연결벨트 역할을 하는 이러한 단체들을 근로단체라고 부르고 있다. 김일성사회

주의청년동맹,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민주여성동맹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이 기구들이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는 조선로동당의 사상과 정책을 대중에게 전달하고 주입시키는 사상 교양이다. 따라서 북한의 근로단체들은 계층별, 연령별, 성별로 특징에 맞게 사업할 수 있도록 직업, 연령, 성, 계층에 따라 조직한 대중조직체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만 14세 이상인 당 밖의 모든 군중을 포괄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북한에서 이런 단체들은 당과 대중을 연결시키는 인전대로서 당의 믿음직한 방조자, 후비대로 규정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단체가 오늘날 북한 사회에서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조직체들이 동요하면 북한사회의 통제기반이 아래로부터 위협해지기 때문이다. 북한의 외곽단체는 북한 사회의 유지 기제로서 또한 북한체제의 작동 및 변화와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조선로동당 외곽단체의 역할과 그들이 북한 주민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처럼 당과 대중을 연결하는 외곽단체에 대한 분석은 이들 단체 자체의 위상과 변화를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북한 체제의 통제방식과 조선로동당의 사회통제력 및 주민교화 내지 정치사회화의 성격과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이러한 단체들이 북한 주민의 삶 속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영향을 주는지 그래서 북한 사회의 유지에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찰을 통해 북한 사회의 내재적 작동원리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통일과정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까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이러한 단체들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정치적 측면의 기능과 역할에 초점을 두어 왔거나 비교정치학의 입장에서 중국이나 소련 등의 구 사회주의 국가와의 비교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이러한 단체들의 표면적인 기능이 아니라 저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쳐왔으며 현재 어떻게 변화해가고 있는냐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다. 앞으로 북한의 체제가 변화하거나, 통일이 이루어지는 과정 및 통일 이후에 있어서까지 북한 주민을 안정시키고 그들의 재사회화를 돕기 위해서 이들 외곽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재검토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경제적 통일 이후에도 문화적·사회적·심리적 통합에서 후유증이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의 경우 경제력의 차이도 독일에 비해 훨씬 크고, 사회의

폐쇄성도 북한은 동독에 비할 바가 아니다. 따라서 통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북한 사회의 지속과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단체 중에서 특히 청소년과 여성을 관찰하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이하 청년동맹)과 조선민주여성동맹(이하 여맹)에 주목하고자 한다. 최근 탈북자들의 비율을 보면 청소년과 여성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별히 청소년과 여성은 사회 변화에 민감한 계층이자, 한 사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계층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의 경제사정 악화로 인하여 북한 사회도 기존의 가치관과 질서에 변화가 일고 있다. 북한 사회는 현재 ‘아래에서부터 위로’의 변화 요구와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체제 유지 요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외부로부터의 개방 압력, 개방 후에 초래될 수 있는 체제붕괴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앞날의 전망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갈등의 조짐은 탈북자의 증가, 경제 개선조치, 핵 위협 및 미사일 발사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굳이 이러한 거시적인 수준의 변화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북한 사회에 불고 있는 변화의 바람은 미래에 북한 사회가 지금과는 다른 형태가 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할 수 있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에서는 북한의 변화와 통일에 대비하는 장기적인 전망의 연구들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통일을 대비하는 관점에서 혹은 북한의 변화를 전망하는 위치에서 우리는 그동안 상대방의 표면적인 움직임에 대응하기에 급급해 왔다. 행간을 읽음으로써 사회의 이면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는 여유나 훈련이 부족했기 때문에 문헌을 액면 그대로 해석하거나 심층적인 분석이 미흡했던 면이 없지 않았다. 즉, 연구 대상의 단위가 국가, 당, 단체에 초점을 둔 나머지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소홀했고, 이것이 단기적인 예측이나 현상을 분석하기에 유리한 점은 있었지만 장기적인 전망과 통일이나 북한의 변화에 대응하는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었다고 하겠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사회단체 내지 기구들의 구조기능적 측면이 아니라 사회 기구들과 일반 주민들의 상호작용에 관한 것이다. 말하자면 사회 기구 자체가 아니라 사회 단체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가치관과 생활의 변화가 연구 대상인 것이다.

나. 연구목적

북한에서 사회단체들은 당과 대중을 연결하는 인전대로서 당을 위한 후원 기능,

주민 동원 통제 기능 외에도 유사시에는 군사조직의 기능까지 수행한다. 하지만 최근의 식량난과 사회불안으로 인하여 조직체 중심의 생활과 가치관이 흔들리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렇게 단체를 중심으로 한 조직생활이 흔들린다는 것은 북한 주민의 정신을 지배하던 이데올로기 역시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따라서 북한의 사회단체들이 체제 유지를 지속시키는 기존의 역할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앞으로의 변화를 예상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사회단체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이 연구는 매우 의미 있는 주제를 다룬다 할 것이다. 남북한의 통일과정이나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북한 주민들의 가치관을 파악하고, 현존 북한 사회체계의 성격을 이용하여 재사회화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의 사회가 지금까지 지속되는 원동력은 당과 군 중심의 억압적인 감시체제와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수단을 통제하는 배급제 등의 제도적인 면에서 찾을 수 있지만, 사회문화적으로는 폐쇄사회로 일관한 까닭에 다른 문화권과 접촉이 제한되었던 주민들로서 당과 국가가 제공하는 반복적인 사상교양학습을 통해서 지니게 된 외세에 대한 피해의식과 열등감, 외세에 대한 두려움과 거기에서 오는 일종의 집단주의적 공동체 의식에 기인한 바가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선 북한 주민들이 실제로 통제를 받고, 사회를 유지하게 만드는 주요 기제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이런 취지에서 본 연구가 추구하는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의 대표적 사회단체인 청년동맹과 여맹의 조직과 활동을 검토함으로써 북한 사회가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기제의 성격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아울러 이들 단체에 소속하여 살아가는 개인들의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북한 사회의 변화를 전망하고자 한다. 특히, 청소년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들이 사회의 변화에 민감하고 사회 성원을 재생산하고, 미래를 이끌어 간다는 점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3) 여성과 청소년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미래 통일 사회를 전망하고 교육과 복지정책에 관한 시사점을 탐색하는 것도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사회의 조직과 계속성을 파악하고, 미시적인 생활세계의 관점에서는 개인의 삶을 통한 변화의 가능성을 전망함으로써, 다가올 통일에 대한 부작용을 줄이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과 주요 내용 개요

가. 연구 내용

- 1) 북한의 사회단체를 연구하기에 앞서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 존재했던 사회기관들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국가에는 일정한 형태의 사회단체가 존재하는데,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 일종의 전위조직인 당의 외곽조직으로 당이 대중을 지도하는 핵심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사회단체 특징과 북한 사회단체의 특징을 비교함으로써 북한 체제의 일반성과 특수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 2)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청년동맹)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김일성을 위한 조직이다. 청년동맹은 만 14세에서 30세에 이르는 북한의 비당원 청년들을 포괄하는 유일한 청년단체이자 최대의 근로단체이다. 청년동맹은 현재 약 500만 명의 청년들이 가입해 있으며, 이는 북한 전체 인구의 약 22%에 해당하는 방대한 조직이다. 물론 250만 명이 소속된 직업총동맹이나 150만 명의 맹원이 있는 농업근로자동맹 역시 중요한 외곽단체임이 분명하지만, 이 두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맹원들 역시 이전에는 청년동맹의 맹원이었음을 감안하여 볼 때 그 중요성은 더 분명해진다. 청년동맹은 특별히 변화에 민감한 청년들을 포괄하는 단체라는 점에서, 북한의 지도부는 김일성 사후 청년동맹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왔다. 이 같은 사실은 1995년 이후 북한의 공동사설이 조선로동당 기관지 《로동신문》, 북한군 대변지 《조선인민군》과 더불어 청년동맹 기관지 《청년전위》의 명의로 발표되고 있는 것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북한에서 청년은 체제이반이 가능한 경계대상이자, 체제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동원해야 할 기본 동력이라는 이중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청년동맹의 중요성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북한지도부는 김정일의 ‘청년중시정치’에 따라 청년동맹을 당, 군과 함께 체제유지를 위한 3대 보루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 계층은 사회적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사회 변동을 이끌지도 모르는 불안요소라 할 수 있다. 북한의 청소년층에서 실제로 시작된 변화의 움직임을 북한 당국은 ‘황색바람’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이런 움직임 속에서 북한 사회의 변화를 유추할 수 있는 여지를 찾으려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청년동맹의 형성과 발전, 지위와 활동, 역할 등을 알아보고, 향후 변화를 전망하고

- 자 한다. 특별히 청년동맹이 실제 청소년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교화시켜나가는
 가의 과정과 방법을 연구함으로써 북한 사회의 유지 기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를 제공할 뿐더러, 미래의 청소년 교육정책에 시사점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 3) 조선민주녀성동맹은 북한의 여성을 대표하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북
 한에서 여성은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담당한다고 선전되지만 실제로는 북한사
 회의 보수성 때문에 여성이 능동적으로 사회를 이끌어 가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
 하지만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이 가정에서 자녀를 교육하고 실제 가계를 운영한
 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중요성은 결코 무시될 수 없다. 특히 최근 들어
 국경을 넘어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이나 탈북을 하여 남한에 들어오는 여성의 비
 율이 급증하고 있으며, 경제난을 거치면서 북한의 여성 지위가 조금씩 변화하는
 것이 관측되고 있다. 120만 명의 맹원 수를 가지고 있는 조선민주여성동맹의 경
 우 이중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북한에서 유일한 ‘독점적인’ 여성조직으로 위세를
 떨치던 여맹은 1980년대에 들어 갑자기 그 조직이 위축된다. 원래 여맹은 18세에
 서 55세에 이르는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이었다. 그러던 것이 1980년대
 중반에 들어오면서 가입연령이 30세(미혼일 경우)에서 55세까지의 여성으로 그
 자격이 제한되었다. 더욱이 직업동맹이나 청년동맹, 농근맹과 같은 다른 근로단
 체에 이미 가입된 여성은 중복가입이 허용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여맹의 세력
 은 크게 위축되었다. 그러나 여맹은 1990년대 이후 또 다른 변화를 겪게 된다.
 그 변화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변수는 경제위기였다. 경제난 이후 여성이 가
 계를 책임지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여맹원수는 1980년대에 비해 늘어나게 된 것
 이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여성들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1980년대 위
 축되었던 여맹은 북한 지도부의 독려 속에 1990년대 들어 일부 기업소 근로자
 등으로 조직을 재정비하고 일정 한계 내에서 활동의 범위를 넓혔다고 할 수 있
 다. 비록 여맹이 1980년대 이후 그 세력이 약화되긴 했지만, 여맹은 아직까지 북
 한의 4대 근로단체 가운데 하나이며, 유일한 여성조직이다. 더욱이 경제난 이후
 여성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주체로 등장하면서 가두여성(전업주부)을 관
 리·통제하는 여맹의 역할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여맹이 북한
 의 여성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하여 사회 유지에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에 대해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여맹의 지위와 역
 할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실제 여성들이 가정을 꾸려가고, 자녀를 교육시키는

등의 삶에 주목하고자 한다. 여성들의 삶을 통해서 현재 북한이 처해 있는 문제를 보다 종합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4) 위와 같은 연구 내용을 종합하여 북한의 문제점과 체제 변화 가능성을 전망하고자 하였다. 체제의 유지와 변화는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이다. 사회단체와 그 속에서 움직이는 북한 주민 개인의 삶을 통해서 북한 사회의 변화 가능성을 살펴보고, 미래에 이들 단체와 조직을 어떻게 이용하여 통일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지 고려하려는 것이다.

나. 연구 방법

북한 연구에서 항상 장애로 지적되는 부분이 자료의 빈곤함이다. 특히 실제 북한 사람을 대상으로 참여 관찰이나 조사연구를 실시할 기회가 없는 상황에서 미시적인 사회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1983년부터 2007년까지의 신문자료와 잡지를 바탕으로 내용분석을 하되, 「로동신문」, 「청년전위」, 「조선녀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북한의 청년과 여성들의 삶의 세계를 이해하고자 시도할 것이다. 자료의 범위와 관련하여 우선 「로동신문」의 경우에는 1988년에서 2002년까지 신년사 및 청년동맹과 여성동맹의 창립일, 그리고 청년절이나 국제부녀절 등의 주요 날짜별로 사설 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청년전위」는 1998년 이후의 자료가 국내에 입수되지 않는다는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5년 단위로 1983, 1988, 1993, 1998년의 네 해 동안의 기사 전체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선녀성」은 1993, 1998, 2003년에 수록된 전체 기사 자료 및 당해인 2007년 5월까지의 자료 전수(全數)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북한의 신문이나 잡지 등의 인쇄 매체와 TV 등의 대중매체들은 원칙적으로 당성, 이데올로기성, 교양성을 띤 보도 내용만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례나 사회 문제가 지적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 대한 계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양 기사 중에는 간혹 부정적인 청년이나 여성들의 사례가 등장한다. 이를 바탕으로 청년들과 여성들의 변화 및 당국의 통제로부터의 이완 사례들을 짚어볼 것이다. 한편 북한의 신문은 해마다 같은 날짜에는 이전 해의 기사들과 거의 유사한 내용들을 싣는 경우가 많으나, 이 경우에도 내용분석을 통해 살펴볼 경우 점진적이거나 시기별 변화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나아가 미풍사례 혹은 긍정교양에 있어서도 행간(行間)을 읽음으로써 북한 사회와 주민의 삶의 세계에 대한 간접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또한 남한에 있는 탈북자들과의 면담과 소설, 영화 등을 활용하여 시대적 변화, 인간관계의 유형 분석 등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자는 일찍이 『북한 사회연구』¹⁾와 『북한 사회의 체제와 생활』²⁾ 등의 저서에서 북한 소설을 통해 인간관계, 가족관계 등의 분석을 시도한 바 있거니와 문헌의 내용분석에 있어서 질적 자료를 수량화하여 그 사회의 특성을 분석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신문, 잡지, 영화, 소설 등의 분석만으로는 학문적으로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에 한계가 있고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시대별, 지역별, 성별, 청년동맹과 여맹의 맹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심층 면접을 병행하였다. 탈북자의 인터뷰 대상 표집은 기존의 2004년에 수행한 연구³⁾의 탈북자 면접 명단을 이용한 Snow-Ball 표집방법을 채택하였다. 다만 지역별, 연령별, 탈북시기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탈북자 단체나 연관된 기관에 협의하여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최대한 많은 인원을 심층 면접하였다.

3) 선행연구의 검토 및 본 연구의 범위

현재 북한의 근로단체를 다룬 연구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세종연구소에서 1998년과 2004년에 간행된 두 권의 연구총서가 있다. 1998년에 나온 『북한의 근로단체 연구』⁴⁾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민주여성동맹의 발전과정, 조직, 활동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2004년에 출판된 『조선로동당의 외곽단체』⁵⁾에서는 더 나아가 조선사회민주당, 조선천도교청우당, 조선문학예술총동맹, 대외경제기구 등의 당 외곽 단체들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하지만 두 연구 모두 정치적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막연히 사상 교양의 기능만을 강조하고, 당과 구별되는 외곽단체들만의 특성과 북한의 사회상을 묘사하지는 못한 아쉬움이 있다.

1) 이은죽, 『북한사회연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사, 1988.

2) 이은죽, 『북한사회의 체제와 생활』, 서울, 법문사, 1993.

3) 이은죽, 『통일과정 및 통일 후에 있어서 북한주민의 적응과 통합에 효율적인 교육방법의 모색, 북한 사상교양 교육방법의 특성 연구』, 2004년도 서울대학교 통일학연구사업, 2005.

4) 이종석 편, 『북한의 근로단체 연구』, 성남, 세종연구소, 1988.

5) 정성장 외, 『조선로동당의 외곽단체』,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4.

북한의 여성에 대한 연구는 과거에서 최근까지 비교적 많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여성 탈북자의 숫자가 급증하면서 이들의 적응에 대한 연구가 많다. 최근 북한의 여성에 관한 연구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통일연구원에서 2004년에 나온 임순희의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⁶⁾와 2003년에 나온 박현선의 「현대 북한사회와 가족」⁷⁾이 있다. 두 연구의 공통점은 북한사회 체제의 지속성의 원인을 여성을 중심으로 한 가족에서 찾고자 한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결론의 도출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필요한 연구는 현상을 기술하거나 문제점을 밝히는 것이 아닌 통일의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이다. 연구방법 면에서도 탈북자의 인터뷰에만 의존한 나머지, 내용에 대한 검증이 부족한 약점이 있다.

북한 청소년에 관한 연구 역시 최근에 나오는 연구들은 대부분 탈북자의 적응과 관련된 연구들이 많다. 하지만 현재 북한 내에서 거주하는 북한 청소년들에 대한 연구는 그 필요성과 관심에 비해서 아직 연구된 부분이 적다. 청소년에 관한 연구는 주로 북한의 교육제도를 다루면서 언급되는 정도인데, 대표적인 연구로는 1999년에 나온 한만길의 「북한에서는 어떻게 교육할까」⁸⁾가 있다. 북한에서 교육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수기와 그에 대한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청소년을 정면으로 다루지 않았지만 학교생활과 학습활동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들의 생활이 잘 드러나 있다. 하지만 탈북자의 수기를 엮은 책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분석이 부족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지금까지 나온 북한 청소년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북한 청소년의 정치사회화 또는 탈북 청소년의 적응 문제와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북한 청소년의 정치사회화는 물론이고, 그들의 문화와 정서를 연구하여 북한 사회의 미래를 전망하고자 한다.

북한 사회·문화에 관한 연구들도 현지 관찰과 답사가 어려운 점과 아직 현실적 수요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정치, 외교, 경제에 비해서 아직 연구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다만 최근에 탈북자가 증가하면서 나온 증언들을 토대로 나온 수기와 증언을 통해서 기아 문제나 인권 문제 등 북한 사회의 문제점들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에 나온 대표적인 연구들로는 1999년에 통일연구소에서 나온 서재진의 「북한의 사회심리연구」⁹⁾나 2006년에 세종연구소에서 나온 「북한의 사회문화」¹⁰⁾,

6) 임순희,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4.

7) 박현선, 「현대 북한사회와 가족」,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3.

8) 한만길 편, 「북한에서는 어떻게 교육할까」, 서울, 우리교육, 1999.

2004년과 2006년에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에서 나온 「북한 도시의 형성과 발전」¹¹⁾, 「북한 도시의 위기와 변화」¹²⁾ 등이 대표적이다. 서재진의 「북한 사회심리 연구」는 북한 사회의 심리적 병리현상과 북한 주민의 방어기제를 다룬 연구이다. 「북한의 사회문화」의 경우는 법과 규범의식, 개방의식, 교육, 여성, 가족 등을 여러 연구자들이 폭넓게 다루고 있다. 북한체제의 지속성과 변화에 초점을 두고 사회문화를 바라본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시도하는 바와도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남한의 입장에서 북한을 해석하고 북한 사회·문화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있는 감이 있다. 북한 사회의 기본 단위는 개인이 아닌 단체이기 때문에, 변화와 지속성을 이야기하려면 당연히 사회단체와 개인의 연관성을 논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빠진 아쉬움이 있다. 「북한 도시의 형성과 발전」과 「북한 도시의 위기와 변화」는 청진, 신의주, 혜산 출신의 탈북자 증언을 바탕으로 도시 공간에서 주민들의 삶과 문화, 정치적 활동이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북한 사회를 심층적으로 파고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하지만 단순히 북한 사회의 현상을 기술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본 연구는 단순히 탈북자 인터뷰를 통해서 북한의 실상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신문, 잡지, 영화, 소설 등의 내용 분석 등을 더해서 보다 입체적이고, 통일의 과정에서 정책적 함의를 줄 수 있는 연구를 하였다. 이 분야와 관련해서 일차 자료의 양이 부족하고, 분석틀로 삼을만한 연구방법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에서 연구 주제를 다루거나, 현상의 해석에만 주목한 나머지 분석이 결여된 연구가 많은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로 인해 북한의 현실이 남한에 왜곡되기도 하며, 연구자들이 정작 북한 주민들이 바라는 변화에는 무관심한 경우도 많고, 엇비슷한 연구들이 반복되기도 한다.

9) 서재진, 「북한의 사회심리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1999.

10) 김동한 외, 「북한의 사회문화」,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6.

11) 최완규 편, 「북한 도시의 형성과 발전」,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4.

12) 최완규 편, 「북한 도시의 위기와 변화」,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6.

2.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변화와 전망

1)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형성과 발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약칭 청년동맹)은 1946년 1월 17일 “북조선민주청년동맹”(민청)으로 창립되어, 1964년 5월 12일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사로청)으로 개칭된 후 1996년 1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청년동맹)으로 개칭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는 만14세에서 30세에 이르는 북한의 비당원 청년들을 포괄하는 유일한 청년단체로, 약 500만 명의 청년들이 가입되어 있는 북한 최대의 근로단체이자 사회단체이다. 현재 북한지도부는 청년동맹을 당, 군과 함께 체제유지를 위한 3대 보루의 하나로 중시하면서, 조선로동당 기관지 『로동신문』, 북한군 대변지 『조선인민군』, 청년동맹기관지 『청년전위』의 명의로 공동사설을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동맹은 ‘당의 근로단체’로 출발하였으나, 점차 당보다 수령에 더욱 충성하는 조직으로 변모해갔다. 이러한 청년동맹의 형성과 발전을 시기별로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단계는 민주청년동맹으로서, 1945년 11월에 공산당을 반대하는 신의주학생사건 등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다양한 청년단체들을 공산당 중심으로 규합할 것이 요청되면서 1946년 1월에 공청을 해산하면서 이루어졌다. 이후 1946년 1월 16일에는 평양에서 북조선민주청년단체대표자회가 열려 17일에 공산당과 청년 대중을 연결하는 ‘인전대’로서 ‘조선민주청년동맹 북조선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이 대표자회를 후에 민청 창립대회로 간주하게 되었다. 한편 1948년 11월에 열린 북조선민주청년동맹 제 3차 대회에서 김일성은 북조선민주청년동맹의 기본과업을 청년들을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준비시키는 사업으로 규정하면서, 이후 사상교양단체로서의 역할과 경제건설과 대중계몽의 과업을 분명히 하였다. 한국전 이후에는 민청이 전후복구건설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하면서, 고되고 힘든 생산현장으로 돌격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두 번째 단계는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으로서, 1964년 5월의 민청 제 5차대회에서 개칭되었다. 그 개편 배경으로서 당국은 북한 내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되어 개인 상공업자와 개인 농민들이 사회주의적 근로자로 되며, 모든 청년들이 사회주의 노동청년으로 된 사실을 들고 있다. 김일성은 청년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을 사로청의 ‘가장 중심적인 과업’으로 내세우면서, 가입연령 역시 이전에 14

세에서 28세였던 것을 14세에서 30세까지로 늘렸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사회주의적 개조’의 완성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1967년에 일어난 정치사회적 격변과 보다 많은 관련이 있다.¹³⁾ 이후 1971년 6월의 사로청 제 6차대회는 5차대회의 결과를 사로청 활동에 반영시키는 사업과 관련된다. 이에 따라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 고양, 대를 이르는 혁명사업의 수행이 강조되었다. 또한 1981년 10월에 열린 사로청 제 7차 대회부터는 김정일이 전면적으로 지도에 나서면서 1980년대 이후 김정일에 대한 개인숭배가 공개적으로 전개되었다. 이처럼 사로청 조직은 혁명의 계승자로서의 김정일 후계체제 확립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편 1993년 초의 사로청 제 8차대회는 조선노동당대회와 독립적으로 개최되었는데, 이는 구 공산권 청년들의 변질상과 관련된 것으로 북한 당국은 사상교양을 극단적으로 강조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서, 1996년 1월에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대표자회가 개최되어 일부 조직을 개편하고 후계자 김정일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과정에서 개칭이 이루어졌다. 여기서 청년동맹은 김일성이 밝힌 청년운동에 관한 사상이론과 청년운동발전에 쌓은 위대한 업적을 견결히 옹호 고수하고 빛내여 나가야 할 것으로 강조되었다. 청년동맹의 조직 측면에서의 변화로는 기존의 위원장, 부위원장 직제를 1비서와 비서 직제로 개편하고 각급 초급조직들에는 비서와 부비서 직제를 두었다.¹⁴⁾ 이는 청년동맹 최고책임자의 권한을 상대적으로 축소시키게 되는 한편, 동맹지도부의 집체지도를 강화하는 효과를 지닐 것으로 평가된다.¹⁵⁾ 이러한 조직개편은 변화에 민감한 청년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충성심을 유도하려는 것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이며, 탈북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 이후 청년동맹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다고 한다. 개칭 이후 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의 제호도 『로동청년』에서 『청년전위』로 변경되었다. 한편 2002년 3월에는 제2차 대표자회 개최를 통해 새 청년동맹 규약을 채택하였는데, 여기서 청년동맹은 조선로동당의 ‘정치적 후비대’로,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성으로 받들고 혁명의 령도자를 앞장에서 결사옹위

13) 정성장, 앞의 책, 2004, p.41.

14) 로동신문 사설에 따르면 “청년동맹에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을 높이 모신 것은 청년들에 대한 당의 최대의 믿음, 최고의 표창으로 되며 그것은 모든 청년들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지닌 청년전위로 튼튼히 준비되게 하는 데서 획기적인 계기로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로동신문』 1996. 1. 20.

15) 정성장, 앞의 책. 2004, pp.44-45.

하는 청년전위조직”이며, “사회주의강성대국 건설에서 선봉대, 돌격대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청년동맹의 투쟁과업으로 제기”한다고 밝히고 있다.¹⁶⁾ 구체적으로는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이며 공화국의 미래를 떠메고 나갈 새 세기 개척자들”인 선군시대 조선 청년들은 “최고사령관의 예비전투부대”로서 “조국보위와 강성대국건설”에 매진할 것을 강조한다.

2) 청소년 계층에서 나타나는 변화

① 정치·사상적 이완과 무규율적 성향

관련된 논문에 따르면 1990년대 초 경부터 『청년전위』 등에서는 청년들의 정치·사상적 이완과 함께 조직관념 약화로 인한 무규율적 태도들이 자주 지적되어 왔다.¹⁷⁾ 즉 ‘무규율적이고 자유주의적인 현상’은 ‘조직의 통제가 약화’되면서 발생하는 것이며, ‘조직성과 규율성’이 이완되면 ‘부르조아 자유화바람’과 ‘날라리풍’에 물들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 등을 바탕으로 할 때, 북한 사회의 대내외적 상황 변화와 더불어 조직 통제가 약화되면서 청년들의 정치·사상적 이완과 함께 무규율적 성향이 증가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조직의 통제력이 약화되게 된 배경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 첫째로 경제적인 곤란으로 인한 청년 세대의 비관적인 태도나 불투명한 미래 등으로 인해 조직을 통한 사상교양학습에 관심을 덜 보이게 되었을 수 있다. 둘째, 당국에 대한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선불리 표출하였다가 자칫하면 ‘정치적 모자’를 쓰고 사상범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적 불만을 간접적으로 우회시켜 당일군이나 동맹조직일군 등에 책임을 전가하게 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결국 동맹조직생활에서 유리되게 되는 경우들도 찾을 수 있겠다. 셋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물질주의적 관심사가 증가할 경우, 당원이 되어 이루어지는 정치적인 보상이나 혜택 자체에 대한 관심이 감소하게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청년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거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졸업장’이나 ‘기술자격증’ 자체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상대적으로 조직 자체에 대한 흥미와 의존도가 약

16) 『로동신문』 2002. 3. 23.

17) 이인정, “1980년대 이후 북한 새세대의 가치 변화 연구-『청년전위』 분석을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민윤리교육과 박사학위논문 2004.2. 참조

화되었을 수 있다. 넷째, 북한 내에서 경제적인 곤란이 심해지면서 유류 및 쌀, 원자재 등을 당국으로부터 받기 어려워지게 되자, 많은 직장들이 ‘자력갱생’을 위한 ‘자체조달’ 차원에서 직장 청년들을 임시적으로 외부로 돌려 사업하도록 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이러한 직종에 속하여 조직에서 떠나 있게 되는 기간이 많은 직업적 특수성을 지닌 직장청년들의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조직의 통제력에서 이탈하는 것이 보다 쉬웠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이처럼 조직관념이 약화되고 조직이탈을 행하는 청년들에 대한 기사의 빈도가 1990년대 초 이후부터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청년들의 조직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의 정도 역시 차츰 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낮은 수준의 일탈 지적들로는 생활충화를 ‘잊어먹고’ 혹은 의도적으로 빠지거나, 빠진 것을 조직에 보고하지 않고 숨기거나, 참가하더라도 ‘권태’를 느끼면서 수동적으로만 참여하는 등이 있다. 반면 ‘연령’이 높아져가면서 출근과 직장업무 자체도 불충실하게 변하는 청년들이나, 총화 등에서 받은 조직의 비판에 대해서 뉘우치기보다는 ‘반문’하고 ‘엇서나가기’도 하는 등 청년들이 동맹조직에 대해 지니는 부정적 태도의 수위가 조금씩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당국이 우려하는 청년들의 비사회주의적 현상들로는 직장청년들 사이에서 당사업을 ‘말로만 접수하고 집행을 태공하는 현상’, 무책임성, 주인의식 부족, 소극성과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와 요령주의, 형식주의, 패배주의 등이 지적된다. 학생청년들 사이에서는 ‘외국상품에 환상을 가지고 들떠’ 다니거나 ‘색다른 물건에 눈을 파는 현상’ 등 ‘우리 식 사회주의와 인연이 없는 현상들’이 지적된다. 또한 조직을 이탈하여 청년들끼리 패거리를 지어 몰려다니면서 빠스정류소나 차안을 비롯한 공중장소 등에서 질서 문란 등 집단주의 생활규범과 어긋나는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다고도 지적된다.

② 개인의 흥미와 개성 중시

1990년대 이후의 청년 관련 기사들에서 특징적으로 발견되는 것 중 하나는 청년들의 ‘흥미, 개성’에 대한 언급들이다. 이러한 표현들은 주로 청년절의 제정 관련 기사들이나, 새세대들에 대한 새로운 교양 방법론 측면에서 자주 발견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직에 대한 흥미가 약화되고 유리되어 가는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교양하기 위해서는 ‘우리 식 청년교양체계’를 ‘실속’있게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는 식이다. 당국은 기존에 진행해 왔던 전통적인 조직교양방식으로는 청년

들의 약화된 조직관념을 되살리고 ‘사상정신적량식’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따를 것으로 파악하고, 청년들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개별적인 교양’ 및 ‘개별 담화 방법’을 시도하여 문제의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한다. 이를 위해 청년들의 ‘고유한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여 그에 맞춘 교양을 시도하라고 주문하는데, 그 특성은 “새것에 민감하고 감수성이 빠르며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고 미적정서가 강한 것” 등이며, ‘량만과 락천’적인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청년들의 심금을 울리고 흥미있게 진행”해야 하며, 공산주의미풍 등 긍정적모범에 의한 감화교양 방법론이나 혁명가요 보급 등으로 ‘흥미’를 채워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한다. 또한 딱딱한 정치적 강연 일색으로 교양을 시도하지 말고, 청년들이 좋아할 수 있는 ‘과학’이나 ‘사회문화’ 강연을 배합하여 진행할 것을 강조하기도 한다. 결국 과거 세대 청년들에 비해 북한 새세대 청년들은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교양보다는 ‘흥미’롭고 ‘매혹력있는’ 방식을 선호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한편 1991년 8월 28일에 제정된 청년절 행사의 설립 배경이나 청년절 행사의 내용들을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새 세대 청년들의 ‘흥미’와 ‘개성’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다. 청년절은 청년들이 ‘혁명과 건설의 어렵고 힘든 초소에서 계속 위훈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흥미롭고 신바람’나는 방식으로 그들을 고무해 주어야 한다고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청년절 행사들은 과거와 같은 단순한 정치행사들과 강연 뿐 아니라, 노래보급, 예술소품경연, 체육경기, 등산, 견학, 야유회 등 다양한 사업을 ‘매혹력있게 조직진행’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청년절 행사로 청년들이 당과 정부 간부들과 함께 ‘신바람’나게 축구, 배구, 룡구, 바줄당기기, 공안고달리기, 장기 등 체육오락경기를 하며, 다양한 유희오락시설들을 즐긴 것으로 소개된다.

③ 물질적 관심의 증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청년들의 조직 관념의 약화는 청년들의 ‘개인주의, 이기주의’적 경향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더구나 1980년대 후반부터 심화되기 시작한 에너지부족과 이로 인한 경제발전의 정체, 배급제의 와해 등은 과거에 비해 ‘물질’에 대한 관심을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만들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초 이후부터는 북한 청년들의 ‘물질주의’적 관심을 유추하게 해주는 기사들이 자주 등장하며, 물질주의를 교양하기 위한 영화와 소설 등도 증가한다. 예컨대 자신이 혁명적으로

투쟁하지 않고도 노력영웅인 아버지의 덕을 보면서 청춘시절을 향유하려고만 하는 주인공 청년의 모습을 그려낸 영화 ‘먼 훗날의 나의 모습’에서는 이러한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구체적으로 잘 나타난다. 영화의 주인공은 허영심에 들떠 대외사업일군을 희망하며, 흥청거리는 ‘먹자판’, ‘놀음판’을 좋아하고, ‘농민시장가격이나 외국제 물건 이름과 값’에 환하며 돈벌이 등에만 적극적인 존재로 묘사된다. 영화감상평모임 관련 신문기사들에서도 북한 내에서 주인공처럼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을 갖고 제 호주머니 불굴 생각 가운데 딴 짓을 하는 청년들이 더러 있다고 고백한다.

특히 청년 대학생들이 ‘돈과 물건에 유혹’되어 맛을 들여, “량심이 없고 순박하지 못하며 기만과 허례허식, 사치와 부화방탕으로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경우가 많다. 대학생들은 무엇보다도 ‘순박성’을 지녀야 하며, “안일해이해지거나 돈과 재물에 유혹되지도 않고 직심스럽게 공부에 열중”할 것과, “일상생활에서도 호의호식을 바람이 없이 검박하고 건전하게” 살아나갈 것을 촉구한다. 또한 ‘요행’을 바라며 농민시장에 나가서 물건들을 구경하거나, ‘남의 물건’을 탐내는 청년들이나, 나아가 남녀사이의 사랑에 있어서도 혁명의식 등 사상정신적 측면을 보기보다는 “재물이나 인물, 직업”을 중시하는 태도를 비판한다. 또한 ‘마후라로 걸치레를 화려하게’ 하는 것을 부러워하는 청년들의 태도를 비판하는 구절에서도 새 세대 청년들의 변화된 관심사를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물질주의적 경향은 1990년대 초 이후 청년들의 ‘양심’이나 ‘청렴결백성’을 더욱 빈번하게 강조하는 것에서도 유추할 수 있는데, 1980년대 후반 이전의 신문기사 등에서는 이러한 지적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에서도 비교해 볼 수 있다. 예컨대 1990년대 초의 신문기사들에서는 집단을 위하는 ‘순결한 양심’ 가운데 ‘돈지갑, 카메라, 돈가방’ 등을 주워 주인에게 돌려주는 미담기사 등이 신문 지면을 가득 메우기도 한다. 1993년의 『로동청년』에서는 단 하루 동안 한 페이지에서만도 자그마치 여섯 개나 되는 돈지갑 관련 미풍기사가 소개되기도 할 정도로 주요한 기사거리로 취급되지만, 이러한 돈가방 관련 기사들은 전 시대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 이를 통하여 1990년대 이후의 새세대 청년들은 과거 세대에 비해 보다 많은 물질주의적 관심을 지니고 있을 수 있다고 간접적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공동재산에 대한 사적 절취 혹은 사적 이용 행위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청년들의 부정적 행위들을 소개하고 있는 기사들에서는 개인적인 재산을 늘리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국가물건’을 탐오낭비하고 ‘낫내기’를 하는

등의 현상이 자주 지적되는데, 이는 구소련이나 동구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자주 발견된 바 있는 사항이다. 또한 자신이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물품을 만들기 위하여 직장의 기계를 이용하여 가공하는 사례도 비판되고 있는데, 관련된 탈북민 인터뷰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그들이 북한에 거주할 동안 주요한 소득원천이었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인 여유를 충분히 지닐 수 있었다고 지적된다.¹⁸⁾

④ 직업관의 이기주의화

사상적 이완과 물질에 대한 관심은 새세대 청년들로 하여금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헌신하기보다는 도시의 인기 좋은 직업으로의 배치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에 따르면 새세대들의 직업관에 있어서 이기주의, 물질주의적 경향은 시대 변화로 인해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반문을 하듯이 혁명의식의 약화로 연결된다고 지적된다. 이에 따라 새세대 청년들은 자신이 지닌 최대한의 연줄과 물리력을 동원한 ‘뒤공작’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제한된 사람들만이 진입할 수 있는 보다 지위가 높고 경제적으로 이익이 큰 직업들로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종은 해외부문과 금융부문, 상업봉사부문처럼 ‘먹을알있는’ 직업이라고 소개된다¹⁹⁾. 반면 청년들이 회피하려 드는 직업군은 ‘어렵고 힘든 일’로 불리는 조국보위탄원과 사회주의건설장 등이나, ‘밥사발이나 국사발을 만드는’ 도자기공장이나 농촌 등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 구두수리나 리발 등 비교적 북한 내에서 천시되는 일 등이다. 비판기사들에 따르면 이러한 청년들의 행위는 근본적으로 직업의 귀천을 따지는 ‘낡은 사상’이며, 보다 편안한 곳에서 쉽게 일하고 보수를 많이 받는 것이거나 개인의 ‘명예’를 떨쳐보자는 태도라고 한다. 결국 이러한 당국의 시각을 통해서도 청년들에게는 경제적 보수나 개인주의적인 출세

18) 김일성종합대학 출신의 30대 남성인 새터민 L씨에 따르면, 야간에 공장의 기계와 전기를 활용하여 직접 제작한 기계들을 팔아서 매우 큰 소득이 발생하여 운택했다고 한다.

19) 김일성종합대학 출신 50대 남성인 새터민 H씨에 따르면, 1980년대까지는 간부들의 자녀들은 대부분 정치 부문으로 진출했다고 한다. 그러던 것이 1990년대 이후에는 주로 외화벌이가 용이한 부문으로 진출하였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외국어와 기술 부문으로 집중되었다고 한다. 이를 보고받은 김정일은 관련자를 모두 불러 “이것은 체제 전망에 대한 전형적인 패배주의다.”라면서 비판을 가하고, 이후 무자격자들을 선별하여 외교부에서 다 쫓아냈다고 한다.

와 명예 등이 상당 정도로 존재한다고 파악할 수 있다. 반면 비선호직종에 속한 청년들은 자신의 직업에 대한 비관적 인식에 빠져 있으며, 직업에 ‘애착’을 갖지 못하여 불성실한 노동을 한다고도 지적된다. 그들은 지도하러 내려온 교양지도원들에게 “당신들도 오라면 오겠는가”라는 식으로 반문하며, 교양지도원들 역시 이러한 반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다는 데에서도 이러한 직업의 귀천의식이 상당히 뿌리 깊을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지역적으로는 직종에 상관없이 평양 등과 같은 ‘도시’를 선호하는데, 특히 대학생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드러난다고 한다. 이러한 대학생들은 당의 은덕과 우리 시대 대학생의 책임감마저도 잊은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비판된다. 대학생 관련 기사들에서는 이러한 직종 선택의 이기주의적 측면 이외에도, 조직생활과 학과학습을 게을리하며 휴식날과 명절날을 기다리는 등의 태도도 발견된다. 이들은 당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이 잘나고 부모들의 ‘배경’이 튼튼해서 대학생이 된 것으로 착각하면서, 색다른 물건에 관심을 갖고 ‘호부자’처럼 방탕한 삶을 산다고도 한다.

⑤ 일탈의 증가

여타 세대에 비해 청년 시기는 기성세대나 제도에 대한 반항적이고 일탈적인 행위가 드러나기 쉬운 시기이다. 1980년대 경까지는 신문기사 등에서 지적되어 온 대표적인 청년 일탈의 종류가 ‘나태, 안일, 형식주의’ 등으로 비교적 소극적인 형태였으나, 1990년대 초반부터는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형태로 일탈의 수위가 높아지는 특징을 보인다. 소극적인 일탈의 사례들로는 직장 내의 청년학교 내에서 ‘고난의 행군’ 동안 낙담하여 ‘시무룩’해 있으면서 작업에 분발하지 않는 태도들이 지적되며, “안일해이하거나 개인리기주의와 날라리풍에 물젖어 일하기도 투쟁하기도 싫어하는 무뎡한 청년”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1990년대 이후의 보다 적극적인 일탈로는 ‘당에 짐’이 되는 청년이나, ‘뒤골방에서 나쁜 짓’을 하는 청년, ‘개인의 리속만을 차리며 비사회주의를 하는 사람’, 폐거리를 지어 몰려다니거나, 버스정류소나 식당 등에서 “싸움질을 하며 사회질서를 문란”시키는 일, 생활이 자유주의적이고 지각을 하거나 출근을 하지 않는 일, 조직에서 유리되어 떠돌아다니는 일, 노동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법을 어기는 행위, 저속한 생활풍조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청년들에 대해서는 ‘독버섯’이나 ‘길가의 막돌’과 같다는 표현도 사용된다.

특별히 북한 청년들에게서는 폭력적이고 강한 언어사용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기사들에서도 역시 언어예절과 관련된 지적이 매우 자주 나타난다. “웃어른들에게 이따금 반말질”을 하는 청년이나, “청소년들 속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비문화적인 언어행위”라는 표현 등에서 이를 유추할 수 있다. 또한 가족 내에서 지켜야 할 언어예절도 간혹 등장하는데, “동생의 결혼에 대하여 야비하고 조폭한 언사로 욕질을 한다”는 표현이라든지, ‘거치른 말본새’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부모와 형 언니들에게서 배운 것”이라는 지적 등이다. 또한 “동생들 앞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는 것과 같은 일이 자주 반복”되지 않도록 청년들이 우선 가정 내에서부터 기초 예절과 모범적인 행동을 할 것을 강조하기도 한다.

⑥ 결혼관의 변화

북한 새세대에게 증대되고 있는 물질주의적 측면은 결혼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신문기사에서는 ‘지금 일부 청년들’이 가정을 이룰 때 서로 교환하는 옷가지라든가 살림살이도구들을 지참품의 일부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물론 부모들이 마련해주는 이런 것들이 다 지참품인 것만은 사실이다.”라고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기도 한다. 또한 영화 ‘먼훗날의 나의 모습’에서도 주인공이 사랑을 고백하는 과정에서 “행복하게 해 줄 모든 조건”이 다 구비되어 있으며 이 모든 것을 외아들인 자신이 모두 물려받게 된다고 풍족한 살림형편을 자랑하는 대목이 나온다. 또한 농촌의 일부 청년들은 고향을 떠나 도시로 시집가는 것을 희망하고 부러워한다면서, 이로 인해 농촌의 처녀총각들은 자신의 일에 대한 긍지를 잃고 조직생활에도 잘 참가하지 않는 현상이 발로되게 된다고 지적된다.

결혼관에 있어서 물질주의적 측면을 중시하는 것은 ‘남부럽지 않게’ 하는 요란한 결혼식 등 허례허식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1990년대 이후에는 새세대들의 결혼식 등에서 ‘넓은 풍습’과 관련되는 허례허식을 극복할 것을 촉구하는 기사들이 매우 빈번하다. 예컨대 “가정의 막내아들의 결혼식을 남부럽지 않게 해주겠다던 부모들의 모습”이라거나, “결혼식장에 요란한 음식그릇과 술병들이 오르지 않았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을 너희들이란 걸 알면서두 한마디 하고싶구나”는 표현 등이다. 또한 승용차를 타고 결혼식을 하는 것이 오늘날에 이어져 사람들속에서 ‘상례’ 되었으며, 특히 승용차를 ‘줄레줄레’ 끌고 와 시내를 ‘빙빙 도는 것’ 등이 “지난날 평양사람들의 관습”이었다는 표현도 나온다. 이를 통해 북한의 새세대의 결혼 풍습은 특히 평양을 중심으로 다소 남의 눈을 의식하면서 요란하고 풍족하게 행하는 것을 선호했던 것

으로 보인다.

⑦ 비사회주의적인 생활양식의 증가

청년들에게 비판되는 불건전하고 비사회주의적인 취미나 생활양식들은 ‘술놀이’나 ‘도박놀이’ 등을 좋아하며 ‘퇴폐적인 노래와 춤을 즐기는 것과 같은 나쁜 버릇’으로 대표된다. 또한 일부 청년들은 다른 나라 청년들의 머리단장을 그 어떤 ‘추세’나 ‘유행’으로 생각하면서 그 본을 따르려 한다면서 비판한다. 영화 ‘먼훗날의 나의 모습’ 토론 기사에서도 ‘역스러울 정도로 징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는 구두’나 우리 식이 아닌 옷과 화장을 하고 요란스럽게 차리고 거들먹거리는 처녀들을 비판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처녀들은 ‘실지 생활’에서도 사소한 난관에서 가정불화를 일으키고 소란스러워지며, “혁명적 량심과 의리를 헌신짝 꿰머리듯” 저버린다고 한다. 이를 해석하면 이러한 ‘박색’들은 경제난 등의 난관이 발생할 경우 불화 또는 이별을 하기 쉽다는 내용으로 추측되는데, 『조선녀성』에서는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 ‘부부’ 관련 글과 특히 ‘리혼’에 대한 언급이 증가한다는 것도 참고할 만하다.

새 세대 청년들의 외모단장을 비판하는 신문 기사들에 따르면, 단정치 못하거나 우리 식이 아닌 옷차림, 처녀들이 양장을 할 때 치마를 짧게 해 입는 것, 와이샤쯔 자락을 바지 밖으로 내어 입는 행위, 남녀 분간이 힘들 정도의 더부룩한 긴머리, 신발을 잘 닦지 않는 등 위생적이지 못한 불결한 차림 등이 지적된다. 북한 당국이 가장 엄중하게 경계하는 옷차림은 “색깔도 너절하고 보기에도 흉측스러운 진바지”로서, 마약과도 같은 해독성을 지녔다고 비판된다. 진바지는 ‘자유화’ 바람 가운데 “날라리를 부리면서 사회질서를 문란시키고 불량행위를 하며 장사질과 미신행위까지도 하고 술풍에 빠지는 등 온갖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발생시킨다고 한다. 이와 같은 비사회주의적인 불건전한 현상이 실제로 주변에서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동맹일군들이 ‘본체만체’하는 것은 ‘사로청일군의 자격’이 없다면서,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적극적으로 교양할 것을 강조하기도 한다.

3) 청년동맹의 기능 및 향후 전망

① 정치적 측면

우선 청년동맹 조직은 청년들에게 발견되는 정치·사상적 이완 및 조직관념 약화

로 인한 무규율적 태도들을 적극적으로 교양하고자 역량을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청년들의 ‘무규율적이고 자유주의적인 현상’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조직의 통제가 약화’된 것에서 찾고 있는데, 이에 따라 동맹조직의 최우선과제 역시 청년들의 조직규율 강화에 두게 된다. 가장 기초적으로는 동맹조직의 각급 초급단 체별로 충화를 강화하고 모임의 규율을 강화하는 것에서 시작하게 되며, 비사회주의적 현상과 관련된 영화나 강연모임 등과 다양한 ‘전국 청년학생들의 성토대회’나 충성결의모임, 김주석 추모행사 등을 통한 청년조직사업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는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 창립 60주년 중앙보고대회에 보낸 축하문에서 “청년들은 혁명의 전 세대처럼 사회주의 제도와 조국을 빛내이기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축하문은 청년동맹에 대해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정치사상 교양단체로서 임무에 맞게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과 조직생활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며 “동맹조직을 수령결사옹위의 전투력이 강한 혁명적 청년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²⁰⁾ 또한 조선중앙통신에서는 북한의 조선기록과학영화촬영소에서 기록영화 ‘선군청년전위들’을 만들어 내놓았다고 보도했는데, “영화는 엄혹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부터 오늘까지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고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의 어렵고 힘든 초소에서 위훈을 세워가는 선군청년전위들의 불굴의 투쟁모습을 생동한 화폭으로 감명 깊게 보여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북한 당국은 청년들의 높은 조직성과 규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동맹조직이 청년들의 사회주의 정치사상적 보루를 튼튼히 다지는데 앞장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년동맹일군의 자질과 역량이 고양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런데 청년들의 조직이탈 및 사상적 이완은 구 사회주의 붕괴 이후 유입된 외래 사조의 탓도 있으나, 실제로는 김일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카리스마가 적은 김정일의 지도력 및 북한 사회의 경제적 어려움 등과도 관련성이 크다. 또한 배급의 붕괴 이후 식량조달을 위한 중국 등으로의 이동과 교류 증가로 인한 정보의 유입은 이러한 사상적 이완을 더욱 심화시켰을 수 있다. 나아가 고난의 행군 이후 물질적 측면이 중요함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면서 학습과 조직생활에 불충실하게 되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와 총체적인 문제점들의 원인을

20) 『민중의 소리』 2006. 1. 18.

김정일의 리더십이나 제도의 문제점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일선 일군들의 조직 운영의 문제점에서만 찾고자 한다. 예컨대 군대 부문에 비해 당 일군들이 형식주의에 빠져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며, 당과 사회 전체가 혁명적 군인정신을 지녀야 하고 또한 청년교양에 나서야 할 동맹일군들 속에서도 비사회주의적 현상이나 구태의연한 사업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일군들의 책임성과 규율성, 주인의식을 촉구하고 있기도 하다.

청년동맹으로의 개칭 이후에는 각급 교육 기관들이 청년 교양에 있어서 지니는 역할을 더욱 높일 것을 촉구하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기관이 혁명교양과 과학기술교육에 더욱 집중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당조직의 지도 밑에 국가기관과 사회 기관, 학교와 가정’이 협력하여 가정과 사회 전반에서 혁명적인 환경과 기풍을 조성할 것을 강조한다. 예컨대 인민반 관련 기사에서도 웃어른들이 주변의 청년들의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눈감아주지 말고 적극적으로 교양하라고 강조하기도 한다. 또한 사회단체나 국가기관을 통한 집단주의적인 조직교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미시적 차원에서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가운데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용이한 가정과 지역사회 등에서의 교양을 강조하는 기사들이 증가하고 있다.

② 경제적 측면

한편 1990년대 이후에 집중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물질주의적 성향’과 관련된 교양시도로는, 동맹조직이 다양한 강연회, 대비교양, 회상기교양, 영화모임 등을 통해 돈과 색다른 물건을 좋아하는 청년들의 엄중한 후과 등을 경계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국가적 차원의 강행군을 거쳐 오는 동안에도 북한이 붕괴하지 않았던 배경으로는 군대나 보안원 등의 ‘사회통제’ 능력 뿐 아니라, 생계유지를 위한 각 개별가정들의 ‘사적 경제활동’이 주요했다고 볼 수 있다. 개별적인 가구 단위의 자구적 소득확보노력은 그 자체로 북한 당국에 있어서 일정 부분 긍정적 측면을 지닐 수 있다. 김정일은 “초년 고생은 금을 주고도 사지 못한다.”면서, 배급 붕괴 이후 오히려 인민들이 ‘스스로’ 살아가려는 정신이 강하게 자라나게 되었다고 평가하기까지 했다. 결국 사적 경제활동을 덮어놓고 제재하거나 과거 상황으로 되돌리기 어려워지게 되면서, 이러한 사유재산 자체를 금지하기보다는 절충적인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교양 내용을 변화시키게 되었다. 예컨대 이러한 재물이 개인의 ‘사

치, 방탕, 향락' 등으로 활용되는 것을 저지하려는 쪽에 교양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뒤에서 살펴볼 여성동맹의 변화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이러한 재물을 오히려 '애국미'나 '애국공채' 등의 명목으로 국가적으로 흡수하고자 조직력을 활용하기도 한다.

또한 청년동맹은 여타 근로단체들과 달리 학생 청년, 직장청년, 군인청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창출에 전업하고 있는 구성원이 아니다. 따라서 물질 자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심어주기보다는, 말은 바 '학과공부'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에 전심하지 못하면서 물질적 관심을 보이는 청년들을 주로 경계하고 있다. '호부자' 의식을 지니고 있는 대학생들이나, 경제적으로 풍요한 가정에서 자라나 사치와 향락을 향유하려 드는 부정적 청년들 위주로 비판을 가한다. 또한 각 청년세대가 조직관념을 강화하여 조직생활에 충실하게 되면 소속된 집단에서 자신의 본분인 '학습'이나 '업무'에 보다 충실하게 될 것으로 파악하고, 조직생활에 충실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돈벌이'나 '먹자판', '색다른 물건'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지 않도록 하는 데에 교양의 방향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대학사로청위원회 등 교양기관에 대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민족 간부들의 양성소이자 현대 과학기술지식의 기초를 쌓는 대학들"에서 "대학생들이 높은 조직성을 가지고 규율있게 행동하며 순박하고 근면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대학사로청위원회는 사상사업을 하여도 멋을 부리지 않고 실속있게" 하여야 하며, "현실에 발을 붙이고 걸린 문제를 푸는 사상교양사업을 하여 대학생들속에서 불건전한 생활과 사상요소가 절대로 나타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식이다.

한편 고등중학교나 대학생들과 관련하여 당국이 가장 긴급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직업관에 있어서의 이기주의적 태도라고 여겨진다.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중시하는 '전체주의적 직업관'을 지니는 북한으로서는 청년들의 '이기주의적 직업관'을 묵과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도시의 인기 좋은 직업'으로 배치받고자 하는 젊은이들의 욕구와, '어렵고 힘든 일'이나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농촌, 천시되는 직업군들에도 노동력을 투입해야만 하는 당국의 필요성이 결정적으로 충돌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직업에 귀천을 따지지 말 것에 대해서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지속적으로 언급해왔지만, 청년들 중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거나 인텔리, 대학생들일수록 이러한 태도가 더욱 강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당국은 동맹조직이 졸업반학생들과의 사업에 계속하

여 큰 힘을 넣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1993년에는 고등중학교졸업생들의 조국보위탄원과 사회주의건설장예로의 진출선구자환영대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그런데 직업천시의 ‘납은 사상’에 대한 당국의 비판에서 사용되는 표현들로는 “보다 편안한 곳에서 쉽게 일하고 보수를 많이 받자는 것이거나 개인의 ‘명예’를 펼쳐보자는 태도” 등이 발견되는데, 이는 역으로 생각하면, ‘능력’있는 청년이면 당연히 희망하게 되는 부분으로 사회적 인식이 이루어지고 있을 수 있으며, 결국 당국의 노력만으로 쉽사리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그 누구의 힘’을 빌어 ‘뒤공작’을 한 능력 있는 청년은 도시와 ‘먹을알있는’ 직업으로 진출하게 되며, 반대로 희소성을 지니는 인기 직업군에서 탈락한 청년들의 경우에는 하는 수 없이 기피직업군으로 진출할 수밖에 없게 된다. 신문기사들에서는 기피직업군인 탄광 등에 배치된 청년들이 이로 인해 미래의 희망을 잃고 낙담하여 업무에 열심을 내지 않았으며, 지도하러 내려온 동맹일군들에게도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반발하기도 한다고 드러낸 바 있다.

③ 사회적 측면

신문기사들에 등장하는 청년들의 일탈 관련 기사의 빈도는 1990년대 초부터 중반 경까지가 가장 높았으며, 그 종류도 패싸움이나 범법행위 등 ‘독버섯’이나 ‘길가의 막돌’만도 못하다는 식으로 과거 시기보다 일탈의 수위가 높거나 공격적인 형태로 변화한다. 신문기사에 등장한 기사의 빈도가 높다는 것이 반드시 북한 현실 내에서도 똑같이 그러할 것이라고 결론짓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수동적’이고 ‘보수적’인 일탈 기사 위주였던 과거 시대와는 ‘다른 종류’의 공격적인 일탈행동들이 지적되며 그 빈도가 극도로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청년들의 일탈 문제가 1990년대 초중반의 주요한 관심사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길에서 웃어른에게 반말질을 하거나 가족과 친구, 형제 등에게 욕질하는 것을 비판하는 언어예절 관련 구절도 함께 증가한 바 있다.

한편 비사회주의적 현상과 일탈행위들이 점점 증가하는 가운데 북한 당국은 제재 일변도로 대응하기보다는 ‘뒤떨어진 청년들’에 대해서 보다 유화적인 포용책을 시도하게 된다. 다른 예로,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기에 중국 등지로 식량을 구하러 탈북했던 주민들의 경우 초창기에는 엄중한 처벌을 가했었으나, 이러한 탈북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면서 ‘엄중한 정치적 과오’를 범한 것이 아닌 한에서는 한 번 정

도의 탈북에 대해서는 용인하기도 했다는 탈북민들의 증언이 있다. 마찬가지로 청년들의 조직 이탈 및 사회질서문란행위도 엄중한 사상적 과오가 아닐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보다는 관용 가운데 청년동맹조직 내에 복귀시키는 것이 체제 유지에 더욱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했을 수 있다. 이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청년 중시’, ‘청년 신뢰’에 대한 표현들이 1990년대 이후에 증가하는 것이나, “청년시절에 과오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지난날의 과오를 뉘우치고 개진의 길에 들어섰을 때에는 그것을 조금도 문제시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평가해주어야 한다”는 김정일의 언급 등이 대표적으로, 이러한 장군님과 당의 ‘은혜로운 품’ 가운데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개진하였다는 수기글들도 자주 발견된다. 교양방식에 있어서도 김정일은 “과오를 저지른 동무들에게 따지며 욕설만 하면 그들이 위축될 수 있으며 결함을 빨리 고칠 수 없습니다.”라면서, 짜고들어 꾸준히 교양”할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교양에 있어서는 단지 청년동맹일군만이 아니라, 대학생을 포함한 각계각층이 나설 것을 시대적인 사명으로 강조하기도 한다.

경미한 청년일탈에 있어서는 이처럼 자발적인 뉘우침을 강조하는 당국의 포용적 태도가 두드러지지만, 엄중한 사회질서 문란을 벌인 청년들은 ‘단련대’ 등에 보내는 등 청년 교양 시도가 다양해진다. 이는 특별히 1990년대 이후 혁명적 군인정신과 ‘참군’ 미풍이 집중적으로 강조되고 있다는 점과도 연관지을 수 있다. 과거 시기에는 당원이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통로로서 군입대가 선호되었으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전후의 군입대 배경에는 군대가 다른 집단에 비해서는 식량사정이 상대적으로 나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런데 배급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주체는 바로 북한 당국이라는 점에서, 군 식량사정이 상대적으로 좋다는 점 역시 북한 당국이 군을 우대하는 가운데 청년들을 군대로 유도하는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이는 우선 군인 집단이 여타 집단에 비해 보다 혁명적인 규율 가운데 생활하며, 규율 위반시 통제하기가 용이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작계는 사회질서유지부터 크계는 계엄이나 전쟁 등까지도 감안할 경우, 군대식 통치와 군대식 교양이 보다 강력하고 안정적인 사회통제 및 질서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도 있다고 여겨진다. 나아가 ‘농사는 군인이 다 짓는다’는 탈북민들의 주장처럼 농사일에 군대를 동원하거나, 생존을 위한 식량 절도를 막기 위해 군인들이 총을 들고 지키기도 하듯이 식량 문제에 있어서도 군을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 사회가 당면한 문제 중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는 에너지 및 전기 문제였는데, 에너지와

농업 용수 등을 위한 수력발전소 건설사업 및 물길공사, 도로, 혁명사적지와 다양한 기념비적 건축물 등의 건설동원에는 청년 군인들이 매우 용이하다는 측면도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참군의 강조는 일탈 행위 또는 사회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반항적인 연령대의 청년들을 자연스럽게 규제하는 기능 또한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코호트 이론²¹⁾에 따르면 범죄는 일반적으로 20대 초반의 인구집단에서 가장 높은 발생률을 나타내는 특징을 보이는데, 병역 제도는 높은 범죄성을 가진 연령층을 대량으로 통제하는 사회제도로 기능²²⁾한다. 따라서 북한 내에서의 군대는 건설사업 등의 사회적 유용성 뿐 아니라, 10대 후반 이후 직접적, 간접적인 사회 통제력 강화 및 범죄발생의 빈도, 강도, 조직화를 차단하게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993년의 「로동청년」지와 1998년의 「청년전위」 기사 분석을 시도한 논문²³⁾에 따르면, 1993년에 급증했던 청년들의 ‘패싸움’과 같은 일탈 행위 기사는 1998년 이후에는 빈도가 줄어든다.

한편 앞서 살펴본 물질주의적 경향은 청년들의 결혼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물질을 중시하는 결혼 세태에 대한 비판 기사들은 1980년대에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으나 1990년대 초부터 갑자기 빈도가 증가하였다. 가정을 이룰 때 서로 교환하는 옷가지나 살림살이도구 등에 대해 “물론 부모들이 마련해주는 이런 것들이 다 지참품인 것만은 사실이다.”라고 드러내놓고 인정하는 등 그 표현의 정도도 직접적인 편이다. 결국 사회주의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사회 내에서 부모 세대가 자녀들을 위하여 물건 혹은 지참금을 마련해주는 경우가 상당 정도로 일반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최근의 「조선여성」 등에서는 ‘지참금’에 대한 경구 속담도 증가하고 있으며, 신문 및 소설 등에서 ‘원호사업’ 등에 “자녀 혼사에 쓰려고 준비해 둔” 물건과 돈을 내놓았다는 식의 표현이 매우 흔하고 자연스럽게 등장한다.

그런데 청년동맹과 여성동맹 관련 기사들에서 이러한 물질주의 비판이 등장하는 시기를 살펴보면, 청년 계층과 여성계층 사이에 ‘세대’ 혹은 ‘기간’의 차이가 일정한 정도로 발견된다. 예컨대 「조선여성」의 경우에는 결혼을 사치스럽고 요란하게 하는 것, 결혼과 부부생활에 있어서 물질적인 것 보다는 사상정신적인 것을 중시해야만 한다는 경계, 자녀가 희망하는 것을 다 해 줄 경우 자녀교양이 잘못될 수 있다는

21) Glenn, Norval D. *Cohort Analysis*, Sage Publications. 1977, p.8.

22) 박순진, 코호트의 크기와 범죄율의 변화, 형사정책, 제 13권 제 2호, 2001. pp.196-198.

23) 이인정, 앞의 글, 2004. 참조

경구속담이나 사례 등의 기사 빈도가 증가하게 되는 시기가 「청년전위」에 비해 대략 5년 이상 늦게 나타난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는 앞서 제시한 바 있는 ‘코호트’ 이론과 관련하여 볼 때 ‘연령’의 성숙 혹은 ‘세대’의 변화로 말미암아 그 특성이 전이되어 가는 것일 수 있다. 가령 1990년대 초에 청년동맹에 소속되었던 젊은이들이 성장하여 1990년대 후반 이후에 결혼하게 되는데, 「로동청년」에서 1990년대 초에 비판되었던 청년들의 물질주의 경향이 전이되어 「조선녀성」에서는 2000년대 이후에 자주 발견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청년동맹의 연령이 30세까지여서 남성의 경우에는 혼인과 상관없이 30세까지는 청년동맹 소속이지만, 여성들은 연령과 상관없이 혼인하게 되면 여맹 소속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연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다른 관점에서 살펴볼 경우, 다소 진취적이고 변화지향적이며 미래지향적일 뿐 아니라 때로는 반항적인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지적되는 ‘청년’(특히 가부장적인 북한의 남성)시기의 특성과, 반대로 가정을 이루면서 비교적 변화보다는 안정적인 것을 선호하면서 ‘보수적’ 성향을 지니게 되기 쉬운 ‘여성’들의 특성으로 비교하여 살펴볼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공산권 붕괴, 고난의 행군, 배급제 와해, 제국주의적 문화 침투 등으로 인한 대내외적 변동요인에 대한 수용과 자극 및 이로 인한 불만의 표출이, 남성청년들에 비해 여성들에게서는 상대적으로 다소 늦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1990년대 초에 청년들에게서 집중적으로 등장했던 변화된 특성 혹은 일탈행위들이, 여성들의 경우에는 대략 5~10년 정도 뒤늦은 시기의 기사들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④ 문화적 측면

결혼이라는 인륜지대사를 경험하게 되는 시기가 다른 아닌 청년 시기라는 점에서, 결혼관이나 배우자관, 가정관 등에 대한 이해는 청년들의 가치 지향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북한에서 허례허식으로 비판되는 가장 대표적인 행위는 결혼할 때 승용차를 동원하여 자랑스레 거리를 활보하는 등의 행위가 “지난날 평양 사람들의 관습”이었다고 직접적으로 인정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런데 이러한 결혼관련 표현은 「청년전위」 기사들에서는 매우 자주 등장하는 반면, 「조선녀성」 기사에서는 별로 등장하지 않는다. 이를 추론하자면 앞날이 ‘열려’ 있는 청년들과, 가정 내에 ‘안주’하게 되어버린 여성들의 특성 차이일 수도 있으며, 행동과 판단의

기준이나 근거로 삼게 되는 ‘준거집단’의 차이로도 볼 수 있겠다. 구체적으로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청년들은 ‘새것, 변화’를 좋아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가치관이나 유행을 보다 민감하게 수용하고자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외래 사조 혹은 평양의 문화에 보다 높은 관심을 기울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학생청년들의 경우에는 졸업 후 직업배치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될 터인데,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특별히 평양을 비롯한 도시민들이 청년 세대들의 준거집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청년 계층은 다른 세대나 계층들에 비해 평양 청년들의 혼례관습이나 옷차림이나 자동차 및 유희 문화 등에 더욱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 반면 여맹 조직의 구성원은 이미 결혼식을 하여 가정을 이루면서 조직에 편입된 가두녀성들이며, 연령대도 청년 세대에 비해 다양하여 보수적인 어머니 세대 및 할머니 등 고연령층에까지 퍼져 있다. 이에 따라 화려한 결혼식에 대한 기사 지적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뒤늦은 시기에 드러나게 되며, 보수적인 고연령층의 여맹원들은 이러한 혼례 및 옷차림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직접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계층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심적, 물적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의도적으로 간과했을 수도 있다.

한편 북한 당국의 표현대로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청년들에게서 가장 집중되고 있는 문화적 측면의 교양대상사례로는 불건전하고 비사회주의적인 취미나 생활양식들이다. 이러한 기사는 1990년대에 집중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그 비판의 강도나 용어사용의 수위도 다른 일탈들에 비하여 매우 높은 편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적 측면의 지적은 특별히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런데 북한 사회에서 대학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은 학과성적이 월등히 뛰어나거나, 혹은 고위 간부의 자제 등 뒷배경이 좋은 계층,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치사상적 소양이 탁월하여 충성심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학생 혹은 당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에 대한 일탈 지적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실제로 대학생들 사이에서 이러한 행위들이 상당 부분 실재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 사회 내에서 가장 성분이나 충성심이 높고 두뇌가 좋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계층인 대학생들에게서 이러한 일탈이 증가한다는 것은 향후 북한 당국에 있어서 매우 심각한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향후 대학사로청조직 등 동맹조직을 통한 대학생 교양은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특별히 비사회주의적인 옷차림이 가져오는 ‘후과’에 대한 비판에 있어서 북한 당국이 남녀 청년들에 대해 다른 표현을 사용한다는 점도 특징적인데, 그 내용

을 살펴보면 북한 사회의 남성우월주의와 성편견을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남성 청년들이 색다른 것을 좋아하거나 옷차림 등에서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행하게 되면, 결국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장사질에 나서게 되므로 사상적 악화와 사회 불안을 초래하게 된다면 당과 민족을 위하여 ‘스스로’ 주의하라고 경계한다. 그러나 여성들의 경우에는 우리 식이 아닌 화려한 옷차림을 한 여성들을 흠모하는 남성들 혹은 그러한 옷차림을 부러워하는 주변 여성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남편에 대한) ‘의리’를 저버리고 ‘경제적인 측면’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고 경계하는데, 이는 가령 고난의 행군기에 경제적 난관을 이기지 못하고 부부 간에 헤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0년대 이후의 『조선녀성』에서 ‘리혼’ 관련 기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점과도 관련지을 수 있다.

3. 조선민주녀성동맹의 변화와 전망

1) 조선민주녀성동맹의 형성과 발전

조선민주녀성동맹(여맹)은 광범한 여성들을 교양하고 개조하여 당 주위에 묶어두는 사상교양단체로서 조선로동당의 인전대이며 방조자이다. 여맹은 해방 이후 1945년 11월 18일 평양에서 북조선민주녀성동맹(위원장 박정애)으로 창립되었으며, 1946년 10월 16일 국제민주여성연맹에 가입하고 1951년 1월 재일 남북조선의 여성동맹 합동중앙위원회에서 조선민주녀성동맹으로 통합 개칭되었다. 여맹은 1965년의 제 3차 대회(위원장 김옥순)와 1971년 제 4차 대회(위원장 김성애)를 거치면서 조직의 재정비와 당의 ‘인전대’적 성격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게 된다. 김성애 시기에 여맹 조직은 1970년대 초까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였으나, 그 이후 김정일이 부상하면서 조직이 대폭 축소 약화되었다. 1980년대 초부터는 김성애의 친인척 및 자녀들을 결가지로 분류하여 배척하였으며, 1998년 3월에는 상징적이었던 여맹 위원장직마저 박탈되고 이후 천연옥 위원장으로 교체된다. 이러한 변화는 여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조선녀성』에도 나타나는데, 1946년 이후부터 매월 발간되던 것이 1982년 8월부터는 축소되어 격월간으로 발간되며, 50여 페이지에 달하던 지면수 역시 40여 페이지로 줄어들었다. 또한 조직의 중복 가입을 제한한 1983년 이후에는 자료의 등장 인물 역시 ‘각 경제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던 여성’에서 ‘가두여성’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다가 발행기간이 2001년 1월 이후에는 다시 월간으로 바뀌고 지면수 역시 56페이지 가량으로 증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최근의 『조선녀성』의 지면수의 증가와 간행기간의 축소를 비롯하여 여성동맹의 재강화를 유추하게 하는 배경으로는 사회주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여성들의 경제적 기여 등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탈북민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의 강행군 시기 동안 여성들의 경제력이 축적되면서 여성들의 발언권이 높아졌으며, 나아가 지역사회 및 당국에 대한 녀맹 초급단체 및 상급 녀맹조직들의 영향력이 매우 커졌다고 지적된다.²⁴⁾ 또한 1961년 11월 16일 전국어머니대회가 개최된 이후 수십 년 만에 제 2차 전국어머니대회가 ‘성대히’ 개최되었다는 기사 내용이 『조선녀성』 등에서 발견된다.²⁵⁾ 또한 “사회에서 여맹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여성들의 역할을 무시하는 것은 그릇된 사고방식”이라고 지적한 1998년의 김정일의 언급이나, 일차자료에서 등장하는 ‘읍 가두녀맹원’이나 ‘기업소 여맹원’ 등의 표현에서도 그 확대를 예상할 수 있는 특징들이 보인다.²⁶⁾

2) 여성 계층에서 나타나는 변화

① 정치·사상적 이완과 조직 이탈

여성동맹은 그 구성원인 가두여성들의 특성상 사상교양의 수준이나 조직관념이 다른 외곽단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특징이 있다. 특별히 혁명의 간고함을 경험해보지 못한 새세대 여맹원들의 비율이 증가하게 되며, 새로 형성된 기업소나 탄광 등 지역적 특수성 등에 따라 일부 초급단체의 경우에는 소속된 대부분의 녀맹원들이 ‘3세대, 4세대 녀성들’로 구성되기도 한다. 또한 청년동맹 등 여타 외곽단체에 비해 여성동맹은 훨씬 다양한 연령대를 모두 망라하고 있는데, 그 구성의 복잡성으로 말미암아 조직의 결속력이 다소 약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광산 등과

24) 50대 여성인 새터민 M씨에 따르면, 과거에 “남편없이는 못산다”라고 하던 여성들이 경제난을 겪고 여성의 경제력이 증진되면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말도 못하고 굶신대던’ 여맹원들이 다 돈을 벌어서 일이 있을 때마다 ‘뭉치’로 내놓곤 하면서 지위가 상승했다고 밝히고 있다.

25) “전국어머니들의 충성의 대회 성대히 진행-제 2차 전국어머니대회-” 『조선녀성』 1998. 6호 p.17.

26) 정성임, “조선민주녀성동맹”, 정성장 외, 앞의 책, 2004. pp.216-218.

같이 새로 구성된 녀맹 초급단체들의 경우에는 녀맹원들간에 시집오기 전의 출신지역과 그들이 지닌 지적, 경제적 수준이 매우 다양해지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상교양이나 당정치사업을 진행하거나, 체계적인 조직생활을 위해 분공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애로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고향을 떠나 시집오면서 적응상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며, 경제생활 등의 애로가 발생할 경우 쉽사리 조직활동을 게을리하게 되는 등의 다양한 결함들이 지적된다.

『조선녀성』 등의 일차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여성들의 혁명의식 강화를 위해 시도하는 정치사상교양의 특징은 1990년대에는 충실성교양, 혁명전통교양,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 반제계급의식 등에 집중된다. 이와 관련하여 동맹조직에서는 “본신혁명과업수행에서 성실하지 못한 현상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리도록 조직생활을 강화”해야 하며, “한순간도 조직생활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되게 할 것”을 가장 우선시한다. 한편 김일성 사망과 ‘고난의 행군’ 및 그 종료를 모두 경험하고 난 시기인 2000년대 이후에는 새로운 ‘선군’이나 ‘강성대국’ 등의 개념이 가미되는데, 예컨대 ‘수령결사옹위’에 대해 강조할 때도 ‘선군시대 녀성’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것을 강조하는 식이다. 구체적인 실천 사례로는 ‘동상’이나 ‘사적지’ 등을 찾아가 꽃을 놓거나 청소하는 미풍사례로서, 이는 김일성 사망 이전에도 존재해 왔으나 2000년대 이후 더욱 빈번하게 소개된다. 또한 “최대의 국상을 잃고 몸부림치던 1994년부터” 부부가 합심하여 가정에 온실을 꾸린 뒤 꽃다발을 마련하는 등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표현한다.

한편 1990년대 중반의 경제적 위기는 살림을 담당하는 여성들에게도 역시 물질주의적 관심이 증가하게 하고, ‘생활상의 리유’로 조직이탈이나 비사회주의적인 행위를 초래하게 한 것으로 추측된다. 일차자료에서는 고난의 행군 이전인 1990년대 초까지는 물질에 대한 애착이나 여성들의 적극적인 이탈 행위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으며, ‘새세대’ 여성들의 혁명의식 약화 문제, ‘구실’을 달아 10일생활총화에 빠지는 문제, 학습회와 강연회 등에 지각하는 여성들을 지적하는 기사들이 고작이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는 여성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행위나 현상들에 대한 묘사가 보다 직접적이고 강해지면서, 남편없이 두 아이를 데리고 사는 여성이 ‘일시적인 곤난앞에서 맥을 놓고’ 조직에서 벗어나 제 살 궁리를 한다거나, 동맹원들이 ‘자신의 생활형편, 자기 리기’만을 생각하면서 동맹조직사상생활에서 이러저러한 편향을 발로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영상을 흐리게 하는 그릇된 현상, 불

건전한 현상이 동맹사업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조직생활에 빠지는 녀맹원들이 날이 감에 따라 하나, 둘 늘어 났다”고 한다. 결국 ‘일부’ 녀맹원들만의 조직이탈에 그치지보다는, “비사회주의적현상이 집중적으로 발로되고 있는 동맹원들”이 상당한 수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난의 행군이 종료되고 조직생활을 다시금 강조하기 시작했던 2000년대 이후에는 조직 이탈 지적들은 다소 줄어든다. 그러나 아직도 과거의 ‘버릇이 적지 않게 남아’ 있는 맹원들이 계속하여 조직생활을 게을리하거나 유리되어 생활하며, 초보적인 모임시간도 지키지 않거나 앉아 놀기도 하고 잡담을 한다고 한다.

또한 북한 사회는 가부장적 특성으로 인하여 가정 내 여성의 지위가 비교적 낮으며, 가정살림과 자녀양육 등을 전적으로 책임지게 된다. 더욱이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에 여성들은 직장 또는 가내수공업 혹은 사적 경작활동 등을 통하여 가족을 부양할 책임까지 지게 되면서, 결국 녀맹조직의 초급단체위원장들인 여성들 역시 생계 유지로 인한 조직사업의 한계를 드러내게 된다. 예컨대 ‘일부 초급단체위원장들’이 ‘우는 소리’를 하며,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여 주저앉으려는 초급단체위원장들”이 “가정생활에 포로”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식량을 구하기 위해 중국 등지로의 이탈이 증가하거나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증가하면서 녀맹원들의 결원이 늘어났는데, 초급단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들 역시도 결원이 존재했다고 지적된다. 이러한 일군들의 문제는 결국 녀맹원들의 조직관념의 약화 및 조직일군들에 대한 권위 실추로 이어지는데, 위원장들의 교양에 대하여 여맹원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는 말’이나 ‘모욕적인 말’, ‘빈정거리는 말’을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다양한 연령대를 망리하고 있다는 조직특성상, 연령대가 다른 녀맹원들과의 세대 갈등의 측면도 부분적으로 발견된다.

② 개인의 흥미와 개성 중시

‘여성’이라는 성별적인 공통점과 일정 지역의 가두녀성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여맹조직은 다른 외곽단체에 비해 구성원들의 이질성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구성원들 중에는 강의에 집중하지 않으려 하는 젊은 새세대 녀맹원으로부터, 군대에 보낼 연령대의 자녀를 둔 주부를 거쳐, 아직까지 글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하여 강독에 어려움을 겪거나 강연회의 강사의 말이 빠를 경우 알아듣지도 못하는 노인들에까지 그 구성이 매우 다양하게 분포된다는 점에서 연령대의 차이로 인한 세대

차이나 갈등이 존재하기 쉽다. 또한 같은 초급단체에 소속되어 지역적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세대주들의 직업에 따라 여맹원들 사이에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지위의 격차가 존재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방법론이 요청되게 된다. 내부적 이질성 뿐 아니라 경제 상황의 악화 역시 다양한 여맹원 교양의 다양성을 요청하게 된다.

한편 청년동맹에서처럼 여성동맹 역시 과거의 어려운 시기 동안 일탈행위를 저지르거나 결함을 드러낸 맹원들에 대한 포용책과 유화책을 시도하게 된다. 이에 따라 녀맹일군들이 녀맹원들을 이해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심금을 울리며’ 교양하는 것을 강조하게 된다. 또한 단순한 정치 교양 차원이 아니라 의식주 등의 가정문제를 풀어 주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는데, 이러한 ‘선군시대 모범녀맹일군대렬’은 녀맹원들로부터 ‘우리’ 녀맹위원장으로 칭송된다고 한다. 하나의 ‘시대어’로 자리잡았다는 ‘우리’ 칭호를 받은 녀맹일군들은 “혈육의 정” 가운데 여성들을 조직하여 혁명사적지건설장이나 군대 등에 원호물자를 보내거나 공장로동이나 농사일에 나서기도 하는 것으로 소개된다.

③ 경제난과 자력갱생의 강조

『조선녀성』 기사들에는 ‘당장 끓여 먹을 식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 가정의 살림살이를 도맡아 책임져야 하는 여성들의 고통이 가장 극심했다고 표현한다. 이 시기에는 강행군을 따라 “피어린 자육자육이 찍혀”진 “지금껏 겪어 보지 못한 엄혹한 생활”을 했다고 표현되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가족간의 사별이나 이별 등을 상징하는 듯한 표현도 등장한다. 그러나 “초년고생은 금을 주고도 사지 못한다고 한 우리 조상들의 명언은 얼마나 심오하고도 박력있는 생활의 진리를 귀뜸해주고 있는가. 고난과 시련은 만복의 어머니이다”라는 식의 정치적 미사여구로 포장되거나, “고난의 행군을 하는 과정에 우리 일군들과 인민들 속에서 국가에 대한 의존심이 없어지고 자체로 살아가려는 생활력이 강해졌습니다.”라는 김정일의 언급 속에 묻혀 버린다. 결국 여성들은 녀맹초급단체별로 빠르게는 1980년대 후반부터 농장포전을 맡아 농촌노력동원에 나서야 했으며, 비료와 장비도 자체적으로 해결하였고,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산이나 저수지 등의 비경지를 일구어 사적인 경작에도 나선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에너지부족으로 많은 산업시설들이 멈추게 됨으로써 상당

수의 남성근로자들은 직장에 출근하여서도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하지 못했다. 반면 가두여성들의 경우에는 가정살림 뿐 아니라 농장일, 간석지개간, 수공업 등을 통해 생계를 유지했으며, 나아가 직장에 묶인 남성들을 대신하여 필요물품 및 식량을 구해오기 위해 여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남성들보다도 몇 배의 부담을 지녀야 했다. 이러한 상황은 어린아이들을 둔 여성들에게서도 마찬가지여서,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라도 육아시설 등이 더욱 요청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강행군 시기 북한 내의 탁아소, 유치원의 상태가 특히 열악하였다는 것은 어머니들에게나 국가적으로나 매우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990년대 기사들에서는 탁아소, 유치원 등에서 해당 가정부인들이 자체의 힘으로 ‘물자공급소’를 꾸리는 사례들이 자주 소개된다. 그리고 여성들의 이러한 노력동원의 결과로, 알곡, 콩, 깨, 사탕무, 도마도, 참외, 수박, 왕골, 누에고치, 목화 등을 생산하여 지속적으로 읍내 탁아소와 유치원들에 공급하였으며, 더 나아가 애국미로까지 바치는 것으로 소개된다. 한편 공장생산의 위축은 수공업 등에 대한 가정부인들의 노력동원을 확대하게 되었는데, 유희자재와 예비를 바치거나 혹은 찾아낸 원료와 여성 노동력을 활용하여 자체가공에 나서게 된다.

④ 좋은일하기운동의 강조

한편 이러한 여성노력들은 자체적인 생계 유지에 그치지 않고, 동맹조직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지도하에 ‘좋은일하기운동’을 진행하는 데에 이른다. 이는 건설돌격대, 군대, 후방가족, 영예군인 등을 위한 원민, 원군미품 등으로 대표되는데, 기사에서는 개천-태성호물길공사 전투장에 떡, 국수, 동지죽, 수수떡 등의 음식 및 방석, 장갑, 마스크, 남새와 돼지고기 등의 부식물을 바치는 사례들이 등장한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석탄, 철도, 비료공장 등에서 일하는 남편을 둔 가정부인들은 출근길환영모임이나 자재 수집을 통해 도와나섰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초급녀맹위원회의 조직지도하에 예술선동 및 다양한 지원물자들을 준비하여 제공하고, 더 나아가 남자와 똑같이 용접봉만들기, 문짜조립, 도색작업, 소선작업 등 힘든 육체노동에 나서도록 권장되기도 한다. 이처럼 가정일 뿐 아니라 고난의 행군 시기 남편과 아이들의 부양 책임까지 도맡았던 여성들은 2000년대 이후에는 아예 가정을 떠나 돌격대와 함께 생활하면서 노동하는 ‘건설대의 꽃’으로 나서게 된다.

그런데 강행군 시기 동안 여성들은 생계 유지 차원에서 사적인 경제활동을 벌이

면서 각 가정에서 일정량의 잉여 현금을 보유하게 되었는데, 2000년대 이후에는 이러한 개인의 돈을 국가에서 ‘인민생활공채구매사업’의 형태로 흡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녀맹조직은 ‘조국은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어머니이며 삶과 행복의 요람’이라고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조직지도에 나선다. 이러한 미풍에서도 가족단위로 적극적인 헌납에 나서는 기사들이 많은데, 이러한 가족들의 태도가 북한이 현실을 100% 반영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헌납을 주저하고 있는 여성이나 식구들을 위한 ‘계몽’과 ‘지향점’의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애국공채는 특별히 2003년 7월 전승기념일에 ‘선군시대’의 상징인 ‘녀맹호 포’ 모금에 집중되었다. 녀맹조직들은 ‘유휴자재’ 수집과 가족기르기 등의 ‘좋은일하기운동’을 조직적으로 진행하고, 초급단체별, 개인별 경쟁까지 유발하면서 상당한 자금을 모금한 것으로 소개된다.

⑤ 공산주의적 미풍

김정일시대의 선군사상 강조는 참군과 원군미풍의 강조로 이어지는데, 『조선녀성』등에는 최대의 애국은 ‘참군’이라면서 군복차림의 여성제대로병과 젊은 군인녀성들이 자주 등장한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경쾌하고 우아한 옷차림새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 아마 녀성 일반의 취미”라면서도, “선군시대에 군복 입은 처녀이상”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또한 ‘아름다움’에 대한 표현에 있어서도 ‘군인녀성의 바알간 뺨’ 또는 ‘군복을 입고 쑥 빠진 흰 목’과 같은 식으로 묘사하며, 이 세상에 아름다운 ‘안해’가 많지만 군인의 안해가 가장 아름답다고 칭송한다. 반면 군입대를 할 만한 연령대의 자녀를 두지 않은 전체 여성들에게는 직접적인 참군 미풍 이외에 원군미풍이 전폭적으로 촉구된다. ‘원군미풍열성자 대회’나 ‘선군시대 원군영웅’으로 칭송받는 사례들에서는 군민일치의 가풍을 지닌 가정들이 자주 소개된다. 정작 자신이 낳은 자녀들이 군입대하여 부상을 입은 상황에서도 인민군대를 친자식처럼 원호하는 어머니나, 자녀의 결혼식에 사용하려고 모은 자금을 전부 군대에 보내고 자신의 딸에게는 새 이불 한 채 해주지 못했다는 어머니의 기사도 등장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북한에서는 대학생을 부러워하고 대학추천을 소망한다고 알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들에서는 이미 획득한 ‘대학추천’을 포기하거나 미루면서까지 군복무를 우선하는 사례도 종종 등장한다.

한편 1990년대 이후의 『조선녀성』기사에서는 ‘부모 없는 아이들’을 많게는 수십

명씩 데려다 기르는 ‘우리 시대의 아름다운 녀성들’에 관한 묘사가 자주 등장한다. 시기적으로는 “1990년대 초부터 10여년간” 키웠거나 혹은 “1995년부터” 데려왔 다라고 제시되는데, 이는 고난의 행군기 동안 가족 해체로 버려져 유랑하는 꽃제비 들이 증가했던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략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입양 미풍에 나서는 여성들은 매우 다양한데, 결혼하지 않은 처녀, 자신의 자녀 이외에도 수십 명을 키운 가정부인, ‘연로보장나이’가 된 할머니 등 각계각층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소개된다. 한편 이와 같은 미풍은 여성 개인이 행하는 미담 차원에서 소개되어 왔으나, 1990년대 후반을 지나면서부터는 녀맹조직 자체가 나서서 체계적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즉 개별 가구 단위로 고아를 입양하는 미풍에 그치지 않고, 녀맹조직차원에서 자금 및 물품을 모아 예컨대 ‘육아원’에 값진 천으로 만든 꽃포단, 옷, 기차재, 쌀, 거액의 현금봉투 등을 지원하는 등의 형태로 변화한다. 또한 ‘사회주의적 대가정’에 대한 강조 가운데 전쟁로병들과 전사자가족, 공로자들을 친혈육처럼 보살피는 일에 있어서도 녀맹조직이 발동되어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도 방조하기도 한다. 그 예로 이웃에 살던 여성이 병으로 사망한 뒤 남겨진 자녀를 ‘다른 데’ 보내지 않고 초급단체에서 나서서 보살펴주기도 하며, 조직을 발동하여 후방가족들의 집수리를 해주거나, 경조사가 있을 경우 조직 차원에서 나서 준비해주고, 명절 등에는 조직단 위로 예술선동을 준비한 뒤 음식을 마련하여 찾아가는 식이다.

⑥ 일탈의 증가와 도덕의 강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적 어려움과 조직관념의 약화는 조직 내에서의 이탈을 초래할 수 있으며, 사회 내에서 공중도덕이나 예의도덕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녀맹 조직은 가두여성으로 구성되어 사회적 상호작용범위가 비교적 제한적인 편인데, 이에 따라 여성들의 도덕의 질 저하 역시 주로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가족이나 이웃주민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가까운 사이’들은 매일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조선녀성』 등에서는 ‘일상’적인 도덕생활에 대한 기사들을 자주 싣고 있다. 예컨대 “스스럼 없는 가까운 사이”에서도 사람들은 응당 지켜야 할 레절과 도덕규범을 잘 지켜야 하며, 만일 가져다 쓴 물건이 있다면 잊지 말고 제때에 깨끗이 손질해서 돌려 주어야 한다는 식이다. 또한 녀성들은 가장 기초적인 자녀교양의 책임을 지닌 존재로서, 북한 당국은 가정에서 어머니들이 보여주는 도덕적 모습은 후세대의 도덕성을 형성하는 데 직결된다고 강조된

다. 가정 내에서 어머니를 통해 어려서부터 레절 바르게 교양된 어린이는 자라서 학교에 다닐 때나 사회에 나가서도 동무들과 친구들을 따뜻하고 예절 바르게 대하게 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여성들은 가정에서 ‘고상한 레의도덕’의 모범을 보여야 하며, 이를 통해 자녀들로 하여금 어린 시절부터 일상생활에서 예의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교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녀 교양자로서의 어머니 관련 기사들은 2000년대 이후 더욱 증가하고 있다.

한편 직장을 다니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접하게 되는 남편들이나 여러 곳으로 배치되기도 하는 군인들과 달리, 여성들이 활동하는 범위는 가족, 친족, 이웃, 학교 등 비교적 좁은 편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여성들의 경우에 상호작용의 형태는 주로 ‘언어적 상호작용’이 중심이 되게 된다. 이에 따라 『조선녀성』에서는 특별히 언어예절 문제를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기도 하다. 구체적으로는 탁아소 보육원과 어머니들 사이에 지켜야 할 언어레절, 집을 방문한 손님에 대한 언어레절, 이웃간 언어레절, 가족에 대한 언어레절, 전화예절 등 매우 구체적이고 다양한 상황을 배경으로 자주 등장한다는 것도 특징적이다. 특히 탁아소의 경우에는 가장 처음 소속되는 집단으로서 “어린이들의 본보기가 될수 있게” 레절을 잘 지켜야 하는 곳이다. 따라서 갓난어린이들을 맡은 보육원은 어머니들과 어린이들 앞에서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언어레절에 주의해야 한다고 한다. 기사에서는 보육원이 자신의 일에 대한 주인의식이 없이, 자신의 아이의 특징이나 아픈 점을 알려주려는 어머니들에 대해서 “됐어요. 경희는 늘쌍 우는걸요.” 하는 식으로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경계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애기어머니들 역시 보육원에게 지나치게 무례한 요구나 언행을 삼가하여야 한다고 지적하며, 보육원 뿐 아니라 학교 교원들에게도 언어예절을 지켜야 할 것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처럼 어머니들이 보육원과 교원들에 대해서 예의와 언어예절을 지켜야 할 것과 관련된 기사의 분량은 여타 어머니 교양 기사들에 비해 많은 편인데, 이와 같은 장문의 사례들이 제시된다는 것은 언어적 상호작용들을 통한 인간관계에서의 마찰이나 갈등, 오해 등을 포함한 북한 여성들의 언어생활과 관련한 문제들이 다소 증가하고 있을 가능성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을 듯하다.

한편 최근의 『조선녀성』에서는 과거와 같은 수기나 기사글 형태로서가 아니라, 만화, 그림, 시 등 다양한 형태와, 요리, 육아, 옷차림, 건강상식 등 다양화된 내용구성을 통해 여성들을 계몽하고자 하는 특성을 보여 왔다. ‘그림이야기’ 형태로 『조선녀성』에 등장하고 있는 ‘사회주의도덕과 생활’ 중 “남편자랑도 말씨에 따라” 편에서

는 남편과 관련해 거친 언사를 보이는 주부가 등장한다. 주인공 여성이 길가다 만난 이웃 여성에게 “이것 저것 안끼는데 없어요. 참 사람 웃기지, 축구에서 문지기라나요”라는 식으로 설명하자, 이웃 여성은 남편이 아니라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줄로 오해하는 장면이 나온다. 마지막 장면에서 (아이의) 나이가 몇살이냐는 이웃의 질문에 주인공 여성이 ‘마흔’이라고 대답하자, 이웃 여성은 “아니 그럼 그제 세대주 이야기나요?”하면서 놀란다. 또 다른 그림이야기인 “마지막 한글자에도, ‘요’는 언제나 자신을 돋보이게 해줍니다. 비록 끝에 붙는 한글자 이지만…”편에서는, 남편을 찾아온 초면의 방문객에게 계속하여 반말조로 답변하는 여성이 등장한다. “집에 없는데”라는 식으로 여성이 반말을 한 마디 할 때마다, 문 뒤에 숨어 있던 어린 꼬마가 ‘요’ 자를 계속하여 붙여 준다. 이 외에도 “전화레절은 곧 자기의 얼굴”이라면서, 화목한 대가정으로 이루어진 우리 사회에서 전화도덕 문제가 ‘매우 절실한 문제’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상과 같은 전통도덕과 레의범절의 중시는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가까운 개인들을 넘어서서 불특정 다수를 향한 경로사상과 공중도덕으로 확장되게 된다. 출근길 버스 정류소의 질서있는 모습이나, 버스나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고상한 도덕품성’ 관련 기사들이 해마다 등장하며, 부분적인 구절 차이를 제외하고는 시대가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큰 변동 없이 비슷한 내용을 싣고 있다. 특별히 이러한 자리양보 예절에서 등장하는 미담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여성이거나 그 자녀이며, 정류소에서 질서를 지키며 줄을 서 책을 보는 주인공도 여성으로 묘사된다. ‘서른살안팎의 젊은 녀성’이 다정히 자리를 권하는 모습에서, “뛰어나게 아름답지는 않았어도 고상한 인품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언행은 한결 그 모습을 돋구어”준다고도 한다. 또한 ‘한 방울의 물’에도 ‘우주’가 비끼는 것같이, 어머니의 훌륭한 모범과 그 교양을 받으며 자라는 어린이는 유치원에서는 동무들과 화목하고 집에서는 부모님들을 존경할 것이며 더 자라서는 조직과 집단,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는 조국의 참된 아들로 될 것이라 칭찬한다. 그런데 기사 내용 중 ‘자리양보’ 미덕을 행한 대학생 처녀들이나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차안의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선망의 눈길”이라는 식으로 묘사되고 있다. 결국 ‘공중도덕’의 미덕이 현재 북한 여성들의 ‘현실’을 반영한다기보다는, 부족한 점을 교정함으로써 ‘지향하고자 하는 상태’를 향한 계몽적 차원의 표현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⑦ 결혼, 가족, 자녀교육

이상에서처럼 북한에서는 ‘예의도덕’을 강조하면서 특히 2000년대 이후 전통도덕과 전통명절에 대해서 재조명하는 있다. 반면 전통적인 것 중 ‘허례허식’과 같은 ‘낡은 생활양식’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투쟁해야 한다고 경계한다. 북한 당국은 일체의 관혼상제에 대하여 ‘선군시대’에 맞게 간소하고 검소하게 진행하며 미신적이고 이색적인 것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된다. 앞서 제시한 ‘청년’들의 물질주의적 결혼관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들에게 있어서도 결혼식에 대한 허례허식의 측면이 상당 부분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혼식을 반드시 항일유격대식으로 하여야 하겠습니까’라면서 ‘콩나물과 두부’를 이용한 검소한 결혼식을 강조한 바 있는 김정숙의 모범을 제시하면서, 특히 결혼의 측면에 있어서는 허례허식과 더욱 적극적으로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편 2000년대 이후의 경향 중 특징적인 것은 『조선녀성』 내에서 부부관계와 관련된 글들이 매우 많으며, 그 분량도 다른 글들에 비해 월등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싣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전 시기에서는 부부관계나 남편에 관한 글들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대표적으로 ‘세대주들에게 하고 싶은 말’에서는 “가정의 리익만을 생각하면서 안해에게 직장일을 그만두고 가정살림살이만을 잘할것을 권고”하면서, “녀자들이란 시집을 가면 가정일에 충실하면 그 만이야.”라는 생각을 품었다고 고백한다. 또한 2007년 『조선녀성』에서는 “가정생활과 참다운 부부애”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편과 부인이 서로를 닦하는 것, 자녀를 닦하는 것, 리혼, 정조, 언행, 남존여비의 문제 등 현실적인 다양한 주제들을 조목조목 들면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려 든다. 특히 “녀성의 인격을 무시하는것, 녀성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는것”과 같은 남존여비의 사상을 비판하면서, 서로에게 부름말을 골라 쓸 것과 야비한 언사를 쓰거나 몰상식한 언어표현을 쓰지 말도록 권고한다. 그런데 “가정을 운영하는데서 자기가 큰 몫을 담당한다고 하여 상대방을 우습게 보거나 깔보고 재세하는 것,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가정사를 자의대로 처리하는것”은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는데, 이는 고난의 행군기에 여성이 주도적으로 경제활동을 벌이면서 부부간에 지위역전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여성이 남편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발견되기도 한다는 탈북민 인터뷰나 소셜 내용들과 관련하여 유추해볼 수 있다. 다른 글에서도 부부애 및 가정파탄, 이혼과 관련하여 “완성된 인간이 아닌 이상 생활과정에 결함이 나타날 수 있다. 부

부사이에 서로 상대방의 부족점이나 불만족한 측면만을 끄집어내는 사람들은 나중에는 부부관계를 끊게 되고 가정도 잃어버리게 된다.”면서 서로를 이해할 것을 강조한다. 또 다른 글에서는 백년가약의 미풍량속에 따라 “일단 정을 나누었으면 부부가 되었고 부부가 되면 리혼이란 몰랐으며 혹시 리혼하는 경우 그것을 매우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겨 왔습니다. 그래서 리혼한 사람들은 바깥출입을 저어하고 혈육과 이웃들의 비난의 대상으로 되었습니다. 하여 대대로 살던 정든 고향을 남 몰래 떠나기까지 하였습니다.”라는 표현도 등장한다. 이같은 가정 내의 불화관련 기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이후의 변화된 여성동맹조직의 관심사를 반영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3) 여맹의 기능 및 향후 전망

① 사상교양적 측면

녀맹조직이 지니는 취약한 조직성은 우선 가두녀성 중심이라는 점, 또한 연령과 사회경제적 계층의 다양성과 복잡성, 결혼 이후 지역의 이동으로 인한 부적응 및 경제난으로 인한 고통 등과 고루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녀맹조직 내의 사상교양의 어려움 뿐 아니라 녀맹원들 사이의 다양한 갈등 가능성을 자아내게 한다. 또한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동안 생계유지에 나섰던 가정부인들에게는 ‘이악함’의 특성이 강해지면서 사적 경작이나 장사 등을 통해 획득한 경제적인 능력에 바탕한 지위 향상은 오랜 동안 누적되어 왔던 남존여비의 가부장적 가족내 관행에 긴장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가령 탈북여성들이 한국에 와서 남편과 이혼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도 그런 증좌로 볼 수 있다.

특별히 여성동맹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파악하고 집중하는 사업대상은 조직이탈로서, 1990년대 초까지는 ‘새세대’ 여성들이 10일생활총화, 학습회, 강연회에 빠지는 문제들에 교양이 집중되었으나,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적극적인 이탈이 증가했다. 이러한 조직이탈은 전시대처럼 비단 ‘새세대’ 여성만이 아니라, 가정살림을 책임지는 전 연령대의 여성에 해당될 수 있는 문제이며, 녀맹원들과 동일하게 가정부인인 녀맹초급단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발견되었던 문제라는 점에서 향후 그 중요성이 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난 시기 일탈적인 청년기를 보낸 여성들의 경우엔 2000년대 이후에도 비사회주의적 행동을 보일 수 있다. 혹은 일탈적 청년 세대의 자녀들을 키우는 연령대의 주부들 역

시 자녀들로부터 이러한 영향을 받았을 수 있으며, 결국 자녀교양에 있어서도 엄격함 뿐 아니라 관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동시에 요청받게 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녀맹조직에서는 모범 녀맹위원장들의 사업 실례들을 강조하는 가운데, 사상교양단체로서의 특성에 따라 정치사상교양에 최우선적으로 집중할 것을 촉구하게 된다. 청년동맹의 일군들의 경우에는 ‘건설대, 돌격대’ 등의 건설사업이나 직업 배치 문제에 집중하는 것으로 비판되는 반면, 녀성동맹의 일군들에게는 상대적으로 기초적인 수령결사옹위와 충실한 조직생활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특별히 김주석 사망 이후에는 ‘선군시대 녀성’으로서 ‘수령결사옹위’에 나설 것을 강조하면서, 부부 및 가족단위로 합심하여 사적지나 동상을 관리하는 사례들을 귀감으로 제시한다. 조직이탈을 교양하는 데 있어서 대표적인 특징은 우선 ‘진심’을 주면서 ‘믿음과 사랑’으로 교양하는 ‘우리’ 녀맹위원장들의 접근방식으로서, 이는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심장을 열어주게 된다고 한다. 둘째로는 흥미와 개성을 존중하며 연령대의 장점을 살리고 긍정적 모범을 내세우는 등의 교양방법론의 다양화이다. 구체적으로는 젊은 여성들의 예술선동대 활동 등을 통해 맹원들의 참여도를 높이거나, 예술경연대회를 열어 집단의식을 고취하는 것, 일제시기와 한국전을 경험한 나이 많은 여성들을 통한 대비교양 및 혁명의식 고취, 각자의 소질을 살리게 한 뒤 조직에서 적극 칭찬함으로써 참여도를 높이는 것 등이다.

2000년대 이후의 녀맹조직 기능강화 및 사상교양노력에서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선군사상교양’ 및 ‘화선식정치사업’이다. 우선 선군사상교양은 김정일 시대 이후의 북한 일차자료들에서 흔히 발견되는 개념으로서, “녀맹원들을 선군사상의 절대적인 신봉자, 철저한 옹호관철자로 키운다는것은 우리 당의 선군사상을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절대불변의 진리로 간직하고 견결히 옹호하며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한목숨 서슴없이 바치는 선군시대의 참된 혁명가로 만든다는 것을 말한다.”고 강조한다. 한편 ‘화선식정치사업’은 ‘불붙은 전선’을 상징하는 인민군대식의 사상교양방법으로, 『조선녀성』에서 1990년대에도 아주 드물게 등장한 적은 있었으나 주로 2000년대 이후 자주 발견되는 표현이다. “녀맹조직들은 녀맹원들에 대한 사상교양 사업을 화선식으로, 인민군대식으로 실속있게 진행해나가야 한다. 인민군대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화선식정치사업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밑에 그 생활력과 위력이 남김없이 발휘되고있는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사상사업방법이다.”면서, “화선식선전선동과 예술활동을 사업에 철저히 구현하여 녀맹원들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힘있는 노래와 구호, 구두선동의 힘찬 메아리가 울려퍼지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중시한다.

② 방법론의 측면

사상교양사업의 강화는 녀맹일군들로 하여금 무엇보다도 ‘방법론’의 변화를 강력하게 요청하게 하며, 개성 및 흥미를 반영하는 교양방법을 강조하게 된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일정 지역의 가두녀성’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여맹조직의 구성원들은 상대적으로 이질적이다. 여성동맹 구성원들은 우선 ‘자유주의’적 성향을 보이고 조직에 흥미를 보이지 않는 젊은 새세대 녀맹원도 있으며, 자녀가 장성하여 대학 또는 군대에 보내거나 결혼을 시킬 만한 연령대라서 조직보다는 가정문제에 가장 큰 관심을 지니고 있을 주부도 있다. 또한 한국전쟁이나 항일혁명기 전후에 태어난 연로한 여성들의 경우에는 학습능력이 상대적으로 열등하여, 노작이나 강연내용에 대한 이해가 느리거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경우들도 지적된다. 이러한 구성원의 이질성은 비단 연령대의 문제를 넘어, 출신지와 사회경제적 지위 및 개인적인 성격 등이 다양하다는 점에서도 기인한다. 녀맹원들은 초급단체별로 같은 지역 사회 내에 살고 있다는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시집오기 전의 출신지역이 모두 다른 경우가 많다. 또한 평양을 제외하고는 세대주들의 직업이나 성분에 따라 사회경제적 지위의 격차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근로단체 중 녀맹 자체가 지니는 한계로 인한 특수성도 존재한다. 예컨대 직맹의 경우에는 직장생활로 인한 ‘사회성’이라도 지니게 된다는 점에서 극단적인 갈등을 감소시킬 만 한 유사성이 존재할 수 있다. 농근맹의 경우에는 동일한 직업군으로서의 공통의식이 존재할 수 있다. 비교적 복잡한 청년동맹의 경우에도 학생 청년, 군인 청년, 직장 청년 등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으며, 각각의 특성에 따른 교양방법의 강조점을 둘 수 있다. 그러나 녀맹의 경우에는 이러한 공통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녀맹원 개인의 성격이나 취향상의 차이가 더 많이 발생하여 녀맹원 간 또는 녀맹일군들 간의 갈등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는 개성의 존중과 포용력의 증대를 요청하게 된다. 군중로선은 이전부터 강조되어 온 부분이지만, 상급 단위가 아래 단위로 내려가 당정책을 인민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한 방법론 자체에 그치려는 것이 아니라, 아래 단위 자체의 특성과 능력을 이해하고 활용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대중의 정치사상적준비

정도와 성격, 사상감정과 심리에 맞게 사업하는것을 체질화하여야 한다. 인민을 위하여 일군들이 있다.”고 강조한다. 예컨대 고난의 행군기 동안 사적 경제활동을 통해 부를 축적한 녀맹원들과 그렇지 못한 녀맹원들 사이에는 식량이나 의복 또는 물품 등의 살림 나아가 현금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차별성이 존재하는데, 이는 조직 내에서의 상대적 박탈감의 문제로도 드러나, 사회경제적으로 열등한 녀맹원들의 경우에는 조직생활에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멀어지게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에 대하여 조직은 ‘개별담화’ 등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조직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도록 촉구하는데, 예컨대 원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족내 불화 등일 경우 초급단체 녀맹위원장들이 조직원들을 발동하여 해당 녀맹원의 식량 보조 및 집수리 등을 도와주면서 감복시킨다. 또한 ‘과오’를 범하여 조직에서 유리되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믿음과 사랑’으로 포용하는 가운데 ‘심금을 울리며’ 교양하는 형식을 취한다. 특징적인 것은 ‘혈육의 정’으로 접근하는 이러한 ‘우리’위원장의 노력으로 과거의 ‘말썽꾼’ 녀맹원들은 하나같이 감복하며, 조직생활에 점차 재미를 붙이게 되는 가운데 녀맹조직의 지도하에 원군과 생산활동에 적극 헌신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한편 2000년대 이후에 북한 당국이 강조하는 ‘선군시대의 참된 일군’은 “실력가형의 재능있는 녀맹일군”이라면서, 정서적인 접근과 함께 실무적인 능력도 더불어 갖추 것을 요구한다. “높은 충실성을 지니고있어도 실력이 안받침되지 않고 능란한 정도예술을 소유하지 못하고서는 천태만상의 사람들을 교양해나갈수 없다. 일군들이 생활의 료리에 따라 때로는 말로, 때로는 웃음과 노래로 사람들의 사상감정을 불러 일으킬줄 알아야 녀맹원대중의 지지와 공감을 받으며 자기 사업을 능란하게 해나갈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력가형 일군들의 특징 중 대표적인 것은 초급단체들마다에 백두산 3대장군 및 교시 등의 위대성자료카드들을 체계적으로 준비시키는 데 있어서 뛰어난 역량을 보이며, 예술선동 등을 통해 학습성과를 높이고 노력동원에 나서도록 이끄는 것 등이다. 여타 근로단체에 비해 맹원들의 이질성이 높은 여성동맹은 학습에 시나 음악 같은 예술선동을 배합하여 흥미와 기억력을 높이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초급단체별로 예술선동경연대회를 열고 맹원들의 참여도를 최우선으로 평가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조직참여율과 단합력이 높아졌다고 평가한다.

그런데 여성동맹의 사상교양방식의 특성을 살펴보다 보면 ‘종교단체’ 등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유사함을 느끼게 하는 측면이 많다. 예컨대 교회 등의 종교단체 역시

이질적인 연령대, 지적수준, 경제적 계급, 사회적 지위, 믿음(또는 사상적 충실성)의 정도, 성격과 취미 등을 지닌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한국 사회의 경우 여성 종교인의 수가 월등히 많으며, 교인들의 종교심 및 조직결속을 높이기 위하여 각 종교단체들이 시도하고 있는 효과적인 방법론들은 북한의 녀맹조직이 시도하는 교양 방법론과 유사성을 지니는 측면이 존재한다고 확대해석해볼 수 있다. 우선 김일성의 가계가 기독교적인 성향이 강했음을 염두에 둘 경우, 사상학습 및 조직동원에 있어서 종교적 아이디어들을 취사선택하여 활용했을 가능성도 높다. 또한 정권 수립 초기의 북한 내에서는 지주나 자본가들이 월남함으로써 경제적 여유 가운데 교육을 받은 계층이 비교적 적었다는 점에서 특히 문맹률이 높은 여성들을 교양할 ‘수준’ 있는 일군이 부족하였다. 결국 여성동맹 조직 초기의 일군들을 충원하는 과정에서는 자신 혹은 가족들과 관련하여 종교적 배경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도 일부 포함될 수밖에 없다.

또한 ‘화선식정치수첩’은 마치 종교단체들에서 새로운 신자들을 교육하는 교재들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예컨대 첫 페이지에는 3대장군의 핵심적인 구절이 등장하며, 그 다음부터는 맨 위에 학습해야 할 주요 명제들이나 교시말씀들이 있고 그 아래에는 계속하여 빈 칸을 만들어놓는다. 작은 분조를 형성하여 분조장이 주요 교시들을 해설하면 분원들은 이를 학습한 뒤 빈 칸을 스스로 채워 놓고 분조장에게 검사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조선녀성』 앞면 속표지에는 그 달의 정치사회적 관심사와 관련이 많은 노래 한 곡을 악보 및 가사와 함께 올리고 있으며, 학습 관련 분조모임을 하게 될 때마다 학습 시작 전에 녀맹원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는 시간을 두도록 권유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초급단체별로 예술선동을 통해 다른 단체 앞에서 발표하거나 승벽내기를 시키며, 인기가 있는 예술선동대의 경우 다른 초급단체나 건설대 등에 순회공연을 나서기도 하는데 규모가 큰 것은 천여 명으로 조직되기도 한다. 나아가 초급단체별로 겨울철 등에 혁명사적지 답사 겸 거름모으기를 위해 ‘순례행군’을 행하기도 하며, 조직의 지도하에 다양한 좋은일하기운동을 통한 ‘봉사활동’을 하는 것 역시도 종교단체와 유사성을 지닌다. 또한 신문기사 등에서 자주 소개되는 ‘수기글’ 등에서 등장하는 내용들은 하나같이 수령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자신의 과거의 실수를 고백하고 반성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종교적 신앙고백이나 간증과 유사성을 띠고 있다. 물론 여성동맹에서 행하는 이와 같은 교양 방법론이나 사업형태들은 노동당 및 녀맹조직 차원에서도 과거부터 강조되기도 해

온 것으로서, 1990년대 후반 이후 ‘창발적’인 녀맹일군에게서 더욱 심화 발전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청년 부분에서는 ‘군대가면 철든다’는 말처럼 군입대와 같은 사회적 ‘격리’가 사회통제 및 범죄예방효과에 매우 효과적일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즉 청년들의 다양한 일탈행위나 조직관념약화 문제를 군입대 혹은 ‘군대식’ 교양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다면, 여성들의 경우에는 여맹을 통한 ‘종교식’ 교양을 통해 조직관념의 회복을 시도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4. 결론과 제언

본 글에서는 북한의 대표적인 사회단체인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과 조선녀성동맹의 조직과 활동을 검토함으로써, 북한 사회가 대내외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기제의 성격을 파악하고자 했다. 또한 이들 단체에 소속하여 살아가는 개인들의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북한 사회의 변화를 전망하고자 했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통일시의 부작용을 줄이고, 교육과 복지정책에 관한 시사점을 얻고자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청년동맹의 형성과 발전, 지위와 활동, 역할 등을 살펴보고, 청년동맹이 청소년들을 실제로 어떻게 통제하고 교화시켜나가는가의 과정과 방법을 연구함으로써, 북한 사회의 유지 기제를 이해하고 미래의 청소년 교육정책에 시사점을 찾고자 했다.

청년동맹이 지니는 기능은 사상교양, 당의 후비대, 건설에의 동원 기능으로서, 제국주의 황색바람과 고난의 행군 및 김정일 체제의 유지와 향후 후계구도와 관련된 측면에서 청년동맹의 기능은 전반적으로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로, 사상교양단체 기능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 혁명교양, 계급교양,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 공산주의도덕교양 이외에, 구 사회주의 붕괴 이후 ‘황색바람’을 경계하기 위한 청년들의 혁명사상교양에 초점을 둔다. 김일성 사망과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는 김일성 유일사상교양과 김정일의 선군사상을 강조하게 된다. 둘째로, 강행군기 이후 물질적 측면에 비해 정치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경시되는 가운데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 방조자로서의 기능은 과거에 비해 다소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의 ‘청년중시, 청년신뢰’ 언급들과 더불어 청년동맹 고유의 예비간부양성 기능은 그 역할을 대신할 단체가 존재하기 어렵다는 점

에서 향후로도 주목할 만하다. 셋째, 청년들을 경제건설 등에 동원하는 ‘생산의 전위대, 돌격대’로서 기능은 김정일 시대 이후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선군사상과 더불어 혁명과 건설의 ‘주력군’으로 중시되고 있는 군대의 구성원의 대부분이 청년들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글에서는 일차자료를 통해 청년들의 변화 특징을 살펴보고, 향후 청년동맹의 역할 변화 및 그 전망을 시도하였다. 우선 첫째로 정치적 측면에서는, 청년들에게 발견되는 정치·사상적 이완 및 조직관념 약화로 인한 무규율적 태도들을 적극적으로 교양하고자 청년동맹의 역량을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은 이러한 문제점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조직 통제의 약화로 파악하는 가운데, 동맹조직의 최우선과제 역시 조직규율 강화에 두게 된다. 이에 따라 청년동맹조직의 각급 초급단체별로 충화를 강화하고 모임의 규율을 강화할 것과, 비사회주의적 현상과 관련된 영화나 강연모임 등을 시도하며, 반미성토대회나 충성결의모임 등의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한편 또한 1991년의 청년절 제정과 김일성사회주의로의 개칭은 청년동맹의 높아진 위상을 반영하며, 청년절 전후 시기의 담화문이나 서한, 신문사설 등을 통해 당의 기대와 정책적 방향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청년들의 높은 조직성과 규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청년동맹일군의 자질과 역량을 높일 것을 강조하며, 일군들 속에서의 비사회주의적 현상이나 구태의연한 사업진행, 형식주의 등을 강도높게 비판한다. 또한 1990년대 이후에는 청년들의 ‘흥미, 개성’을 존중하는 다양한 교양 방법론을 시도할 것을 촉구하며,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및 지역사회, 가정 전반에서 혁명적인 환경과 기풍을 조성할 것을 강조한다.

둘째로 경제적 측면에서는, 동맹조직의 주관 하에 다양한 강연회, 대비교양, 회상기교양, 영화모임 등을 통해 청년들의 ‘물질주의’적 태도를 엄중히 경계한다. 그러나 북한의 군대 및 보안기관들의 ‘사회통제’ 능력과 더불어, 주민들의 ‘사적 경제활동’은 고난의 행군기 동안 북한 사회가 붕괴하지 않도록 유지시켜 준 두 가지 기제라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유재산 자체를 금지하기보다는 개인의 ‘사치, 방탕, 향락’ 등을 비판하며, 대학생들이나 직장 청년들의 ‘학과공부’나 ‘업무’에 전심하지 못하는 태도를 비판하는 방향으로 청년 교양에 변화를 둔다. 또한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거나 인텔리, 대학생 청년들의 경우에는 ‘뒤공작’을 통해 편하고 보수가 높은 직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으며, 지역적으로는 직종을 불문하고 평양 등의 대도시를 선호하기도 한다. 동맹조직들은 이러한 태도들을 ‘이기주의’로 비판하는 가운데, ‘직

업의 귀천'을 비판하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를 바탕으로 '고등중학교졸업생들의 조국보위탄원과 사회주의건설장예로의 진출선구자환영대회' 등을 개최하기도 한다.

셋째로 사회적 측면에서는, 갈수록 공격성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청년들의 일탈행위들을 경계하고, 기초적인 공중도덕이나 사회질서를 강조하는 데 동맹조직의 관심을 집중한다. 그러나 청년들 사이의 비사회주의적 현상과 일탈행위들이 급증하면서, 북한 당국은 제재 일변도로 대응하기보다는 유화적인 포용책을 시도하는 가운데 청년들을 동맹조직 내에 복귀시키는 데에 중점을 둔다. 이러한 태도는 청년동맹 교양일군들의 방법론에 있어서도 변화를 요청하였는데, 일군들이 '경제사업'만 벌일 것이 아니라 '동맹내부'에 관심을 돌려 뒤떨어진 청년들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사상교양을 시도할 것을 강조한다. 범죄발생률은 일반적으로 20대 초반의 인구집단에서 가장 높는데, 북한 역시 10대 후반 이후의 청년들을 군대에서 흡수하게 될 경우 직·간접적인 사회 통제 강화 및 범죄발생의 빈도, 강도, 조직화를 차단할 수 있다. 김정일의 선군사상 이후에 특별히 강조되는 참군, 원군의 강조는 결국 청년들의 일탈행위의 강도와 빈도를 감소하게 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군대는 혁명적인 규율 가운데 생활하며 통제가 용이한 집단일 뿐 아니라, 조국보위 이외에도 농사 및 다양한 건설 사업에 동원하는 가운데 경제적인 측면의 기여도도 높다.

넷째로 문화적 측면에서는, 변화에 민감한 청년 계층은 다른 세대나 계층들에 비해 옷차림과 유희 문화 및 준거집단으로서의 평양 청년들의 혼례관습 등에 더욱 빠르게 반응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청년기의 인륜지대사로서의 결혼에서의 허례허식을 비판하며, '재물'이나 '지참금'보다는 '사상정신적 높이'를 중시할 것에 동맹조직의 교양이 집중된다. 구체적으로는 화려한 상차림이나 승용차로 시내를 도는 '옛 평양의 관습'을 비판하는 기사 등이 자주 발견된다. 일반적인 문화적 측면의 교양대상사례로는 불건전하고 비사회주의적인 취미나 옷차림 등이며, 특별히 '대학생' 등이 당의 은덕을 잊어버리고 '학과'공부를 게을리하면서 '색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을 비판한다. 대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성분이나 충성심 및 두뇌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계층이자 미래의 예비간부라 할 수 있다. 결국 이들의 일탈이 증가한다는 것은 향후 북한 당국에 있어서 매우 심대한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사로청조직 등 동맹조직을 통한 대학생 교양은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여성동맹의 형성과 발전, 지위와 활동, 역할 등을 살펴보고, 여성동맹이 어떠한 방식으로 다양한 이질적인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맹원에게 효과적인 사상교양을 행하고 당정책사업으로 동원하는지를 알아보았다. 특별히 고난의 행군기 이후 변화된 사회경제적 상황 가운데 사상교양 및 조직사업에 있어서의 변화를 살피고, 북한 사회의 유지 기제에 대한 이해 및 미래의 교육 및 복지정책에 시사점을 찾고자 했다. 여성동맹이 지니는 기본적 기능은 사상교양사업과 조직사업으로서 유일사상교양 및 선군사상으로의 사상무장의 중요성은 지속될 것이며, 특별히 여맹 조직의 지도 방조 하에 당건설 사업으로 여성들을 동원하는 기능은 향후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정치사상 및 조직관념의 측면에 있어서, 가두녀성 중심의 녀맹조직은 다른 외곽단체에 비하여 조직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특별히 경제난을 겪는 과정에서 여맹원들 뿐 아니라 초급위원장 등의 일군들에게서도 총체적인 사상약화 및 조직이탈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당국은 수령결사옹위와 혁명의식의 강화를 위해 조직 관념의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파악하였다. 김일성 사망 이후 최근의 특징으로는 가족 단위로 사적지나 동상을 관리하는 등의 수령결사옹위가 더욱 강조된다는 것과, 선군사상 가운데 군사부문교양을 추가하고 있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구체적인 사상교양사업은 주로 초급단체별 위원장의 역량에 의존하는 형태가 많았는데, 그 대표적인 모습은 ‘인간미’를 지니고 있는 ‘실력가’형의 당일군들이다. 구체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당과 맹원들로 하여금 애정어린 ‘우리’라는 호칭을 부여받고 있는 모범일군들로서, ‘진심’을 주면서 ‘믿음과 사랑’으로 교양한다. 둘째, 모범위원장들은 “정치사상적 준비정도와 성격, 사상감정과 심리에 맞게 사업하는 것”의 모범이 되는데, 이들은 개별교양을 시도하는 가운데 흥미와 개성을 존중하며 긍정적 모범을 내세워준다. 셋째로 이들은 교양방법론의 다양화를 위하여 예술선동대나 예술경연대회, 걸그림이나 카드화 등의 방법적 다양화, 화선식정치사업 등이 시도된다. 군입대 혹은 ‘군대식’ 교양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던 청년동맹의 경우와 달리, 여성동맹에서는 조직관념의 회복과 사상교양사업을 위하여 ‘종교식’ 교양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교양 방식은 제국주의 및 고난의 행군과 같은 대내외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다양한 구성원들을 조직동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도 암송카드, 걸그림, 화선식정치수첩, 노래와 율동, 분조활동, 예술선동대의 순회공연, 초급단체별 사적지 답사 및 봉사활동 등 종교적 교양

방식과 유사성을 감지하게 하는 측면이 발견된다.

둘째, 사회-경제적 측면에 있어서는, 고난의 행군기와 여성들의 사적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1990년대 후반 이후 녀맹조직의 위상이 높아진 것으로 보이며, 이는 탈북민들의 인터뷰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강행군 이전에는 녀맹초급단체별로 간혹 농장포전을 맡는 방식으로 노력동원에 나섰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비경지 개간에 있어서 보잡이, 진거름만들기, 파종하고 수확하기 등의 구체적인 지도에까지 녀맹조직의 역량이 확대된다. 이는 자체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가적 부담을 덜어주게 될 뿐 아니라, 주변의 탁아소 및 후방사업 뿐 아니라 나라에 애국적으로 바쳐지기도 한다. 나아가 여성들이 개간한 토지는 향후 ‘국토관리’라는 명목 하에 국가적으로 흡수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녀맹 조직이 북한 체제의 유지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녀맹조직의 적극적인 지도하에 이루어진 또 하나의 사업은 김일성 때부터도 강조되어 왔던 ‘좋은일하기운동’으로서, 다양한 자구적 노력이나 원군이나 원민 미풍 등으로 대표된다. 1990년대 초까지의 출근길환영모임이나 자재 수집 등을 넘어,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초급녀맹위원회의 조직지도하에 예술선동과 원호 및 고강도의 육체노동을 포함한 노력동원에 나서게 된다. 2000년대 이후에는 ‘공민적의무감’을 강조하면서 녀맹조직의 방조하에 집단적으로 ‘녀맹소대’나 여성돌격대를 조직한 뒤 가정을 떠나 산이나 저수지, 발전소 건설사업 등에까지 진출한다. 당국은 이들을 ‘건설대의 꽃이자 어머니, 누이’라면서 극찬하며, 여성들의 가족구성원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옹호 독려하는 것으로 묘사하기도 한다.

이러한 녀맹조직사업은 쌀과 노동력을 넘어 각 가정이 보유한 현금들을 ‘인민생활공채구매사업’과 ‘녀맹호 포 증정사업’의 명목으로 국가적으로 흡수하는 데 집중한다. 녀맹조직들은 유희자재수집과 가족기르기 등의 ‘좋은일하기운동’을 조직적으로 진행하고 초급단체별, 개인별 경쟁도표까지 만들어 모금을 독려하였다. 이러한 모금운동의 명목은 주로 ‘선군사상’ 등과 관련된 원군활동으로서, 녀맹조직은 ‘선군시대 원군영웅’이나 ‘원군미풍열성자 대회’를 통하여 ‘최대의 애국’은 ‘원군’이고 ‘참군’이라고 강조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여성동맹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지도방조를 행하는데, 현역군인 뿐 아니라 전쟁로병들과 전사자가족, 공로자들을 집단적으로 찾아가 집수리와 경조사준비, 명절음식 등을 보살피도록 유도한다. 이 외에도 1990년대 이후에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고아입양’의 미풍은 1990년대 후반을 거치면서

녀맹조직이 자체적으로 육아사업에 나서는 데에도 이어진다. 그 원호의 종류도 과거와 같은 가족단위의 입양을 넘어서서, 이불, 옷, 기자재, 쌀, 현금봉투 등을 대규모로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녀맹조직이 적극적인 역량을 발휘했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사회-문화적 측면을 살펴보자면, 사회적 상호작용의 범위가 다른 계층들에 비해 좁은 편인 가두여성들을 교양하기 위하여 녀맹조직은 배우자와 자녀 및 형제 자매, 친구, 이웃과 인민반, 탁아소와 보육원, 학교 교원들, 방문객에 대한 예의도덕에 초점을 둔다. 그 내용도 공중도덕 뿐 아니라 언어예절, 전화예절 및 명절인사 등의 전통인사법, 경조사 인사 등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도덕교양을 시도한다. 도덕교양을 위한 표현방식도 다양화되어 수기나 기사 뿐 아니라 만화, 그림, 시 등 다양한 형태와, 여성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요리, 육아, 옷차림, 건강상식 등 다양화된 내용구성을 통해 교양을 시도한다. 특별히 2000년대 이후에는 ‘전통’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지는데, 여성의 전통적 미덕이나 예의범절, 전통명절과 전통음식, 민속놀이, 전통옷차림 등을 자주 소개한다. 반면 제사나 혼례 등에 있어서 ‘허례허식’을 타파할 것과 ‘선군시대’에 맞게 간소하고 검소하게 진행하며 미신적이고 이색적인 것을 없앨 것을 촉구한다. 2000년대 이후의 또 다른 특징은 부부관계와 관련된 글의 빈도와 분량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것으로, 비단 여성들 뿐 아니라 세대주들이 유념할 부분도 등장하는 가운데 “부부 및 자녀와의 불화, 리혼, 정조, 언행, 남존여비의 문제” 등 가정생활의 현실적 주제들이 직접적으로 제시되고 그 문제점과 각각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상과 같은 북한 외곽 단체들의 특성과 변화를 바탕으로 본 글에서는 향후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 사회에 대한 다양한 시사점들을 정리해 보았다. 비록 정치적 교류의 연장선상이라 할지라도 다양한 사회문화적 교류가 반복되면 상호간에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으며, 나아가 남북한 내의 새로운 사회단체들의 형성을 촉진하고 상호간의 수렴을 기대할 수도 있다. 이러한 교류가 용이할 수 있도록 기존의 청년단체나 여성단체를 정비하거나 북한 관련 분과들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북한 청소년과 여성들 사이의 공통된 관심사를 반영하면서도 정치적 색채가 비교적 적은 분야를 중심으로 ‘아래로부터의’ 교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 기존의 다양한 문화 예술 체육 교류 뿐 아니라, 남북한 사회 내에서 각기 강점을 지니고 있는 새로운 분야들을 발굴 개척하여 교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남한의 경우 드라마나 영화, 음악 등 이미 입증된 ‘한류열풍’의 경쟁력을

활용하거나, IT 강국다운 온라인 컴퓨터 게임 등 여가 오락 측면의 접근도 의미가 있다. 또한 순수 예술적 교류 뿐 아니라 소득 창출 등에도 기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에 대한 연구가 요청되며, 이는 통일비용의 최소화를 통한 미래 한국의 번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노력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그 실효성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뜻으로 온갖 노력을 다 한다 해도 북한의 반응이 아무런 효용이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우리의 노력은 사실상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

한편 통일 과정이나 통일 이후의 다양한 혼란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당국과 종교 단체 이외에도 각급 교육기관, 다양한 복지단체, 나아가 지방자치단체별로 통일 이후 사회에 대한 이해와 재사회화의 역할을 공유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 내용도 경제적 지원 및 종교 활동과 친목 모임 등에 그치지 않고, 여성이나 청년 등 변화에 민감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심리검사 및 성격검사 등을 포함한 적응 교육의 노력, 나아가 구직교육 등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나 내용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재사회화에 있어서도 연령과 직업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교육 과정이 요청될 것이며, 주민들의 실질적인 필요에 부합할 수 있는 외국어와 컴퓨터를 비롯한 다양한 강좌와 다양한 단계의 자격증 제도 등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 단행본

- 국토통일원, 「조선로동당 주요 외곽단체의 조직 및 활동」, 1982.
김광식 외, 「통일후유증 극복방안 연구: 민족사회적 가치체계의 융화」(성남: 정신문화연구원, 1994).
김경미, 「북한 여성들의 삶과 꿈」(서울: 사회문화연구소, 2001).
김기석, 「교육역사사회학」(서울: 교육과학사, 1999).
김귀옥, 「북한여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서울: 대동, 1997).

- 김동한 외, 『북한의 사회문화』(서울: 한울아카데미, 2006).
- 김병로, 『주체사상의 내면화 실태』(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 ____·김성철, 『북한사회의 불평등구조와 정치사회적 함의』(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 김선옥, 『북한여성의 지위에 관한 연구』(서울: 한국여성개발원, 1992).
- 김재용, 『북한문학의 역사적 이해』(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4).
- 김재운·장경섭 편, 『변혁기 사회주의와 계급·계층』(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 남인숙, 『남북한 여성 그들은 누구인가』(서울: 서울신문사, 1992).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회 편,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과 대중문화』(서울: 오름, 2003).
- 박현선, 『현대 북한 사회와 가족』(서울: 한울아카데미, 2003).
- 박형중, 『199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변화』(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서울: 나남아카데미, 1995).
- ____, 『북한 사회심리 연구』(서울: 통일연구원, 1999).
- 숙명여대통일문제연구소, 『북한여성의 지위와 역할』(서울: 숙명여대통일문제연구소, 1994).
- 여성한국사회연구소, 『북한여성들의 삶과 꿈』(서울: 사회문화연구소, 2001).
- 오치선 외, 『청소년 조직행동론』(서울: 솔과학, 2002).
- 윤미량, 『북한의 여성정책』(서울: 한울, 1991).
- 이범준 외, 『21세기 정치와 여성』(서울: 나남, 1998).
- 이상화, 『북한의 여성관1: 사회주의이념과 남녀평등』(서울: 이화여자대학교한국여성연구소, 1992).
- 이영선·전우택 편, 『탈북자의 삶: 문제와 대책』(서울: 도서출판 오름, 1996).
- 이영숙·박성희, 『북한 청소년 연구』(서울: 한국청소년연구원, 1991).
- 이온죽, 『북한사회연구』(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8).
- ____, 『북한 사회의 체제와 생활』(서울: 법문사, 1993).
- ____, 『여성, 가족, 사회』(서울: 세영사, 1999).
- ____ 외, 『북한의 여성생활』(서울: 나남, 1991).
- ____ 외, 『남북한사회 통합론』(서울: 삶과 꿈, 1997).
- ____,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문화적 충격완화대책에 관한 연구』(BK21 아시아 태평양교육발전연구단(iAPED) 연구보고서), 2003.
- ____, 『통일과정 및 통일 후에 있어서 북한주민의 적응과 통합에 효율적인 교육방

- 법의 모색: 북한 사상교양 교육방법의 특성 연구」(2004년도 서울대학교 통일학연구사업), 2005.
- 이우영, 「남북한 문화정책 비교연구」(민족통일연구보고서), 1994.
- 이인정, 「북한 새세대의 가치 변화」(서울: 한국학술정보), 2004.
- 이종석, 「현대 북한의 이해」(서울: 역사비평사, 1995).
- _____, 「조선로동당연구」(서울: 역사비평사, 1995).
- _____, 「북한의 근로단체 연구」(성남: 세종연구소, 1988).
- 이춘재 외, 「청년심리학」(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93).
- 이태영, 「북한여성」(서울: 실천문화사, 1988).
- 이화여대한국여성연구원, 「북한의 식량위기와 여성」(서울: 한국여성연구원, 1999).
- _____, 「통일과 여성」(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1).
- 임순희, 「조선녀성 분석」(서울: 통일연구원, 2003).
- _____,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 변화」(서울: 통일연구원, 2004).
- 장필화, 「북한의 여성관3: 북한사회의 성별분업」(서울: 이화여대한국여성연구소, 1992).
- 장휘숙, 「청년심리학」(서울: 학지사, 1999).
- 전병재, 「사회심리학」(서울: 경문사, 1982).
- 전현준, 「북한체제의 정치적 특성과 변화 전망」(서울: 통일연구원, 2000).
- 정성장 외, 「조선로동당의 외곽단체」(서울: 한울아카데미, 2004).
- 조정아,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 체계: 형성과 변화」(서울: 통일연구원, 2005).
- 최완규 역, 「북한 도시의 형성과 발전」(서울: 한울아카데미, 2004).
- _____, 「북한 도시의 위기와 변화」(서울: 한울아카데미, 2006).
- 통일부, 「북한의 기관 단체별 인명집」, 1991~2005년 각 연도별.
- 한국여성개발원, 「북한여성의 지위에 관한 연구」(서울: 한국여성개발원, 1992).
- _____, 「북한의 여성교육에 관한 연구」(서울: 한국여성개발원, 2001).
- 한만길 외, 「북한교육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 연구」(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8).
- _____, 「북한에서는 어떻게 교육할까」(서울: 우리교육, 1999).
- 한승조 외, 「남북한의 인성사상교육」(서울: 집문당, 1998).
- 브라운 G. K.(손봉숙 역), 「소련의 여성과 정치」(서울: 한국여성정치연구소, 1992).
- 쉬바르츠 W. 외(엄명숙·강석란 역), 「사적 유물론과 여성해방」(서울: 한길사, 1990).

마르크스 외(조금안 편역), 『마르크스·엔겔스·레닌·스탈린 여성해방론』(서울: 동녘, 1988).

하이지 하트만·린다 변햄 외(김혜경·김애령 편역), 『여성해방이론의 쟁점: 사회주의 여성 해방론과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서울: 태암, 1990).

무라타 요이치(편집부 편역), 『코민테른 자료선집: 대중운동, 농민문제』(서울: 동녘, 1989).

국내 논문

김근식, “북한식 민간단체의 현황과 변화 전망”, 평화연구, 제11권 1호,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2003

김동배, “탈북자들의 적응을 위한 민간 차원의 대책”,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주최 탈북자 대책을 위한 토론회 발표 논문, 1996.

김염자, “중국의 사회주의 초급단계 국가건설과 여성의 입장”, 이화여대한국문화연구원논총, 1992. 11.

김영진, “중국의 경제개혁과 총공회의 역할: 코포라티즘의 시각에서”, 한국정치학회보, 30집 4호, 1996년 겨울.

남영진, “사로청, 그 실체를 밝힌다”, 새물결, 1995년 1월.

남인숙, “남북한 여성정책 비교”, 북한학보, 20호 1996.

노귀남, “인민성의 문제로 읽은 북한문학의 변화와 전망”, 경희어문학, 17집, 1997.

도종수·김미숙, “남북한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 비교”, 『남북한 사회문화 역량 종합 평가』, 통일원, 1990.

민성길·전우택·윤덕룡, “북한청소년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 보건기술개발 연구보고서, 1998.

박순진, 코호트의 크기와 범죄율의 변화, 형사정책, 제 13권 제 2호, 2001.

박정란, “여성 새터민의 직업가치와 진로 의사결정과정 연구: 북한에서 남한에 이르기까지의 맥락적 접근”, 이화여자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6.

서재진, “북한 학생의 가치관 변화와 교육적 시사”, 제2회 통일대비 교육포럼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6.

이인정, “1980년대 이후 북한 ‘새세대’의 가치 변화 연구 - 청년전위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민윤리교육과 박사학위논문, 2004. 2

정경심·조애리 러시아의 여성조직: 1850년대에서 1930년까지 한국여성연구회 편, 여성과 사회, vol. 1, 창작과 비평, 1990.

- 장달중, “김정일 체제와 주체비전: 이데올로기, 당, 그리고 군중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Vol.42 No.1, 1999.
- 정영철, 『북한 사회통제 메커니즘의 연구』, 통일문제연구, 9권 2호, 1997.
- 정유진, “북한 근로단체의 성격과 구성”, 북한조사연구, 제2권 2호, 통일정책연구소, 1999.
- 조정아, “북한 중등학교 규율과 반학교문화”, 교육사회학연구, 14권 1호, 2004.
- 평링, “사회변혁의 와중에 있는 중국여성”, 여성연구, 10권, 1호(봄), 1992.
- 한정숙, “혁명, 그리고 여성해방: 혁명기 러시아 여성운동에 대한 사적 조망”, 여성사회연구회 편, 여성, 제2권, 1988.
- 함인희,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와 여성관”, 민족과 문화, 9집, 2000.

외국 문헌

- Bowen, J., 『Soviet Education: Anton Makarenko & the Years of Experiment』, Madiso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65.
- Franz, Suhurmann., 『Ideology and Organization in Communist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6.
- Furtak, Robert K., 『The Political Systems of the Socialist States』, Brington: Harvester Press, 1986.
- Glenn, Norval D. *Cohort Analysis*, Sage Publications. 1977.
- K. D. Kim. & On-Jook Lee., 『The Two Koreas: Social Change and National Integration』, Seoul & Edison, NJ: Jimmoondang International, 2003.
- _____, “*Political Selectivity and Cultural Response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and Globalization: North and South Korea Compared*”, In G. Therborn and H. H. Khondker(eds.), 『Asia and Europe in Glibalization: Continents, Regions and Nations』, Leiden, Boston: Brill, 2006.
- Kim, Samuel S., “*Research on Korean Communism: Promise vs Performance*”, World Politics, Jan, 1980.
- Kornai, Janos.,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 Lenin, V. I., “*The Tasks of the Youth Leagues*”(1920. 10. 2), 『LENIN Collected Works 32』, Moscow: Progress Publishers, 1986.

- _____, “*The Trade Unions, The Present Situation And Trotsky’s Mistakes*”(1920. 12. 30), 『LENIN Collected Works 32』, Moscow: Progress Publishers, 1986.
- Rust, V. D. & D. Rust, 『*The Unification of German Education*』, New York & London: Garland Publishing Inc, 1995.
- Schmitter, Philipper C., “*Still the Century of Corporatism?*”, Philipper C. Schmitter, & G. Lehmbrush(eds.), 『*Trends Toward Corporatist Intermediation*』, London: SAGE Publications Ltd., 1979.
- UNICEF, 『*Analysis of the situation of children and women in DPRK*』, 2003.
- White, Gardner, Schöpflin, 『*Communist Political Systems: An Introduction*』,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7.
- Walter D. Cornor & David Powell(eds.), 『*Soviet Social Problems*』, Boulder: Westview Press, 1991.

북한 문헌

- 『경제사전2』(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5).
- 김일성, “근로단체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9차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64년 6월 26일), 『김일성저작집4』(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 _____,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하여”(조선민주녀성동맹 제4차대회에서 한 연설, 1971년 10월 7일), 『김일성저작선집26』(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4).
- _____, “녀성동맹의 금후과업에 대하여”(북조선민주녀성동맹 제1차대표자회에 참가할 공산당원인 녀맹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1946년 5월 9일), 『김일성저작선집2』(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 _____, “국제민주녀성령맹 집행위원회에 참가할 북조선민주녀성동맹대표와 한 담화”(1946년 9월 28일), 『김일성저작집2』(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 _____, “유일당증수여사업을 바로하며 녀성동맹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할데 대하여”(북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 한 결론, 1946년 12월 27일), 『김일성저작집2』(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 _____, “녀성동맹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데 대하여”(북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 한 결론, 1947년 10월 20일), 『김일성저작집3』(평양: 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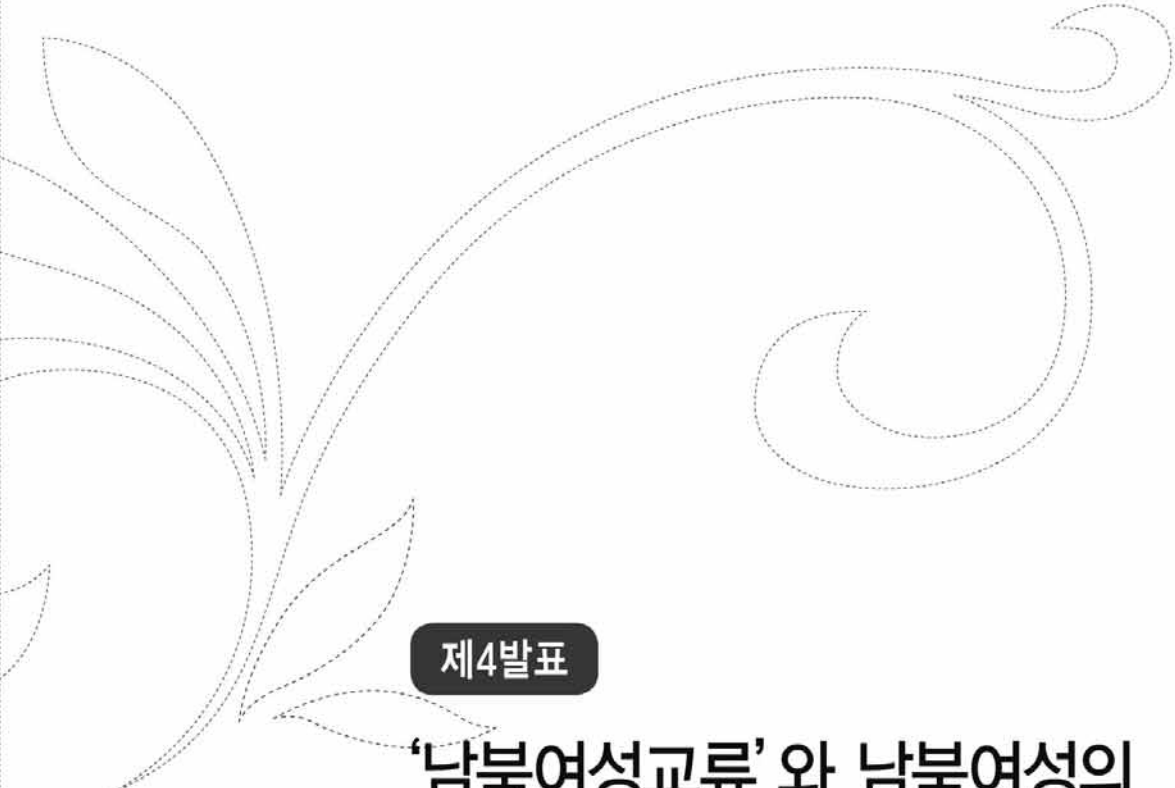
- 로동당출판사, 1979).
- _____, “남조선민주녀성동맹 일군들과 한 담화”(1948년 4월 27일), 『김일성저작집 4』(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 _____, “국제녀맹조사단 접견석상에서 진술한 담화”(1951년 5월 27일), 『김일성저작집6』(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_____,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인민생활을 책임적으로 돌봐야 한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및 평양시 일군들과 한 담화, 1965년 2월 15일), 『김일성저작집19』(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 _____, “녀맹조직들앞에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조선민주녀성동맹 제3차대회에서 한 연설, 1965년 9월 2일), 『김일성저작집19』(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 _____,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직맹, 농근맹, 사로청, 녀맹 중앙위원회 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1968년 10월 11일), 『김일성저작집23』(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 _____, “어린이보육교양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6차 회의에서 한 연설, 1979년 4월 29일), 『김일성저작집31』(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 _____, “북과 남의 녀성들이 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기자”(아세아의 평화와 녀성들의 역할에 관한 제3차 평양토론회에 참가한 남측대표단, 해외동포녀성들과 한 담화, 1992년 9월 6일), 『김일성저작집43』(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 _____, “민주주의 조선건국에 있어서의 청년들의 임무”(각도민주청년동맹위원장 회의에서 진술한 연설, 1946년, 5월 30일),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1』(평양: 국립인민출판사, 1949).
- _____, “북조선 민주청년동맹 제3차 대회에서 진술한 김일성수상의 연설”(1948년 11월 14일),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2』(평양: 국립인민출판사, 1949).
- _____, “학생 동맹을 유일한 청년 단체인 민주 청년 동맹에 합류시키는 문제에 대하여”(1945년 12월 30일), 『김일성선집1』(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4).
- _____,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당선전선동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55년 12월 28일), 『김일성저작선집 1』(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7).

- _____,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과업에 대하여”(조선민주청년동맹 제5차대회에서 한 연설, 1964년 5월 15일), 『김일성저작선집4』(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 _____, “민청단체들 앞에 나서는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새로 선거된 민청 중앙위원회 위원들 앞에서 한 연설, 1956년 11월 9일), 『청소년사업과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임무에 대하여1』(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9).
- _____, “조선민주청년동맹 북조선위원회 결성에 즈음하여”(북조선민주청년단체대표자회의에서 한 연설, 1946년 1월 17일), 『청소년사업과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임무에 대하여1』(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9).
- _____, “민주력량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민청단체들의 과업”(북조선민주청년동맹 제2차대회에서 한 연설, 1946년 9월 29일), 『청소년사업과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임무에 대하여1』(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9).
- _____, “현정세와 민청단체들의 당면과업에 대하여”(남북조선민주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연합회의에서 한 연설, 1951년 1월 18일), 『청소년사업과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임무에 대하여1』(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9).
- _____, “청년들의 특성에 맞게 사로청 사업을 더욱 적극화할데 대하여”(도, 시, 군, 공장, 기업소, 대학 당 위원회 청년사업부장 및 사로청위원장 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1년 2월 3일), 『김일성저작선집6』(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4).
- _____, “민주청년동맹을 조직화할데 대하여”(민주청년열성자대회에서 한 결론, 1945년 10월 29일), 『김일성저작집1』(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 김정일, “청년들과의 사업에 힘을 넣을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3년 2월 26일), 『김정일선집13』(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 _____,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사명과 임무에 대하여”(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중앙위원회 책임일군과 한 담화, 1996년 1월 20일), 『김정일선집14』(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 _____, “김일성동지의 청년운동사상과 령도업적을 빛내여 나가자”(청년 5뚝에 즈음하여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청년전위>에 준 담화, 1996년 8월 24일), 『김정일선집14』(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 김재호, 『김정일강성대국 건설전략』(평양: 평양출판사, 2000).
- 김한길, 『현대조선력사』(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3).

- 『력사사전 2』,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1).
- 『로동신문』, (평양: 로동신문사)
- 『로동청년』, (평양: 로동청년사, 1983년, 1988년, 1993년 1월~12월).
- 리경혜, 『녀성문제해결경험』,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0).
- 사회과학원,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하여>에 대하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 사회과학출판사 편, 『령도체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 사회과학출판사 편,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원리』(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대하여 3』(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정치사전 1』,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5).
- 『조선녀성』,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1979년 1월 ~ 2007년 5월).
-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조선로동당략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9).
- 조선로동당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10: 주체형의 혁명적근로단체건설』(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 『청년전위』,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1998년 1월~12월).

새터민 인터뷰

H씨(50대 남성), M씨(50대 여성), K씨(50대 남성), H씨(50대 여성), C씨(40대 여성), L씨(30대 남성), J씨(30대 남성), C씨(30대 여성), C씨(20대 남성), J씨(20대 남성) 이상 총 10명.



제4발표

‘남북여성교류’와 남북여성의 통합화에 관한 연구

배은경 (서울대 사회학과/여성학협동과정 조교수)

문소정 (서울대 여성연구소 책임연구원)

1. 연구의 목적과 초점

1) 연구의 목적

- 남북여성교류는 1991년 5월 동경에서 열린 제1차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로 시작되어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다양한 민족공동행사 등으로 다방면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 연구는 1991년 5월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이후 2007년 5월 제8차 「아시아연대회의」까지 진행되고 있는 여성운동 성격을 띤 남북여성교류를 대상으로 삼는다.
- 여기서 여성운동의 성격을 띤 남북여성교류란 남북의 여성단체가 여성의 경험에서 남북이 공유하는 여성의 문제들을 과제로 삼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벌인 교류를 말한다. 이러한 남북여성교류는 최초의 남한 민간인 방북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만들기도 하였으며, 이후 다양한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¹⁾
-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정치·경제계 ‘남성’들의 교류활동만이 주로 주목을 받아왔다. 오히려 남북교류가 활발해 진 이후로는 남성들에게 교류의 주도권이 넘어가면서 북한의 ‘미녀’ 여성 응원단의 단체 남한 방문이나 남북 미녀스타의 합작 휴대폰 광고가 주목받는 등, 남북교류에서 여성들의 역할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왜곡되는 경향이 있어왔다.
- 이 연구는 특정 시기의 특정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를 지양하고, 남북여성교류의 전체 흐름을 담아내면서,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정리하고 기록하여 남북교류에 있어서 여성들의 행위성을 가시화하고자 하였다. 산재된 문서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한편, 남북교류의 특성상 문서로 남길 수 없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인터뷰를 통하여 발굴하고 정리하였다.

1) 흔히 분단이후 남한 주민이 판문점을 통해 방북한 최초의 사례로 고 정주영 회장의 ‘소떼방북(1998~2003)’이 알려져 있지만, 실은 그 전에 여성들이 판문점을 통과하여 방북하였다.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를 1991년 1차(동경), 2차(서울)에 이어 1992년 3차 회의가 평양에서 개최하게 되면서, 여기에 참가할 21명의 여성들이 판문점을 통해 평양에 갔다.

2) 연구의 초점

- 1991년 5월 이후 2007년 8월까지 이루어진 여성운동 성격을 가진 남북여성교류가 역사적으로 전개되어 오는 과정에서 관찰되는 남북여성교류의 시간적 지속성과 남북여성교류에 참여한 남북의 여성단체와 여성들, 남북여성교류의 목표와 과제는 무엇이었는지 고찰한다.
- 특히 ‘동아시아’의 역사적, 의식적 지형의 변화 속에서 남북여성교류의 역사적 전개를 고찰한다. 여기서 ‘동아시아’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사회 역사적 경험이 새겨지고 의식적으로 구성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러한 역사의식적 공간의 형성은 글로벌 차원과 매개되어 일국적 차원으로 환원될 수 없는 특수한 맥락을 생산한다.
- 남북여성교류의 전개를 살펴봄에 있어서 남북여성 통합화라는 관점 역시 매우 중요하다. 분단 이후 남과 북은 서로 다른 체제와 제도, 이념이나 가치, 의식이나 무의식을 갖고 각기 발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1년부터 2007년까지 남북여성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은 1차적 통합화의 진전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제1차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토론회에서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반도 통일문제, 동아시아의 비핵화와 군축문제에 합의하였고, 그 이후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여성교류가 지속되어 왔다는 것은 2차적 통합화의 성립으로 볼 수 있다.
-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통합화 과정에서 동아시아의 평화운동의 과제로 설정된 세 가지 과제, 즉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반도 통일문제, 군축 문제에 대한 남북 여성들의 인지적 실천에서 보이는 합의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왜 여성들이 이러한 문제를 여성의 문제로 삼고 운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지적 차이점과 공통점을 살펴보았다. 즉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반도 통일문제, 군축문제, 성차별 문제를 중심으로 남북간의 인지적 교류에서 보이는 차이점과 공통점을 분석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동아시아의 역사적 의식적 지형의 변화를 매개로 한 남북통합화라는 합류적 흐름에서 절대적이고 불변적인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며 구성적인 것으로 본다.

2. 연구의 시각과 이론적 배경

1) 동아시아 페미니스트 시각(East-Asian Feminist Perspective)

- 동아시아 페미니스트 시각이란 동아시아 공간에서 일어나는 여성의 사회역사적 경험을 동아시아 공간과 맥락에 주목하여 분석하는 관점이다. 한국을 포함하여 동아시아 각국 여성의 역사적 경험을 일국적 차원이나 글로벌 차원으로 환원해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차원을 매개해서 구성되는 역사적 현실로 보는 인식이다.

2) 인지적 실천론으로서의 사회운동론

- 사회운동을 인지적 실천론(cognitive praxis)으로 보는 사회운동론을 활용한다. 인지적 실천론으로서의 사회운동론은 1960년대 이후 서구에서 새롭게 구성된 사회운동론으로서 사회운동을 인지적 실천, 즉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새로운 지식, 사상과 관념을 확산시키는 활동”으로서의 인지적 실천을 수행하는 집합적 과정으로 보는 관점이다.
- 인지적 실천론으로서의 사회운동론은 어떤 사회에서 사회운동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긴장과 모순이 그 사회의 인지적 공간(cognitive space)에서 지식관심으로 형성되어야 하고, 인지적 실천론으로서의 사회운동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사회운동의 지식, 관심과 인지적 정체성을 구체화(articulate)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지식인, 소위 운동지식인(movement intellectual)이 중요하다고 보는 관점이다. 운동지식인은 “특정 사회운동의 지식 관심과 인지적 정체성을 구체화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지식인”으로서 인지적 실천론으로서의 사회운동론은 운동지식인과 이들의 인지적 실천을 통해 어떤 새로운 지식, 사상과 관념이 확산되었는가를 주목한다.

3. 자료

- 남북여성교류의 인지적 실천에서 생산된 여러 가지 형태의 문서자료를 활용하였다(발표문, 성명서, 연설문, 공동합의문, 토론문 등). 1991년 이후 2007년 8월까지

진행된 남북여성교류에서 생산된 문서자료는 <표 1>과 같다.

- 문서자료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인터뷰 자료를 활용하였다. 인터뷰는 남북여성교류에 참여한 한국 여성들 5명을 인터뷰하였다(이효재, 김윤옥, 정현백, 윤정옥, 김정수). 그리고 일본인 여성으로 清水登子 1명 및 일본부인회(현 I여성회의) 사무국장 小泉喜子 1명을 인터뷰 하였다.

<표 1> 남북여성교류의 남북 여성의 발표자와 발표문

남북여성교류의 모임명, 일시, 장소	남측의 발표자와 발표문	북측의 발표자와 발표문	기타 문서자료
제1차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심포지움 (1991.5.31-6.2.) 東京 神戸	이효재, “분단극복을 위한 여성의 역할” 윤정옥, “중군위안부의 사 실을 인정하라” 이우정, “문화와 여성” 주제로 다음 모임은 서울에서”	려연구, “새로운 평화로운 아시아 건설을” 리연화, “분단속에서의 나 의 청춘” 정명순, “조국통일운동에 여성의 참가를”	제1차 토론회 성명서(공동) 성명서(남측안) 성명서(북측안)
제2차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문화와 여성』 토론회 (1991.11.25-30) 서울	발제: 조형, “가부장제 문화와 여성” 토론: 이경숙, “통일과 여성” 토론: 김윤옥, “평화와 여성”	발제: 정명순, “통일과 여성” 토론: 김선옥, “가부장제문화와 여성” 토론: 홍선옥, “평화와 여성”	북측의 출발 기자회견시 발표된 성명서(11.29) 남측과 일본의 공동합의문
제3차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세미나 (1992.9.1-6일) 평양	이우정, “평화창조와 여성의 역할” 보충토론, 이효재	강춘금, “민족대단결과 여성의 역할” 보충토론, 조승조 보충토론, 최훈춘	폐회사(려연구) 고별성명 (이미경 낭독)
제4차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심포지움(1993. 4. 24-29) 東京. 大阪	이효재,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시효는 없다” 신혜수, “일본정부의 태도는 웃음거리라네” 김윤옥, “동북아시아의 비핵지대화 실현을”	최금춘, “인도주의 기금으 로는 해결할 수 없다” 배민옥, “일본의 안보리상 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한다” 홍선옥, “아시아 긴장의 책임은 아메리카에”	일본 정부에 대한 요망 성명서
제2차 『아시아연대회의』 (1993.10.22-25) 埼玉	이미경 “강제중군위안부문제 대책활동과 전망”	박명옥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중군위안부 대책활동과 전망”	결의문
『일본의 전후처리문제에 관한 평양국제토론회』 (1993, 11. 7-8) 평양	윤정옥 발표 토론: 이효재	김은주, “일본군 성노예범 죄는 국제법상 인도에 반한 죄의 전형”	

남북여성교류의 모임명, 일시, 장소	남측의 발표자와 발표문	북측의 발표자와 발표문	기타 문서자료
제3차 『아시아연대회의』 (1995.2.27-3.1) 서울	김경희, “민간위로금을 왜 반대하는가?” 지은희,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홍선옥, “왜 민간기금을 반대하는가?” 최금춘,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결의문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여성의 인권에 관한 남북일본여성의 3자회담』 (1998.10.9-11) 北京	윤정옥, “일본군위안부문 제와 여성의 존엄” 김윤옥, “중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태도와 우리의 입장” 지은희,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향후 과제”	리청일, “중군위안부문제와 여성의 인권” 박명옥, “중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은 여성의 책임” 박영희, “중군위안부 범죄 에 대한 사과 및 보상과 관련한 일본정부의 그릇된 입장” 조연희, “중군위안부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방도- 기조발제에 대한 토론”	일본정부에게 보내는 항의문 유엔인권위원회에 게 보내는 편지
『국제전범여성법정』 (2000. 12) 東京	윤정옥(위원장) 김윤옥, 정진성, 지은희, 신혜수, 강정숙, 양현아, 여순주 등	홍선옥(대표) 등	남북공동기소문
『8.15민족통일대축전, 여성상봉모임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여성 통일토론회-6.15공동 선언과 여성의 역할(2001.8.16) 평양	이현숙,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여성의 역할” 윤금순, “민족자주와여성” 남인순, “민족대단결과 여성”	최창숙, “여성이 북남 선언의 가치를 높이 들자” 강춘금, “민족자주와여성” 김인옥, “민족대단결과 여성”	공동결의문 (남북)남측윤경섭 북측최춘금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아시아지역 토론회』 (2002.5.3-4일), 평양	지은희(일본군위안부 증 언청취: 사회) 정진성, “UN과 ILO에서의 군위안부문제를 위한 운동”	홍선옥 기조발제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남과 북, 해외단체들의 공동 성명 일본총리에게 보내는 항의 편지
『남북여성통일대회』 행사중 『6.15공동선언 실천과 평화를 위한 여성토론회』(2002. 10.16-17),금강산	정현백, “평화를 위한 여성의 역할” 윤금순,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여성의 역할”	배민옥, “평화와 여성의 역할” 강춘금,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여성의 역할”	공동결의문
제6차 『아시아연대회의』 (2003.4.23-24), 서울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활동보고” 고혜정, “중국잔류조선인 피해자 조사보고와 향후대책” 신혜수, “일본군 ‘위안부’문	조선일본군위안부 및 강제연행피해자보상대책 위원회, 주체92(2003)년 4월 21일, “제6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 앞”	행동강령(발표문)

남북여성교류의 모임명, 일시, 장소	남측의 발표자와 발표문	북측의 발표자와 발표문	기타 문서자료
	제해결을 위한 앞으로의 운동방향”		
제1차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회의』 (2003.9.18-20) 상해	양미강	조선일본군위안부 및 강제연행피해자보상대책 위원회, “일본의 역사외국 책동으로 인하여 초래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일본의 아시아침략전쟁 책임문제국제토론회 분과회의에서 할 발언원고”	
제2차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국제연대협 의회』(2004.5), 서울	이선이, “2000년 법정 이후의 일본군‘위안부’문제 를 생각한다.”	홍선옥, “일본군위안부 제도와 조선반도”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회의 성명서
제7차 『아시아연대회의』 (2005.2.12-13), 동경	강혜정, “끝나지 않은 일 본의 국가책임” 장대협, “한국진상규명활동과 올바른 과거사 청산운동”	조선일본군 ‘위안부’ · 강제연행피해자보상대 책위원회, “일본군성노예 문제는 국제세론으로”	결의문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8.15민족대축전』여성 상봉모임 『8.15남북해외여성연 대모임』(2005.8.16), 서울	정현백, “환영사” 한국연, “연설문”	김경옥, “연설문” 장금숙, “연설문”	
『6.15공동선언실천과 반전평화를 위한 2005 남북여성통일행사』, 중남북여성통일연단 (2005.9.10-14) 평양과 묘향산 일대	정현백, “기조연설문” 김숙임, “6.15공동선언실 천과 반전평화를 위한 남북여성통일연단 보충연설문”	박순희, “기본연설문” 장금숙, “6.15공동선언 실천과 여성의 역할”	남북여성통일 공동결의문
제3차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의 회의』(2005.9.19 -24일), 평양	김문숙, “일본군위안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대한 의견서” 안이정선, “여전히 남아 있는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	홍선옥, “기조보고”	공동합의서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남북(북남)여성대표 자 회의』(2006.3.10), 금강산	정현백, “기조연설” 김숙임, “토론연설문”	박순희, “대표연설” 김인옥, “토론문”	남북(북남) 여성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남측)남측 조순태 북측 리동희

남북여성교류의 모임명, 일시, 장소	남측의 발표자와 발표문	북측의 발표자와 발표문	기타 문서자료
『6.15민족통일대축전, 여성상봉모임 『남북(북남)여성연대 모임』(2006.6.15), 광주	정현백, “대표연설1” 김숙임, “대표연설 2”	리동희, “대표연설1” 김경애, “대표연설 2”	해내외 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공동) (남독)남측 윤금순 북측 곽철숙
제4차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 협의회』 (2006.8.25-29) 마닐라	김문숙, “일본군위안부문 제 어디까지왔는가?” 박정희,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달려온 2006년 그리고 앞으로...” 양미강, “2006년 일본군 성노예여성들을 위한 활동”	위안부 할머니 3명 참여 (계성훈, 김춘실, 정은아)	
제8차 『아시아연대회의』 (2007.5.19-21),서울	윤미향,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 15년, 앞으로의 과제와 연대를 위하여-아시아연대의 확대를 제언하며”	조선 일본군‘위안부’ 및 강제연행피해자보상대책 위원회, “제8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 보고”	제8차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시아연 대회의 남북공동 성명서

4. 연구내용 및 발견

1) 남북여성교류의 역사적 전개와 그 특성

(1) 남북여성교류의 모임명과 참가국, 시간, 장소

- 남북여성교류의 모임과 참가국, 시간과 장소는 다음과 같다.

<표 2> 남북여성교류의 모임과 참가국, 시간과 장소

남북여성교류의 모임명	참가국	일시	장소
제1차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심포지움	남, 북, 일본	1991. 5.31-6.2.	동경 신히
제2차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문화와 여성」 토론회	남, 북, 일본	1991. 11.25-30.	서울
제3차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세미나	남, 북, 일본	1992. 9.1-6.	평양
제4차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심포지움	남, 북, 일본	1993. 4.24-29.	동경, 대판
제2차 「아시아연대회의」	남, 북, 일본 등	1993. 10.22-25.	埼玉
「일본의 전후처리문제에 관한 평양국제토론회」	남, 북, 일본 등	1993. 11. 7-8.	평양
제3차 「아시아연대회의」	남, 북, 일본 등	1995. 2.27-3.1.	서울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여성의 인권에 관한 남북일본여성의3자회담」	남, 북, 일본	1998. 10.9 -11.	북경
「국제전범여성법정」	남, 북, 일본 등	2000. 12..	동경
「8.15민족통일대축전」여성상봉모임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여성통일토론회 -6.15공동선언과 여성의 역할」	남, 북	2001. 8.16.	평양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아시아지역 토론회」	남, 북, 일본 등	2002. 5.3-4.	평양
「남북여성통일대회」행사 중 「6.15공동선언 관철과 평화를 위한 여성토론회」	남, 북	2002. 10.16-17.	금강산
제6차 「아시아연대회의」	남, 북, 일본 등	2003. 4.23-24.	서울
「8.15민족통일대축전」여성상봉모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과북의 각 여성 단체의 역할」	남, 북, 일본 등	2003. 8.	평양
제1차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회의」	남, 북, 일본 등	2003. 9. 18-20.	상해
제2차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회의」	남, 북, 일본 등	2004. 5.	서울
제7차 「아시아연대회의」	남, 북, 일본 등	2005. 2. 12-13.	동경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8.15민족대축전」여성상봉모임 「8.15남북해외여성연대모임」	남, 북, 해외	2005. 8.16.	서울
「6.15공동선언실천과 반전평화를 위한 2005남북여성통일행사」남북여성통일연단	남, 북	2005. 9.10-14.	평양 묘향산
제3차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회의」	남, 북, 일본 등	2005. 9.19-24.	평양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남북(북남)여성대표자 회의」	남, 북	2006. 3.10.	금강산
「6.15민족통일대축전」여성상봉모임 「남북(북남)여성연대모임」	남, 북	2006. 6.15.	광주
제4차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회의」	남, 북, 일본 등	2006. 8. 25-29.	마닐라
제8차 「아시아연대회의」	남, 북, 일본 등	2007. 5.19-21.	서울

- 남북여성교류는 남과 북, 일본 각국 여성들의 능동적 의지와 참여로 이루어졌다.
-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남북여성교류는 동아시아 여성운동의 틀 속에서, 그리고 남북만의 독자적 교류의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동아시아 여성운동 틀 속에서의 교류는 초기부터 현재까지 간헐적이지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남북만의 독자적 교류는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두드러진다.
- 남북여성교류의 지속성: 남북관계, 북미관계, 북일관계가 경색되는 북핵문제와 미사일 발사 등 정치문제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시간적 지체는 있지만 지속되었다.²⁾
- 남북교류 참여 여성단체의 특성
 - : 가장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동아시아 여성운동 틀 속에서의 교류는 남측의 정대협과 북측의 「총태위(중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보상대책위원회)」(1993년 8월 결성됨, 나중에 「조대위((조선 ‘일본군’위안부 및 강제연행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로 명칭개정)가 중심이 된다.
 - :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로 남측 여성단체들의 참여범위가 넓어졌다.

(2) 남북여성교류에 참여한 남과 북의 여성단체와 여성들

- 남북여성교류에 참여한 남북의 여성단체와 여성들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남북여성교류에 참여한 남북의 여성단체와 여성들

남북여성교류의 모임명, 일시, 장소	남의 여성단체와 여성	북의 여성단체와 여성
제1차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심포지움 (1991.5.31-6.2.)동경 신호	이효재(한국여성단체연합회장) 윤정옥(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이우정(한국기독교협의회부회장, 신민당수석최고위원)	려연구(최고인민회의상설위원회 부회장,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중앙위원회의장) 리연화(조선대외문화연락협의회지 도원) 정명순(조선여성사논설위원, 통일문제연구소연구원, 조국평화통일위원회서기국참사)
제2차 「아시아의 평화 와 여성의역할-문화와	조형(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이경숙(숙명여대 정치학과 교수)	정명순(조선여성사논설위원, 통일문제연구소연구원,조국평화통일위

2) 최초의 만남인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는 북핵문제가 터지면서 중단되었지만, 1993년부터 시작된 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시아연대회의」는 남북간의 정치적 논쟁에 영향받지 않으며 간헐적으로나마 남북여성들의 만남을 이어왔다고 평가된다 (김엘리, 2006: 246).

남북여성교류의 모임명, 일시, 장소	남의 여성단체와 여성	북의 여성단체와 여성
여성』 토론회 (1991.11.25~30) 서울	김윤옥(기독교여성평화연구원장)	원희서(기국참사) 김선옥(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해외동포 영접부 부부장,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위원) 홍선옥(군축 및 평화연구소 실장)
제3차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 의 역할』세미나 (1992.9.1-6일) 평양	이우정(민주당국회의원, 전한국기독교협의회회장) 보충토론(전여성단체연합회장, 조국 통일위원장)	강춘금(사회과학원부원장) 보충토론, 조순조(사회과학원실장) 보충토론, 최훈춘(김일성대학교수)
제4차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 의 역할』 심포지움 (1993. 4. 24-29) 동경. 大阪	이효재(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신혜수(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 회국제위원장) 김윤옥(기독교여성평화연구원원장)	최금춘(김일성종합대학강좌장) 배민옥(문학예술종합출판사부사장) 홍선옥(군축 및 평화연구소실장)
제2차 『아시아연대회의』 (1993.10.22-25) 埼玉	이효재(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윤정옥(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 이미경(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총무)	려연구(최고인민회의상설위원회 부회장,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중앙위원회의장)
『일본의 전후처리문제에 관한 평양국제토론회』 (1993, 11. 7-8) 평양	이효재(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 회 공동대표) 윤정옥(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 회 대표)	김은주(북한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연구사 준박사)
제3차 『아시아연대회의』 (1995년 2,27-3.1) 서울	김경희(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 회 총무) 지은희(정대협 기획위원장)	홍선옥(중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보상대책위원회) 최금춘(중군 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보상대책위원회)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여성의 인권에 관한 남북일본여성의 3자회담』 (1998. 10. 9 -11) 북경	윤정옥윤정옥(정대협대표) 김윤옥(정대협공동대표) 지은희(정대협기획위원장)	리청일(아세아여성들과 연대하는 조선여성협회회장) 박명옥(중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 피 해자보상대책위원회) 박영희(아세아여성들과 연대하는 조선 여성협회위원) 조연희(아세아여성들과 연대하는 조선 여성협회위원)
『국제전범여성법정』 (2000. 12) 동경	윤정옥(위원장) 김윤옥, 정진성, 지은희, 신혜수, 강정숙, 양현아, 여순주 등	홍선옥(대표) 등
『8.15민족통일대축전』	이현숙(민화협위원장, 평화를 만	최창숙(조선민주여성동맹부위원장),

남북여성교류의 모임명, 일시, 장소	남의 여성단체와 여성	북의 여성단체와 여성
의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여성통일토론회- 6.15공동선언과 여성의 역할-」(2001. 8.16) 평양	드는 여성회상임대표) 윤금순(통일연대위원장, 전국여성 농 민회총연합부회장) 남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사무총장) 윤경섭(녹색어머니회중앙회 회장)	강춘금(국가학위학직수여위원회 서기장) 김인옥(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중앙위 원회 서기국부국장) 최춘금(김일성종합대학교수)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아시아지역 토론회」 (2002. 5.3-4일) 평양	정진성(정대협공동대표) 지은희(정대협상임대표) 윤미향(정대협사무처장) 윤정옥(정대협명예대표)	홍선옥(중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 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남북여성통일대회」 행사중 「6.15공동선언 관철과 평화를 위한 여성토론회」 (2002.10. 16-17일) 금강산	정현백((2002남북여성통일대회 추진본부 공동본부장,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윤금순(2002남북여성통일대회 추진본부 공동본부장,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여성위원회 위원장)	강춘금(김일성종합대학 교수) 배민옥(2.16 예술교육출판사 사장)
제6차 「아시아연대회의」(200 3.4.23-24) 서울	윤미향(정대협사무총장) 고혜정(정신대연구소연구원) 신혜수(정대협상임대표)	조선일본군위안부 및 강제연행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 주체92 (2003)년 4월 21일, “제6차 일본군위안부문제 아시아연대회의요
제1차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회의」 (2003.9. 18-20) 상해	윤정옥(정대협 지도위원) 양미강(국제연대회의회한국위원 회 운영위원장) 김문숙(정신대문제대책부산협의 회회장)	홍선옥(조선 ‘일본군’위안부 강제연행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조선 ‘일본군위안부’ 및 강제연행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
제2차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회의」 (2004. 5) 서울	이선이(정신대연구소연구원)	홍선옥(조선 ‘일본군’위안부 강제연행 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제7차 「아시아연대회의」 (2005. 2. 12-13) 동경	강혜정(정대협국제협력위원장) 정대협	조선일본군‘위안부’ 강제연행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메세지)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8.15민족대축전」여성 상봉모임	한국염(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남측 준비위원회 여성본부 공동대표)	김경옥(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 북측준비위원회 여성분과위원회 부위원장)

남북여성교류의 모임명, 일시, 장소	남의 여성단체와 여성	북의 여성단체와 여성
『8.15남북해외여성연 대모임』(2005. 8.16) 서울	정현백(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 남측 준비위원회 상임대표)	장금숙(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 북해외 공동행사 북측준비위원회위원)
『6.15공동선언실천과 반전평화를 위한 2005남북여성통일행사』 중남북여성통일연단 (2005. 9.10-14) 평양과 묘향산 일대	정현백(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 남측 여성 본부 상임대표) 김숙임(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 남측준비위원 회, 여성본부 공동대표)	박순희(북측준비위원회여성분과위원장) 장금숙(북측준비위원회 여성분과위원)
제3차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의협의회』 (2005. 9. 19 -24일) 평양	김문숙(정신대문제대책부산협의 회회장) 안이정선(정신대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운영위원) 이성순(정신대연구소소장)	홍선옥(조선 ‘일본군’위안부 강제연행 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 위원장)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남북(북남)여성대표 자 회의』 (2006. 3.10) 금강산	정현백(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여성본부 상임대표) 김숙임(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여성본부 공동대표) 조순태(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여성본부 공동대표)	박순희(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여성분과 위원회 위원장) 김인옥(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여성분과 위원회 위원) 리동희(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여성분과 위원회 위원)
『6.15민족통일대축 전』여성상봉모임 『남북(북남)여성연대 모임』(2006.6.15) 광주	정현백(6.15공동선언실 천 남측위 원회, 여성본부 상임대표) 김숙임((6.15공동선언 실천 남측 위원회, 여성본부 공동대표) 윤금순(6.15남측위 여성본부 공동 대표)	리동희(6.15북측위 여성분과 위원회 위원) 김경애(6.15북측위 여성분과 위원회 위원) 곽철숙(6.15북측위 여성분과 위원회 위원)
제4차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국제연대 협의회』 (2006. 8. 25-29) 필리핀 마닐라	김문숙(정신대문제대책부산협의 회회장) 박정희(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대구시민모임 사무국장) 양미강(국제연대협의회한국위원 회 운영위원장)	홍선옥(조대위 위원장) 위안부 할머니 3명 참여 (계성훈, 김춘실, 정은아)
제8차 『아시아연대회의』(200 7.5.19-21) 서울	윤미향(정대협 상임대표)	홍선옥 등 5명

- 남북여성교류에 참여한 남측 여성단체와 여성
 - : 「정대협」의 활동이 가장 두드러지며, 2000년 이후 남북만의 독자적 여성교류에는 다양한 여성단체들이 포함됨.
 - : 2001년부터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 내 여성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여성위원회는 민화협여성위원회, 종단여성위원회, 통일연대여성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음.
 - : 2005년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준비위원회」가 조직되고 남측 위원회 여성 본부가 만들어졌음. 여성본부는 48개 여성단체를 포함(공동대표단은 정현백, 김숙임, 한국염, 윤금순 등).
- 남북여성교류에 참여한 북측 여성단체와 여성들
 - : 기본적으로 북의 정치권력을 대변함. 종태위(중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보상대책위원회), (1993년 8월 결성) 및 「아세아여성들과 연대하는 조선여성협회」, (1998년 1월 19일 결성)이 동아시아 여성운동 맥락의 남북교류에 주로 참여함.
 - : 2003년 조대위(조선 ‘일본군’위안부 및 강제연행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 조직.
 - : 2005년 4월 9일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여성분과 위원회」가 조직됨.

(3) 남북여성교류의 목표와 과제

- 남북여성교류 활동에서 제시된 만남의 목표와 과제는 다음 <표4>와 같다.

<표 4> 남북여성교류 활동의 목표와 과제

남북여성교류의 모임 명	과제	일시 및 장소
제1차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심포지움	군축, 통일, 위안부	1991.5.31-6.2. 동경, 신호
제2차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문화와 여성」 토론회	군축, 통일, 위안부	1991.11.25-30. 서울
제3차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세미나	군축, 통일, 위안부	1992.9.1~6. 평양
제4차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심포지움	군축, 통일, 위안부	1993. 4. 24-29. 동경, 大阪
제2차 「아시아연대회의」	위안부	1993.10.22-25. 埼玉

남북여성교류의 모임 명	과제	일시 및 장소
「일본의 전후처리문제에 관한 평양국제토론회」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전후처리	1993, 11. 7-8. 평양
제3차 「아시아연대회의」	위안부	1995년 2.27-3.1. 서울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여성의 인권에 관한 남북일본여성의3자회담」	위안부	1998. 10. 9 -11. 북경
「국제전범여성법정」	위안부	2000. 12. 동경
「6.15 1돌 기념 민족통일대토론회」여성상봉모임 「향후 남북여성교류를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가」	남북여성교류	'2001. 6. 금강산
「8.15민족통일대축전」여성상봉모임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여성통일토론회 -6.15공동선언과 여성의 역할」	통일	2001. 8.16. 평양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아시아 지역 토론회」	위안부 및 일제과거청산	2002. 5.3-4. 평양
「남북여성통일대회」행사 중 「6.15공동선언 관철과 평화를 위한 여성토론회」	평화	2002.10. 16-17. 금강산
제6차 「아시아연대회의」	위안부	2003.4.23-24. 서울
「8.15민족통일대축전」여성상봉모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과 북의 각여성단체의 역할」	통일	2003 8. 평양
제1차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회의」	위안부 및 일제과거청산	2003. 9. 18-20. 상해
제2차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회의」	위안부 및 일제과거청산	2004. 5. 서울
제7차 「아시아연대회의」	위안부	2005. 2. 12-13. 동경
「6.15선언발표 5주년 기념 민족통일대축전」 여성부문 상봉모임 「남북해외여성대표 간담회」	통일	2005. 6. 14-17. 평양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8.15민족대축전」여성상봉모임 「8.15남북해외여성연대모임」	통일	2005.8.16. 서울
「6.15공동선언실천과 반전평화를 위한 2005남북여성통일행사」중 남북여성통일연단	통일	2005.9.10-14. 평양과 묘향산 일대
제3차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의회의」	위안부 및	2005. 9. 19 -24.

남북여성교류의 모임 명	과제	일시 및 장소
	일제과거청산	평양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남북(북남)여성대표자 회의」	반전, 군축	2006.3.10. 금강산
「6.15민족통일대축전」여성상봉모임 「남북(북남)여성연 대 모임」	통일	2006.6.15. 광주
제4차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회의」	위안부 및 일제 과거청산	2006. 8. 25-29. 마닐라
제8차 「아시아연대회의」	위안부	2007.5.19-21 서울

- 전반적으로 볼 때 남북여성교류의 목표는 ‘아시아의 평화’와 ‘통일’로 압축된다.
- 평화운동과의 연관성: 여성운동 성격을 띤 남북여성교류는 전반적으로 평화운동의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었다. 예컨대 1991년 제1차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토론회에서 한반도통일, 군축,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아시아의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평화운동의 과제로 제기된 것이었다.

2) 남북여성교류의 인지적 통합화

(1) 일본군 ‘위안부’ 문제

- 남북여성교류를 통한 인지적 통합화는 몇몇 쟁점 사항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
-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지적 통합화

<표 5>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남북 인지적 교류의 내용(핵심)

쟁점사항	남측	북측
일본군‘위안부’ 용어	-1994년 일본군 ‘위안부’ 용어 사용	-1998년 북측이 초안한 ‘일본정부에 보내는 항의문’의 종군을 위안부로, 보상을 배상으로 용어 수정 -2002년까지 종군위안부 용어 사용 -2003년 일본군 ‘위안부’ 용어 공식사용
일본군‘위안부’ 성격	-1993년 성의노예, 민족주살범죄로 정의	-1992년 여성인권유린, 민족모독행위로 규정 -1993년 성노예, 조선민족말살문제, 국제법상 인도에 대한 죄로 정의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방안	-1990년 정대협이 일본에 대한 7대요구사항의 내용 ① 진상의 전모공개 ② 범죄제도 인정 ③ 위안부 범죄에 대한 사죄 ④ 법적배상 ⑤ 위령비 건립 ⑥ 교과서에 명기, ⑦ 책임자 처벌	-1993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일제의 조선강점피해조사위원회」의 일본에 대한 요구사항 ① 범죄사건의 진상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공개 ②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③ 공식적인 사죄표명 ④ 성의 있는 보상조치 ⑤ 유엔을 통한 국제적 해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방안	-1992년 8월 정대협의 남북공조 요청 -1995년 민간위로금 반대 -2004년 한일기본 조약의 개정 요구 -2007년 ‘전시하성폭력’ 문제로 국제연대 활동 할 것	-1992년 한일협정 및 한국정부에 비판 -1992년 9월 북남과 일본의 진보적 인민들과 공동투쟁 선언 -1995년 민간위로금 반대 -1998년 일본국회에서의 사죄와 보상결의를 위한 3국의 연대투쟁을 위한 비상설협회기구로서 공동연락위원회 제안 -2000년 전후 아시아권을 벗어나 국제연대활동 제안

- 일본군 ‘위안부’ 용어가 통합되어 감.
- 일본군 ‘위안부’의 성격규정에 남북의 인지적 차이가 없음.
-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방향에 대해서 남북 차이는 없음.
-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응에서 남북에 큰 차이는 없음. 강조하는 대응의 시간적 차이는 있다.

(2) 한반도 통일문제

<표 6>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남북의 인지적 교류의 내용(핵심)

쟁점사항	남측	북측
통일방안	-1991년 ‘한민족 공동체’ 방안민족 -2000년 연합제안	-1991년 연방국가론 제안 -남이 주장하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하나의 제도에 의한 통일로서 북침의 가능성으로 비판함 -2000년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
민족 대단결	-1991년 민족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기 위하여 적극적 개방, 교류, 협력을 통해 남북간에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공통점을 찾아야 할 것 -1992년 민족대단결은 계급, 계층, 성, 인종간의 갈등이 해소를 통한 민족대단결주장, 국가권력의 행사는 민족구성원의 의사에 합당하게 집행되는 공평한 분배와 민주화, 대외적인 자주성이 실현되는 통일 주장 -2001년 민족대단결은 ①분단의 세월동안 달라진 사상과 제도에 대한 상호이해 ② 군사적인 대결 종식 ③사회문화교류 및 협력 활성화 ④민주주의 확대를 제시	- 민족대단결과 남북해외여성단체들의 협의기구로서 가칭 ‘민족통일여성단체협의회’와 같은 공동의 조직을 세울 것 - 민족대단결을 위해, 미군을 남조선에서 몰아내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이면서 민족문제에 끼어들려는 외세와 그에 공존하는 세력을 철저히 반대, 북남관계를 악화시키고 대결과 전쟁이 구름을 몰아오고 있는 미행정부의 반통일정책을 폭로분쇄하고 그에 추종하는 동족을 (주적)으로 하여서 반통일 역풍을 몰아오는 반통일세력들의 책동을 저지 파탄시켜야 할 것, 일본의 력사왜곡책동과 재침을 짓부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할 것
민족자주	-2001년 미국 부시행정부의 강경한 대 한반도 정책이 남북관계에 큰 걸림돌로 작용 -2001년 외세의 위협 앞에 어쩔 수 없는 군사화와 주한미군의 주둔으로 인해 판치는 폭력적인 군사주의 문화는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인 가정에서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으로 여성들을 억압함	-2001년 우리 공화국에 대한 끈질긴 고립압살책동과 경제봉쇄, 남조선에서 우리 녀성들에 대한 미군의 야만적인 모욕과 살인행위, 민간인 학살행위와 독극물류출사건, 국제통화기금에 의한 예측화 정책 등 모든 재난과 불행의 화근은 다 이 땅에서 주인행세를 하는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임 -2001년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6.15공동선언의 발표로 더욱 고조되고 있는 우리 민족의 통일열기에 계속 찬물을 끼얹고 있음 -2001년 일본 반동들은 이에 편승하여 북조선적대시정책과 침략력사의 책동을 집요하게 벌리면서 호시탐탐 재침의 기회만을 노리고 있음

- 통일방안에서 2000년대에 이르러 상당부분 인지적 통합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관찰됨.
- 한반도통일을 위한 실천적 방안으로써 ‘민족자주’를 둘러싼 쟁점에서 2000년대 이후 남북 여성이 특히 미국에 대한 입장에서 상당히 거리를 좁혀가고 있다고 보인다. 즉, 북은 민족문제에 끼어들려는 외세와 미군철수를 주장한다면, 남측 역시 부시행정부를 비판하는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함.
- 남북의 인지적 차이점은 ‘민족대단결’ 쟁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남은 1990년대 이후 줄곧 갈등의 실질적 해소를 통한 민족대단결과 민족공동체 의식의 회복을 강조하였으나, 북은 ‘사상과 이념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것은 반만년의 유구한 세월 형성되고 공고화된 우리 민족의 이익보다 귀중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사상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 공동의 위업인 조국통일에 모든 것을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함.

(3) 군축

<표 7> 군축에 대한 남북의 인지적 교류의 내용(핵심)

쟁점사항	남측	북측
군축의 내용	-1991년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일본군비확장 반대 -1992년 전세계의 비핵화 -1993년 동북아시아 비핵지대화(주한미군의 핵과 일본의 핵, 북의 핵문제 해결)	-1991년조선반도를 비핵지대화 할 것 -1991년, 1992년 핵병기와 미군이 없는 아시아, 남한과 일본에 있는 미국의 핵무기와 핵기지 철폐
군축을 위한 실천적 방안	-1991년 남북동시핵사찰, 환태평양지역에서의 합동군사훈련 중지, 상호신뢰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 평화적 교육 -1992년 공동안보, 동북아시아의 반전반 핵, 일상생활에서의 평화를 위한 평화교육 -1993년 방위비삭감과 여성복지확대 등 -2005년 ①군사적 대결을 부추기거나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시도들에 대해 결연히 맞서야 할 것 ② 반전국제연대 ③ 남과 북, 해외 여성들 대화와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 ④ 대내적으로도 평화문화를 만들 것, 권위주의적으로 반평화적인 사고방식과 행동을 없앨 것 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대체할 것	-1991년 남북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 북미 사이에 평화협정 체결, 미군철수, 대규모군사 연습 중지 -1992년 북미평화협정체결, 미군철수, 미국의 핵무기철폐수하면 핵담보협정에 서명하고 핵사찰을 받음, 일본의 핵팽창정책과 핵무장시도 저지 -2005년 내외의 호전세력의 전쟁책동을 반대하여 싸우는 것

- 군축문제에서 1990년대 이후 남은 동북아시아 비핵지대화(남의 주한미군의 핵, 일본의 핵, 북한의 핵문제 해결), 군국주의 정신 수정 및 평화공존 정신 함양을 위한 평화교육, 국제적 반전평화운동 등을 주장함. 북측은 동아시아의 비핵지대화를 똑같이 주장하면서도, 주로 주한미군의 핵과 합동군사훈련, 주한미군철수 등과 같은 주장을 강조하였다.
- 남측은 군축문제를 전쟁의 원인이 되는 군사적 대결, 민족공멸의 위기, 여성복지비 삭감 등과 관련하여 이해하고 있었으며, 군축을 위하여 하였다. 한편 북측의 군축 인식은 과도한 군비를 전쟁의 원인으로 보는 반대 입장이다. 주로 북침의 가능성과 관련된 북의 체제안보 불안과 민족의 공멸과 관련된 이해가 많고, 군축을 위한 실천적 방안으로는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의 비핵화, 미군주둔 철수 등을 주장하였다.
- 군축에 대한 남북의 인지적 교류에서 차이가 나는 점은 남측은 군축을 전쟁의 원인으로서는 뿐 아니라, 여성복지와의 반비례적 관계로 인식하고 군축을 위한 실천적 과제로 일상생활과 정서의 군사주의적 문화를 수정하는 평화교육을 강조하는 점이다. 군축에 대한 이러한 인식 차이는 평화개념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도 연관되어 있는데(북측은 소극적 평화개념, 남측은 포괄적 평화개념), 이러한 인지적 차이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 큰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다.

(4) 성차별문제

- 남북여성교류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타나는 쟁점이 성차별과 여성문제에 대한 관점에서 나타난다(<표 8> 참조).

<표 8> 여성의 주체화에 대한 남북 여성의 인지적 교류의 내용(핵심)

쟁점사항	남측	북측
여성주체의 정체성	-1991년 여성의 고통(피해자적 정체성) -여성의 역할(아내 및 어머니 정체성) -여성의 특성(사회적도덕성) -1992년 성차별(가부장제)	-1990-2000년대 여성의 피해자적 정체성 -사회역사의 주인 정체성 -아내와 어머니 정체성
성차별 문제	-있음	-없음
여성운동의 실천적 방안	-1992년 미래 통일사회는 인간평등, 남녀 평등의 공간이어야 함 -2001년 성차별을 없애기 위한 여성주의적 관점 중시, 통일논의에 여성의 참여와 대표성 보장 -일상생활의 평화문화 정착화	-2001년 자주화, 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한 폭넓은 정치투쟁으로 여성운동의 발전시켜야 함 -2006년 여성운동은 민족의 요구와 이익에 따라 세우는 것, 여성운동은 철두철미 민족문제해결에 두어야 함

- 아시아의 평화를 위하여 과제로 정의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반도 통일, 군축의 문제에 대하여 남북 모두 이것이 여성의 문제로 전유화해서 운동해야 하는 것을 여성의 역할이라고 하는 점은 같다(미묘한 차이는 있음).
- 남의 여성들은 성차별 문제에 관련하여, 한반도의 분단 상황에서 가부장제 문화와 군사문화가 상호 강화해왔다고 인지하고, 남북 여성들이 상호 협력하여 가부장제 문화를 극복할 수 있을까 모색한다. 가부장제 극복 없이는 통일이나 어떤 정치적 변화도 남녀평등을 보장해주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며, 남과 북 두 정부간의 통일을 위한 회담에 여성의 대표성을 증진하는 것 등에 대해 중요한 관심을 나타낸다.
- 반면 남북교류에 참여한 북의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북의 사회에 여성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남조선은 미군주도로 인해 자본주의체제로 되었고 이로 인해 여성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북조선은 사람 중심의 우월한 사회제도 하에서 모든 여성들이 남성과 같이 나라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어 사회적으로 해방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가부장제적 여성차별은 ‘없다’고 주장하며, 민족문제의 해결을 위한 여성들의 역할에 대한 강조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5. 맺음말을 대신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된 인터뷰 대상자 이외에도 남북 여성교류에 관심을 가진 많은 여성들을 만날 수 있었다. 상당수의 여성들이 “남북여성교류”에 있어서 남북간의 차이 뿐 아니라 남측 여성들 내에서의 차이 문제 역시 중요한 어려움 중의 하나라고 지적하였다. 30대 초반의 한 여성은 남측 페미니스트의 기준으로 볼 때 봉건적 가부장주의의 전형인 북한사회에 살면서 “우리에게 성차별은 없다”, “여성 문제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북측의 여성들과 과연 어떻게 관계맺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개인적 고민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필요한 것은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여성교류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북측의 여성들이 결코 북의 모든 여성을 대표하지 않음을 인식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정치적인 관점에서 그들의 주장을 해석하기 보다는 그만큼 남과 북의 사회가 이질화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선에서 장기적인 통합화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꾸준히 만나면서, 각각의 사회를 좀 더 알고 그 속에서 여성의 경험과 의식이 어떤 식으로 구조되고 구성되는지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넓혀갈 때, 표면적인 표현과 언어의 차이를 넘어서는 여성으로서의 유대와 공통성이 신뢰와 소통의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5발표

남한 기반 산업체 취업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기초직업능력 요구 분석

이용환 (서울대 농산업교육과 교수)

남한 기반 산업체 취업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직업기초능력 요구 분석



2008년 2월 27 일
농산업교육과 교수 이 용 환
이용환 (2008) SNU

1

목차

I. 서론

II. 북한이탈주민의 직업기초능력 요구분석

III. 북한이탈주민의 직업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IV. 결론 및 제언

이용환(2008) SNU

2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내용

4. 연구방법

이용환(2008) SNU

3

1. 연구의 필요성

시대적
요구

21세기는 화해와
협력을 통한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치 통일을
적극적으로 이루려는
만족적, 시대적
요구에 부응

통일
대비

긴장완화와 화해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실천적인
노력과 함께 각
분야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종합적으로
통일을 대비

상호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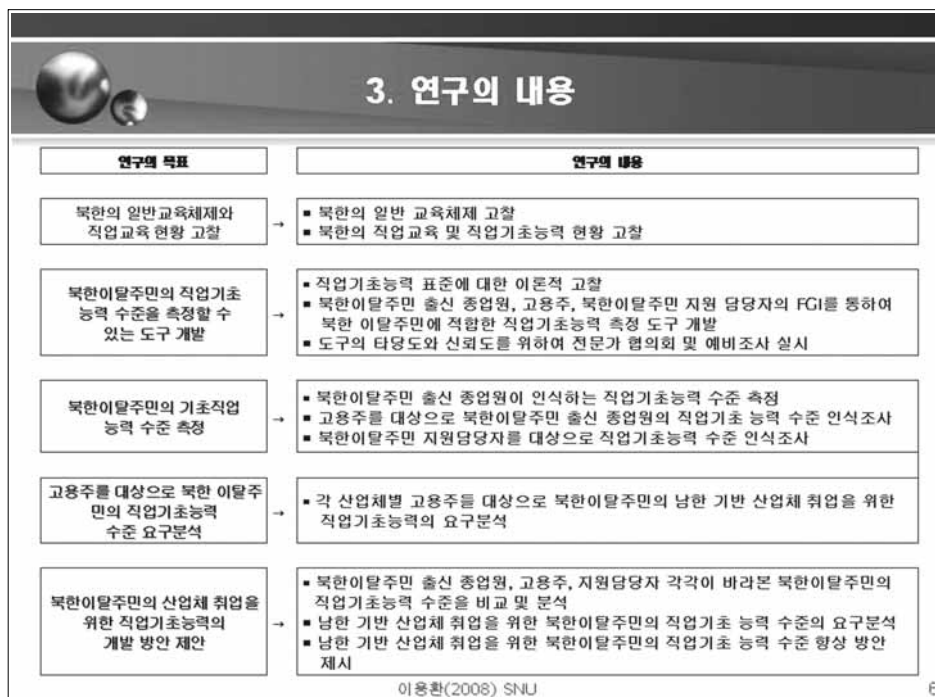
특히, 직업교육
훈련분야는 비정치
적인 영역으로 남북
한 모두 인력개발과
산업발전이라는 공
동의 상호관심 분야
이며, 남북한의 화해
와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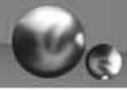
직업
교육
훈련

직업교육 훈련분야의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이 발전의 정도와
특성 에 차이가 있어,
이를 고려한 직업교육
훈련 분야의 교류 및
협력 을 위한 연구와
준비가 필요

이용환(2008) SNU

4





4. 연구방법

※ 이 연구는 문헌연구, FGI(Focus Group Interview), 조사연구 및 전문가협의회 등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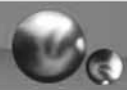
문헌연구

- 북한의 기본학제, 일반적 특성, 특수·영재교육, 과학·기술 교육 등의 일반적인 교육체제와 직업교육 정책, 직업교육의 현황 등
- 각종 학회지 및 학위논문, 한국교육개발원, 통일부,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교육 개발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하나원 등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연구보고서 등 →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기초사회적응훈련, 직업훈련, 북한이탈주민의 고용현황 등을 고찰

FGI

- 1차 FGI: 문헌연구에서 고찰한 북한의 교육체제와 직업교육 현황 등을 확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직업기초능력 진단도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연구진과 하나원 교육담당자, 여성 북한이탈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
- 2차 FGI: 1차 FGI 결과를 통해 수정한 직업기초능력 진단도구를 재검증 받은 후 북한의 직업교육 및 고용현황 등에 대하여 논의
- 3차 FGI: 북한이탈주민 직업기초능력 요구 파악

이종환(2008) SNU 7



4. 연구방법

※ 이 연구는 문헌연구, FGI(Focus Group Interview), 조사연구 및 전문가협의회 등 실시

조사연구

- 북한이탈주민의 직업기초능력의 현재 수준을 파악 및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기반 기업을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요구 구명: 북한이탈주민 교육담당자,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 등의 요구를 2차례에 걸쳐 조사
- 설문도구: 직업기초능력 하위 영역 10개 분야와 그에 대한 설명을 제시 및 고용주와 교육담당자가 인식하는 북한이탈주민의 현재 직업 기초능력 수준과 향후 남한 기반 기업 취업을 위한 북한 이탈 주민의 요구 되는 직업기초능력 수준을 9점으로 척도화(1점 매우 낮음, 9점 매우 높음) 하여 응답
- 자료수집: 2007년 6월 11일~ 8월 13일, 총 250부 배포 중 158부 회수(회수율: 63%)하였으나, 무응답 및 불성실 응답 제외하여 총 133부가 분석에 사용됨

이종환(2008) SNU 8

4. 연구방법

※ 이 연구는 문헌연구, FGI(Focus Group Interview), 조사연구 및 전문가협의회 등 실시

전문가 협의회

- 2차례에 걸쳐 실시
- 1차 전문가 협의회:
 - 워크숍 형식으로 연구진과 취업 북한이탈주민, 하나원 교육담당자, 통일부 담당자, 노동부 사무관, 취업 교육기관,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
 - 북한이탈주민의 직업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사회적응교육의 방향, 취업지원 강화 방안, 향후 본 연구의 추진 방향 등이 논의
- 2차 전문가 협의회:
 - 연구진과 하나원 교육담당자, 취업 북한이탈주민, 국가정보대학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
 - 북한이탈주민의 직업기초능력 수준 진단 결과, 사회적응교육 방향, 취업지원 강화방안 등의 리뷰를 통하여 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 북한이탈주민 교육과정 개선 방향 등에 대하여 논의

이용환(2008) SNUJ 9

4. 연구방법

	북한의 교육제도와 직업교육 현황 파악	북한이탈주민 대상 인터뷰
문 헌 연 구	① 북한의 사회, 경제, 교육제도 전반에 관한 현황 파악 ② 북한의 직업교육과 직업기초능력에 관한 현황 파악	
	북한이탈주민의 직업기초능력의 수준 측정 도구 개발	FGI 전문가협의회
	① 직업능력 및 직업기초능력의 내용을 모듈별로 분석 ② 선행연구자료 분석, FGI, 전문가 협의회를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에게 적합한 기초직업능력 수준 조사도구 개발	
	북한이탈주민의 직업기초능력의 수준 구명	조사연구 및 FGI
	①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직업기초능력 수준 측정 ② 고용주를 대상으로 직업기초능력 수준 인식조사 ③ 북한이탈주민 지원담당자를 대상으로 직업기초능력 수준 인식조사	
	남한기반 기업취업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직업기초능력 수준에 대한 고용주의 요구분석	FGI 전문가협의회
① 산업체 고용주의 북한이탈주민 직업기초능력 요구분석 ②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기업주를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 출신 종업원과 남한출신 종업원의 직업기초능력 수준의 비교분석 ③ 북한이탈주민 종업원의 인식 및 실태구명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균형적 취업을 위한 직업기초능력 요구분석	전문가협의회	
① 북한이탈주민, 고용주, 지원담당자 각각의 직업기초능력 수준을 비교·분석 ② 북한이탈주민에게 필요한 직업기초능력 향상 방안 제시 ③ 북한이탈주민의 직업기초능력 수준 향상 방안 제시		

이용환(2008) SNUJ 10



Ⅱ. 북한 이탈주민 대상 직업기초능력 진단도구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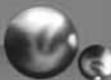
1. 직업기초능력의 개념

2. 직업기초능력 영역 설정

3. 우리나라 직업기초능력 표준모델

4. 우리나라 직업기초능력 표준모델

Chan Lee(2008) SNU
11



1. 직업기초능력의 개념

직업 능력

- 한 근로자가 자신의 직업에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의미
- 일반적으로 직업능력은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수행능력으로 분류(이무근 외, 1997; 정철영 외, 1998)
- 기초직업능력, 필수직업능력, 선택직업능력, 산업공통직업능력으로 분류(노동부, 2003)
-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수행능력으로의 분류는 직종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직종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공통적으로 필요한 능력과 직종과 직위에 따라 독특하게 요구되는 전문적인 직무수행능력으로 구분(이무근 외, 1997; 정철영 외, 1998)
- 직업능력을 기초직업능력, 필수직업능력, 선택직업능력, 산업공통직업능력으로의 분류(노동부, 2003)는 직종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능력과 직업 및 직무에 따라 필수 혹은 선택적으로 요구되는 능력, 직업군 및 산업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에 따라서 구분



각 분류는 나름대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직업기초능력과 기초직업능력은 사실상 같은 개념

Chan Lee(2008) SNU
12

1. 직업기초능력의 개념

본 연구에서는 직업능력은 직무수행능력과 직업기초능력으로 구분

Chan Lee(2008) SNU

13

2. 직업기초능력 영역 설정

영역설정 선행연구 고찰

- 국내의 직업기초능력 영역 설정은 이무근 외(1997), 정철영 외(1998), 김미숙 외(1998), 이종성 외(2002), 김진모 외(2002)의 연구에서 다양하게 논의
- 이무근 외(1997): 의사소통능력, 외국어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소양능력, 대인관계능력, 문화이해능력의 7가지 직업기초능력 영역과 영역별 하위능력을 설정
- 정철영 외(1998):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 자원활용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의 9가지 직업기초능력 영역과 영역별 하위능력을 설정
- 김미숙 외(1998): 기술활용능력, 수리적용능력, 정보화능력의 3가지 직업기초능력 영역과 영역별 하위능력을 설정
- 이종성 외(2002):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 자원활용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의 9가지 직업기초능력 영역과 영역별 하위능력을 설정
- 김진모 외(2002): 의사소통능력,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의 4가지 영역과 그 하위능력을 제시

Chan Lee(2008) SNU

14

2. 직업기초능력 영역 설정				
선영연구 비교				
구분 연구자	대상	방법	결과	특징
이우근 외 (1997)	-임직 단계 청소년 -대학교 졸업생	-국내외 문헌고찰 -전문가 협의 및 자문	의사소통능력, 외국어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소양능력, 대인관계능력, 문화이해능력의 7가지 영역 설정	-직업능력인증제 도입을 위한 직업 기초능력 추출 -일반적인 용어로 능력 표현
정철영 외 (1998)	-산업체 근로자 및 고용주	-국내외 문헌고찰 -조사연구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 관리 및 개발능력, 자원활용능력, 대인관계능 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의 9가 지 영역 설정	-산업체 근로자와 고용주를 대상 으로 능력 추출 -일반적인 용어로 능력 표현
김미숙 외 (1998)	-기술분야 종 사자	-국내외 문헌고찰 -교육훈련프로그램 분석 -조사연구	기술활용능력, 수리적용능력, 정보와능력의 3 가지 영역 설정	-기술분야에서 요구되는 능력 추출 -일반적인 용어로 능력 표현
이종성 외 (2002)	-실업계 고등 학교 학생	-교사대상 조사연구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관리 및 개발능 력, 자원활용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기 술능력, 조직이해능력의 9가지 영역 설정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이 갖추어야 할 능력 구명 -일반적인 용어로 능력 표현
김진모 외 (2002)	-재직 근로자	-교육훈련프로그램 분석 -교육담당자 인터뷰	의사소통능력,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 문제해 결능력, 대인관계능력의 4가지 영역 설정	-재직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개발 이 요구되는 능력 추출 -일반적인 용어로 능력 표현

Chan Lee(2008) SNU

15

2. 직업기초능력 영역 설정	
산업체 직업기초능력 영역 설정	
■ 국내외 직업기초능력 관련 문헌 연구, 기업체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학교 교육과정 내용분석, 직업교육전문가, 기업체 교육훈련 담당자, 산업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의 과정을 통해 설정 ■ 특히, 이 연구를 통해 설정된 직업기초능력의 영역은 다음과 같음 ① 우리나라 전체 산업체 종사자들에게 요구되는 영역 ② 산업현장의 특징을 반영한 용어로 표현된 영역 ③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및 직업세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미래 직업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을 중심으로 한 영역 ④ 실제 현장에서 요구되고 있고 적용 가능한 능력을 중심으로 한 영역 ⑤ 어느 직업이나 직장에서도 성공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공통적으로 필요한 범직업적인 영역 ⑥ 국가직업능력표준과의 연계를 고려한 영역 ⑦ 직무수행능력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능력과 자질을 고려한 영역으로 설정	

Chan Lee(2008) SNU

16

2. 직업기초능력 영역 설정	
산업체 직업기초능력 영역 설정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개발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의 10가지 영역과 34가지 하위능력으로 구성	
영역	하위능력
의사소통능력	- 문서이해능력 - 의사표현능력 - 문서작성능력 - 기초외국어능력 - 경청능력
수리능력	- 기초연산능력 - 도표작성능력 - 기초통계능력 - 도표분석능력
문제해결능력	- 사고력 - 문제처리능력
자기개발능력	- 자아인식능력 - 자기관리능력 - 경력개발능력
자원관리능력	- 시간자원관리능력 - 인적자원관리능력 - 예산관리능력 - 물적자원 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 팀워크능력 - 협상능력 - 리더십능력 - 고객서비스능력 - 갈등관리능력
정보능력	- 컴퓨터 활용능력 - 정보처리능력
기술능력	- 기술이해능력 - 기술선택능력 - 기술적용능력
조직이해능력	- 국제감각 - 업무이해능력 - 재재이해능력 - 경영이해능력
직업윤리	- 근로윤리 - 공동체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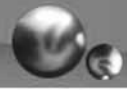
Chan Lee(2008) SNU

17

2. 직업기초능력 영역 설정	
1 의사소통 능력	
직장생활에서 문서를 읽거나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의미를 파악하고,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간단한 외국어 자료를 읽거나 외국인의 간단한 의사표시를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하고, 문서이해능력, 문서작성능력, 경청능력, 의사표현능력, 기초 외국어 능력의 5가지 하위능력으로 구성	
하위 능력	경 의
문서이해능력	의사소통능력의 한 하위능력으로서 문서이해능력은 필요한 문서를 확인하고, 문서를 읽고, 내용을 이해하고, 요점을 파악하는 능력이다
문서작성능력	의사소통능력의 한 하위능력으로서 문서작성능력은 목적과 상황에 적합한 아이디어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문서를 작성하는 능력이다
경청능력	의사소통능력의 한 하위능력으로서 경청능력은 다른 사람의 말과 비언어적인 표현을 주의 깊게 보고, 들으며, 적절하게 반응하는 능력이다
의사표현능력	의사소통능력의 한 하위능력으로서 의사표현능력은 목적과 상황에 맞는 말과 비언어적 행동을 통해서 아이디어와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이다
기초외국어능력	의사소통능력의 한 하위능력으로서 기초외국어능력은 외국어로 된 간단한 자료를 이해하거나, 간단한 외국인의 의사표현을 이해하는 능력이다

Chan Lee(2008) SNU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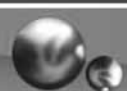
2. 직업기초능력 영역 설정

2 **수리능력**

직장생활에서 요구되는 사칙연산과 기초적인 통계방법을 이해하고, 도표의 의미를 파악하거나 도표를 이용해서 결과를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능력을 의미하고, 기초연산능력, 기초통계능력, 도표분석능력, 도표작성능력의 4가지 하위능력으로 구성

하위 능력	정 의
기초연산능력	수리능력의 한 하위능력으로서 기초연산능력은 직장생활에서 필요한 기초적인 사칙연산과 계산방법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다
기초통계능력	수리능력의 한 하위능력으로서 기초통계능력은 직장생활에서 평균, 합계, 빈도와 같은 기초적인 통계기법을 활용해서 자료의 특성과 경향성을 파악하는 능력이다
도표분석능력	수리능력의 한 하위능력으로서 도표분석능력은 직장생활에서 도표(그림, 표, 그래프 등)의 의미를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를 해석하는 능력이다
도표작성능력	수리능력의 한 하위능력으로서 도표작성능력은 직장생활에서 도표(그림, 표, 그래프 등)를 이용하여 결과를 표과적으로 제시하는 능력이다

Chan Lee(2008) SNU
19



2. 직업기초능력 영역 설정

3 **문제해결 능력**

직장생활에서 문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창조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통하여 이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적절히 해결하는 능력을 의미하고, 사고력, 문제처리능력의 2가지 하위능력으로 구성

하위 능력	정 의
사고력	문제해결능력의 한 하위능력으로서 사고력은 직장생활에서 발생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창의적, 논리적,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다
문제처리능력	문제해결능력의 한 하위능력으로서 문제처리능력은 직장생활에서 발생한 문제의 특성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적절한 대안을 선택하고 적용하여 그 결과를 평가하여 피드백(feedback)하는 능력이다

Chan Lee(2008) SNU
20

2. 직업기초능력 영역 설정

4 자기개발능력

직업인으로서 자신의 능력, 적성, 특성 등을 이해하고, 목표성취를 위해 스스로를 관리하며 개발해나가는 능력을 의미하고, 자아인식능력, 자기관리능력, 경력개발능력의 3가지 하위능력으로 구성

하위 능력	정 의
자아인식능력	자기개발능력의 한 하위능력으로서 자아인식능력은 자신의 흥미, 적성, 특성 등을 이해하고, 자기정체감을 확고히 하는 능력이다
자기관리능력	자기개발능력의 한 하위능력으로서 자기관리능력은 자신의 행동 및 업무 수행을 통제하고 관리하며,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조정하는 능력이다
경력개발능력	자기개발능력의 한 하위능력으로서 경력개발능력은 자신의 진로에 대한 단계적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성취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해 나가는 능력이다

Chan Lee(2008) SNU
21

2. 직업기초능력 영역 설정

5 자원관리 능력

직장생활에서 시간, 예산, 물적자원, 인적자원 등의 자원 가운데 무엇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이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수집하여 실제 업무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계획하고, 계획대로 업무수행에 이를 할당하는 능력을 의미하고, 시간관리능력, 예산관리능력, 물적자원관리능력, 인적자원관리능력의 4가지 하위능력으로 구성

하위 능력	정 의
시간관리능력	자원관리능력의 한 하위능력으로서 시간관리능력은 직장생활에서 시간자원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이용 가능한 시간자원을 최대한 수집하여 실제 업무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계획하고, 할당하는 능력이다
예산관리능력	자원관리능력의 한 하위능력으로서 예산관리능력은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이용 가능한 예산을 최대한 수집하여 실제 업무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계획하고, 할당하는 능력이다
물적자원관리능력	자원관리능력의 한 하위능력으로서 물적자원관리능력은 직장생활에서 필요한 물적자원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이용 가능한 물적자원을 최대한 수집하여 실제 업무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계획하고, 할당하는 능력이다
인적자원관리능력	자원관리능력의 한 하위능력으로서 인적자원관리능력은 직장생활에 있어서 인적자원의 품성, 능력, 지식을 파악하고, 이용 가능한 인적자원을 최대한 수집하여 실제 업무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계획하고, 할당하는 능력이다

Chan Lee(2008) SNU
22

2. 직업기초능력 영역 설정

6 대인관계 능력

직장생활에서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조직구성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조직내부 및 외부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팀워크능력, 리더십능력, 갈등관리능력, 협상능력, 고객서비스능력의 5가지 하위능력으로 구성

하위 능력	정 의
팀워크능력	대인관계능력의 한 하위능력으로서 팀워크 능력은 팀구성원으로서 조직구성원들과 목표를 공유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이다
리더십능력	대인관계능력의 한 하위능력으로서 리더십능력은 팀구성원들의 업무행상에 도움을 주며 동기화시킬 수 있고, 팀의 목표 및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다
갈등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의 한 하위능력으로서 갈등관리능력은 직장생활에서 팀구성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원만히 조절하는 능력이다
협상능력	대인관계능력의 한 하위능력으로서 협상능력은 직장생활에서 협상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상황에 맞는 협상전략을 선택하여 다른 사람과 협상하는 능력이다
고객서비스능력	대인관계능력의 한 하위능력으로서 고객서비스능력은 직장생활에서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여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이다

Chan Lee(2008) SNU
23

2. 직업기초능력 영역 설정

7 정보능력

직장생활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 분석, 활용하고, 이를 위한 기본적인 컴퓨터를 활용하는 능력을 의미하고, 컴퓨터활용능력과 정보처리능력의 2가지 하위능력으로 구성

하위 능력	정 의
컴퓨터활용능력	정보능력의 한 하위능력으로서 컴퓨터활용능력은 직장생활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 분석, 조직, 관리, 활용하는데 있어 컴퓨터를 활용하는 능력이다
정보처리능력	정보능력의 한 하위능력으로서 정보처리능력은 직장생활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며, 찾아낸 정보를 업무수행에 적절하도록 조직,관리하고 활용하는 능력이다

Chan Lee(2008) SNU
24

2. 직업기초능력 영역 설정

8 기술능력

일상적으로 요구되는 수단, 도구, 조작 등에 관한 기술적인 요소들을 이해하고, 적절한 기술을 선택하며, 적용하는 능력을 의미하고, 기술이해능력, 기술선택능력, 기술적용능력의 3가지 하위능력으로 구성

하위 능력	정 의
기술이해능력	기술능력의 한 하위능력으로서 기술이해능력은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원리 및 절차를 이해하는 능력이다
기술선택능력	기술능력의 한 하위능력으로서 기술선택능력은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선택하는 능력이다
기술적용능력	기술능력의 한 하위능력으로서 기술적용능력은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실제로 적용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능력이다

Chan Lee(2008) SNU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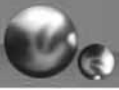
2. 직업기초능력 영역 설정

9 조직이해능력

직장생활에서 다른 나라의 문화와 국제적인 동향을 이해하고, 조직의 체제와 경영에 대해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하고, 국제감각, 체제이해능력, 경영이해능력, 업무이해능력의 4가지 하위능력으로 구성

하위 능력	정 의
국제감각	조직이해능력의 한 하위능력으로서 국제감각은 다른 나라의 문화와 국제적인 동향을 이해하며 이를 업무에 활용하는 능력이다
체제이해능력	조직이해능력의 한 하위능력으로서 체제이해능력은 조직의 구조와 목적, 체제 구성요소, 규칙, 규정 등을 이해하는 능력이다
경영이해능력	조직이해능력의 한 하위능력으로서 경영이해능력은 조직의 경영 목표와 경영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이다
업무이해능력	조직이해능력의 한 하위능력으로서 업무이해능력은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의 성격과 내용을 알고, 그에 필요한 지식, 기술, 행동을 확인하는 능력이다

Chan Lee(2008) SNU
26



2. 직업기초능력 영역 설정

10 **직업윤리**

원만한 직업생활을 위해 필요한 태도, 매너, 올바른 직업관을 의미하고, 근로윤리와 공동체 윤리의 2가지 하위능력으로 구성

하위 능력	정 의
근로윤리	직장윤리의 한 하위능력으로서 근로윤리는 직장생활에서 존중을 바탕으로 근면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업무에 임하는 자세이다
공동체윤리	직장윤리의 한 하위능력으로서 공동체윤리는 인간 존중을 바탕으로 봉사하며, 책임 있고, 규칙을 준수하고 예의바른 태도로 업무에 임하는 자세이다

Chan Lee(2008) SNU
27



3. 우리나라 직업기초능력 표준모델

직업기초능력 표준

- 직종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직종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공통적으로 필요한 능력인 직업기초능력을 국가적으로 표준화한 것(나승일 외, 2003)
- 표준명, 정의, 구조, 수준, 적용범위, 평가지침, 하위능력명, (하위능력의) 정의, 수행기준, K.S.C(지식.기술.상황), 교육훈련, 하위능력 평가에 관한 내용이 포함



Chan Lee(2008) SNU
28

3. 우리나라 직업기초능력 표준모델	
직업기초능력 표준 포맷	
구성요소	설명
1. 직업기초능력 표준명	해당 직업기초능력의 표준 명칭을 기술하는 부분으로, 각각의 직업기초능력 영역이 하나의 표준명이 됨
1-□ (직업기초능력) 정의	해당 직업기초능력의 의미, 내용, 하위능력을 포괄해서 기술하는 부분으로, 산업현장의 용어로 간단 명료하게 제시
1-□ 구조	해당 직업기초능력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능력과 하위능력요소의 포함관계를 제시하는 부분으로, 하위능력과 하위능력요소의 위 계관계와 포함관계가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구조화하여 제시한다.
1-□ 수준	산업체 종사자가 직업기초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를 상, 중, 하의 3단계로 제시하는 부분으로, 하위능력의 수행기준을 포괄하여 각 단계가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간단 명료한 용어를 사용하여 제시한다.
1-□ 적용범위	각 직종에서 기본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에게 요구되는 해당 직업기초능력의 상, 중, 하 수준에 따라 직종들을 제시하는 부분으로, 산업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장 대표적인 직종을 예시한다.
1-□ 평가지침	산업체 종사자가 해당 직업기초능력을 갖추었는지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부분으로, 직업기초능력을 평가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하는 평가준거, 평가요소, 평가지표, 평가방법에 관한 일반적인 지침을 제시한다.
1-1. 하위능력명	해당 직업기초능력의 하위능력 명칭을 기술하는 부분으로, 하위능력의 내용과 의미를 포괄할 수 있는 핵심적인 명칭으로 표현
1-1-□ 하위능력 정의	해당 하위능력의 의미, 내용, 하위능력요소를 포괄해서 기술하는 부분으로, 산업현장의 용어로 간단 명료하게 제시한다.
1-1-□ 수행기준	산업체 종사자가 해당 하위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를 상, 중, 하의 3단계로 제시하는 부분으로, 하위능력에 필요한 지식, 기술, 상황에 준해서 각 단계가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간단 명료한 용어를 사용하여 제시한다.
1-1-□ K.S.C	해당 하위능력에 필요한 지식, 기술, 상황을 기술하는 부분으로, 산업체 종사자가 해당 하위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 기술, 상황을 산업현장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특히 상황은 요구되는 업무 상황과 필요한 도구 등을 기술한다.
1-1-□ 교육훈련	해당 하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려해야 할 기본 교육내용, 참고사항, 프로그램 예시를 기술하는 부분. 교육내용은 산업체 종사자가 하위능력을 갖추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 기술, 상황을 고려하여 제시하고, 참고사항은 하위능력을 교육하는데 적절한 교육방법, 교육시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제시. 프로그램 예시는 국내 주요 기업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하위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명칭, 교육시간, 교육방법을 제시한다.
1-1-□ 하위능력 평가지침	산업체 종사자가 해당 하위능력을 갖추었는지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부분으로, 하위능력을 평가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하는 평가준거와 평가요소에 관한 일반적인 지침을 제시한다.

Chan Lee(2008) SNU

29

4. 북한이탈주민 대상 직업기초능력 진단도구의 활용	
진단도구의 활용목적	
■ 남한기업들의 북한이탈주민 대상 산업체 종사자 선발 및 채용의 기준 ■ 북한이탈주민의 남한기업 취업을 위한 직업기초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 북한이탈주민의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 수요자 중심의 직업기초능력 개발 ■ 국가인적자원개발 체제에서의 활용으로 구분	
	

Chan Lee(2008) SNU

30



4. 북한이탈주민 대상 직업기초능력 진단도구의 활용

종합 및 시사점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측면에서 많은 이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
- 또한 북한주민들이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가지고 있는 정치사상 및 경제사상 등은 북한을 이탈한 후에도 잘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북한도 직업교육 및 고급의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북한에서 교육체제상의 많은 변화 및 진보를 가져온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열악한 교육환경 및 재정상황으로 인하여 실제 직업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진행되는 것보다는 단시간내에 일꾼을 양성함으로써 현장에 투입되는 현실에 급급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됨
- 이탈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능력을 남한에서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심화교육이나 향상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할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표준인 직업기초능력이 기준으로 활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이탈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향상하여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를 얻거나 취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필요가 있으며 언어 및 외국어 관련 교육과 같은 기본소양프로그램을 통하여 사상적인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남한에서 그들이 잘 적응하고 직업기초능력을 보유하여 역량 있는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Chan Lee(2008) SNU

31



Ⅲ. 북한이탈주민의 직업기초능력 요구분석

1. 북한이탈주민의 직업기초능력 요구분석

2. 남한 산업체 고용주와 교육담당자의 직업기초능력 요구분석

Chan Lee(2008) SNU

32

1. 북한이탈주민의 직업기초능력 요구분석

- 북한이탈주민이 남한기반 산업체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직업기초능력이 요구되는지 파악
- 북한이탈주민의 직업기초능력 현재 수준을 진단
-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와 교육하고 있는 교육담당자가 인식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세부 직업기초능력 조사

일반적 특성

- 설문지 중 총 133부가 분석에 사용되었음
- 남성은 58명, 여성은 75명
- 평균연령: 32.6세
20대가 39.8%(53명), 30대가 35.3%(47명), 40대가 18.8%(25명), 50대가 6.0%(8명)
- 거주지: 함경북도가 76.7%(102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함경남도: 12.0%(16명), 평안북도: 2.3%(3명), 평안남도: 1.5%(2명), 황해도: 3.0%(4명), 평양직할시 및 강원도: 0.8%(1명) 등
- 최종학력:
고등중학교: 71.4%(9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교: 8.3%(11명), 전문학교: 9.0%(12명) 등
- 북한이탈시기: 2006년 이후가 30.1%(40명)로 가장 많았음
2001년부터 2005년까지: 26.3%(35명), 1996년부터 2000년까지: 42.9%(57명), 1995년 이전: 0.8%(1명)등

Chan Lee(2008) SNU 33

1. 북한이탈주민의 직업기초능력 요구분석

북한이탈주민의 직업기초능력

- 직업기초능력 영역별 분포

직업기초능력	평균	표준편차
문제해결능력	3.90	.50
자원관리능력	4.12	.62
정보능력	2.64	1.19
직업윤리	4.23	.60
의사소통능력	3.44	.73
수리능력	3.23	.82
자기개발능력	3.83	.64
대인관계능력	3.83	.56
기술능력	3.76	.68
조직이해능력	3.80	.64

→ 직업윤리가 4.23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 다소 높음
→ 정보능력과 수리능력, 의사소통능력은 각각 2.64와 3.23, 3.44로 다른 영역에 비해 낮음

Chan Lee(2008) SNU 34

1. 북한이탈주민의 직업기초능력 요구분석					
북한이탈주민의 직업기초능력					
■ 성별에 따른 직업기초능력					
영역	성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문제해결 능력	남성	58	3.94	.511	0.718
	여성	75	3.87	.494	
	합계	133	3.90	.501	
자원관리 능력	남성	58	4.06	.690	-0.685
	여성	75	4.14	.571	
	합계	133	4.12	.624	
정보능력	남성	58	2.75	1.306	1.111
	여성	75	2.52	1.092	
	합계	133	2.64	1.191	
직업윤리	남성	58	4.21	.561	-0.670
	여성	75	4.28	.642	
	합계	133	4.23	.607	
의사소통 능력	남성	58	3.42	.791	-0.300
	여성	75	3.46	.685	
	합계	133	3.44	.730	

Chan Lee(2008) SN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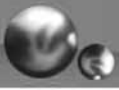
35

1. 북한이탈주민의 직업기초능력 요구분석					
북한이탈주민의 직업기초능력					
■ 성별에 따른 직업기초능력(계속)					
영역	성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수리능력	남성	58	3.17	.841	0.490
	여성	75	3.09	.811	
	합계	133	3.23	.822	
자기개발 능력	남성	58	3.82	.631	-0.072
	여성	75	3.83	.655	
	합계	133	3.83	.642	
대인관계 능력	남성	58	3.84	.599	0.259
	여성	75	3.82	.536	
	합계	133	3.83	.562	
기술능력	남성	58	3.84	.609	1.058
	여성	75	3.72	.737	
	합계	133	3.76	.685	
조직이해 능력	남성	58	3.78	.650	-0.289
	여성	75	3.81	.650	
	합계	133	3.80	.648	

*p<0.05

Chan Lee(2008) SNU

36



1. 북한이탈주민의 직업기초능력 요구분석

북한이탈주민의 직업기초능력

- 연령에 따른 직업기초능력
 - 연령에 따른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Scheffe 사후검정 결과 정보능력에서는 20대와 40대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 수리능력: 20대와 50대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 조직이해능력: 20대와 50대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 연령이 높을수록 정보능력이 낮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북한이탈주민 보다는 연령이 높은 북한이탈주민의 정보능력 개발이 더욱 필요함
 - 수리능력과 조직이해능력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능력이 높게 나타나 연령이 낮은 북한이탈주민의 능력 개발이 시급함

Chan Lee(2008) SNU
37



1. 북한이탈주민의 직업기초능력 요구분석

북한이탈주민의 직업기초능력

- 최종학력에 따른 직업기초능력
 - 직업기초능력 10개 영역 중 고등중학교 졸업자의 경우 가장 높은 영역은 직업윤리(4.20) 영역이었고, 전문학교 졸업자의 경우도 직업윤리(4.24) 영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교 졸업자의 경우에는 자원관리능력(4.62) 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가장 낮게 나타난 영역은 고등중학교 졸업자와 전문학교 졸업자, 대학교 졸업자 모두 정보능력(고등중학교 졸업자 2.65, 전문학교 졸업자 2.37, 대학교 졸업자 2.27) 영역임.
 - 자원관리능력, 정보능력, 직업윤리, 자기개발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 등 6개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반면,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대인관계능력 등 4개 영역에서는 유의수준 0.05에서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분산의 동질성에 대한 검사 결과)

Chan Lee(2008) SNU
38



1. 북한이탈주민의 직업기초능력 요구분석

북한이탈주민의 직업기초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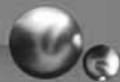
■ 최종학력에 따른 직업기초능력

- 문제해결능력: 고등중학교 졸업자와 대학교 졸업자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
- 의사소통능력: 고등중학교 졸업자와 대학교 졸업자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 수리능력: 고등중학교 졸업자와 전문학교 졸업자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 대인관계능력: 고등중학교 졸업자와 대학교 졸업자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 문제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수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중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직업기초능력이 높게 나타났음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Scheffe 사후검정 결과)

→ 따라서 북한에서의 최종학력이 낮은 북한이탈주민의 문제해결능력과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개발이 상대적으로 높게 요구됨

Chan Lee(2008) SNU

39



1. 북한이탈주민의 직업기초능력 요구분석

북한이탈주민의 직업기초능력

■ 시사점

- 1 북한이탈주민의 직업기초능력의 수준은 정보능력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보통(3.0) 이상으로 나타남.(but, 자기인식 수준 측정이라는 도구에 의한 한계점이 예상됨)
- 2 북한이탈주민의 직업기초능력 측정 결과를 분석해 볼 때 연령에 따라서는 정보능력과 수리능력, 조직이해능력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최종학력에 따라서는 문제해결 능력,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대인관계능력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3 북한이탈주민의 전체적인 직업기초능력 수준은 정보능력, 수리능력, 의사소통능력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Chan Lee(2008) SNU

40

2. 남한 산업체 고용주와 교육담당자의 직업기초능력 요구분석

북한이탈주민의 직업기초능력 측정에 대한 문제점

- 북한이탈주민들의 직업기초능력 진단도구는 자가진단도구로서 본인의 직업기초능력수준에 대한 인식을 스스로 측정하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현재 수준이 실제 수준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타당성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직업기초능력을 진단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인식한 자신의 직업기초능력과 북한이탈주민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담당자와 북한이탈주민들을 고용을 고용하였거나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가 인식하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들의 실제 직업기초능력을 비교·분석하였음
- 북한이탈주민 교육담당자나 직속 상사 혹은 고용주들의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분석하여 교육담당자 또는 고용주가 판단하는 현재 북한 이탈주민의 직업기초능력과 요구되는 기초직업 능력 그리고 북한 이탈주민들이 자각하는 그들의 직업기초능력 수준을 진단

Chan Lee(2008) SNU

41

2. 남한 산업체 고용주와 교육담당자의 직업기초능력 요구분석

북한이탈주민의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교육담당자 또는 고용주의 인식

- 북한이탈주민의 직업기초능력에 대하여 교육담당자 및 고용주들은 직업윤리 중 근로윤리가 2.73으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자기관리 2.63, 경청 2.50, 자아인식 2.50, 경력개발 2.41 순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었음
- 남한기반산업체 취업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이 갖추어야 할 직업기초능력은 자기개발영역 중 자기관리가 3.15로 가장 높았으며 경력개발 5.25, 의사표현과 자아인식이 각각 2.82, 기술선택 2.73순으로 나타났음
-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보유하고 있는 직업기초능력과 남한 기반 산업체 취업을 위해 보유해야 할 직업기초능력의 차이가 큰 영역으로는 고객서비스가 0.88로 가장 컸으며, 기술적응과 기술이해 0.74, 기술선택 0.69, 협상과 컴퓨터능력이 0.65점의 순으로 나타났음
- 또한, 기초외국어능력, 도표분석 및 작성능력, 자기관리능력, 경력개발능력, 팀워크능력, 국제감각능력, 조직제제이해능력 등이 차이가 0.5이상 나타났음

북한이탈주민이 인식하는 세부 직업기초능력 진단 결과

- 북한이탈주민이 인식하는 세부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설문조사는 5점 척도로 진단
- 직업윤리 중 근로윤리가 4.3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물적자원 4.16, 예산자원관리능력 4.14, 공동체 윤리 4.13, 인적자원 4.12 순으로 나타남
- BUT!! 실제 교육담당자 또는 고용주가 인식하는 직업기초능력과 상당히 다른 결과임.

Chan Lee(2008) SNU

42

2. 남한 산업체 고용주와 교육담당자의 직업기초능력 요구분석

북한이탈주민의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교육담당자 또는 고용주의 인식

구분		실제 북한 이탈 주민들이 인식하는 직업기초능력(A)	북한이탈주민의 현재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교육담당자 또는 고용주의 인식(B)	남한 일반 산업체 취업을 위해 필요한 북한주민의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교육담당자 또는 고용주의 인식(C)	차이 (B-C)
문제해결능력	사고력	3.82	2.13	2.46	0.33
	문제처리능력	3.98	1.71	2.18	0.47
자원관리능력	시간자원관리능력	4.07	1.94	2.22	0.28
	예산자원관리능력	4.14	1.90	2.22	0.32
	물적자원	4.16	1.99	2.36	0.37
	인적자원	4.12	1.76	2.18	0.42
정보능력	컴퓨터	2.54	1.53	2.18	0.65
	정보처리	2.75	1.53	2.13	0.60
직업윤리	근로윤리	4.32	2.73	2.64	-0.09
	공동체윤리	4.13	2.22	2.59	0.37

Unan Lee (2005) SINU

43

2. 남한 산업체 고용주와 교육담당자의 직업기초능력 요구분석

북한이탈주민의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교육담당자 또는 고용주의 인식(계속)

구분		실제 북한 이탈 주민들이 인식하는 직업기초능력(A)	북한이탈주민의 현재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교육담당자 또는 고용주의 인식(B)	남한 일반 산업체 취업을 위해 필요한 북한주민의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교육담당자 또는 고용주의 인식(C)	차이 (B-C)
의사소통능력	문서이해	3.54	2.08	2.54	0.46
	문서작성	3.39	2.22	2.41	0.18
	경청	4.06	2.50	2.68	0.18
	의사표현	3.88	2.59	2.82	0.23
	기초외국어	2.35	1.39	1.94	0.56
	기초연산	3.52	2.08	2.54	0.46
수리능력	기초통계	3.38	1.94	2.46	0.51
	도표분석 및 작성	2.79	1.76	2.29	0.53
자기개발능력	자아인식	3.85	2.50	2.82	0.32
	자기관리	3.90	2.63	3.15	0.52
	경력개발	3.70	2.41	2.92	0.51

44

2. 남한 산업체 고용주와 교육담당자의 직업기초능력 요구분석

북한이탈주민의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교육담당자 또는 고용주의 인식(계속)

구분		실제 북한 이탈주민들이 인식하는 직업기초능력(A)	북한이탈주민의 현재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교육담당자 또는 고용주의 인식(B)	남한 기반 산업체 취업을 위해 필요한 북한주민의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교육담당자 또는 고용주의 인식(C)	차이 (B-C)
대인관계능력	팀웍	3.98	1.99	2.59	0.61
	리더십	3.70	2.08	2.54	0.46
	갈등관리	3.76	1.94	2.36	0.42
	협상	3.94	1.81	2.46	0.65
	고객서비스	3.78	1.67	2.54	0.88
기술능력	기술이해	3.56	1.90	2.64	0.74
	기술선택	3.75	2.04	2.73	0.69
	기술적용	3.96	1.85	2.59	0.74
조직이해능력	국제감각	3.26	1.76	2.36	0.60
	조직체제 이해	3.80	1.85	2.46	0.61
	경영이해	3.73	1.94	2.41	0.46
	업무이해	4.04	2.22	2.68	0.46

5

2. 남한 산업체 고용주와 교육담당자의 직업기초능력 요구분석

결론

- 1 남한 기반 산업체에 취업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초직업 능력 수준을 판단
- 2 교육이 요구되는 직업기초능력 분야를 파악
- 3 직업기초능력 보유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인식전환의 필요성 파악
- 4 북한 이탈주민에게 우선적으로 필요로 되는 분야부터 선정하여 반영할 필요성 확보

2. 남한 산업체 고용주와 교육담당자의 직업기초능력 요구분석

인터뷰 결과

→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서 적응하고 취업을 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능력,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문제점 및 교육체제상의 문제점 등을 극복하기 위한 인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1 커뮤니케이션 문제

→ 사용하던 언어의 차이로 인해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발생

2 북한 이탈주민이 교육받는 실제 체제상의 교육수준 및 질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파악

→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주로 중학교 이후부터는 수업을 잘 진행하지 않고 대면봉사나 공사현장에서 사업을 진행하였음

3 컴퓨터 능력의 부족

→ 컴퓨터 사용능력이 많이 뒤처지므로 남한 사람에 비해서 정보화보력, 정보접근성, 고급 정보 검색 등과 같은 기초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Chan Lee(2008) SNU

47

Ⅳ. 북한이탈주민의 직업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1. 설문조사 및 인터뷰 종합

2. 직업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Chan Lee(2008) SNU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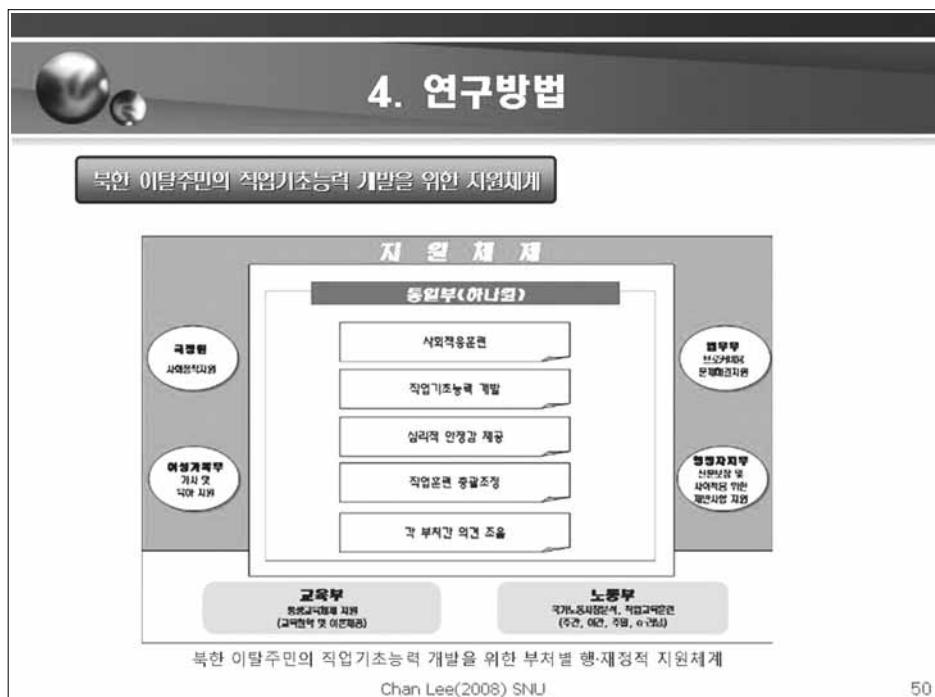
1. 설문조사 및 인터뷰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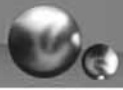
인터뷰 결과

→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서 적응하고 취업을 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능력,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문제점 및 교육체제상의 문제점 등을 극복하기 위한 인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1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의 직업기초능력은 매우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취업상태를 유지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음.
- 2 정부지원의 형태도 직업훈련과 취업을 통한 정착 지원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 중에 있으나, 북한이탈주민들의 심리적 불안과 정서적 불안정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직업훈련을 어렵게 하고 있음

Chan Lee(2008) SNU 49





1. 설문조사 및 인터뷰 종합

북한 이탈주민의 직업기초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체계

개인

북한이탈주민들의 심리적 불안과 정서적 불안정완화

통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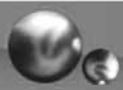
하나원에서의 기초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반 즉 사회적응, 심리적 안정, 직업을 통한 사회참여의지 창출을 위한 기반을 조성

노동부

폴리텍 또는 기타 교육기관을 통해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직무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

Chan Lee(2008) SNU

51



1. 설문조사 및 인터뷰 종합

북한 이탈주민의 직업기초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체계

법무부

북한이탈주민들이 탈북과정에서 지게 되는 브로커비용이라는 부채에 대한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

행정
자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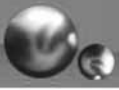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들의 신분보장 등 사회적응을 위한 제반사항을 도와줄 필요가 있음

여성
가족부

여성 탈북자의 수가 많은 만큼 이들이 적장생활과 교육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사, 육아 등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 있음

Chan Lee(2008) SNU

52



V. 결론 및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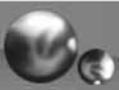
1.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현황

2. 직업기초능력 분석에 대한 시사점

3. 개선사항

Chan Lee(2008) SNU

53



1. 직업교육현황

남한 vs. 북한

- 남한:
 - 직업준비를 위한 목적으로 전문적인 기술 및 지식 습득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으로서, 전문계 고등학교가 대표적이며 농업, 공업, 수산, 상업, 해운, 가정 및 가사에 해당하는 교육
 - 이미 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하는 학교교육, 사회교육, 그리고 업무현장에서 실시되는 교육을 모두 일컬음(김진수, 2002).
- 북한:
 - 4년제 대학부터 전문화된 2년제 대학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교육훈련기관을 통해서 각 분야의 기술능력 및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but!! 낮은 기초학력수준과 기술수준을 볼 때에는 남한기반 산업체 취업은 어려운 상황

-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직업교육훈련이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더욱이 중요한 것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가지고 있는 정치사상 및 경제사상 등이 북한을 이탈한 후에도 잘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만큼 남한사회에서 이질감을 더욱 느끼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사상과 언어측면에서의 불편함과 이질감을 호소하였듯이 그들의 직업기초능력 배양 및 향상을 도모하기 전에 사상의 전환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Chan Lee(2008) SNU

54



2. 직업기초능력 분석에 대한 시사점

북한이탈주민의 직업기초능력의 수준은 정보능력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업윤리와 자원관리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1 언어상의 문제점
- 2 북한에서의 교육의 질이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남한에서의 사용에 대한 기회가 개방되어 있지 않음
- 3 컴퓨터 활용 능력이 현저히 떨어짐
 - > 외국어능력(남북한 언어차이 포함)과 컴퓨터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절실
 - > 꾸준한 언어 및 외국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 향후 북한이탈주민의 직업능력개발 방향 설정에 있어서 연령, 학력 등을 고려한 수준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Chan Lee(2008) SNU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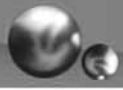
3. 개선사항

교육내용

- 1 수리능력의 배양을 위해서 사칙연산 교육, 기초적인 확률 및 통계에 관한 내용들이 교육내용 중에 포함될 필요가 있음
- 2 자원활용능력과 대인관계능력 그리고 직업윤리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내용을 개발하여 포함되어야 함
- 3 문제해결능력 배양을 위해서는 정착과정 및 실제적인 직업환경 하에서의 현실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결과정에 대한 토의식 수업이 포함되어야 함
- 4 조직이해능력에 있어서, 기업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Chan Lee(2008) SNU

56



3. 개선사항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 1 하나원 퇴소 이후에도 체계적으로 연결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한 교육과정의 개편, 교재개발, 북한이탈주민 대상 전문교수요원의 확보 등이 해결
- 2 통일부, 노동부가 중심이 되어 북한이탈주민이 직무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훈련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마련
- 3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직업적성검사, 직업선호도 등의 도구를 개발 및 활용하여 상담과 진로지도부터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

Chan Lee(2008) SNU 57



Q & A!

Chan Lee(2008) SNU 58

제 3 회의 환경·생태

제6발표 : 북한 가뭄 특성 분석 및 가뭄 우심 지도 작성

최진용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제7발표 : DMZ 지역내 생태환경 보전방안 및 관리지침서 개발

신남식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주승진 (서울대 수의학과 연구원)



제6발표

북한 가뭄 특성 분석 및 가뭄 우심 지도 작성

최진용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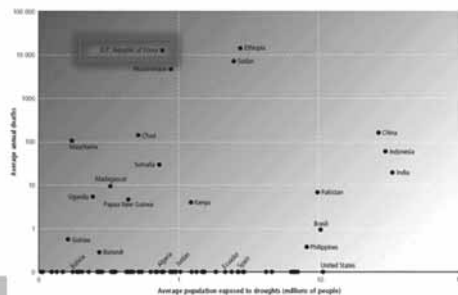


목 차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연구 목적
- 연구 내용 및 방법
- 연구 결과
- 활용계획
- 결 론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 북한은 전 세계적으로 가뭄에 가장 취약한 국가들 중의 하나로서 수자원 부족량이 많지 않고 관개기반도 열악함
-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북한에서의 자연재해는 사회기반시설이 취약한 북한 주민에게 경제, 사회학적으로 고통을 겪게 하고 있음
- 특히, 가뭄과 홍수 등 극심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북한의 식량난이 가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재해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연구는 미진한 형편임



* Source : The EM-DAT OFDA/CRED International Disaster Database and UNEP/GRID-Geneva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 북한의 식량난 해결을 위한 기술적인 접근 방법으로써 북한의 농업생산기반 실태와 가뭄 피해에 대한 연구들이 발표되었으나, 이들은 FAO/WFP 혹은 UNDP 등과 같은 국제기구의 조사 자료를 인용하여 북한의 가뭄의 발생과 피해에 대한 정보를 간략하게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임
- 이처럼 북한지역 가뭄위험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북한의 가뭄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 자료와 정보가 부족함
- 향후 북한지역 가뭄관리를 위해서는 우선 지역별로 기상학적 요인과 가뭄의 발생과 계절적 특성을 고려한 가뭄평가가 선행되어야 함
- 또한, 지속적인 가뭄 모니터링 및 이력의 관리를 통해 자연재해에 취약한 북한에서 가뭄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연구가 필요함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지역의 계절별, 지역별 기상특성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적절한 가뭄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 북한의 지역별 가뭄특성을 분석하여 가뭄우심지도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뭄 우심 지구를 분류함
- 이를 통해 북한가뭄대책 및 가뭄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가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함

연구 내용 및 방법

- 국내외 문헌조사를 통한 북한 가뭄피해 조사
 - 북한에서 발생했던 과거 가뭄의 이력과 피해를 조사하고 주요 가뭄 사례별로 구체적인 원인과 발생 특성을 분석함
- 북한지역의 지역별 계절별 기상특성 분석
 - 북한의 기상자료와 지형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기상인자별 연별, 시기별 변화를 분석하고 30년간의 경향을 분석함으로써 지구온난화에 대한 영향을 평가함
- 북한지역에 대한 지역별 가뭄평가와 특성 분석
 - 기존의 가뭄지수 중 북한지역에 적용 가능한 가뭄지수를 평가하고, 지역별 가뭄지수 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가뭄 정도를 정량화하고, 그 특징을 비교·분석함
- 북한지역 가뭄우심지역의 평가와 분류
 - 기상자료와 가뭄지수를 중심으로 가뭄우심지역 평가방법을 제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가뭄우심지역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가뭄특성과 대안을 검토함

연구 결과 (1) - 국내외 문헌조사를 통한 북한 가뭄피해 조사

● 가뭄 기록

- 북한의 가뭄 기록은 국내외의 간행물 및 보고서를 참고하여, 가뭄의 상황, 피해, 대책 등과 관련된 자료를 분석함

국 내	국 외
1. 통일부 - 주간북한동향	1.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 북한농업동향	2. USDA(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의 FAS(Foreign Agricultural Service)
3. 북한의 중앙방송, 중앙통신	3.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의 국제보고서
4. 정부기관의 간행물	

연구 결과 (1) - 국내외 문헌조사를 통한 북한 가뭄피해 조사

● 가뭄 피해 사례 (1)

연 도	가 뭄 피 해
1997	6월 이후 60여일째 비가 내리지 않아 평안도, 함경도, 강원도, 함경북도에 저수지와 강이 바닥이 드러나고 논과 밭의 농작물이 말라죽음 (왕가뭄과 이상고온현상)
1999	2~5월 기간 동안 청진 지역에는 92일간, 원산 지역에는 119일간 비가 내리지 않음 6월의 평년대비 강수량이 매우 감소하여 30% 수확량이 감소함
2000	북한 전역의 2월 강수량이 평년의 21.4%, 3월에는 32.3% 수준으로 북한의 주요 농업지대에서 심한 가뭄 발생 심한가뭄과 고온현상으로 논바닥이 마르고 물공급이 부족함 5월에서 7월 사이에 강수량은 평년 대비 60% 수준에 불과함 건조한 날씨와 고온 현상으로 물 공급이 부족하여 곡물 생산량이 작년 대비 16% 감소

연구 결과 (1) - 국내외 문헌조사를 통한 북한 가뭄피해 조사

● 가뭄 피해 사례 (2)

연 도	가 뭄 피 해
2001	3월부터 6월까지 90일간 북한지역에 가뭄이 지속, 기후학적으로 1000년 만에 한번 나타나는 가뭄 강수량은 전 지역에서 평균 18.3 mm로서 평년 강수량의 11%, 지난해의 17%에 불과 전체 농경지의 72%에 해당하는 133만여 정보에서 농작물이 80~90% 이상이 피해를 입음
2002	1~12월 누적 강수량이 평년의 72.2%로 낮았으며 중강, 구성, 희천 지역은 평년의 절반이하 수준 2000년, 2001년 가뭄으로 인해 2002년 6월 중순 북한 전역의 관개지역 저수지의 용량이 평균 용량의 59%에 불과
2003	1~3월 누적강수량은 평균 45.4 mm로 평년의 80% 수준 청진, 강계, 김책, 신의주, 함흥 지역 - 평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서해안지역과 중남부지방 - 겨울철 가뭄

연구 결과 (2) - 북한지역의 지역별 계절별 기상특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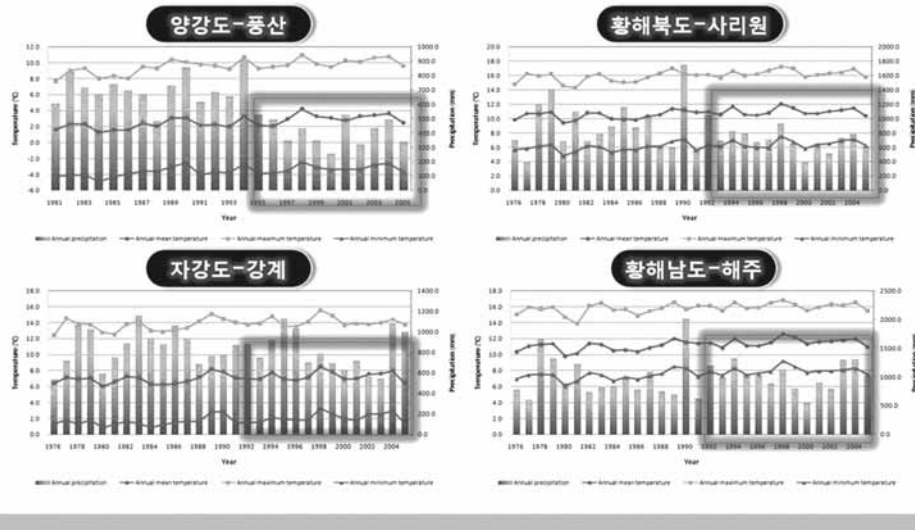
● 기상자료의 수집과 전처리

-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북한의 기상자료는 세계기상통신 (GTS, Global Telecommunication System)을 통해서 구득한 자료임
- 기상자료기간은 선봉, 청진 등 11개 지역은 1973년부터, 삼지연, 풍진 등 10개 지역은 1981년부터 제공하고 있음
- 기상요소로는 해면기압, 평균/최저/최고기온, 강수량, 상대습도, 평균풍속, 운량 등을 제공하고 있음



연구 결과 (2) - 북한지역의 지역별 계절별 기상특성 분석

● 연도별 기온 및 강수량 변화 (1)



연구 결과 (2) - 북한지역의 지역별 계절별 기상특성 분석

● 연도별 기온 및 강수량 변화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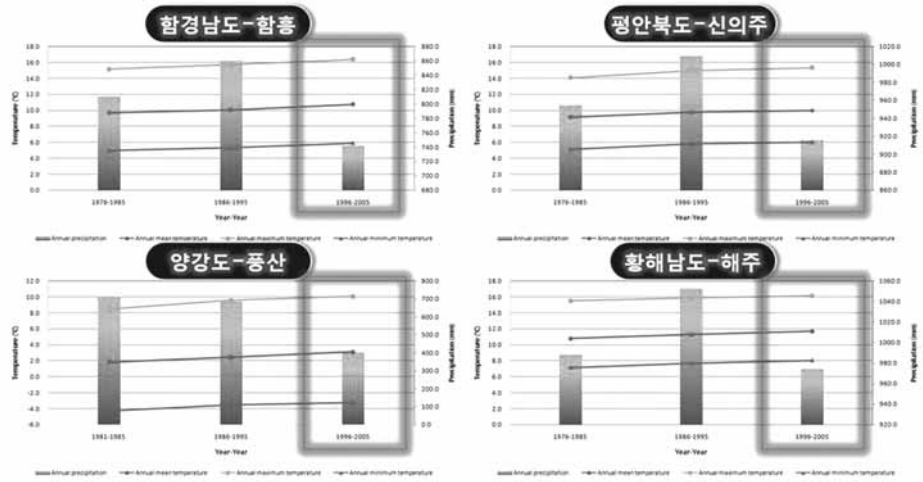
- 북한 21개 지역의 연간 평균기온 상승량은 0.049°C 이고, 관측기간 내의 1.33°C 의 평균기온 상승을 보였음
- 연평균 최고기온의 경우 연간 0.052°C , 연평균 최저기온의 경우 연간 0.047°C 정도의 기온상승을 보여, 최고기온 증가율이 최저기온 증가율보다 큼
- 강수량의 경우 전 기간에 대해 감소 경향을 보였으며, 극심한 가뭄이 발생했던 1997~2001년에 강수량이 급격하게 감소하였음

✳ 연평균 기온은 모든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온상승은 전지구적으로 일어나는 온난화 현상에 수반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됨

연구 결과 (2) - 북한지역의 지역별 계절별 기상특성 분석

● 기간별 기온 및 강수량 변화 (1)

- 10년 단위로 연평균 기온 및 연평균 강수량의 변화를 분석하였음



연구 결과 (2) - 북한지역의 지역별 계절별 기상특성 분석

● 기간별 기온 및 강수량 변화 (2)

- 전반기에서 후반기로 갈수록 평균/최저/최고 기온은 증가하였으며, 최고 기온의 증가율이 최저기온의 증가율보다 높음
- 관측기간 내의 평균기온은 1.0℃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지난 100년간 0.5℃ 정도 상승한 지구 평균적인 경향보다 큰 수치임
- 강수량의 경우 평양과 개성 지역을 제외한 19개 지역에서 감소하였음

평균기온 증감 (℃)	최고기온 증감 (℃)	최저기온 증감 (℃)	강수량 증감 (mm)
+1.00	+1.07	+0.99	-133.58

연구 결과 (2) - 북한지역의 지역별 계절별 기상특성 분석

● 호우일수 분석

- 일강수량이 80 mm 이상인 호우일수의 발생빈도를 분석함
- 남서부 지역은 높은 호우일수, 북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를 나타냄
- 1970년대, 2000년대의 호우일수 발생빈도 결과 선봉, 청진, 해산, 함흥, 원산, 해주, 개성 지역은 과거에 비하여 증가하는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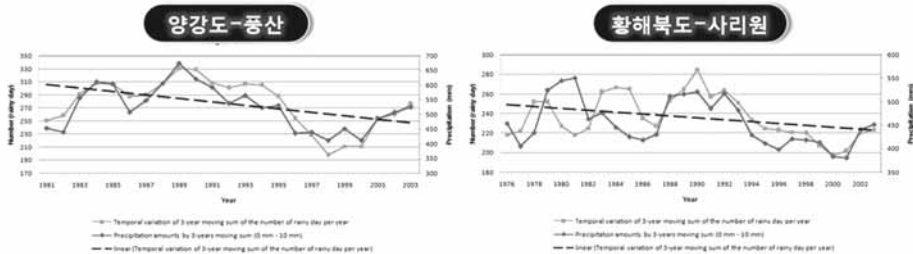
(단위 : day/year)

지 역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선 봉	0.4	0.9	0.4	1.2
삼 지 연	-	0.3	1.0	0.2
청 진	0.4	0.4	0.4	1.0
해 산	0.0	0.1	0.1	0.2
강 계	0.6	0.3	0.4	0.4
동 산	-	0.4	0.5	0.0
수 풍	-	1.1	1.6	1.2
선 의 주	1.6	1.7	1.8	1.4
구 성	-	2.8	3.7	1.8
함 흥	0.2	1.0	0.6	1.0
선 포	-	0.7	0.3	0.6
만 주	-	2.0	2.5	1.0
암 덕	-	1.7	1.5	0.6
원 산	1.8	3.4	2.1	2.8
평 양	1.0	0.9	1.1	0.8
남 포	-	1.2	1.7	0.2
청 진	-	3.0	2.5	4.8
사 리 원	1.6	1.3	0.6	0.2
용 연	-	1.9	2.4	0.8
해 주	2.6	1.8	1.6	3.0
개 성	2.2	2.3	2.2	3.0
평균	1.1	1.4	1.4	1.2

연구 결과 (2) - 북한지역의 지역별 계절별 기상특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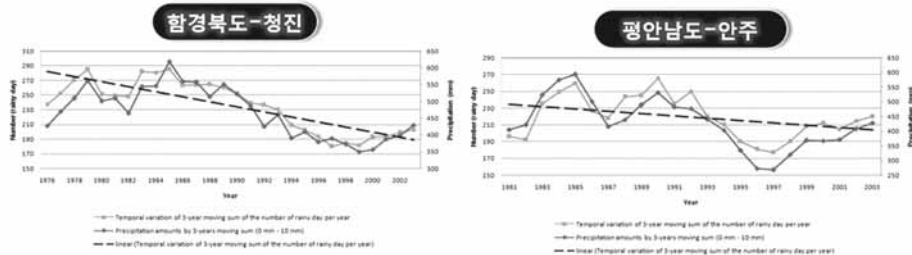
● 강수일수 분석 (1)

- 강수의 변화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강수가 감지되는 날을 기준으로 0~10mm 강수량의 강수일수와 강수량을 3년 이동합을 구하여 변화 경향을 비교함



연구 결과 (2) - 북한지역의 지역별 계절별 기상특성 분석

● 강수일수 분석 (2)



- 강수일수와 강수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가뭄이 발생한 1990년대 후반에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음
- 강수일수는 감소하고 호우일수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결과적으로 강수강도가 증가하였음

연구 결과 (3) - 북한지역에 대한 지역별 가뭄평가와 특성 분석

● 가뭄의 정의

- 어느 지역의 동식물 생육에 피해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로 강수의 부족이 매우 심각하게 장시간 지속되는 상태이거나 생활용수와 수력발전에 필요한 용수를 정상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 (방재연구소, 2002)

● 가뭄지수의 분류

- 기상학적 가뭄 (meteorological drought)
- 수문학적 가뭄 (hydrologic drought)
- 농업적 가뭄 (agriculture drought)
- 사회경제학적 가뭄 (socioeconomic drought)

연구 결과 (3) – 북한지역에 대한 지역별 가뭄평가와 특성 분석

- **과우일수 (Dry-day Index)**
 - 평균 강우량에 비해 비가 적게 왔을 때를 의미하는 과우상태를 이용하여 기상학적 가뭄을 평가하는 방법
- **정상강수백분율 (Percent of Normal Precipitation, PNP)**
 - 해당지역의 30년 강수량의 평균값인 정상강수량을 100%로 간주하고, 실제강수량을 정상강수량으로 나누어 백분율에 따른 지속기간에 따라 가뭄을 평가하는 방법
- **십분위 (Deciles of Normal Precipitation, Deciles)**
 - 장기간의 강수량 자료를 가지고 발생시킨 분포를 각각 10%씩 나눈 값에 따라 5단계로 가뭄을 구분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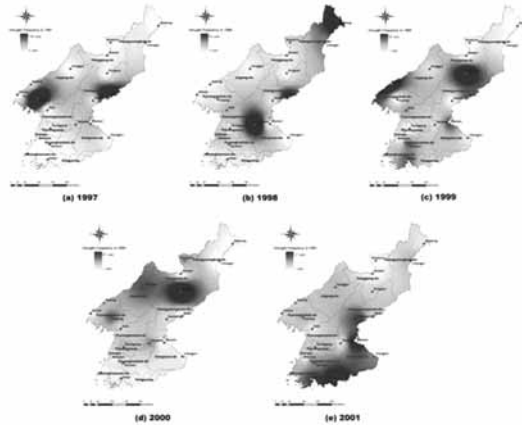
연구 결과 (3) – 북한지역에 대한 지역별 가뭄평가와 특성 분석

- **Phillips 가뭄지수 (Phillips Drought Index)**
 - 월강수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빈도해석을 실시한 후, 정상상태와 가뭄주의보상태를 구분하는 하나의 기준치로서 평균확률치를 선택하여 가뭄을 평가하는 방법
- **표준강수지수 (Standardized Precipitation Index, SPI)**
 - 3, 6, 9, 12개월 등과 같이 특정 시간에 대한 시간 단위를 설정하고 시간 단위별로 강수 부족량을 산정하여 개개의 용수공급원이 가뭄에 미치는 영향을 산정하는 방법
- **파머가뭄심도지수 (Palmer Drought Severity Index, PDSI)**
 - 물수지 분석을 통해 기후적으로 필요한 강수량을 계산하고 실제 강수량과의 수분편차를 산정하여 가뭄을 평가하는 방법

연구 결과 (3) - 북한지역에 대한 지역별 가뭄평가와 특성 분석

● 과우일수를 이용한 가뭄분석

- 1997년 - 평안북도와 강원도, 함경북도 지역 (구성, 신포 : 100년 빈도의 가뭄상태)
- 1998년 - 평안남도 양덕 지역과 함경북도 선봉지역에서 20년 빈도의 가뭄상태
- 1999년 - 양강도 풍산 지역과 평안북도 수봉지역에서 40년 빈도의 가뭄상태, 나머지 지역의 경우도 10~20년 빈도의 가뭄상태
- 2000년 - 풍산지역에 100년 빈도 가뭄상태, 자강도와 평안북도, 평안남도 지역에 20~50년 빈도의 가뭄상태



◆ 분석결과 1999년과 2000년에 북한 전역에 극심한 가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연구 결과 (3) - 북한지역에 대한 지역별 가뭄평가와 특성 분석

● 정상강수백분율을 이용한 가뭄분석



지 역	D2 (%)	D3 (%)	D4 (%)	총 합
선봉	7 (1.5)	14 (3.5)	-	21 (5.0)
삼지천	6 (2.0)	-	-	6 (2.0)
경천	6 (1.7)	-	-	6 (1.7)
해산	-	-	-	-
강계	6 (1.7)	-	-	6 (1.7)
풍산	18 (6.0)	6 (2.0)	-	24 (8.0)
수봉	4 (1.3)	20 (6.7)	-	24 (8.0)
선유주	-	13 (3.6)	-	13 (3.6)
구봉	2 (0.7)	14 (4.7)	-	16 (5.3)
원흥	24 (6.7)	-	-	24 (6.7)
신포	8 (2.7)	7 (2.3)	13 (4.3)	28 (9.3)
안주	7 (2.3)	6 (2.0)	-	13 (4.3)
양덕	-	-	-	-
원산	-	-	-	-
평양	-	-	-	-
남포	6 (2.0)	6 (2.0)	-	12 (4.0)
장천	-	-	-	-
사리원	6 (1.7)	-	-	6 (1.7)
유연	-	12 (4.0)	-	12 (4.0)
해주	7 (1.5)	-	-	7 (1.5)
가성	6 (1.7)	-	-	6 (1.7)

연구 결과 (3) - 북한지역에 대한 지역별 가뭄평가와 특성 분석

● 십분위를 이용한 가뭄분석

- 1997년 - 평안남도 일부지역과 황해도 지역을 제외한 13개지역에서 가뭄상태
- 2000년, 2001년 - 각각 10개 지역, 8개 지역에서 가뭄상태가 나타남
- 평안북도의 수풍지역과 한경남도의 신포지역은 1997년부터 8개월동안 가뭄이 지속

※ 분석결과 1997년부터 2001년 까지 북한 전역에 극심한 가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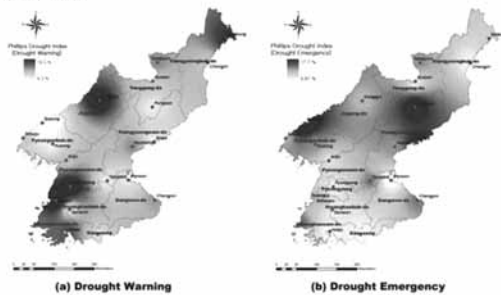
지역	Deciles 1~Deciles 2	
	(unit : year)	
선봉	1997(5)	1998(5)
삼지천	1997(6)	1998(6), 2001(5)
청천	1997(5)	2000(5), 2001(5)
해산	1997(5)	
강계	1997(5)	
풍산	1997(5)	1998(6), 1999(6), 2000(6)
수풍	1997(6)	1999(6)
선영주	-	
구성	1997(6)	2000(6)
평흥	1997(5)	2000(5)
신포	1997(6)	1998(7), 1999(6), 2000(5), 2001(5)
안주	1997(5)	1998(5), 1999(5)
영덕	1997(6)	1998(6), 2000(5), 2001(5)
원산	2000(5)	
평양	-	
남포	1998(5)	2001(5)
창천	1997(6)	2000(5)
사리원	2001(6)	
용안	2000(6)	2001(5)
해주	2000(5)	2001(5)
개성	-	

* () : frequency

연구 결과 (3) - 북한지역에 대한 지역별 가뭄평가와 특성 분석

● Phillips 가뭄지수를 이용한 가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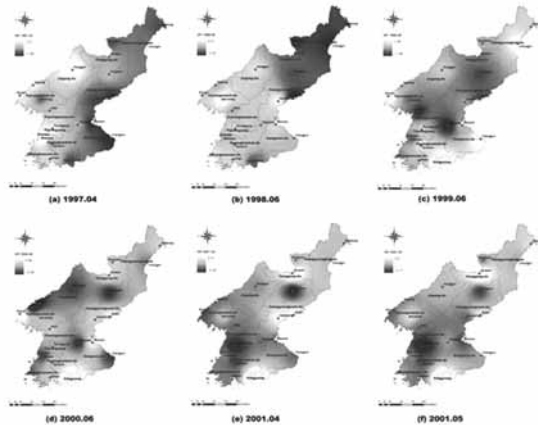
- 가뭄경보 단계는 평균적으로 6.1%의 발생빈도를 나타냄 - 풍산, 수풍, 신포 지역은 가뭄주의보 단계보다 가뭄경보 단계가 더 많이 발생하여 가뭄으로 인한 심각한 어려움이나 피해를 겪었을 것으로 판단됨
- 가뭄주의보 단계는 평균적으로 12.6%의 발생빈도를 나타냄 - 선봉, 강계, 평양, 남포 지역에서 높게 나타남



연구 결과 (3) - 북한지역에 대한 지역별 가뭄평가와 특성 분석

● 표준강수지수를 이용한 가뭄분석

- 1997년 4월 - 함경남도, 강원도 지역에 심한 가뭄상태
- 1998년 6월 - 함경북도, 함경남도, 양강도 지역에 극심한 가뭄상태
- 1999년 6월 - 평안남도 지역에 심한 가뭄상태
- 2000년 6월 - 북한 전역에 심한 가뭄과 극심한 가뭄상태
- 2001년 4, 5월 - 개성 지역을 제외한 북한 전역에서 극심한 가뭄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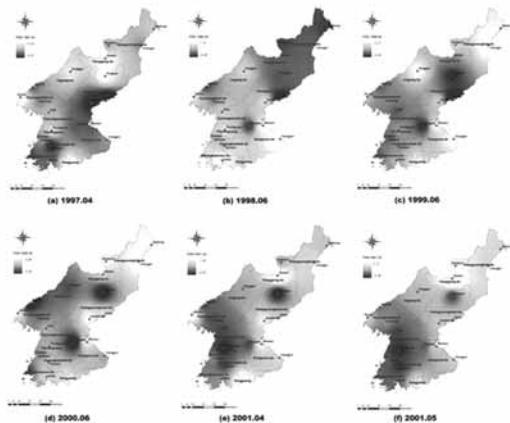


◆ 분석결과 2000년, 2001년에 북한 전역에 극심한 가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연구 결과 (3) - 북한지역에 대한 지역별 가뭄평가와 특성 분석

● 파머가뭄심도지수를 이용한 가뭄분석

- 1997년 4월 - 함경남도, 황해도 지역에 심한 가뭄상태
- 1998년 6월 - 함경북도, 함경남도, 양강도, 평안도 지역에 극심한 가뭄상태
- 1999년 6월 - 함경도, 평안도 지역에 심한 가뭄상태
- 2000년 6월, 2001년 4, 5월 - 북한 전역에 심한 가뭄과 극심한 가뭄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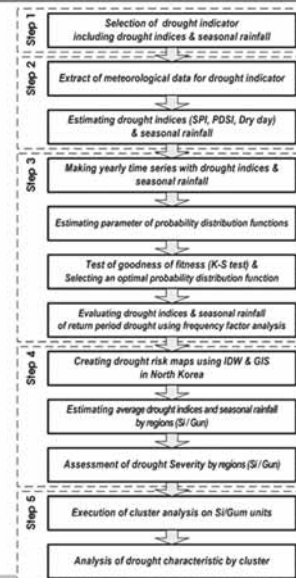


◆ 분석결과 2000년, 2001년에 북한 전역에 극심한 가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연구 결과 (4) - 북한지역 가뭄우심지역의 평가와 분류

● 가뭄우심지역의 평가 및 분류

- 제 1단계 : 가뭄평가지표 선정
- 제 2단계 : 자료추출 및 가뭄평가지표 산정
- 제 3단계 : 가뭄평가지표의 빈도분석
- 제 4단계 : 가뭄지도작성 및 지역별 가뭄평가
- 제 5단계 : 가뭄우심지역 유형화 및 분석



연구 결과 (4) - 북한지역 가뭄우심지역의 평가와 분류

● 1단계 : 가뭄평가지표 선정

가뭄지수	강수량
1. PDSI	1. 연강수량
2. SPI 3	2. 생육기간강수량
3. SPI 6	3. 봄강수량
4. SPI 12	4. 여름강수량
5. 과우일수	5. 가을강수량
	6. 겨울강수량

● 2단계 : 자료추출 및 가뭄평가지표 산정

대상측후소	북한 21개 지역
자료기간	1976년(또는 1981년) ~ 2005년
추출자료	강수량 및 평균기온

연구 결과 (4) - 북한지역 가뭄우심지역의 평가와 분류

● 3단계 : 가뭄평가지표의 빈도분석 [1]

· 가뭄 발생의 위험을 재현기간과 크기로 추정하면 지역별 평가 및 비교가 가능함.

- 빈도분석 분석 과정

- ① 가뭄 지수 및 강수량 산정
- ② 시계열작성 : 연초과치 계열
- ③ 확률분포형 적용 및 매개변수 추정
- ④ 적합도 검정 : K-S 검정
- ⑤ 최적분포형 검정
- ⑥ 비초과확률해석 : California 공식
- ⑦ 빈도별 가뭄 지수 산정 : Chow의 빈도계수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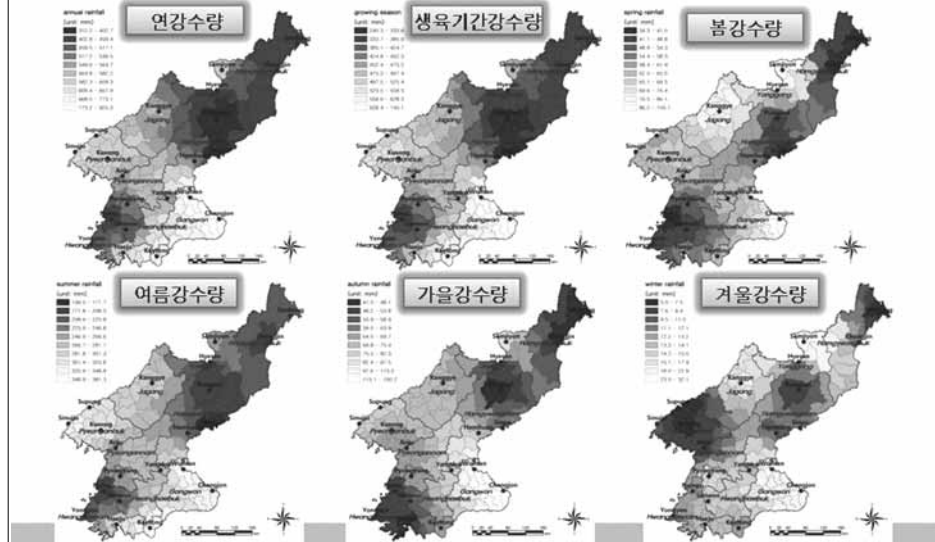
연구 결과 (4) - 북한지역 가뭄우심지역의 평가와 분류

● 3단계 : 가뭄평가지표의 빈도분석 [2]

지역	연강수량	생육기간강수량	봄강수량	여름강수량	가을강수량	겨울강수량	PDSI	SPI 3	SPI 6	SPI 12	과우열수
선봉	418.4	356.6	37.6	219.4	40.1	6.2	-3.499	-2.038	-1.840	-1.689	74
삼지연	622.2	499.9	113.0	269.8	89.4	35.4	-4.092	-2.042	-2.196	-2.119	54
창진	413.0	342.6	30.2	197.2	44.5	12.0	-3.208	-2.031	-1.937	-1.754	75
해산	410.6	353.6	66.6	204.2	50.2	10.7	-4.928	-2.090	-2.001	-2.169	64
강계	576.5	491.4	89.3	298.7	74.9	19.0	-4.138	-1.962	-2.013	-1.977	57
중산	319.0	277.2	44.0	180.5	37.3	6.3	-5.315	-2.357	-2.227	-2.145	73
수종	579.3	521.0	59.3	308.7	86.1	3.6	-5.000	-2.377	-2.030	-2.194	63
신명주	635.7	562.1	64.7	341.0	78.4	10.1	-3.281	-2.146	-1.960	-1.839	61
구성	622.6	545.6	70.7	332.6	66.8	6.8	-3.592	-2.291	-2.057	-1.732	58
함흥	556.3	459.4	57.6	229.1	72.6	9.5	-3.518	-2.234	-2.212	-2.020	67
신포	291.5	221.5	31.9	127.1	55.8	11.7	-6.618	-2.607	-2.757	-3.143	84
안주	562.8	485.2	63.4	258.3	64.0	8.2	-3.755	-2.184	-2.129	-1.897	68
양덕	521.9	451.3	65.4	265.3	73.5	13.3	-5.056	-2.300	-2.215	-2.112	69
원산	959.5	785.1	66.2	396.4	154.6	25.9	-2.527	-2.317	-2.221	-2.430	62
평양	558.1	459.6	53.7	275.6	70.1	16.8	-3.993	-2.211	-2.062	-2.205	68
남포	390.2	305.3	31.9	166.1	45.6	11.6	-3.426	-2.112	-2.054	-1.768	77
창진	957.5	747.2	100.3	337.8	168.7	22.8	-2.923	-1.993	-1.861	-1.971	56
사리원	470.3	379.1	44.5	203.0	56.8	14.7	-3.573	-2.025	-1.958	-2.106	71
용면	473.0	379.4	43.7	217.7	49.1	11.9	-4.047	-2.206	-1.652	-1.626	72
해주	619.8	509.9	59.3	315.3	40.8	13.8	-3.094	-2.101	-1.936	-1.871	63
개성	784.3	665.7	63.5	388.0	67.8	12.5	-2.880	-2.047	-2.051	-1.934	58
평균	559.2	466.6	59.8	263.4	70.8	13.5	-3.927	-2.175	-2.065	-2.033	66
최대값	959.5	785.1	113.0	396.4	168.7	35.4	-6.618	-2.607	-2.757	-3.143	84
최소값	291.5	221.5	30.2	127.1	37.3	3.6	-2.527	-1.962	-1.652	-1.626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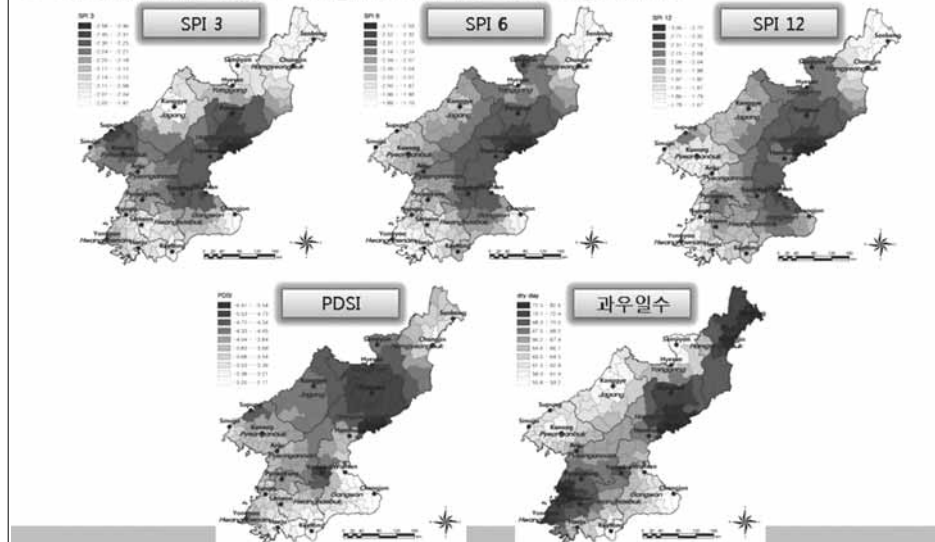
연구 결과 (4) - 북한지역 가뭄우심지역의 평가와 분류

● 4단계: 가뭄지도 작성 및 지역별 가뭄평가(1)



연구 결과 (4) - 북한지역 가뭄우심지역의 평가와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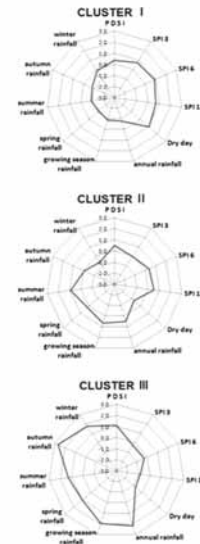
● 4단계: 가뭄지도 작성 및 지역별 가뭄평가(2)



연구 결과 (4) - 북한지역 가뭄우심지역의 평가와 분류

● 5단계 : 가뭄우심지역 유형화 및 분석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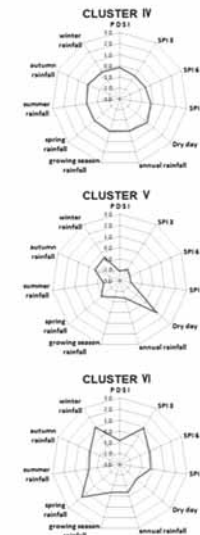
- I 유형 : 계절별 강수량이 모두 부족하지만 SPI, PDSI 가뭄지수의 심도는 비교적 낮은 특징을 가짐
- II 유형 : 가뭄지수의 심도가 비교적 낮고 비교적 강수량이 풍부한 지역으로 가뭄의 내한 능력이 비교적 높은 유형으로 평가할 수 있음
- III 유형 : 북한 내 가장 풍부한 강수량을 바탕으로 가뭄 심도가 제일 낮은 유형임



연구 결과 (4) - 북한지역 가뭄우심지역의 평가와 분류

● 5단계 : 가뭄우심지역 유형화 및 분석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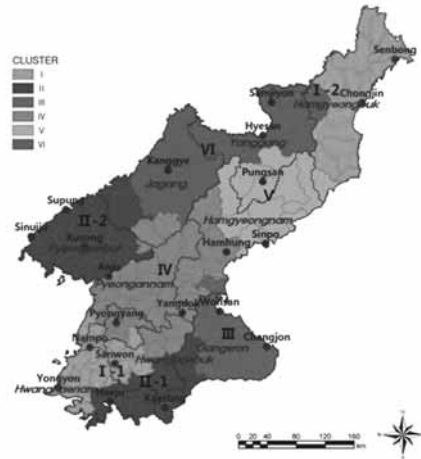
- IV 유형 : 모든 요인이 북한 평균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북한지역 내에서 가뭄 심도가 중간 정도로 평가되는 유형
- V 유형 : 북한 내 대표적인 과우 지역으로써 가뭄에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구분됨
- VI 유형 : 봄과 겨울강수량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지역으로, PDSI의 심도가 특히 낮고 단기간보다 장기간 가뭄에 취약한 지역으로 구분됨



연구 결과 (4) - 북한지역 가뭄우심지역의 평가와 분류

● 5단계: 가뭄우심지역 유형화 및 분석 (3)

클러스터	지역
I	1 황주, 송림, 봉산 등 23개 지역
	2 선봉, 나진, 청진 등 15개 지역
II	1 개성, 김천, 해주 등 20개 지역
	2 신도, 신의주, 송원 등 28개 지역
III	원산, 문천, 구성 등 15개 지역
IV	함흥, 안주, 평양 등 33개 지역
V	김책, 신포, 양덕 등 14개 지역
VI	만포, 혜산, 낭림 등 22개 지역



결론 (1)

- ❖ 북한지역의 가뭄 관련 기록에 따르면 북한은 1997년 이후 수년간 가뭄이 지속되었고, 특히 1999년, 2000년, 2001년 북한 전역에 극심한 가뭄이 발생하였음
- ❖ 연평균 기온은 모든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온상승은 전지구적으로 일어나는 온난화 현상에 수반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됨
- ❖ 강수일수와 강수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가뭄이 발생한 1990년대 후반에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음
- ❖ 또한, 강수일수는 감소하고 호우일수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결과적으로 강수강도가 증가하였음

결론 (2)

- ✱ 과우일수의 경우 1999년, 2000년 에는 대부분의 지역이 10~20년 가뭄빈도에 해당하며, 지역에 따라 50년, 100년 가뭄빈도가 나타나 극심한 가뭄이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됨
- ✱ 정상강수백분율, 십분위의 경우 지역별로 심한가뭄 상태가 나타나는 기간이 1997~2001년 사이에 분포하여 이 시기의 가뭄이 심각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
- ✱ Phillips 가뭄지수의 경우 풍산, 수풍, 신포 지역은 가뭄주의보 보다 가뭄경보가 더 많이 발생하여 가뭄으로 심각한 어려움이나 피해를 겪었을 것으로 판단됨
- ✱ SPI, PDSI의 경우 극심한 가뭄은 1997년, 2000년, 2001년에 발생했으며, 해산, 풍산, 수풍, 신포, 양덕 지역에서 극심한 가뭄의 발생 빈도가 높게 나타났음

결론 (3)

- ✱ 북한지역의 기상학적 요인과 가뭄의 특성을 고려한 가뭄평가를 실시하고 군 집분석을 통하여 가뭄지역을 유형화하여, 각 유형별 가뭄특성을 살펴봄
- ✱ 풍산과 신포를 중심으로 한 V유형에 속한 14개 지역들이 가뭄에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나타났고, 원산과 정전을 중심으로 한 III유형에 속한 15개 지역이 내한 능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기상학적 요인, 즉 강수량을 바탕으로 한 수자원 부족량을 반영하기 때문에 농업 가뭄 평가나 특정지역의 관개시설 계획의 기본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 또한 농업 관련 인자 및 수문학적 자료를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다면, 북한 전체지역의 가뭄 정도와 필요한 수자원 시설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활용 계획

-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북한지역에서의 가뭄재해를 대비하고 기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최근의 지구 온난화와 이상기후로 인하여 가뭄과 홍수의 발생이 빈번해지고 그 피해도 커지는 상황에서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북한의 농업재해예측을 위한 기초자료
 - 북한의 농업재해예방과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북한의 가뭄특성 파악과 이해
 - 북한의 가뭄발생빈도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조성 사업 기초자료로 활용



제7발표

DMZ 지역내 생태환경 보전방안 및 관리지침서 개발

신남식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주승진 (서울대 수의학과 연구원)

1. 연구의 배경

(1) 남북관계 변화와 자연생태계 보전

이산가족 상호방문, 남북경제교류와 같은 최근의 남북화해 분위기의 조성과 북한의 핵무기 감축·폐기를 암시하는 발언은 시대적 흐름을 따르는 북한의 변화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남북통일의 가능성을 한층 높이고 있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오랜 바람이자 염원이지만 일각에서는 통일 후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어려움을 예견하고 그 타개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통일 사업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환경과 야생동물을 포함한 자연생태계 분야에서도 통일 후에 급격하게 이어질 변화에 대한 위해가 예상되고 있다. 경제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서 산림지역, 농경지, 수환경 등 자연환경에 인위적인 개발이 가해지는 것은 예측가능한 일이다.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더 나은 생활을 위한 개발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환경생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많은 개발대상 용지들이 환경적으로 잘 보전되어 온 지역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걸쳐서 체계적이고 환경 친화적으로 개발되어야만 한다.

이미 주거환경이 조성되어 있거나 공장, 개발용지 등 경제구역으로 개발되어 있는 곳을 통일 후의 변화에 발맞춰서 새롭게 정비하기 위해서는 토지수용 문제 해결, 공청회를 통한 민원처리 등 개발이전에 선결되어야 할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반면,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산림과 초지, 수환경은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 사회간접 인프라만 제공된다면 적은 비용투자로 쉽게 개발을 할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통일 후 자연환경의 이용은 보전의 논리보다는 개발의 논리가 중시될 가능성이 높다. 즉, 70년, 80년대의 우리나라 남한의 경제개발 상황처럼 자연환경의 파괴는 가시화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자연생태계의 위해는 가속화되고 심각해져서 난개발의 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다.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난개발은 비단 환경보호론자의 논지뿐만이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억제되고 통제되어야 할 사안이다. 자연생태계의 파괴를 완전히 막지 못한다면 전체 환경에 대한 큰 마스터플랜을 먼저 설정하고 난 이후에 개발 사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야생동물의 생존과 서식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서식지의 파괴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필연적으로 서식지의 절편화,

단편화가 뒤따르게 된다. 따라서 개발에 따른 서식환경 위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연생태계 적절한 위치와 환경에 서식지 연계시설(생태통로)의 조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는 전략을 구축해야만 한다.

(2) DMZ 야생동물 보전과 생태통로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자연환경과 야생동물 보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를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서 2006년 현재 전국의 국도와 지방도를 중심으로 약 33개의 서식지 연계시설이 조성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연계시설은 전 세계적으로 터널형, 다리형(교량형) 및 자연통로형 등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조성비용은 많이 들지만 야생동물의 활용도가 높은 자연통로형은 배제하고 전자의 두 유형만이 도입되어 있다. 도로건설, 개발사업 등이 진행되면서 연계시설을 조성하고는 있지만 체계적인 생태조사자료나 현장에 맞는 구조와 내부구조물을 간과한 채로 보편적인 설계기준에 따라서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조성 후의 효용성에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남한과 북한이 휴전상태로 접어들지 반세기를 넘어서면서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지인 DMZ과 인근의 민통선 지역일대(CCZ)는 사람의 접근과 경제활동 등 인위적인 개발과 간섭이 철저하게 통제되어 왔다. 그 결과 지난 50여년 사이에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증가하고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온 세계적인 환경보전지역으로 발전되어 왔다. 이 지역은 세계적인 희귀동물이자 천연기념물 제 216호로 지정되어 있는 사향노루(musk deer)가 서식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천연기념물 제 217호인 산양(Korean goral), 제 328호인 하늘다람쥐(flying squirrel), 제 329호인 반달가슴곰(Asiatic black bear), 제 330호인 수달(Eurasian river otter) 등이 서식하는 것이 확실시되며, 이외에도 남한에서는 절종한 것으로 알려진 호랑이와 표범, 스라소니 등이 서식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그러나 이 지역도 통일이 되고 난 후에는 사정이 달라질 것이다. 남북한 교류를 위한 도로개설, 많은 지역주민의 급격한 유입이 가시화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경제활동, 차량통행량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자연생태계의 파괴를 가져올 것으로 추론가능하다. 전체 개발계획이 잡혀있지 않은 난개발이 난무하고 서식지의 절편으로 인한 유전적, 지리적 고립화는 생태적으로 안정적인 서식개체수에 이르지 못한 많은

야생동물 종은 짧은 시간 내에 멸종으로 치달을 수 있다. 야생동물은 살아있는 개체 수의 감소와 소실로 한번 멸종으로 치달으면 절대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이기에 멸종이전에 치밀한 계획과 보완을 통한 관리가 요구된다. 통일 후에 대비한 정확한 생태조사와 이를 기초로 한 서식지 연계시설을 조성해서 종의 유지와 자연생태계의 보전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생태통로 조성지침서는 현장의 위치, 식생, 해발, 경사도, 절단현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제시된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조성 후에도 야생동물의 이용현황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조성 후의 모니터링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북한의 산림생태계는 우리나라의 자연환경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조성지침을 적용하는 것도 무리가 따르는 일이다. 조성후 야생동물의 이용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설물의 조성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며 북한을 위시한 민통선지역, DMZ 지역 현장에서 쉽게 접목할 수 있는 지침서를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본 연구는 남한과 북한의 통일 후에 필연적으로 닥치게 될 자연환경 개발시대에 대비해서 DMZ와 민통선내의 특정지역에 새로운 야생동물 서식지 연계시설물(생태통로)을 도입·적용하기 위한 지침서를 개발하고 선도 계획을 수행함으로써 실시설계 기법을 개발하는데 최종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에 기 조성되어 있는 야생동물 서식지 연계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며 새롭게 생태통로를 조성할 때 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지침서를 개발한다.

2. 서식지 연계시설(생태통로)의 필요성

(1) 서식지 연계시설의 정의와 개념

참조: 생태통로의 유사어

- 국내 : 야생동물 이동통로, 동물 이동통로, 생태통로, 자연통로(이동로).
- 국외 : wildlife corridor, wildlife crossing, wildlife passage, conservation corridor, fauna passage, ecological corridor, eco-corridor, greenway, natural corridor.

여러 가지 형태의 인간 활동은 그 동안 많은 생태계를 단편화하고 고립시켜 전반적인 생물의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의 중심이 되었다. 특히 서식지 단편화는 야생동물 종의 쇠퇴원인으로 알려져 왔다. 일반적으로 동물 개체군을 더욱 작고 고립되게 만들며, 개체군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지역적 절멸의 위험에 더욱 취약하게 된다. 따라서 단절된 생태계에서 서식하는 야생동물들의 원활한 생태적 및 유전적 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설치하는 인위적 시설물로서, 전체 생태계의 건전성과 생물의 다양성을 유지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환경부, 2003). 자연환경보전법에도 생태통로(ecological corridor)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데, 제 2조 제9항에 “생태통로라 함은 도로, 댐, 수중보, 하구언 등으로 인하여 야생 동식물의 서식처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식물의 이동을 돕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구조물과 식생 등의 생태적공간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인공적으로 설치되는 구조물과 식생지대 뿐만 아니라 종의 확산과 이동을 위해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자연지역을 우선적 요소로 여기고 있다(환경부, 2003).

(2) 생태계 단편화와 생태통로의 중요성

생태계 단편화(ecosystem fragmentation)는 하나의 생태계가 여러 개의 작고 고립된 형태로 분할되는 현상으로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주거지, 농경지, 체육시설, 택지개발, 산업단지 등의 각종 개발 행위에 의하여 발생되어진다. 특히 도로와 철도 건설의 선형적인 개발은 생태계를 단절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다. 우리나라의 도로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면적당 도로의 연장도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그 가운데 경기도와 울산광역시는 많은 위성도시 개발과 각종 기반 시설의 증가 등에 따른 도로의 확충에 의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면적당 도로 연장의 증가율을 보였다(건설교통부, 2003). 국립공원을 횡단하는 도로의 수는 41개에 달하며 백두대간(670km)을 가로지르는 도로는 1990년에 23개에서 2002년도에는 72개로 2.13배 증가하였다. 백두대간의 주요 고개마다 포장도로가 개설되면서 생태계의 단절을 초래하였고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상 도로의 급경사 절개면으로 인한 생태적 녹지축의 단절과 야생동물의 서식지 훼손의 피해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각종 도로 건설에 따른 녹지축 단절이 96037km에 이른다. 더욱이 도로개설로 인한 서식지 단절에 따른 환경 속에서 야생동물의 도로횡단에 따른 로드킬(road-kill)은 연간 348건에 이

르고 있다 환경부의 2006년도 전국 로드킬 야생동물의 실태조사에서 관찰된 로드킬 야생동물은 포유동물 16종 총 921마리로 이중 너구리가 308마리, 족제비 280마리, 청설모 146마리로 나타났다. 조류는 총 23종 177마리, 양서류는 4종 6마리, 파충류는 총 7종 43마리가 관찰되었다. 로드킬의 계절적 분포를 살펴보면 가을철에 가장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한편 경부고속도로와 같이 통행량이 매우 많고 인간의 간섭이 크거나 고도의 토지이용이 나타나는 도로에서는 야생동물의 로드킬 사고가 보고되지 않고, 통행량이 적고 자연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도로에서 로드킬의 발생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야생동물의 로드킬은 도로의 인접지대의 개발 현황과 통행량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서식지연계시설의 역할 및 종류

생태통로는 서로 단절된 서식지 사이에 야생동물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여 주기적인 이동을 하는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곤충, 어류 등을 포함하는 야생동물에 넓은 행동권 및 세력권을 제공해준다. 이를 통해 종의 다양성을 높이고 서식 개체수를 증가 시키며 장기적으로 종의 생존율을 확보한다. 또한 국지적으로 멸종된 야생동물의 새로운 정착과 유전적 다양성을 높일 수 있다. 원활한 이동을 통해서 서식지의 위해요소로부터 도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고 생태통로 자체가 서식지와 피난처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결국 단편화된 생태계의 연결을 통해 생태계의 지속성을 이어가고 인간 활동에 의한 과도한 개발의 억제 효과 및 야생동물에 대한 심미적, 교육적인 가치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 이외에도 생태통로는 부정적인 역할과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급격한 야생동물의 증가로 인한 인수공통 질병의 증가와 산불과 같은 재난에 쉽게 노출 될 수 있고 외래종의 확산을 용이 하게 할 수 있다, 더욱이 본래 생태통로의 목표종으로 하는 대상동물 이외의 생물상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방향은 예측하기 어렵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생태통로의 효과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든다.

종 류	내 용	비 고
육교형 (상부통로형)	횡단부위가 넓은 곳, 절토지역 혹은 장애물 등으로 동물을 위한 통로 설치가 어려운 곳에 만들어지는 통로. 도로 위를 횡단하는 육교 형태로 설치함.	Ecoduct/ Overbridge
선 형	도로, 철도 혹은 하천변 등을 따라 길게 설치된 통로. 식생이나 돌담 등을 이용한 설치 통로.	Hedgerow, Fencerow, Shelterbelt
터널형 (하부통로형)	인간의 영향이 빈번한 지역이며, 육상 통로를 설치하기 위한 연결지역이 지상에 없는 경우, 또는 지하에 중소 하천이 있는 경우 만들어지는 통로임.	Culvert, Box, Pipe

(자료: 환경부, 2003)

생태통로는 그 형태에 따라 육교형, 선형, 터널형 통로로 3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또한 설치 규모에 따라 생태통로는 대규모(global scale), 지역적(regional scale), 국지적(landscape scale), 소규모(fencerow scale) 통로 등의 4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구 분	내 용	설치 대상지역
대규모 통로	국제적 혹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진 대규모 통로	이태리와 스위스의 야생동물보호구역을 연결한 통로처럼 국가간 또는 대단위 지역간의 생태계 연결
지역적 통로	핵심지역(Core area) 사이 등을 연결하는 지역적 이동통로	그린네트워크화 사업과 같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혹은 각 지역의 생물서식공간 연결
국지적 통로	국지적인 규모의 이동통로	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통로
소규모 통로	특정지역에 설치된 소규모 이동통로	생울타리, 돌담 등과 같이 인접지역에 위치한 특징적인 환경을 서로 연결하는 작은 통로

(자료: 환경부, 2003)

3. 서식지 연계시설(생태통로) 조성현황 조사

(1) 서론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 건설은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많은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을 도모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다. 2003년도의 건설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고속국도가 2778km, 일반국도 14232km,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18224km, 지방도 17084km, 군도 23702km, 그리고 시도 20017km 등으로 총 연장 길이는 96037km에 달하고 2020년까지는 동서9개축, 남북7개축의 총연장 6160km의 격자형 고속도로망을 구축할 계획으로 건설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각종 도로 건설은 대규모 개발지역을 선형으로 연결시키는 요소로서, 개발지를 둘러싼 산림과 자연녹지의 단절을 가져온다(한봉호 등, 2005). 이러한 교통시설들은 결국에는 야생동물의 이동 및 서식처를 훼손시키고 각종 생태계를 파편화 시키며,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생물종 고립화 심화 및 생물종다양성 저하를 일으킬 것이다. 더욱이 고속도로에서의 야생동물 교통사고(road-kill)발생은 1998년도 105건에서 2003년도에 940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생물종 유지와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시설에 대해 최근 그 피해를 적게 하기 위한 환경 친화적인 교통시설물을 건설하고자 생태통로(ecological corridor)의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생태통로는 “도로, 댐, 수중보, 하구언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식물의 이동을 돕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구조물과 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을 말한다. Forman(1995)와 Fleury and Brown(1997)에 따르면, 생태통로 조성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동통로 기능, 서식처 조성 기능, 종 공급과 수요처 기능, 생태계 연결성 유지 기능을 통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증대하는 것이다. 특히 야생동물의 이동을 위한 생태통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2002년 12월에 환경부에서는 21세기 한반도 생태공동체 건설을 위한 생태네트워크 구축의 가장 강력한 위협요인으로 도로·철도 등 선형 구조물로서 분석하고 생태계의 단절 및 파괴를 막기 위해 환경부를 비롯하여 건교부 와 지자체에 의해 2003년까지 설치된 생태통로는 48개소에 이른다. 앞으로 환경부에서는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대규모의 생태통로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생태통로 조성을 위해서는 구조물의 규모와 형태, 유도시설의 설치, 햇빛 및 소음

차단시설, 포식자 방지시설, 바닥의 포장, 식재수종 및 기법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 많은 생태통로가 조성되고 있지만, 생태통로 조성이 생물이동 기능을 고려하기보다는 형식적 조성에 그치고 설계기준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그 이유으로써 실제로 어떤 생물이 살고 있는지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이 제대로 수반되지 않는 경우(전익요 등, 2006)와 생태통로에서 식재는 기존의 조경공간과 다른 수종의 식재패턴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으로 식재가 없는 경우(김명수, 2005)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야생동물의 도로 횡단 특성에 관한 연구와 실질적으로 생태축이 단절 되어 동식물의 이동 유무에 관한 조사의 부족들은 결과적으로 생태통로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으로써 부각되고 있다(김명수 등, 2005; 이용욱과 이명우, 2006).

현재 국내에서 많은 생태통로가 조성되고 있지만 생태통로 조성을 위한 설계기준이 부족하고 실제로 이동 가능한 종을 고려하지 않은 생태통로가 설치되고 건설되어지고 있다. 이에 본보고서는 기 조성된 생태통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실제 야생동물들의 이용 현황을 조사하여 기 조성된 생태통로의 개선 및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앞으로 조성될 생태통로의 위치 및 구조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보완방법을 제시한다.

(2) 연구의 범위와 조사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전국에 소재하는 생태통로 48개소(전국 생태통로 설치현황, 2003년 말) 중 확인 가능한 15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생태통로 설치형태는 육교형, 박스형(터널형, 하부통로형), 파이프형(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조사는 2006년 10월부터 2007년 9월까지 12개월 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인 생태통로목표지점의 자연환경 및 입지분석, 동물서식, 분포현황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은 야생동물류 중 특정종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조류 등을 조사하였으며, 생태통로 내부 식생뿐만 아니라 주변의 주요 기존 식생을 조사하고 주변의 토지 이용 현황을 기록하고 파악하였다.

<참조> 전국 생태통로 설치 현황(48개소)

(2003년 말 현재)

일련 번호	도로구분	행정구역명	도 로 명	설 치 위 치	설치형태	설치 년도
1	국도	경기 파주시	1호선	군내면 점원리(좌)	터널형	2001
2	국도	경기 파주시	1호선	군내면 점원리(우)	터널형	2001
3	국도	경기 여주시	37호선	북내면 현암리	터널형	2001
4	국도	경기 의정부시	3호선	사패산	터널형	1998
5	국도	강원 양양군	56호선	서면 갈천리(구룡령)	육교형	2000
6	국도	강원 영월군	31호선	상동읍 천평리(화방재)	육교형	2003
7	국도	강원 정선군	42호선	임계면 직원리(백봉령)	육교형	2003
8	국도	강원 강릉시	35호선	왕산면 송현리(삽당령)	육교형	2003
9	국도	강원 평창군	6호선	도암면 (진고개)	육교형	2002
10	국도	강원 인제군	44호선	북면 한계리(한계령)	육교형	2003
11	국도	강원 고성군	46호선	간성읍 진부리(진부령)	육교형	2003
12	국도	충북 단양군	5호선	대강면 용부원리(죽령)	터널형	2003
13	국도	전북 완주군	17호선	고산면 남봉리	터널형	1999
14	국도	전북 진안군	30호선	마령면 강정리	터널형	2000
15	국도	전북 군산시	27호선	성산면 고봉리	터널형	2000
16	국도	전북 군산시	27호선	임피면 축산리	터널형	2000
17	국도	전북 군산시	27호선	임피면 축산리	터널형	1999
18	국도	전북 남원시	24호선	이백면 양가리(여원재)	육교형	2003
19	국도	전북 장수군	26호선	장계면 장계리(육십령)	육교형	2002
20	국도	전북 무주군	30호선	무풍면 금평리(덕산재)	육교형	2003
21	국도	전남 고흥군	27호선	풍양면 상림리	터널형	2000
22	국도	경북 문경시	3호선	마성면 신현리	육교형	1999
23	고속국도	전북 장수군	대전-통영	계북면 원촌리	터널형	2001
24	고속국도	경남 통영시	대전-통영	광도면 황리	터널형	1999
25	고속국도	강원 원주시	중앙선	횡성읍 갈풍리	터널형	2001
26	고속국도	강원 원주시	중앙선	횡성읍 갈풍리	터널형	2001
27	고속국도	강원 강릉시	동해선	사천면 석교리	육교형	2001
28	고속국도	강원 강릉시	영동선	성삼면 보광리	터널형	2001
29	고속국도	강원 강릉시	영동선	성삼면 석교리	터널형	2000
30	고속국도	경기 여주군	중부내륙선	가남면 금당리	터널형	2000
31	고속국도	충북 충주시	중부내륙선	주덕읍 솔고개	터널형	2001
32	지방도	경기 의왕시	312호선	오봉산	육교형	1999
33	지방도	전북 무주군	635호선	노루고개	터널형	2001
34	지방도	전남 구례군	861호선	시암재	터널형	1998

일련 번호	도로구분	행정구역명	도 로 명	설 치 위 치	설치형태	설치 년도
35	도시계획도로	서울 강북구	오현길	오동근린공원	육교형	2000
36	도시계획도로	서울 금천구	신림-안양간	삼복터널	터널형	2000
37	도시계획도로	경기 의왕시	시도(도시계획)	청계동	터널형	2001
38	도시계획도로	경기 평택시	종로1-8호선	송복동	육교형	2000
39	도시계획도로	충북 청주시	동부우회도로	우암산터널	터널형	1999
40	도시계획도로	부산 연제구	황령산순환도로	황령산	터널형	2001
41	도시계획도로	충남 아산시	남산순환도로	남산	육교형	1995
42	시군도	경기 남양주시	군도 13호선	도곡리	터널형	2001
43	시군도	충남 당진군	군도 1호선	면천면 죽동리	육교형	2001
44	시군도	경남 창원시	창원-진해	안민고개	육교형	2000
45	시군도	경남 남해군	군도 10호선	남면 흥현고개	터널형	2001
46	국가지원 지방도	제주 북제주군	95호선	북제주군 원동	터널형	2002
47	국가지원 지방도	제주 북제주군	95호선	북제주군 모달봉	터널형	2002
48	국가지원 지방도	제주 북제주군	95호선	북제주군 모달봉	터널형	2002

 : 환경부 시범설치(백두대간내)

 : 건교부 설치(백두대간내)

2) 조사의 방법

현지 생태통로의 조사는 첫째, 조성된 생물 이동통로와 주변 지역의 연결 형태 및 이동 통로 내부의 지형 구조 파악을 위하여 생태통로 중심부에서 도로를 기준으로 수직, 수평으로 단면구조를 분석하였다. 둘째, 야생동물 서식구조는 생물 이동통로를 중심으로 연결된 산림 및 주변 영향권을 대상으로 육안 및 쌍안경으로 관찰지역의 토지이용, 우점종, 층위 구조를 기록하고 야생동물의 서식구조는 관찰 지점의 교목, 아교목, 관목, 초본의 분포 상태를 조사하였다. 셋째, 야생동물의 생태통로 이용현황을 관찰하기위해서 연계시설 주변의 서식지내에서 발자국조사, 흔적조사, 야생동물의 이동 방향 등을 조사하여 서식종 및 개체수 현황을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흔적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생태통로 이용여부를 평가했다. 또한 직접 관찰이 어려운 야생동물인 경우는 생태통로에 무인 센서카메라를 설치해서 서식 및 이용현황에 대한 자료를 보충·수집하였다.

<참조 2> 생태통로 조사일지

조사일자			설치년도				
조사지명			사업비(백만원)				
조사자			기상(날씨)				
사업기간			공사개요				
추진목적							
규모	대규모통로(Global scale corridor)		형식 (설치 형태)	육교형=상부통로형			
	지역적통로(Regional scale corridor)			박스형 = 터널형(하부통로형)			
	국지적통로(Landscape scale corridor)			파이프형 =선형			
	소규모통로(Fencerow scale corridor)						
식생 (우점립)	좌:	우:	바로 옆 식생	분류	유무	높이(m)	개수(m²)
단절형태	산-산	산-평지		큰나무			
	산-하천	평지-평지		작은나무			
	평지-하천	하천-하천		풀			
				넙쿨			
			식생없음				
위도			경도				
위치	주소:						
	()번 도로						
	GPS좌표 :						
노선유형	직선		도로유형	왕복4차선			
	곡선			평지2차선			
	변환구간			강변2차선			
중앙분리대	있음		도로경사도	산악2차선			
	없음			88고속도로			
중앙분리대 아래	떠있음		도로경사도	오르막, 내리막, 평지, 변환구간 경사도()도			
	붙어있음			법정속도			
	봉						
가드레일	철판, 옹벽, 방음벽, 콘-박스, 와이어, 없음						

유도웁스	무 / 유:	유도수림대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설치위치 :		
	격자규격 :		
	높이:	제초작업	
	설치길이 :		
소음벽	무 / 유:	방음벽	무 / 유:
형식 및 규모	폭 :		
	길이 :		
	높이 :		
	복토량 :		
대상종		동물주요서식지	무 / 유:
배식상태	초본류, 관목류, 아교목류, 천근성교목류, 심근성교목류	교통사고 다발지역	
주변토지이용	하천, 논, 밭, 숲, 초지, 주거지, 도로, 과수원 I·C		
절성토	절토, 성토, 없음		
도로(단위:m)	전체폭	이동통로	식생
	차선		차단막설치: H / L
	노면폭		유도웁스: H / L
	포장상태		
동물보호시설물	표지판	생태통로 설치간격	
교량연장	무 / 유:	탈출구가 있는 측구	
인공구조물	인공연못		
	숨을공간(통나무 그루터기, 방음벽, 수로, 유도수림, 돌무더기)		
전이대	(Buffer zone)	조경배식	중심부 :
초본도입			주변부 :
특정 생태통로	농사형 육교와의 겸용 생태통로 (농경지 사이 관통하는 도로에 설치하는 육교)		
	특정종을 위한 생태통로 (양서, 파충류, 수달, 박쥐, 조류집단서식지, 도래지, 사슴류 탈출대)		

사후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후 동물이동 모니터링(카메라, 모래판, 잉크판, 생포틀)								
	조경 및 시설물 관리상태 : 식생, 유도웬스, 인공연못 등								
기타 야생동물이동 방해요소									
기존동물이 이용하던 자연통로									
능선부의 단절유무	유 : 터널화가 우수한 방법/ 불가능시 단절면 양측에 박스형대치 생태통로 사이에는 유도 웬스를 설치한다								
이용실태(발견동물, 흔적)									
대상동물	발자국(단위mm)				배설물(단위:개)				기타흔적
	크기 이동 횟수				장소 배설량				
	크기 이동 횟수				장소 배설량				
	크기 이동 횟수				장소 배설량				
	크기 이동 횟수				장소 배설량				
	크기 이동 횟수				장소 배설량				
기타의견	위치선정기준								
	대상동물기준								
	규모선정기준								

(3) 결과 및 고찰

1) 전북 무주군 노루고개 (제635번 지방도)

○ 조성상태 :

- 구조물 상판의 식생 : 상층은 소나무, 하층은 잔디 및 토지가 노출된 형태로 관찰되지만, 시기적인 측면으로 인해 정확한 식생의 동정이 쉽지 않았음.
- 규모 : 국지적, 소규모 통로로서 상부통로인 육교형임.
- 인공구조물 : 설치되어 있지 않음.

○ 주변 환경 현황

- 도로를 경계로 구릉지대가 분리되어 있고, 지방도 635호선이 노루고개를 가로질러 건설되어 있음.
- 도로는 왕복2차선의 포장도이며 동물보호시설물인 표지판은 설치되어 있음.
- 야생동물로 추정되는 토양의 닳은 정도 및 고라니 및 멧토끼의 분변 등의 증거가 파악되어 이동통로를 이용하는 동물의 종이나 개체 확인의 추정이 가능함.

○ 고찰

전북 무주군 부남면 장안리의 노루고개에 위치한 야생동물 이동통로는 설치 및 관리상태, 동물들의 이용 상태로 미루어 보아 위치는 적절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몇 가지의 보완점이 제시될 수 있다.

- 이동통로가 설치된 지점은 도로에 의해서 서식지가 단절되었으며 그로 인해 서식지가 분리되어 있고, 야생동물의 분변을 비롯한 흔적이 관찰되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야생동물의 이동에 이동통로가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판단됨.
- 그러나, 돌무더기나 나무그루 같은 소형 설치류를 위한 장치는 설치되지 않아 주로 중형이상의 동물에 대한 장치만이 설치되었다고 판단됨.
- 주, 야간의 소음 및 불빛의 발생에 대해 이동통로 상부와 주변부에 목재로 방음, 차단펜스가 설치되어 있고 방음, 차단벽은 설치되지 않아 야생동물이 이동통로를 이용하는 빈도를 감소시킬 수 있음. 따라서 야생동물에게 빛이나 소음 등의 자극을 차단하고 이동통로로 유인할 수 있는 담장 등의 장치의 설치가 요구됨.
- 시기적인 영향은 존재하지만 반대편의 시야가 어느 정도 확보되며 조성된 식생

으로 인해 동물들이 이동할 수 있는 폭은 확보되어 이동통로에 의한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하지만 이동통로 상부를 연결하는 좌우 입, 출구의 중앙부에 대한 경사도가 상당히 급하여 장마와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토양의 유실이 우려되며 실제로 부분 유실이 관찰되었음.

- 야생동물의 도로횡단을 막고 이동통로의 접근을 유도하는 유도펜스는 설치 상태가 양호하였지만 관리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발견되었고, 좌우의 경사가 가파른 폭 4m의 이동통로는 토양의 다지기 작업이나 지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여겨짐.



그림 1 전북 무주군 노루고개 야생동물 이동통로 전경



그림 2 전북 무주군 노루고개 야생동물 이동통로 상부 전경

2) 전북 무주군 무풍면 금평리 덕산재(제30번국도)

○ 조성상태 :

- 구조물 상판의 식생 : 상층은 소나무, 하층은 잔디가 주종을 이룸.
- 규모 : 국지적, 소규모 통로로서 상부통로인 육교형임.
- 인공구조물 : 구조물은 설치되어 있지 않음. 대신 중형의 돌들이 군데군데 놓여 있음.

○ 주변 환경 현황 :

- 덕산재 야생동물 이동통로의 남쪽으로는 가야산 줄기가 위치해 있고 북쪽으로는 민주지산, 삼도봉의 백두대간 산줄기가 자리해 있음.
- 국도30호선 건설공사시 산맥을 따라 위치하고 있는 구간을 개선한 후 발생한 단절된 서식지를 연결하기 위해 야생동물이동통로를 연결함.
- 도로는 3차선의 포장도이며 동물보호시설물인 표지판은 설치되어 있음.

- 야생동물 또는 사람의 영향으로 추정되는 바닥재의 닳은 정도가 파악되며 고라니, 멧토끼 분변 등의 증거가 관찰되어 이동통로를 이용하는 동물의 종이나 개체의 추정이 가능함.

○ 고 찰

- 주변 통행량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어 주, 야간의 소음 및 불빛의 발생이 불가피하지만 이동통로 상부를 포함하여 와이어를 이용한 유도펜스만이 설치되어 있고 방음벽 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소음이나 빛으로부터 야생동물이 영향을 받지 않게 하며 도로의 횡단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물의 설치나 피해 방지대책이 제공되지 않음.
- 야생동물은 특징적으로 건너려고 하는 통로의 반대편 시야가 확보되어야 불안함을 갖지 않고 통행을 할 수 있는 사항은 고려하면 경사면인 지리적 위치로 인해 반대편의 시야가 일정부분 확보됨.
- 토양의 깊이가 깊지 않아 강우 등에 의한 영향으로 유실의 가능성이 보임.
- 또한 야생동물이동통로가 인근 등산로로 이용되고 있는 흔적은 거의 보이지 않아 주간에도 야생동물의 이동효과를 이끌어내기 용이하며 또한 야간에도 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임. 주위에 별다른 구조물이 없이 평야지대로 이어지는 지리적 조건으로 야생동물의 이용률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으로 판단됨.



그림 3 전북 무주군 무풍면 금평리 덕산재의 야생동물 이동통로 전경



그림 4 전북 무주군 무풍면 금평리 덕산재 야생동물 이동통로 상부 전경



그림 5 야생동물 이동통로 상부의 야생동물(고라니) 분변흔적

3) 강원 강릉시 왕산면 송현리 삽당령 (제35번국도)

◎ 조성상태 :

- 구조물 상판의 식생 : 상층은 소나무, 하층은 잔디 및 토지가 노출된 형태로 관찰되지만, 시기적인 측면(2월)으로 인해 정확한 식생의 동정이 쉽지 않았음.

- 규모 : 국지적, 소규모 통로로서 상부통로인 육교형임.
- 인공구조물 : 나무그루터기, 돌무더기 등의 소형설치류를 위한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 주변 환경 현황

- 도로를 경계로 산과 산이 분리되어 있고, 35번 국도가 백두대간의 일부인 삼당령을 가로질러 건설되어 있음.
- 도로는 왕복2차선의 포장도이며 동물보호시설물인 표지판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대신 이동통로의 중앙부에 가시화된 팻말과 이동통로 부근 도로 우측에 야생동물출현을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해 놓음.
- 야생동물로 추정되는 토양의 닳은 정도 및 고라니 및 오소리 분변 등의 증거가 파악되어 이동통로를 이용하는 동물의 종이나 개체 확인이 가능함.

◎ 고 찰

- 이동통로가 설치된 지점은 도로에 의해서 서식지가 단절되었으며 그로 인해 서식지가 분리되어 있고, 야생동물의 분변을 비롯한 흔적이 관찰되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야생동물의 이동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됨.
- 이동통로 상부와 주변부에 목재로 방음, 차단벽이 설치되어 있어 야생동물이 이동통로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불필요한 조건을 차단함. 또한 이동통로로 야생동물을 유도할 수 있는 유도펜스도 설치되어 있어 야생동물의 이용에 앞에서 제시한 제한 이외에는 특이적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소형 설치류를 위한 나무 그루터기와 돌무더기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나무들의 밀도는 조밀하지 않아 시야확보가 가능한 조건이지만 아치형의 이동통로 형태는 시야를 방해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여 야생동물이 이동통로를 이용하기에 제한사항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이용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무인감시 카메라를 설치하여 이동통로의 이용여부를 조사하는 자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음.



그림 6 강원 강릉시 왕산면 송현리 삼당령 야생 동물 이동통로의 유도펜스 설치사진



그림 7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차단벽

4) 경상북도 문경 마성면 신현리(제3번국도)

○ 조성상태 :

- 도로로부터 높이 15m, 폭 24m, 너비 25m.
- 구조물 상판의 식생 : 상층은 소나무로 통로중앙의 높이는 5 m, 입구의 높이는 1.5 m이며, 중층은 진달래, 그리고 하층은 잔디가 주종을 이룸.
- 규모 : 국지적, 소규모 통로로서 상부통로인 육교형임.
- 인공구조물 : 작은 설치류등을 위한 돌무더기가 수 곳 설치되어 있음.

○ 주변 환경 현황

- 영강을 경계로 대규모의 서식지가 분리되어 있고, 국도 3호선이 영강과 조령천을 따라 건설되어 있음.
- 국도3호선의 확장 공사시 영강을 따라 위치하고 있는 원형의 구간을 개선한 후 발생한 단절된 서식지를 연결하기 위해 야생동물이동통로를 연결함.
- 야생동물 이동통로의 동쪽은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위치해 있으며 북동쪽 산악지대는 터널이 위치해 있음.
- 도로는 4차선의 포장도이며 동물보호시설물인 표지판은 설치되어 있음.
- 야생동물 또는 사람의 영향으로 추정되는 바닥재의 닳은 정도가 파악되었으나 분변 등의 증거는 파악이 되지 않아 이동통로를 이용하는 동물의 종이나 개체 확인이 불가능함.

○ 고 찰

경북 문경 마성면의 야생동물 이동통로는 설치 및 관리 상태로 미루어 보아 적절한 위치 및 계획으로 설계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몇 가지 현상이 관찰되고 있으며,

보완점이 제시될 수 있다 하겠다.

- 이동통로가 설치된 지점은 도로에 의해서 서식지가 단절된 다른 지역의 야생동물 이동통로와는 달리 영강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 서식지가 분리되어 있고, 실제로 영강 북동쪽 서식지의 일부만이 도로에 의해 단절되어 있으며 야생동물 분포조사에서도 이동통로상의 야생동물의 분포는 거의 발견되지 않아 야생동물의 이동에 이동통로가 기여하지 못한 점을 나타냄.
- 주변 통행량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어 주, 야간의 소음 및 불빛의 발생이 불가피하지만 그로부터 야생동물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구조물의 설치나 피해 방지대책이 제공되지 않음.
- 야생동물은 특징적으로 건너려고 하는 통로의 반대편 시야가 확보되어야 불안함을 갖지 않고 통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통로 상부의 식생이 미적인 경관조성을 위해 조밀하게 조성되어 있어 반대편의 시야가 확보되기 어려움. 또한 조성된 식생으로 인해 동물들이 이동할 수 있는 폭은 3.5m정도로 이동통로에 의한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또한 야생동물이동통로가 인근 도정산으로 이르는 등산로로 이용되고 있어 주간의 야생동물 이동효과를 이끌어내기 어려우며 야간에만 제한적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임. 또한 주변에 무선송신탑 등이 설치되어 있어 시설물의 관리자의 왕래에 의한 인적의 출현은 더욱더 이용률을 낮게 하는 원인으로 판단됨.
- 하지만, 인위적인 조성상태를 보이는 다른 지역의 이동통로와는 달리 원거리에서 관찰했을 경우에는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모습을 구현하고 있어 조성에 의한 거부감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그림 8 경상북도 문경 마성면 신현리 야생동물이동통로의 전경



그림 9 리 야생동물이동통로의 상부 전경



그림 10 이동통로 상부 인근의 송전탑

5) 경북 문경 (중부 내륙 고속 국도)

◎ 조성상태 :

- 구조물 상판의 식생 : 상층은 소나무, 하층은 잔디 및 토지가 노출된 형태로 관찰되지만, 시기적인 측면(2월)으로 인해 정확한 식생의 동정이 쉽지 않았음.
- 규모 : 국지적, 소규모 통로로서 상부통로인 육교형임.
- 인공구조물 : 나무그루터기, 돌무더기 등의 소형설치류를 위한 구조물과 야생동물의 발자취를 기록할 수 있는 모래판이 설치되어 있음.

◎ 주변 환경 현황

- 중부 내륙 고속 국도를 경계로 산과 산이 분리되어 있고, 고속 국도가 백두대간의 일부인 화방재를 가로질러 건설되어 있음.
- 도로는 왕복2차선의 포장도이며 동물보호시설물인 표지판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대신 이동통로의 중앙부에 가시화된 팻말을 부착해 놓음.
- 야생동물로 추정되는 토양의 닳은 정도 및 고라니 분변 등의 증거가 파악되어 이동통로를 이용하는 동물의 종이나 개체 확인의 추정이 가능함.

◎ 고 찰

상태로 미루어 보아 위치는 적절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몇 가지의 보완점이 제시될 수 있다 하겠다.

- 이동통로가 설치된 지점은 도로에 의해서 서식지가 단절되었으며 그로 인해 서식지가 분리되어 있고, 야생동물의 분변 흔적이 관찰되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야생동물의 이동에 이동통로가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판단됨.
- 양쪽을 기울기를 가진 직선으로 건설되어 있는 경북 문경의 이동통로의 특징은 반대편 시야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점이라고 판단됨.
- 고속국도의 특징을 감안할 때 주, 야간의 차량에 의한 소음 및 불빛의 발생이 상당한 정도로 판단됨. 그에 대해 이동통로 상부와 주변부에 목재로 방음, 차단벽이 설치되어 있어 야생동물이 이동통로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불필요한 조건을 차단함. 또한 이동통로로 야생동물을 유도할 수 있는 유도펜스도 설치되어 있어 야생동물의 이용효율이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판단됨.
- 소형 설치류를 위한 나무 그루터기와 돌무더기는 설치되어 있으며 그 외 야생

동물의 발자취를 기록할 수 있는 foot track과 나무와 돌을 이용해 인공적으로 조성된 은폐물이 설치되어 있음.

- 모래판과 더불어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이용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무인감시 카메라를 설치하여 이동통로의 이용여부를 조사하는 자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음.



그림 11 경상북도 문경군 야생동물 이동통로 상부 전경



그림 12 경상북도 문경군 야생동물 이동통로 상부에 설치된 감시카메라



그림 13 동물의 발자국 파악을 위한 모래판

6) 강원 고성군 간성읍 진부리 (제46번국도)

◎ 조성상태 :

- 구조물 상판의 식생 : 상층은 소나무와 은사시나무, 하층은 잔디 및 토지가 노출된 형태로 관찰되지만, 시기적인 측면(2월)으로 인해 정확한 식생의 동정이 쉽지 않았음.
- 규모 : 국지적, 소규모 통로로서 상부통로인 육교형임.
- 인공구조물 : 나무그루터기, 돌무더기 등의 소형설치류를 위한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 주변 환경 현황

- 도로를 경계로 지대가 분리되어 있고, 46번 국도가 가로질러 건설되어 있음.
- 도로는 왕복4차선의 포장도이며 동물보호시설물인 표지판은 설치되어 있음.

◎ 고 찰

- 이동통로가 설치된 지점은 도로에 의해서 서식지가 단절되었으며 그로 인해 서식지가 분리되어 있고, 야생동물의 분변 흔적이 관찰되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야생동물의 이동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됨.
- 관광지인 고성으로 가는 길목인 진부령지역의 특징을 감안할 때 주, 야간의 차량에 의한 소음 및 불빛의 발생이 상당한 정도로 판단됨. 그에 대해 이동통로

상부와 주변부에 목재로 방음, 차단벽이 설치되어 있어 야생동물이 이동통로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불필요한 조건을 차단함.

- 도로의 양쪽 면은 유도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한쪽은 급경사의 산 절단면을 나타내고 반대쪽은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음.
- 소형 설치류를 위한 나무 그루터기와 돌무더기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식재한 나무를 떠받치고 있던 나무를 한군데에 모아두어 소형 설치류에게 은신처나 휴식을 위한 구조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장치를 설치함.



그림 14 간성읍 진부리 생태통로



그림 15 이동통로 상부 전경



그림 16 유도펜스 미설치

7) 강원도 인제군 (제44번국도)

○ 조성상태 :

- 구조물 상판의 식생 : 상층은 소나무, 중층은 개나리 및 진달래, 그리고 하층은 잔디 및 토지가 노출된 형태로 관찰됨.
- 규모 : 국지적, 소규모 통로로서 상부통로인 육교형임.
- 인공구조물 : 작은 설치류 등을 위한 돌무더기 및 나무그루가 수 곳 설치되어 있음.

○ 주변 환경 현황

- 도로를 경계로 산악서식지대가 분리되어 있고, 국도 44호선이 한계령을 따라 건설되어 있음.
- 야생동물 이동통로의 동쪽은 내설악 쪽으로 위치해 있으며 서쪽은 인제군 쪽을 향해 있음.
- 도로는 왕복2차선의 포장도이며 동물보호시설물인 표지판은 설치되어 있음.
- 야생동물로 추정되는 토양의 닳은 정도 및 고라니 분변 등의 증거가 파악되어 이동통로를 이용하는 동물의 종이나 개체 확인의 추정이 가능함.

○ 고 찰

- 이동통로가 설치된 지점은 도로에 의해서 서식지가 단절되었으며 그로 인해 서식지가 분리되어 있고, 야생동물의 분변을 비롯한 흔적이 관찰되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야생동물의 이동에 이동통로가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판단됨.
- 주, 야간의 소음 및 불빛의 발생에 대해 이동통로 상부와 주변부에 목재로 방음, 차단벽이 설치되어 있지만 유도펜스 등이 설치되지 않아 야생동물이 이동통로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따라서 야생동물의 도로진입을 막고 이동통로로 유인할 수 있는 유도펜스, 담장 등의 장치의 설치가 요구됨.
- 이동통로 상부의 식생이 미적인 경관조성을 위해 조밀하게 조성되어 있지만 반대편의 시야가 어느 정도 확보되며 조성된 식생으로 인해 동물들이 이동할 수 있는 폭은 확보되어 이동통로에 의한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 또한, 통로의 중간 지점의 벽부분에 야생동물의 통행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센서카메라의 설치 및 우천 대비장치를 설치하였고 관리 상태로 보아 주기적인 관찰 및 자료수집이 이루어진다고 판단되며, 규모도 적절하다고 여겨짐.



그림 17 생태통로 전경



그림 18 표지판



그림 19 내부 식생 전경

8) 전북 장계면 육십령 (제26번국도)

○ 조성상태 :

- 규모 : 국지적, 소규모 통로로서 상부통로인 육교형임.
- 인공구조물 : 나무그루터기, 돌무더기, 수로가 소형설치류를 위해 설치되었음.

○ 주변 환경 현황

- 도로를 경계로 지대가 분리되어 있고, 26번 국도가 육십령을 가로질러 건설되

어 있음.

- 도로는 왕복3차선의 포장도이며 동물보호시설물인 표지판은 설치되어 있음.
- 야생동물로 추정되는 토양의 닳은 정도 및 고라니 및 멧토끼의 분변 등의 증거가 파악되어 이동통로를 이용하는 동물의 종이나 개체 확인의 추정이 가능함.

○ 고 찰

- 이동통로가 설치된 지점은 도로에 의해서 서식지가 단절되었으며 그로 인해 서식지가 분리되어 있고, 야생동물의 분변이 관찰되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야생동물의 이동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됨.
- 그러나, 경사가 산에서 마을 쪽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경사로여서 산과 산을 연결한 다른 야생동물 이동통로에 비해 이용 빈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 소형 설치류를 위한 나무 그루터기와 돌무더기 외에 나무를 쌓아놓아 은신처나 휴식을 위한 구조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장치를 설치함.
- 야생동물의 도로횡단을 막고 이동통로로의 접근을 유도하는 유도펜스는 설치상태가 양호하였지만 강한 바람에 의해 손상된 부분이 있어 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고, 야생동물의 도로횡단을 막고 이동통로로의 유인을 위한 유도펜스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그림 20 야생동물 이동통로 전경



그림 21 소형설치류를 위한 나무더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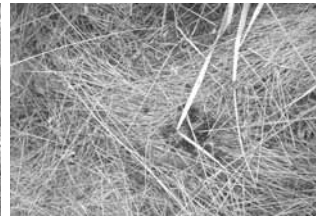


그림 22 고라니 분변 흔적

9) 강원 영월군 상동읍 천평리 화방재 (제31번국도)

◎ 조성상태 :

- 규모 : 국지적, 소규모 통로로서 상부통로인 육교형임.
- 인공구조물 : 나무그루터기, 돌무더기 등의 소형설치류를 위한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 주변 환경 현황

- 도로를 경계로 산과 산이 분리되어 있고, 31번 국도가 백두대간의 일부인 화방재를 가로질러 건설되어 있음.
- 도로는 왕복2차선의 포장도이며 동물보호시설물인 표지판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대신 이동통로의 중앙부에 가시화된 팻말을 부착해 놓음.
- 야생동물로 추정되는 토양의 닳은 정도 및 고라니의 분변 등의 증거가 파악되어 이동통로를 이용하는 동물의 종이나 개체 확인이 가능함.

◎ 고 찰

- 이동통로가 설치된 지점은 도로에 의해서 서식지가 단절되었으며 그로 인해 서식지가 분리되어 있고, 야생동물의 분변을 비롯한 흔적이 관찰되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야생동물의 이동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됨.
- 등산로로 많이 이용되는 백두대간의 특징을 감안할 때 주, 야간의 차량에 의한 소음 및 불빛의 발생이 상당한 정도로 판단됨. 그에 대해 이동통로 상부와 주변부에 목재로 방음, 차단벽이 설치되어 있어 야생동물이 이동통로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불필요한 조건을 차단함. 또한 이동통로로 야생동물을 유도할 수 있는 유도펜스도 설치되어 있어 야생동물의 이용효율이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판단됨.
- 소형 설치류를 위한 나무 그루터기와 돌무더기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나무들의 식재된 밀도는 조밀하지 않아 시야확보가 가능한 조건이지만 아치형의 이동통로 형태는 시야를 방해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여 야생동물이 이동통로를 이용하기에 제한사항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이용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무인감시 카메라를 2대 설치하여 이동통로의 이용여부를 조사하는 자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으나 설치 장소가 이동통로 한가운데로 제한되어 있어 야생동물의 스트레스 및 이동에 제한을 가져올 수 있어 카메라 설치장소의 이동이 고려됨.



그림 23 야생동물 이동통로의 전경



그림 24 야생동물 이동통로 상부 CCTV
설치 사진



그림 25 유도펜스 설치사진

10) 충북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죽령(제5번국도)

◎ 조성상태 :

- 구조물 주위의 식생 : 구조물 주위 특이적으로 식생을 조성한 흔적은 없어 보임. 소나무와 잔디가 존재하는 자연초지대의 식생환경을 조성하였음. 입구 도로 절개지에는 소나무의 목본을 식재하였으나, 입구부와 통로 내부에는 인공적인 식생지대를 조성하지 않았으며, 내부에는 토양의 흙이 노출되어 있음.
- 규모 : 국지적, 소규모 통로로서 터널형, 하부통로형인 박스형임.
- 인공구조물 : 돌무더기와 수로 이외에 소형 양서류 등을 위한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 주변 환경 현황

- 도로를 경계로 한쪽 경계는 산림과 접해있고, 반대쪽의 도로절개지에는 나대지로 연결되어 있고, 5번 국도가 박스형의 야생동물 이동통로의 상단부를 가로질러 건설되어 있음.
- 도로는 왕복2차선의 포장도이며 동물보호시설물인 표지판은 설치되어 있음.
- 고라니, 너구리 분변 등의 야생동물 이동증거는 발견되지 않아 이동통로를 이용하는 동물의 종이나 개체 확인이 어려움.

◎ 고 찰

충북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에 위치한 박스형의 터널형 야생동물 이동통로는 설치 및 관리 상태로 미루어 보아 위치는 적절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몇 가지의 보완점이 제시될 수 있다 하겠다.

- 이동통로가 설치된 지점은 도로에 의해서 서식지가 단절되었으며 그로 인해 서식지가 분리되어 있음

- 주, 야간의 차량에 의한 불빛보다는 소음에 대한 영향이 크다고 생각됨. 그에 대해 이동통로 부위 주변의 도로 양 옆에 목재로 된 유도펜스 겸 소음차단벽이 설치되어 있어 야생동물이 지하형 이동통로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제한을 가지는 요건을 감소시키려 한 흔적이 관찰됨.
- 이동통로의 진입부와 주변을 목재를 이용해 환경적인 면을 강조하여 야생동물의 거부감을 최소화 하려는 흔적이 관찰됨.
- 이동통로 내부에는 가운데 폭이 약 1.0M의 수로만이 존재하며 소형 양서류들이 수위가 높을 경우 이동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또한 소형동물의 은폐물로 이용될 수 있는 돌무더기의 양과 크기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이용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무인센서카메라를 입구와 출구에 각각 1대씩 총 2대 설치하여 이동통로의 이용여부를 조사하는 자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으나 설치 장소가 이동통로 한가운데로 제한되어 있어 야생동물의 스트레스 및 이동에 제한을 가져올 수 있어 카메라 설치장소의 이동이 고려됨.



그림 26 충북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죽령 야생동물 이동통로 전경



그림 27 충북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죽령 야생동물 이동통로의 유도펜스



그림 28 죽령 야생동물 이동통로 내부의 센서카메라 설치 사진

11) 충북 충주시 주덕읍 솔고개 (중부 내륙 고속국도)

◎ 조성상태 :

- 구조물 주위의 식생 : 구조물 주위 특이적으로 식생을 조성한 흔적은 없어 보임. 입구부와 통로 내부에는 인공적인 식생지대를 조성하지 않았으며, 내부에는 토양의 흙이 노출되어 있음.
- 규모 : 국지적, 소규모 통로로서 터널형, 하부통로형인 박스형임.
- 인공구조물 : 소형 양서류 등을 위한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 주변 환경 현황

- 도로를 경계로 한쪽 경계는 농토와 접해있고, 반대쪽의 도로절개지에도 농토로 연결되어 있으며, 중부 내륙 고속 국도가 박스형의 야생동물 이동통로의 상단부를 가로질러 건설되어 있음.
- 도로는 왕복4차선의 포장도이며 동물보호시설물인 표지판은 설치되어 있지 않음.
- 고라니, 너구리 분변 등의 야생동물 이동증거는 발견되지 않아 이동통로를 이용하는 동물의 종이나 개체 확인이 어려움.

◎ 고 찰

- 이동통로가 설치된 지점은 도로에 의해서 서식지가 단절되었으며 그로 의해 서식지가 분리되어 있음
- 주, 야간의 차량에 의한 불빛보다는 소음에 대한 영향이 크다고 생각되는데 이동통로 부위 주변의 도로 양 옆에 유도펜스 또는 소음차단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야생동물이 지하형 이동통로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제한적 요소로 판단됨.
- 이동통로의 진입부와 주변에 별다른 식생이나 환경조성이 없어 야생생동물의 거부감을 최소화 하려는 흔적이 관찰되지 않음.
- 이동통로 내부에는 소형 양서류들이 수위가 높을 경우 이동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또한 소형 동물의 은폐물로 이용될 수 있는 장치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이용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무인센서카메라가 미적용됨.



그림 29 충북 충주시 주덕읍 솔고개 야생동물 이동통로의 상부 전경



그림 30 솔고개 야생동물이동통로의 입구 전경



그림 31 솔고개 야생동물이동통로의 전경

12) 경북 봉화(제37번국도)

○ 조성상태 :

- 구조물 상판의 식생 : 상층은 소나무, 하층은 잔디가 주종을 이룸.
- 규모 : 국지적, 소규모 통로로서 상부통로인 육교형임.
- 인공구조물 : 작은 설치류 등을 위한 돌무더기가 수 곳 설치되어 있음.

○ 주변 환경 현황

- 국도37호선의 공사 시 발생한 단절된 서식지를 연결하기 위해 야생동물이동통로를 연결함.
- 도로는 4차선의 포장도이며 동물보호시설물인 표지판은 설치되어 있음.
- 야생동물로 추정되는 모래판에 발자국이 파악되어 이동통로를 이용하는 동물의 종이나 개체 확인이 불가능함.

○ 고 찰

- 4차선의 도로공사에 의해 주변 통행량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어 주, 야간의 소음 및 불빛의 발생이 불가피하지만 이동통로 상부의 유도펜스만이 설치되어 있고 야생동물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음벽과 같은 구조물의 설치나 피해 방지대책이 제공되지 않음.
- 야생동물은 특징적으로 건너려고 하는 통로의 반대편 시야가 확보되어야 불안함을 갖지 않고 통행을 할 수 있는 특징을 반영하여 설계되어 반대편의 시야가 확보되기 용이함. 또한 이동통로 중간에 야생동물의 발자국과 같은 흔적을 파악하기 위한 모래판을 설치해 흔적확보 및 이동통로의 이용파악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음.



그림 32 경북 봉화의 야생동물 이동통로 전경



그림 33 야생동물이동통로 상에 설치된 모래판



그림 34 야생동물이동통로의 상부 전경

13) 강원 춘천시 동면(제46번국도)

◎ 조성상태 :

- 구조물 상판의 식생 : 중심부에는 42그루의 소나무와 주변부에 벚나무가 식재되어있고 관목층에는 참싸리와 붉나무가 분포하고 초본층이 발달되어있었다. 생태통로 건설초기에 초본을 도입한 형태는 아니었다. 본 생태통로는 농업이나 탐방로와의 겸용형으로 세워지지 않았고 유도펜스가 있었지만 방음벽의 효과는 없었다.
- 규모 : 너비(폭) 8.5m이고 길이가 약 30m인 국지적, 소규모 통로로서 상부통로인 육교형임.
- 인공구조물 : 나무그루터기, 돌무더기 등의 야생동물이 이동 중에 은폐할 수 있기 위한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대신에 통로 가장자리에 수로가 있어 파충류나 양서류의 이동이 가능함.

◎ 주변 환경 현황

- 도로를 경계로 산과 산이 분리되어 있고 주변에는 소나무와 신갈나무가 우점하는 식생구조를 띄고 있고 잣나무와 밤나무 또한 분포하고 있었다. 주변부의 관목층 및 초본층은 생태통로의 내에 형성된 것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구조를 띄고 있었다. 주로 참싸리, 칩, 철쭉 등이었다.
- 도로는 왕복2차선의 포장도이며 동물보호시설물인 표지판과 유도펜스 간판이 설치되어 있었다.
- 야생동물로 추정되는 흔적이나 배설물 등의 증거가 파악되어지지는 않았지만 직접적으로 청설모를 관찰 확인 하였고 도로변에서 로드 킬로 추정되는 오래된 너구리의 뺏조각을 발견하였다.

◎ 고 찰

강원 춘천시 동면 46번 국도에 위치한 야생동물 이동통로는 설치 및 관리 상태로 미루어 보아 위치는 적절하다고 볼 수 있지만, 몇 가지의 보완점이 제시될 수 있다.

- 생태통로는 다른 지역의 생태통로 보다 식생상태가 밀집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폭이 좁고 약 30m 되는 통로길이를 통과하는 야생동물에 있어서는 은폐할 수 있는 돌무더기 및 나무 그루터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됨.
- 주간 및 야간의 차량이동시 소음과 불빛에 대한 높은 차단벽과 방음 유도펜스

가 필요함.

- 본 조사 기간 중에 통로내부에 각종 많은 쓰레기 및 사람의 분변을 발견하였다는 사람들이 낮은 유도펜스를 따라 높은 위치의 생태통로에 올라왔던 것으로 추정된다. 인위적인 간섭을 피하기위해서 접근금지 표지판 및 위험표지판 설치가 필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카메라 설치가 필요하다.



그림 35 야생동물 이동통로 전경



그림 36 비교적 잘 발달된 관목층 및 초본층



그림 37 사람들의 침입이 잦은 흔적들 (각종 쓰레기와 오물).

14) 강원 양양군 서면 갈천리 구룡령(제56번국도)

◎ 조성상태 :

- 구조물 주위의 식생 : 구조물의 위치는 강원도 양양군과 홍천군 경계에 있는 해발고도 1013m의 험한 산지에 있으며, 식생은 교목층에 약 62그루의 단풍, 신갈, 전나무, 잣나무, 소나무가 다양하게 분포하고 관목층에는 싸리가 무성하다. 초본은 초기에 인위적으로 도입 되어 졌던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잘 발달된 관목류를 가진 임상과 다른 생태통로보다 목본류가 다양하게 식재되었다. 양양방면의 생태통로 측구는 주변 탐방로인 능선 부위와 겹쳐져 있었다. 본 생태통로는 사슴류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야생동물이 이동하기에 적합한 규모를 가졌고 특정한 파충류나 느린 이동 속도를 가진 양서류 또한 이동이 가능한 통로이다.
- 규모 : 길이 30m와 폭 23m의 대규모 통로로서 육교형(상부통로)이고, 통로 끝은 주변의 능선부와 연결되어 있었다.
- 인공구조물 : 4곳의 돌무더기, 통나무더미, 그루터기, 방음벽, 수로 등이 설치되어있었고 특징적으로는 통나무와 돌무더기를 함께 사용하였다.

◎ 주변 환경 현황

- 왕복 2차선의 도로를 경계로 산악지대와 접해있고 주변부의 식생은 신갈나무가 우점종인 낙엽활엽수림 지역이었다. 관목층에는 싸리와 초본층에는 덩굴성 식물인 칩 등이 풍부하였다. 동물보호시설물과 출입통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음.
- 이곳에서는 야생동물들이 자주 이동한 흔적 중에 하나인 초본류가 꺾여있거나 접혀있는 길목들을 쉽게 발견 할 수 있었고 고라니의 분변흔적을 비롯하여 특히, 많은 오소리의 분변흔적을 생태통로 중앙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 이동통로의 진입부와 주변을 목재를 이용해 환경적인 면을 강조하여 야생동물의 거부감을 최소화 하려는 흔적이 관찰되었고, 소음과 차량불빛을 차단 할 수 있는 유도펜스와 관리를 위한 카메라가 높은 곳에 설치되어져 있었다.
- 로드 킬을 당한 쥐과동물인 땃쥐 1개체와 흰넓적다리붉은쥐 5개체가 관찰되었다.

◎ 고 찰

본 백두대간에 설치된 육교형의 야생동물 이동통로는 다른 지역의 생태통로보다 설치 및 관리 상태가 양호하다고 볼 수 있지만 몇 가지의 보완점이 필요하였다.

- 야생동물의 생태통로 사용여부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입구와 출구의 낮은 위치에 무인센서카메라를 각각 설치함.
- 등산로 입구와 바로 인접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생태통로를 지나 반대편 능선으로 이동을 한 관계로 생태통로 가운데 부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동흔적과 분변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실제적으로 이 생태통로는 사람들의 접근이 통제된 곳이므로 등산로와 만나는 지점에 출입금지를 위한 펜스설치가 요구됨.



그림 38 구룡령 생태통로 정경.



그림 39 이동중인 야생동물에게 은신처 제공.



그림 40 구룡령 생태통로에서 많이 발견된 오소리의 배설물.

15)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진고개 (제6번국도)

◎ 조성상태 :

- 구조물 주위의 식생 : 전형적인 육교형 생태통로로서 중심부에 낙엽활엽수가 넓게 식재되어 있고 주변부에는 소나무와 잣나무가 식재 되어 있었다. 건설조성 초기에 초본도입이 있었는지 확인은 어려웠다. 본 생태통로의 설치년도가 2002년이었지만 전체적인 식생층의 피복도는 매우 낮았다. 마치 식재 후 얼마 되지 않은 양상을 보였다.
- 규모 : 폭이 30m이고 길이가 80m인 전형적인 육교형 생태통로이다. 그 아래의 도로의 폭은 20m에 불과하지만 하천을 끼고 있어 산과 산사이의 연결 길이는 다른 생태통로 보다 긴 편이다.
- 인공구조물 : 대형포유류 및 양서파충류등 거의 모든 야생동물이 이용 가능한 규모를 가진 생태통로이다. 인공연못, 소음과 불빛을 차단할 수 있는 나무로 구성된 유도펜스가 설치되어있고, 동물의 이동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카메라와 모래판이 설치되어있었다.

◎ 주변 환경 현황

- 도로에 동물보호시설물인 생태통로 표지판과 출입통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 흔적판을 비롯하여 생태통로 내의 고라니, 너구리 분변 등의 야생동물 이동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아 이동통로를 이용하는 동물의 종이나 개체 확인이 어려움.
- 주변의 산림지대의 교목층은 신갈나무가 우점 하는 혼효림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관목층 또한 매우 발달되어있었다. 하천 부근에 규모가 매우 작은 밭이 분포하고 있었다.

◎ 고 찰

- 이동통로의 진입부와 주변에 식생이나 환경조성이 매우 빈약하여 이곳을 이용하려는 야생동물의 거부감이 크다고 판단됨.
- 이동통로 내부에는 양서파충류를 포함하는 소형 동물들이 이동 중에 적으로부터 은폐를 하거나 휴식 할 수 있는 시설물이 없고, 인공연못과 수로에는 전혀 물이 없었다.
-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이용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무인센서카메라를 입구와 출

구에 각각 2대씩 총 4대 설치하여 이동통로의 이용여부를 조사하는 자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었다.

- 다른 생태통로와 비교해보면 그 규모가 크다고 말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야생동물이 이용하기에는 빈약한 식생조성과 돌무더기, 통나무그루터기 등의 은폐 시설물이 전혀 없는 시야가 트인 개방적 공간이 커서 야생동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통로로서의 기능을 갖추지 못해 앞으로 사후 관리가 시급히 요구된다.
- 진고개 생태통로는 백두대간 및 오대산 국립공원을 연결시켜 자연생태계의 단절을 막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야생동물 이동통로이다.



그림 41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진고개 생태통로 전경 그림 42 인공연못으로 여름철인데 불구하고 내부에 물이 없다 그림 43 관목층과 초본층이 빈약하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야생동물의 생태통로 이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예상되는 종들의 흔적조사, 직접 관찰 그리고 무인센서 카메라 설치 결과를 토대로 생태통로 주변에 서식하고 분포하는 야생동물 및 주변의 환경요인들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의 70%가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30m 이상의 대절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교량구조로 된 육교형태의 생태통로가 조성되고 있다. 육교형은 넓고 우수한 생태계를 가진 곳을 단절하거나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곳이나 노루, 고라니, 멧돼지 등의 대형동물이 많이 출현하는 곳 등에 설치되어진다. 단점으로는 다른 생태통로에 비해서 고비용이 소요된다(한국도로공사).

본 생태통로 조사시, 몇몇의 육교형 통로의 출입부 및 내부는 아교목, 관목층, 초본류 등으로 식재되어 있고 야생동물의 이동시 은신처가 될 수 있는 폐목 쌓기, 인공소습지, 돌무덤 등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여 주변의 생태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야생동물의 이동이 용이하고, 입지적으로도 도로에 의해 단절된 생태적인 공간을

연결하는데 적합한 기능적이고 위치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일부 육교형 생태통로는 인공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동물들이 숨을 곳이 없고, 식재된 수목의 밀도와 생육상태 및 기간 등을 고려해 볼 때 자연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 사료된다. 반면에 은신처가 될 수 있는 인공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으나 오히려 중, 대형 야생동물이 이동하는데 제한적인 요소로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생태통로도 있었다. 또한 생태통로 구조상 통로 내부의 토심이 높아 야생동물의 이동에 저해요소가 되고 차량에 의한 소음 및 불빛은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이에 따른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생태통로의 가장자리 지역에는 다양한 종과 식생구조가 관찰되며 이것을 Edge effects라 일컬어진다(Thomas, 1991; Fleury and Brown, 1997). 만약 통로 폭이 너무 좁으면 이러한 효과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동통로는 단순한 것보다 복잡하고 넓은 통로를 조성해야만 이동하는 야생동물들에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Burbrink et al., 1998). 반대로 이동통로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야생동물의 이용률은 낮아지게 되며, 주변의 환경변화와 인간의 간섭은 결국 서식지 단절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Forman and Deblinger, 2000).

박스형 생태통로는 통로 주변에 우수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기존의 인공 구조물을 야생동물 친화적으로 처리하여 동물들을 유도 할 수 있다. 육교형 생태통로 보다 상대적으로 저가이기 때문에 경제적이다. 또한 설치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한국도로공사).

본 조사시 박스형태의 통로는 사람과 동물이 이용 가능한 통로로 자연성은 결여되어 있었고 한 곳만이 양측으로 관목 층이나 초본층을 조성한 유도펜스가 조성되어있었다. 입지적으로는 단절된 생태공간을 연결하는데 위치적 역할만 수행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야생동물들은 야행성으로 주로 밤에 활발한 활동을 하는데, 야간에 이들의 이동에 방해 및 위협요소가 될 수 있는 차량에 의한 소음과 불빛을 차단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이동통로 진출입 외부와 내부의 양측으로 자연성을 높인 유도펜스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진다. 일반적으로 생태통로의 개념은 단절된 생물서식공간을 연결하여 생물의 이동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생물의 종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선형의 자연공간으로 나타낸다. 더욱이 포식자로부터의 충분한 은신처 공간을 제공해야 하며, 보금자리 제공과 먹이섭취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Noss, R. F., 1987; Fleury and Brown, 1997).

바람직한 생태통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주변에 서식하는 야생동물들의 종을 조사한 후, 생태통로의 길이, 폭, 위치, 인간의 접근성, 서식지의 물리적 특징 등을 충분히 고려되어야만 한다. 즉 현존하고 있는 서식환경을 최대한 유지하여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주변의 산림과 식생을 연계하여 통로 이용이 예상되는 야생동물에게 적합한 생태통로 환경을 조성해야한다(Collinge, 1998; Fleury and Brown, 1997). 또한 중·대형동물들은 시간적으로 통로를 이동하는 시간이 짧지만 양서류 및 파충류는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통로 내에 서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수한 한 종이 아닌 각각의 여러 생물 종들이 이용 가능한 생태통로의 조성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그 효율성에 대한 부가적인 조사 즉, 야생동물들의 지속적인 생태통로 이용현황을 모니터링 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미국에서는 도로를 횡단하는 야생동물의 현황을 장기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특히 사슴횡단방지용 펜스를 설치하여 육교형 생태통로로 이동시키는 관리 방법을 이용해서 로드킬 발생을 줄였다. 유럽에서도 장기모니터링을 통해 터널형 생태통로를 설치하여 양서류와 파충류의 로드킬 발생빈도를 낮추고 있다. 네덜란드와 독일의 경우는 육교형 생태통로와 터널형 생태통로를 병행 설치하여 야생동물의 로드킬을 저하시켰다. 야생동물이 로드킬에 의해 개체수가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도로주변의 생태학적 요인들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확보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조사에서는 생태통로를 조성하기전 설계단계에서 장기모니터링을 통해서 야생동물의 이동경로 및 서식하는 목표종을 사전에 철저히 파악 되어져야한다고 사료되었다.

4. 유럽의 서식지 연계 시설 조성사례

(1) 슬로베니아

슬로베니아는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지만 서식지 파편화와 분열이 진행되면서 다양한 서식지 연계활동이 나타나기 시작한 나라이다. 환경법 등은 제정되어 있지만 일부는 미흡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유라시안 흑곰의 경우 보호종과 합법적 수렵종 모두로 지정되어 있다. 야생동물서식지(숲)과 야생동물집단 모두의 증가를 목표로 정하고 크로아티아(남동쪽)와 이탈리아(서쪽)와의 연계성이 연결 잠

재성을 가지고 있다. 슬로베니아에는 수렵이 야생동물 관리의 주요인자로 작용하며 특이적으로 대학과 산림자원인력이 서식지연결요구와 야생동물행동에 대해 조사하여 정부에게 고속도로를 가로지르는 연결구조물을 제작하도록 건의하고 있고 미국의 상황과 유사하게 이끌어가고 있다.

(2) 스위스

스위스는 1985년 이후 교통사업과 환경적합성 점검을 반드시 수행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교통과 환경, 야생동물이 관련된 과학적기반의 법안을 보유하고 있으며 GIS를 기반으로 서식지와 생태통로를 건설하고 있다. 그 외 병목부위와 비연결부위도 파악하고 있으며, 과밀, 중간, 단절로 분류하고 있다. 각각의 전문가집단을 보유하고 있어 생태통로상의 다양한 서식지가 무척추동물에서 유제류에 이르기까지 연결성 여부를 과학적으로 확인하고, 수목류도 포함된 조류와 수목서식종도 간주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대부분 강기슭의 생태통로를 형성하며 많은 구조적/비구조적 방법을 제공한다. 다양한 폭을 가지는 12개의 육교형 생태통로를 설치하였으며 가장 큰 2개는 콘스탄트호 근교와 크레즐리젠근교이다. 모니터링으로는 흔적판, 사진, 적외선카메라 방법을 이용한다. 그 결과 스위스에서는 야생동물의 생태통로에 최소 50m의 폭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최근 헝가리 고속도로에 10~20km마다의 생태통로(폭 100m)건설을 제시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법안을 합법적, 과학적으로 조성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우선적으로 운전자들의 안전을 도모하며, 건설프로젝트는 연방내각, 의회수준에서 지정되며 교통부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연방환경부는 환경법안을 자연보정법, 위기보호법 등을 연관하여 제정한다. 독일에서는 환경에 민감한 계획을 피하기 위해 환경위험설정의 조기경보시스템을 보유하며, 환경에 부정적인 변화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설치한 구조물의 종류로는 펜스, 표지판 등이 있으며, 조사국가중 가장 많은 생태통로: 32개소 (8개소 공사중, 20개소 계획중)를 보유하고 있다. 야생동물 이동통로의 폭으로는 8.5 ~ 870m로 존재하며 모래시계모양의 생태통로를 설치하고 있다. 모래시계모양의 생태통로는 직선모양의 생태통로와 건설단가가 비슷하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양서류를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장벽으로 펜스를 설치하며, 100개 이상의 양서류를 위한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다. 야생동물 조화를 위해 130개의 다리가 계획되고 있다. 효력을 측정하기 위한 모니터링은 주로 척추동물에 한정되어 있으며, 독일내 도

로의 밀도와 소음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3) 프랑스

프랑스의 경우 생태통로를 적용한 최초의 유럽국가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도로예산은 유류세 보다는 일반세에서 충당되며 지침으로서 자연보호법을 사용하려면 환경부와 도로교통부가 쌍방 간에 합의를 해야 한다. 공공의 참여가 모든 부서에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계획은 10년 정도에 걸쳐 개발된다. 환경요인은 사회적, 경제적인 요인과 동등하게 간주되며 년 30여명의 사망자가 동물관련사고로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방법의 야생동물충돌방지 대책이 제시되고 있는데, 모든 고속도로에 펜스설치는 효과 없음이 밝혀져 있다. 공간적으로 상하부 생태통로가 구조적 대안물로 사용된다. 최초로 모래시계모양의 생태통로를 설치(폭: 8~15m)하였으며 현재 12미터의 폭과 모래시계모양이 선호된다(스위스와의 차이). 많은 수의 생태통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최대 800m의 폭을 가지고 있다. 모니터링은 1년 동안 시행되며, 그 후 3년, 5년차에 실시된다. 특히 양서류 이동에 대해 다양한 디자인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플라스틱 파이프가 설치된 펜스를 설치하고 있다.

(4) 네델란드

네델란드는 유럽에서 선두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이지만, 제한된 야생동물서식지와 소수 종에 대한 제한된 조사의 단점을 지니고 있다. 오소리(badger)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조사가 NGO에 의해 이루어져 환경부와 도로교통부에 제출되었다. 그 결과 도로교통부는 야생동물이동통로의 건설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 종에 대한 광범위한 암거(대량 600)체계와 구형장치의 개장이 기금에 의해 지원되고 있다. 계절적 양서류의 이동에 대한 전략적인 10 파이프형 터널 시스템이 계획되어 있다. 이 계획은 1988년에 시작하여 3백만유로를 투입하고, 붉은사슴의 이용권에 기초하고 있다. 수로를 위한 다리와 터널도 또한 소형포유류의 이동을 위한 구조물 내에 개량되어 있으며, 생태통로는 17~50m 너비를 가지며, 소음과 빛의 차단을 위한 펜스와 턱을 가진 직선형과 모래시계형 모두 건설되었다. 소형종의 이동과 서식을 위해 구조물의 위/아래에 나무그루터기들을 제공하며, 동물의 파악을 위해 모래판, 잉크패드, 적외선카메라를 사용한다. 교통체계와 관련되어 국가적 연결계획을

세워 자금을 조성하며 서식지연결의 계획은 개별적인 수준(충돌)과 집단적인 수준(집단생존분석)이 모두 반영된다. 매년 25%의 오소리집단이 로드킬로 사망하고 있어 여전히 자동차에 의한 충돌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야생동물집단수준에 대한 완화방법의 효력을 설정하는 조사가 시작되어 3년차로 조사구역의 설정, 모니터링계획수립, 모니터링시작의 순서로 진행되고 있다.

(5) 캐나다

캐나다의 서식지연계시설 조성은 반프 국립공원의 육교형 이동통로가 대표적이며 터널형 이동통로가 22곳, 육교형 이동통로가 2곳 건설되어 있다. 세밀한 모니터링이 없이 야생동물 횡단구조물의 효과성을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며, 모니터링의 결과는 확실하게 확신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최소 3년)동안 지속하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고속도로에 의해 단절된 반프 국립공원지역을 1995년 4월-1997년 11월까지 회색곰(grizzly bear)과 회색늑대(gray wolf)를 주 대상으로 하여 울타리 비용을 제외한 약 2백만 캐나다 달러가 투입되었다. 약 9km의 간격으로 2개의 육교형 이동통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10개의 터널형 이동통로가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 육교형 이동통로 설치 이후 야생동물의 도로사망에서 유체동물의 96% 그리고 전체 종의 80%가 감소하였다. 이 연구에 대한 결과로는 야생동물에 대해 학습곡선이 존재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회색곰이 5년으로, 엘크는 적응이 가장 빠르다.

(6) 미국

미국의 이동통로 조성사례로는 플로리다의 생태통로가 대표적인 예이다. 네델란드의 육교형 터널에 기반을 두었으며 야간에는 야생동물이 이용하고, 주간에는 인간이 이용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전통적인 “I”자형 대들보보다 경관상 더욱 훌륭하고 전장이 더 긴 건축을 할 수 있는 “U”자형 대들보로 상부에 가로수를 식재하였으며 육교의 혁신적 특징으로는 양쪽으로 5.5m의 경작지를 가져 야간에 자동차의 불빛과 소음을 차단하고, 5m 폭의 길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 보행하는 사람 그리고 승마하는 사람들을 위한 구조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가운데에 달걀모양의 교행 지역은 말과 마차의 통행을 위하는 구조물이다.

5. 현재의 비무장지대와 민통선지역의 생태환경의 현황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완충지대인 비무장지대(DMZ)는 남북대결과 분단이라는 비극의 상징물이면서 세계적인 생태계 보고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전이 종료된 이후 50여 년간 인간의 인위적인 간섭과 교란이 철저히 통제되어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안식처가 되었고, 특히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들이 이곳에서는 서식 관찰되어져 어찌면 우리나라의 마지막 생태계 보전 지역으로서 가치를 부여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강 하류 강화 교동도에서 개성 남방 판문점과 중부 연천, 철원을 거쳐 동부 화천, 양구와 고성 명호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중부지방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248km 길이의 휴전선을 따라 남북으로 각각 2km의 폭으로 설정된 이 지역은 군사적인 특수성으로 인하여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어 온 곳이다. 또한 비무장지대 남쪽 5~20km에는 휴전선 일대의 군사작전과 군사시설보호, 보안유지를 목적으로 민간인통제구역(CCZ)이 설정되어 이 구역 안에는 민간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어 왔다. 비록 일부 지역에서는 농업으로 인한 인위적 교란과 산불, 홍수와 같은 생태적 교란도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DMZ와 CCZ는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인간의 간섭이 적고 자연 상태가 잘 보존되어 있는 다양한 동식물상의 서식지가 되고 있어서 자연생태계 연구의 학술적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종합적이 야생동물서식의 확인 결과 비무장지대와 인접지역에서 총 25종의 천연기념물 조류와 사향노루, 산양, 하늘다람쥐, 반달가슴곰, 수달, 물범 등 6종의 포유류 천연기념물의 서식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여우의 생존 가능성이 밝혀지고 있어 비무장 지대와 인접지역의 생태계가 아직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나타내 준다. 하지만 이러한 생태조사결과는 부분적인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치적 군사적 문제로 인하여 제한을 받고 있어 사실상 그 실태를 완전히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최근 들어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경제협력의 증가로 DMZ의 활용에 대해서만 관심이 높을 뿐 환경적인 측면은 간과되고 있는 현실이다. 민통선의 전 지역은 기후와 식생, 하천, 바다 등의 지형적인 차이 등을 감안할 때 습지와 석호를 포함하는 동부 해안권, 산악지대인 중동부 산악권, 산악지역과 습지를 포함하는 중부 내륙권, 한탄강, 임진강, 한강 등을 포함하는 서해 및 도서권으로 크게 4구역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까지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각 4 구역

으로 나누어진 비무장 지대 일대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현황을 소개하고자한다.

동부해안권은 지리적으로 비무장지대와 화진포, 명파리, 통일전망대를 비롯한 간성~대진 등의 동해안 민통선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어 왔다. 우수한 산림 생태계, 산림습지, 해안생태계를 유지하며 총 118종의 조류가 서식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향로봉 일대에는 원시림에 가까운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식물상이 매우 다양하고, 금강산과 설악산을 잇는 생태계 연결축 역할을 하고 있다. 두터연 일대는 남한 최대의 열목어 서식지이다. 동부해안권에서 관찰된 조류는 산림성 이외에도 습지성이 다수 관찰되어 그 결과 이 구역이 강원도 특유의 산악지역과 함께 다른 지방에 비해 화진포와 같은 습지의 비율이 높다는 것과 개활지의 면적이 넓다는 것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지역에서 서식하는 것이 확인된 포유류는 족제비와 담비, 산양 등으로 총 28종이 보고되어있다.

중동부 산악권은 민통선 북방지역인 가칠봉, 두터연, 도솔산, 대우산을 비롯하여 건봉산 칠전봉, 적계리 등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총 208종의 조류와 총 37종의 포유류가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종 I급인 산양, 수달, 반달가슴곰, 그리고 사향노루의 서식이 확인 되었으며 2004년 3월 양구군 동면 야산에서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여우의 사체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영역의 야생동물 서식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험난한 산악형의 환경으로 이루어진 자연도가 높은 지역이고 비무장지대를 대상으로 한 조사지역중에서 종 다양도가 높은 지역에 해당된다. 조류 상으로는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일대에 대규모의 독수리가 월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멸종위기조류인 쇠황조롱이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내륙권은 지리적으로 철원평야가 넓게 펼쳐져 있으며 표고 200~300m에 해당하는 완만한 구릉과 평지, 산명호, 토교저수지, 강산지, 학저수지등 많은 저수지가 발달되어 있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경미한 온천인 샘통과 같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늪이 있다. 묵논습지가 잘 발달되어 있으며 민통선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 인간의 간섭이 적어, 농경지와 습지에 도래하여 월동하는 조류에게는 적합한 서식지를 제공하여 주고 포유류에는 인간의 간섭을 크게 제외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한 지역에서 인간의 출입과 농경, 거주 등으로 인해 포유류의 서식여건이 점차 불리한 형태로 전환되고 있고 산악형 포유류의 서식환경과도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주로 저지대와 평지에서 관찰할 수 있는 포유류가 주로 서식하는 지역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철원지역의 철원평야는 두루미, 재두루미 등 세계적 희귀조류의 월동지이며 철조망 내의 DMZ지역은 농경지와 습지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비무장지대와 인접지역중 서부해안지역의 대표적인 곳은 한강 하구와 임진강 지역이며, 행정구역상 경기도 김포군과 파주군 등이 포함되는 지역이다. 이 지역에는 하천과 바다에 의해 토사가 축적되어 형성된 넓은 면적의 삼각주와 사주가 형성되어 있으며, 인근에는 넓은 농경지가 조성되어 있으므로 많은 습지성 철새들의 좋은 월동지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발달된 습지와 갯벌에는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높은 생물다양성을 관찰할 수 있다. 산림청(2000)의 결과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서식이 확인된 종은 총 143종에 이르며, 기록된 포유류는 모두 23종 이상에 해당한다. 여름철에는 습지에서 서식하는 백로류가 우세하게 나타나며, 겨울철에는 큰기러기와 쇠기러기, 개리를 비롯한 각종 오리와 수조류가 우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과 임진강을 포함하는 서부해안지역은 철원지역과 함께 비무장 지대 및 인근지역에서 가장 많은 희귀조류가 도래하여 서식하고 있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임진강 하구는 국제적 희귀조류인 저어새, 쇠기러기, 큰기러기, 맹금류등이 다수 서식, 도래하고 희귀어류인 모치망둑 등이 서식하고 있으며, 판문점 부근 사천강 유역은 두루미와 재두루미 등의 철새가 도래하고 있다. 또한 3개의 저수지와 하천에서는 어류, 양서 파충류, 조류, 포유류 등 다양한 생물들이 관찰된다고 보고된다. 서해 도서지역은 크게 백령도와 대청도, 연청도등과 그 부속 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지역은 섬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많은 해양성 조류와 육상조류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많은 이동성 철새들의 이동경로 상에 위치한 중요한 휴식처이자 먹이공급 장소이다. 따라서 내륙의 산림지대에 비하여 매우 다양한 종이 관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서지역으로 백령도의 기상과 식생, 서식지 여건과 다양한 조류를 부양할 수 있는 수용능력 등을 고려할 때 이들 대부분이 이곳에서 정착하여 생활하는 종이 아닌 이동 중 먹이를 찾거나 휴식을 취하는 종으로 알려져 있어 백령도와 인근도서는 조류의 이동 경로상 구난섬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생태환경 위해요소 및 대처 방안

2000년 6월 15일과 2007년 10월 4일 제 1, 2차 남북정상 회담을 통해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DMZ를 개발 또는 보전하자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더욱이 한반도 비핵화 진전과 현재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한다는 합의에 따라 조만간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활용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남북한 교류와 협력은 남북 경의선 및 동해선의 철도와 도로 연결과 더불어 제한적인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업단지의 통행로로써 활용하고 있다. 남북왕래 인구는 2000년에 7986명에 이어서 2004년도에는 26534명으로 증가되었고 교역규모 또한 2000년의 4억 달러에서 2002년도에는 6억 달러를 넘어섰다. 현재 남북을 연결하는 교통로는 철도는 4개와 국도는 6개 노선이 있고 증가하는 교류확대를 위해서 단절된 철도 및 도로 교통망의 재결합과 확충이 시급히 요구 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들 도로와 철도가 통과하는 대부분의 장소는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된 DMZ 지역으로서 생태계의 교란과 파괴를 불러올 수 있다. 강양석(2006)은 인간의 접근이 통제되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지켜져 온 DMZ의 자연생태계를 무분별한 개발압력으로부터 보호하고자 3가지의 개발 전제조건을 제시하였다. 첫째, DMZ의 개발의 최소화로 남북을 가로지르는 통행로를 최소화하고 최단시간에 머무르도록 한다. 둘째, 개발은 현재 남북의 개발상태와 인구 분포에 기본을 두고 고려하도록 한다. 셋째, 통행로는 동식물 보존을 우선으로 하는 형태를 가진다. 즉 우리나라 고속도로와 국도에 설치되어있는 생태통로와는 반대로 야생동물의 활동이 주가 되고 도로나 철로는 고가나 교량 위에 건설하여 야생동물의 서식에 전혀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환경부(2002)는 전국을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유기체로서 창조하고 관리하고자 전국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본구상을 구축추진 하였다. 지금까지의 개별 서식지 보호에서 전국 생태계의 체계적 보전 및 관리차원으로 생태와 경관적으로 우수한 지역을 서로 연결하여 동식물의 이동통로를 확보하여 한반도 북쪽의 동물이 한반도 남쪽까지 이동 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연결시키는 개념이다. 특히 DMZ지대는 바다, 백두대간 생태축과 연결하는 한반도 동서 생태축으로 특별 보전 및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한다. 그러나 DMZ의 자연생태계를 비롯하여 생태네트워크의 가장 강력한 위협요인은 도로와 철도 등의 인공 선형구조물로서 서식처의 파편화와 생물종의 고립을 심화시킨다. 단절된 생태축의 연결을 위해서는 생태복원 뿐만 아니라 생태통로 건설에 신중

을 가해야 할 것이다. DMZ는 남북관계 및 자연생태적 중요성을 모두 가진 곳으로 최근에 국제적인 관심이 모아 지는 특별한 곳이다. 따라서 평화와 통일을 준비해 가면서 DMZ의 생태계 보전도 함께 진행시키는 충분한 준비가 요구된다.

참조문헌

1. 강양석(2006) DMZ와 인접지역의 생태환경과 남북지역협력 동국대학교 북한학 연구소.
2. 김명수, 안동만, 조수민, 허학영, 신수안(2005) 생태통로 조성 국내외 사례 조사를 통한 개선과제 연구. 한국환경복원녹화기술학회지 8(2) : 41-56.
3. 김명수(2005) 생태통로 식재수종의 현황 및 문제점 고찰. 한국환경복원녹화기술학회지 8(1) : 17-26.
4. DMZ 생태와 한반도·평화(the DMZ's Ecology and Peace of the Korean Peninsula)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5. 산림청(2000) 비무장지대 및 인접지역의 산림생태 조사 종합 보고서 1995-2000.
6. 이용욱, 이명우(2006) 목표종 생태통로의 위치선정 -포유류 Road-kill 현장조사를 중심으로-. 한국환경복원녹화기술학회지 9(3) : 51-58.
7. 전익요, 한봉호, 홍석환, 이경재(2006) 의왕시 오봉산 육교형 생물 이동통로 모니터링에 8. 한국산지보존협회(2005). DMZ의 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의한 관리 및 개선방안. 한국조경학회지 34(1) : 10-20.
9. 한봉호, 김정호, 김종식(2005) 도심지역 산지형 근린공원내 도로에 의한 단절지역 생물이동통로 조성계획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33(2) : 16-31.
10. 환경부(1999). 자연생태계 복원을 위한 야생동물 이동통로 설치지침.
11. 환경부(2002). 21세기 한반도 생태공동체 건설을 위한 생태네트워크 구축 추진 전략.
12. 환경부(2003). 자연생태계 복원을 위한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
13. Bennett, A. F. 2003. Linkages in the Landscape: the role of corridors and connectivity in the wildlife conservation, IUCN Publications Services

Unit, UK.

14. Burbrink, F. T., Phillips, C. A. and Heske, E. J., 1998. A riparian zone in southern Illinois as a potential dispersal corridor for reptiles and amphibians. *Biological Conservation* 86: 107-115.
15. Collinge, S. K. 1998. Spatial arrangement of habitat patches and corridors: clues from ecological field experiments.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42: 157-168.
16. Fleury, A. M. and R. D. Brown. 1997. A Framework for the design of wildlife conservation corridors with specific application to Southwestern Ontario.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37: 163-186.
17. Forman, R. T. T. 1995. Land mosaics: The ecology of landscape and regions. Cambridge Univ.
18. Forman, R. T. T and Alexander, L. E. 1998 Road and their major ecological effects. *Annual Review of Ecological Systems* 29: 207-231.
19. Noss, R. F. 1987. Corridors in real landscapes: a reply to Simberloff and Cox. *Conservation Biology* 1, 159-164.
20. Thomas, C. D. 1991 *Ecological Corridors: An Assessment* Department of Conservation, Washington.